

C96-24/1997.5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정기환, 이상문, 민상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집필 분담

구 분	성 명	집 필 장 절
총괄책임자	정 기 환	요약,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9장
연구참여자	민 상 기	제7장
연구참여자	이 상 문	제8장

머 리 말

국가경제의 성장과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국민들의 레저와 관광활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활동 형태도 점차 다양화·개성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촌지역의 생태환경과 생활문화를 토대로하는 어촌 관광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어 왔다.

어촌지역은 바다가 지니는 온난한 기후와 독특한 해양생태, 수려한 자연경관, 고유한 해양문화, 청정 수산물의 생산 등 무한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어촌지역은 관광개발을 위한 자본이 부족하고 관광에 대한 인식과 경영관리 능력이 취약하며 도로와 교통수단이 미비하여 관광객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되지 못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증가하는 국민 관광 수요에 부응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관광개발을 통하여 낙후된 어촌지역의 개발과 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으며 관광개발을 통하여 해양생태의 보존과 수산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항만의 개발과 해안정비, 어촌지역의 정주환경 정비를 수반하게 되므로 어촌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목적 하에 우리 연구원이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도에 수행한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의 연구 결과를 독자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증간한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가 어촌지역의 개발과 관광개발에 관련된 학자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실용적인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7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우

빈

면

목 차

머 리 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5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제2장 어촌 관광개발의 연구 동향과 이론적 배경

제1절 연구동향	11
제2절 어촌 관광 수요와 개발에 관한 이론적 배경	15

제3장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쟁점과 대안 검토

제1절 녹색관광개발	30
제2절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개발	37
제3절 지역성을 살린 관광상품의 개발	45
제4절 홍보 전략 개발	53

제4장 어촌지역의 관광자원 분포와 개발 실태

제1절 어촌지역 관광자원 조사 개요	67
제2절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잠재력	72
제3절 어촌지역의 관광행태	87
제4절 어촌 관광지 개발 의사와 개발 가능성	96

제5장 어촌관광 참여 실태와 관광 수요

제1절 어촌관광 수요 조사 개요	105
-------------------------	-----

제2절 어촌 관광의 참여 실태	108
제3절 어촌 관광 여행의 만족도	127
제4절 어촌 관광 여행에 대한 향후 의사	130

제6장 어촌 관광지 유형별 특성과 개발 방향

제1절 어촌 관광지 유형 구분	148
제2절 어촌 관광지의 유형별 특성	156
제3절 어촌 관광지의 유형별 개발 방향	173

제7장 어촌 관광산업의 실태와 관광개발 정책 발전 방향

제1절 조사 개요	178
제2절 민박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79
제3절 횃집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87
제4절 어촌관광개발 정책의 평가	195

제8장 어촌관광개발계획수립 사례

제1절 어촌관광 개발계획 수립의 접근 방법	210
제2절 관광개발 대상지의 현황 분석	224
제3절 관광개발의 기본방향과 개발 목표	232
제4절 관광개발의 기본 구상	234
제5절 계획의 확정 및 실천	254

제9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1. 일본의 어촌관광 개발사례	270
2.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가구 조사파일	283
3. 노물리 어촌관광 자원목록	300
4. 노물리 주택 및 마을시설의 평면구성과 목록	325
5. 현지 조사표 양식	339

표 목 차

제4장

표 4- 1	도별 어촌계 현황과 관광자원 분석 대상 어촌계 규모	72
표 4- 2	자연적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잠재력	73
표 4- 3	도별 자연적 관광자원의 분포 실태	75
표 4- 4	해안별 자연적 관광자원의 분포 실태	75
표 4- 5	산업적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잠재력	77
표 4- 6	산업적 관광자원의 도별 분포 실태	79
표 4- 7	해안별 산업적 관광자원의 분포 실태	79
표 4- 8	문화적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잠재력	82
표 4- 9	도별 문화적 관광자원의 분포 실태	83
표 4-10	해안별 관광자원의 분포 실태	83
표 4-11	위탁적 관광시설의 분포 실태	85
표 4-12	어촌지역의 문화재 보유 실태	85
표 4-13	주요 관광자원간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관계	86
표 4-14	어촌지역 관광객의 성격	89
표 4-15	어촌별 관광객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	90
표 4-16	어촌지역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유	91
표 4-17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어촌의 자원 보유 실태와 전체 어촌과의 비교	92
표 4-18	어촌지역의 관광지 지정 실태	97
표 4-19	어촌지역의 관광지 개발 정도	97
표 4-20	어촌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지 못한 이유	98
표 4-21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	98
표 4-22	어촌의 관광지 개발 의사	99

표 4-23 개발 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어촌의 비율 100
 표 4-24 관광개발 잠재력을 지닌 어촌의 구분 101

제5장

표 5- 1 조사 대상자 거주지별 현황 106
 표 5- 2 조사 대상자 성별 현황 106
 표 5- 3 조사 대상자의 학력별 현황 106
 표 5- 4 조사 대상자 연령별 현황 107
 표 5- 5 조사 대상자 소득별 현황 107
 표 5- 6 조사 대상자 직업별 현황 107
 표 5- 7 어촌 관광 경험 여부 109
 표 5- 8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거주 지역별 관광활동 목적별 참여율 113
 표 5- 9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연령별 관광활동 목적별 참여율 113
 표 5-10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학력별 관광활동 목적별 참여율 114
 표 5-11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소득 계층별 관광활동 목적별 참여율 115
 표 5-12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거주 지역별 여행지별 참여 비율 117
 표 5-13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연령별 여행지별 참여 비율 117
 표 5-14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학력별 여행지별 참여 비율 118
 표 5-15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소득 계층별 여행지별 참여 비율 118
 표 5-16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 거주 지역별 현지 숙박 여부 120
 표 5-17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 학력별 현지 숙박 여부 120
 표 5-18 어촌 관광활동중 숙박 시설에 대한 거주 지역별 이용율 124
 표 5-19 어촌 관광활동중 숙박 시설에 대한 연령별 이용율 124
 표 5-20 어촌 관광활동 중 숙박시설에 대한 학력별 이용율 124
 표 5-21 어촌 관광활동중 숙박시설에 대한 소득 계층별 이용율 125
 표 5-22 어촌관광시 1인당 지출한 여행 경비 126
 표 5-23 향후 관광 목적의 어촌지역 여행 의사 131
 표 5-24 조사 대상자 성별 현황 131
 표 5-25 조사 대상자의 학력별 현황 131

표 5-26	조사 대상자 연령별 현황	132
표 5-27	조사 대상자 소득별 현황	132
표 5-28	1995년도 어촌 관광 활동과 미래에 희망하는 관광 활동 참여율 비교	133
표 5-29	향후 희망하는 어촌관광 활동	134
표 5-30	어촌 관광 활동 중 숙박 여부에 대한 연령별 비율	134
표 5-31	어촌 관광 활동별 학력별 주민의 참여율	135
표 5-32	어촌 관광 활동별 소득별 주민의 참여율	135
표 5-33	향후 희망하는 어촌 관광 형태에 대한 지역별 주민의 의견	137
표 5-34	향후 희망하는 어촌 관광 형태에 대한 연령별 주민의 의견	137
표 5-35	향후 희망하는 어촌 관광 형태에 대한 학력별 주민의 의견	138
표 5-36	향후 희망하는 어촌 관광 형태에 대한 소득 계층별 주민의 의견	138
표 5-37	어촌 관광 동반 희망자에 대한 지역별 주민의 의견	139
표 5-38	어촌 관광 동반 희망자에 대한 연령별 주민의 의견	140
표 5-39	어촌 관광 동반 희망자에 대한 학력별 주민의 의견	140
표 5-40	어촌 관광 동반 희망자에 대한 소득 계층별 주민의 의견	140
표 5-41	어촌관광 희망 계절에 대한 지역별 주민의 의견	142
표 5-42	어촌관광 희망 계절에 대한 연령별 주민의 의견	142
표 5-43	어촌관광 희망 계절에 대한 학력별 주민의 의견	143
표 5-44	어촌관광 희망 계절에 대한 소득 계층별 주민의 의견	143
표 5-45	어촌 관광 여행시 이용할 교통 수단	144
표 5-46	관광지 도달 적정 시간	144
표 5-47	향후 희망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의 의견	146
표 5-48	향후 희망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연령별 주민의 의견	147
표 5-49	향후 어촌관광시 희망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학력별 주민의 의견	147
표 5-50	향후 어촌관광시 희망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소득 계층별 주민의 의견	147

제6장

표 6- 1	어촌지역의 관광활동 유형 구분	150
표 6- 2	어촌지역의 관광 행태별 관광지 유형	151
표 6- 3	어촌지역의 관광자원별 수반되는 관광활동	152
표 6- 4	어촌 관광지 유형화의 기준이 되는 자원과 자원간의 결합 유형	154
표 6- 5	관광자원 중심의 어촌 관광지 유형	155
표 6- 6	어항 중심 관광지의 주요 자원 분포 특성	158
표 6- 7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지 주요 자원 분포 특성	164
표 6- 8	낚시터 중심의 관광지 주요 자원 분포 특성	168
표 6- 9	종교·문화 중심 관광지의 주요 자원 분포 특성	171

제7장

표 7- 1	어촌관광지 관광 산업체 조사 개요	179
표 7- 2	Hits집의 소유권과 경영권 보유 실태	187
표 7- 3	가동일수별 Hits집의 노동력 이용 실태	189
표 7- 4	Hits집의 노동력 이용 현황	190
표 7- 5	Hits집의 노동력 고용과 노임 창출 효과	192
표 7- 6	어촌관광 소득원 사업 지원 내용과 규모 및 조건	196
표 7- 7	어촌관광 소득원 사업 지원 실적	196
표 7- 8	정부지원하에 추진된 어촌관광사업체 사례 조사	197
표 7- 9	농림어업인단체 등의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범위	200
표 7-10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203
표 7-11	어촌종합개발 사업 내역	204
표 7-12	어촌종합개발 계획 중 관광개발 사업 내용	205

제7장

표 8-1	단계별 어촌관광계획 수립 과제와 주민 참여	212
표 8-2	노물리 관광자원의 분류 목록	228

표 8-3	노물리 가구 구성의 특성	231
표 8-4	노물리의 가구 유형별 분포	233
표 8-5	노물리 수산업의 현황	234
표 8-6	주민그룹별 어촌관광 개발의 구체적 목표	240
표 8-7	관광매력물의 개발 및 소득자원화 방안	243
표 8-8	목표년도(2005년)의 가구유형 예상	245
표 8-9	노물리 어촌관광 도입활동	247
표 8-10	노물리 어촌 관광시설의 종류와 규모	249
표 8-11	노물리 마을경관의 육성	251
표 8-12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	255

그림 목 차

제2장

그림 2- 1	어촌관광의 구성 요소와 관광개발의 개념	16
그림 2- 2	경제성장 단계와 자아실현의 가능성과의 관계	18

제4장

그림 4- 1	관광자원의 범주	69
그림 4- 2	관광객 수별 어촌의 분포 비율	88
그림 4- 3	어촌관광지역의 관광활동별 관광객 비율	89
그림 4- 4	어촌지역 전체와 관광객이 많은 지역간의 관광 행태 차이 ...	92
그림 4- 5	어촌관광의 관광 활동별 계절성	94
그림 4- 6	어촌관광의 단위 활동별 연간 관광객 흡입력	95

제5장

그림 5- 1	어촌지역 관광여행 참여율과 전국민 관광여행 참여율 비교 ..	109
그림 5- 2	어촌 관광 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	111
그림 5- 3	어촌 관광 여행 목적	112
그림 5- 4	어촌 관광시 여행한 지역	116
그림 5- 5	어촌 관광의 숙박 비율	119
그림 5- 6	숙박 여부에 따른 어촌 여행 목적 차이	121
그림 5- 7	숙박 여부에 따른 어촌 여행지 차이	122
그림 5- 8	어촌관광 여행시 이용한 숙박 시설	123
그림 5- 9	어촌관광 소요 경비의 규모별 지출 추세	126
그림 5-10	민박업소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27
그림 5-11	어촌마을의 관광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28

그림 5-12 향후 어촌 관광 여행 희망 비율130

그림 5-13 희망하는 어촌 관광 여행 형태136

그림 5-14 어촌 관광 여행 시기141

그림 5-15 어촌관광 여행 희망 기간144

그림 5-16 어촌 관광 여행시 희망하는 숙박 시설145

제6장

그림 6- 1 도시근교 어항이 있는 어촌: 김포 대명리 159

그림 6- 2 어항을 갖춘 어촌: 울진 오산 160

그림 6- 3 여객터미널과 어항을 갖춘 어촌: 해남 토말 161

그림 6- 4 해수욕장 만 갖춘 어촌: 울진 오산리 165

그림 6- 5 낚시터와 어항이 있는 어촌: 태안 신은리 169

그림 6- 6 종교 행사 중심의 어촌: 진도 회동 172

그림 6- 7 해수욕장 중심 어촌과 사찰 중심 어촌의 계절별
관광객 방문 패턴 175

제8장

그림 8-1 어촌관광 개발계획 수립 절차도 222

그림 8-2. 노물리의 위치도 225

그림 8-3. 노물리 마을 배치도 226

그림 8-4. 노물리의 가구유형별 분포 229

그림 8-5. 노물리 관광자원 분포도 235

그림 8-6 노물리 관광자원 목록(예시) 236

그림 8-7 관광루트 구성도 248

그림 8-8 노물리 경관특성 분석도 252

그림 8-9 노물리 경관조성 구상도 253

그림 8-10 노물리 어촌관광개발 기본계획도 256

빈

면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한국의 수산업도 17억불 이상의 수산물을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연안 어촌지역의 수산업은 낙후된 생산기술과 자본부족,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해양 오염으로 생산성이 낮아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소득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열악한 사회하부구조와 정주환경, 그리고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어촌 주민들의 이촌이 가속되고 있어 어업 자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안선과 도서 연안을 따라서 분산 입지한 소규모 어촌은 바다가 지니는 온난한 기후와 다양한 해양 생태, 수려한 자연경관, 고유한 해양 문화, 청정 수산물의 생산 등 무한한 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지역은 상대적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쇠퇴해 왔다. 특히 어촌지역의 젊고 생산성 높은 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수산업에 종사

할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남아있는 노동력도 노령화됨에 따라서 연안 어업의 생산성은 더욱 낮아지고 어촌공동체의 유지마저도 어렵게 되고 있다.

수산업은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연안 어민들의 소득은 크게 신장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산업의 성장을 주도한 부문이 주로 근해 및 원양 어업이었으며 어촌의 어민들이 주로 의존하는 연안 어업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의한 해양 오염, 공유 수면 매립과 간척 등에 의한 연안 어장의 축소 또는 황폐화도 연안 어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성쾌외, 1995).

수산업이 발전하면서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연안 어민들의 소득과 복지가 상대적으로 낙후된다는 것은 역설적인 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산업의 발전을 어민들의 소득과 복지 수준으로 측정하지 않고 수산업 생산의 효율성만을 강조해온 기존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어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어촌 지역의 어장과 어촌의 공간적, 경제 사회적 제분야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장기적인 개발계획이다. 그러나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어항 시설과 어업 기반 확충에 치중하고 있다. 수산업 정책도 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산업 구조개선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근해 및 원양 어업, 그리고 고도의 자본과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어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업 생산 기반이 확충되고 수산업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촌지역의 정주환경과 연안 어민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산업의 구조개선사업은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구조개선의 결과가 영세한 연안 어민들의 경제활동과 직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적 수산인들은 대부분 쾌적한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촌에 남아있는 영세한 어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연안의 공동어장에 의존하면서 영세한 어업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산업의 구조개선이나 어업의 생산기반 확충과는 별도로 영세한 연안 어민들의 소득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국민경제의 향상으로 관광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증대되는 국민들의 관광 수요를 수용할 관광지 개발이나 시설의 개발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들의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1960년대부터 대규모로 육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주도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은 대중적인 관광산업은 발전시켰지만 관광의 행태가 획일화되고 관광 수입 또한 대규모 관광산업 종사자들에게 편중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대규모 리조트 건설로 인한 자연 훼손과 대규모 관광객 수용에 의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과 함께 대중관광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로 내국인의 관광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광행태도 크게 바뀌고 있다. 국가경제의 향상과 국민 의식의 발전, 자동차의 보급으로 국민관광은 대규모의 획일화된 행태에서 벗어나 점차 가족단위의 자연탐사, 문화유적 답사, 농어촌 생활체험 등으로 다양화, 개성화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단조로움과 공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시인들의 증가로 농어촌 지역의 자연경관과 농어촌 문화 및 농어촌 생활체험을 추구하려는 농어촌관광¹⁾ 또는 녹색관광(green tourism)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¹ 여기서 농어촌관광은 농업관광(agricultural tourism), 농어촌관광(rural tourism), 관광어업(fishery tourism)등의 총칭으로 사용한다.

정부는 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횃집, 민박업, 주차장 시설, 수산물 직판장 등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어촌계 중심으로 어촌지역에 입지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부진한 가운데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사업(community based tourism)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대부분 특정인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어촌 관광개발사업은 각각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주민 참여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업이 어촌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사회 하부구조 개선과 연계되지 못하고 관광 어촌 육성에 필수적인 아름다운 어촌의 경관 가꾸기 조건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어촌 관광개발사업은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어촌 관광개발 사업을 통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어촌마을의 경관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연안 어업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WTO 시대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어촌도 지역이 지닌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어촌 주민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어촌 지역은 주민 스스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방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주민 본위의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즉 어촌 관광개발은 주민 본위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의 한 유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촌 관광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 하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고 지역의 관광자원이 외부의 자본에 점유되어 어촌관광의 개발 효과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인문사회환경 및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함에 있어 이를 전적으로 외부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어촌 주민들의 자본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관광 상품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 하에 지역 주민들의 자치적 방식으로 개발·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는 소규모 어촌지역이 지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영세한 어촌주민들의 소득을 확충시키고 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자원의 보존과 이용, 그리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어촌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의 자원을 지역주민 본위로 개발해 나가는 지역사회개발의 한 유형을 마련하는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2절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어촌지역의 관광자원의 분포와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며, 향후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관광 어촌의 유형 구분과 사례지역의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어촌 관광개발 계획수립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한다. 첫째 부분은 어촌지역의 관광 잠재력 분석과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다. 이를 위해서 어촌지역의 관광

자원의 분포와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기존의 어촌 관광산업에 대한 실태 분석과 어촌관광개발 정책을 분석하여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가능성과 개선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부분은 하나의 어촌에 대한 어촌 관광개발 계획수립 사례연구를 통하여 어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연구다. 이 연구를 위해서 사례연구 지역을 선정하고 사례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계획수립 단계별 고려 사항과 주민참여 방안 및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잠재력 분석 및 개발 방향

(1) 어촌지역의 관광자원 분포와 이용 실태 분석

- 어촌 관광자원의 분포 실태 분석
- 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잠재력 분석
- 어촌 관광자원의 이용 실태 분석
- 어촌 관광의 행태 분석

(2) 어촌 관광 수요 분석

- 어촌관광 참여 실태
- 어촌 관광의 만족도 분석
- 향후 어촌 관광 희망 의사

(3) 어촌 관광산업 개발 실태 분석

- 어촌 관광상품 개발 실태
- 어촌 관광산업의 형태 및 운영실태

- 어촌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점
- 어촌 관광개발이 주민소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어촌 관광개발과 관련된 정책 분석

- 관광 어촌 개발 정책
- 어촌종합개발 정책

(5) 어촌 관광개발정책 개선 방안

나. 어촌지역 관광개발 계획수립사례 연구

(1) 기본 구상

- 지역의 관광 부존자원 실태와 개발 수요
- 관광개발의 잠재력과 관광 대상별 관광 수요 전망
- 상위 개발계획과 인근 관광권과의 연계 개발 가능성
- 관광개발의 기본방향

(2) 관광기본 계획 수립

- 지역 부존자원의 관광상품화 방안
- 관광 시설 개발 계획

(3) 관광사업 추진계획

- 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주민 조직화 방안
- 재원조달 방안과 투자계획
- 관광홍보전략과 관광객 유치계획

2. 연구의 범위 및 용어의 정의

○ 관광 :

- 여행 : 직장인의 통근 및 학생의 등하교를 제외한 상용과 관광목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행위
- 관광 : 여행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활동의 총칭.
- 관광객 : 관광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여가활동과 업무수행, 친지방문, 회의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자

○ 어촌 :

군이하 또는 통합시의 읍이하의 행정구역에 분포하는 해안 마을로서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

○ 어촌관광 :

어촌이 지니고 있는 자연 및 인문환경을 관광의 대상으로 하는 행위

- 자연환경 : 해양, 해안, 기암, 동굴, 갯벌, 산천, 수목, 기후, ...등
- 인문환경 : 수산업 등 경제활동, 주택 사찰 등 건축물, 사적지, 생활양식, 전통공예 및 예술활동, 시장, 음식,등

○ 어촌관광개발 :

어촌이 지니는 자연 및 인문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여 도시민에게 휴식, 휴양, 문화활동, 생활체험, 레저활동 등에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에 의해서 어촌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 관광시설, 관광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어촌 관광개발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한다.

- ① 수산업영역 : 어획물 및 어장, 어항의 관광상품화
- ② 해양자원관리영역 : 해양과 해안을 이용한 레저활동 개발
- ③ 어촌취락정비영역 : 도로, 주택, 편익시설, 레저.휴양시설, 경관정비

- ④ 문화활동영역: 전통적 생활양식, 관습, 문화활동의 관광상품화
- ⑤ 경영관리영역: 관광단지조성, 시설관리, 관광서비스업 경영능력 배양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

상위계획, 관광개발과 관련된 제도적 제약 요인 분석, 기존의 어촌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성과 분석을 위해 기존의 문헌을 분석한다.

나. 설문조사 :

- 어촌지역의 관광자원 분포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적으로 추출된 어촌계를 통하여 어촌지역의 관광자원 분포와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 어촌지역의 관광 수요 조사를 위하여 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다. 현지조사 :

- 국내 현지조사:
 - 어촌 관광개발 실태와 문제점 분석, 관광산업의 행태 분석을 위해 국내 주요 어촌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해외조사:
 - 외국의 어촌 관광사업의 개발, 운영, 주민 참여방안 등을 분석하기 위해 외국의 어촌 관광개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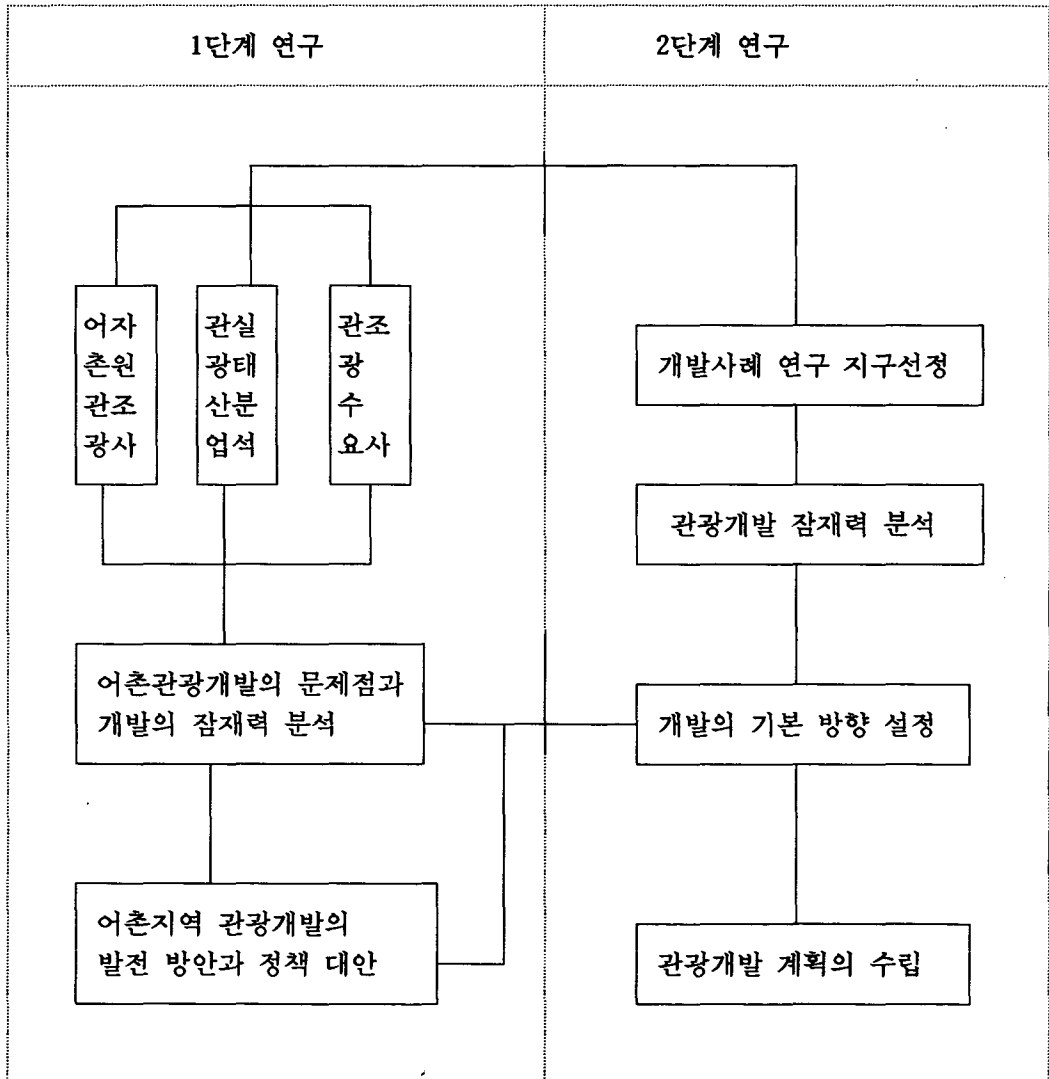
라. 어촌관광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사례연구

- 면단위 이하의 사례지역(1개 어촌계 중심)을 선정하여 어촌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조직을 이용한 구체적인 개발사례를 연구한다.

마. 협의회

연구 방향 설정, 주요 개발수요 및 개발계획에 관한 주민 의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 단체, 주민조직 등과의 협의회를 개최한다

4. 연구 추진 체제



제 2 장

어촌 관광개발의 연구 동향과 이론적 배경

제1절 연구동향

어촌지역은 경관이 수려하고 육지와 다른 생태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관광지점 휴양지로 개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개발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촌지역은 관광지로서 개발이 유보된 채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는 어촌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하나로 어촌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헛집과 민박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1984년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역사가 일천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 또한 미미하다.

어촌관광개발에 관한 연구는 크게 관광개발에 관한 이론 연구, 관광지 조성 과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그리고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어촌 관광개발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두드러

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연구가 어촌지역의 관광지 조성과 관련된 어촌 관광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에 치중되고 있다.

1. 어촌 관광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어촌 관광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는 관광자원 조사, 관광 수요 조사, 개발 실태 조사 등과 같은 관광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와 관광지 조성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기법개발 등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는 “전국 관광 장기 종합개발 계획(1989)”, “관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1993)”, “해안 관광자원 조사 연구(1993)”, “전 국민 여행 동태 조사(1991)”등을 통하여 어촌지역의 관광을 포함한 전국의 관광자원과 시설현황, 관광 수요 전망, 관광개발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관광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대중관광을 위한 관광 수요 추정이나 관광자원 개발, 대규모 관광지 개발 등에 치중하고 있어 낙후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실태 분석과 관광개발 방안에 관한 대안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1993년도에 실시된 해안 관광자원 조사 연구는 전국의 해안별 관광자원과 관광 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지만 대규모 관광자원 조사가 기존의 대규모 해안 관광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조사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어촌지역의 구체적인 관광자원의 실태와 이용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국관광공사는 1996년도에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하여 해안·어촌형 관광개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델은 어촌지역에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확보하여 하나의 집단적 관광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 모델은 관광단지를 농어촌 지역에 조성하면서도 기존의 농어촌 사회를 근거로 하지 않고 신규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막대한 신규 투자를 전

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관광이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하는 신규 농어촌 관광지 조성은 그 투자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모델은 관광지를 조성하는 주체를 밝히지 않고 이러한 관광개발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어촌지역의 생활문화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의 주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농어촌 관광 개발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어장, 어항, 어촌을 통합한 어촌 종합개발 모형 수립에 관한 연구(1994)”는 어촌 관광개발이 기본적으로 어장과 어항, 어촌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이 세부분이 하나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공간단위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어촌관광개발을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종합개발 방식으로 접근한 사례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도로, 주택, 상하수도, 항만, 어장 개발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어촌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995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어촌지역의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 과제 연구”는 어촌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어촌 관광산업 실태를 분석하고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문제점과 향후 개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기성(1985) 김용택(1987) 등은 어촌지역의 관광 여건 분석과 관광 수요 전망 분석 등을 통하여 어촌지역의 관광지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신순호(1991), 박유정(1992), 강신겸(1994)등은 도서지역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어업 생산활동 자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권옥진(1995)은 “남해 노루목 관광어촌 마을 기본계획 연구”에서 주민본위의 개발 방식과 주민 참여 방식을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개발 방식과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촌 관광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어촌 관광개발 효과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이 경제·사회적으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만 어촌 관광개발 사업에 관한 정책 평가나 개발 효과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미하다. 신만숙(1990)은 태안 해안국립공원, 안면도와 대천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이 상승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관광개발의 이익이 상인과 자본투자가 등 특정 계층에게만 한정될 뿐 어민을 포함한 일반 지역주민들에게는 분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관광지로 개발 될 경우 주민들은 고용 효과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물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주민들의 소비 증대 등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관광개발이 이 지역의 문화 시설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지역 인심과 미풍양속의 파괴, 청소년의 탈선, 범죄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했고 무엇보다도 관광지 개발에 의한 자연 훼손, 상수도원의 오염, 기타 환경 오염 등에 대해서 높은 부정적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안지역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에 의한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본 동원과 경영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어 개발 이익이 전체 주민에게 파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관광개발로 인한 편익 및 문화 시설에 대한 발전을 기대하면서도 기존의 사회질서와 전통문화의 훼손, 환경 파괴 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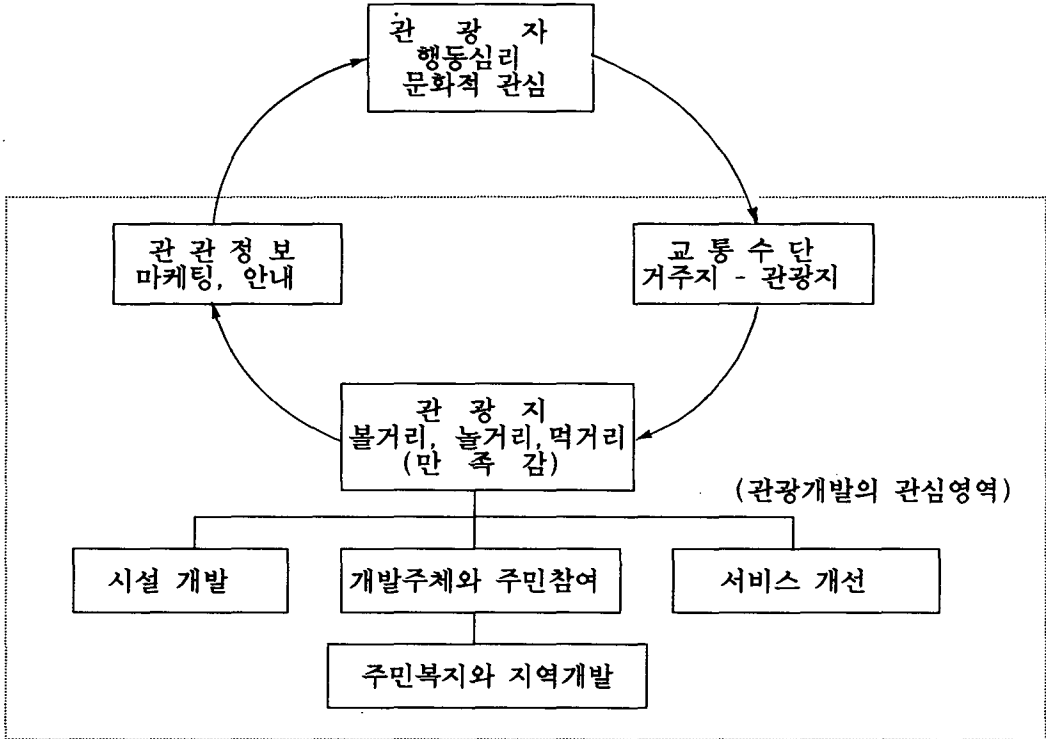
제2절 어촌 관광 수요와 개발에 관한 이론적 배경

어촌관광에 관한 이론은 관광수요 이론과 관광개발 이론으로 구분해서 고찰할 수 있다. 관광수요 이론은 관광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행동 심리와 문화적 관심 사항을 분석하여 관광자들로부터 관광 수요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며 관광개발 이론은 관광자들의 관광 수요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관광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하며 이의 반대 급부로 소득이 발생되고 지역개발 효과가 창출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관광은 관광자와 관광 서비스 제공자, 관광지와 관광 시설 및 관광 서비스 제공, 그리고 관광자에게 필요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일, 관광자가 관광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을 강구하는 일 등으로 구성된다. 관광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행동 심리에 의해서 관광에 대한 관심과 관광 욕구 등을 나타내고 있지만 관광지 또는 관광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관광정보를 통해서 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교통수단은 관광자가 관심 있는 관광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메카니즘이다. 따라서 관광지에 대한 정보와 교통수단의 개발은 관광자를 관광지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

관광지는 여러 관광 시설과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광자에게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잠자리를 제공한다. 관광자는 이와 같은 관광거리와 관광지의 호스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의해서 관광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관광자들이 지불하는 시설이용과 서비스의 대가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지역 개발의 원천이 된다.

그림 2-1 어촌관광의 구성 요소와 관광개발의 개념



자료 : Clare A. Gunn(1979)에서 수정, 재 작성

1. 관광수요 이론

관광수요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인간의 개인적 행동 동기와 문화 및 사회심리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동기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를 중시하는 반면 문화와 사회심리 이론은 문화와 사회환경이 인간의 행동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행동 동기를 촉발시키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 인간 행동 동기 이론과 어촌 관광 수요

모든 인간의 행동은 동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관광이라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행동 동기를 유발하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간 행동에 관한 심리이론에 의할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욕구, 아름다운 것에 대한 추구, 변화 및 오락에 대한 욕구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하게 되면 관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매스로(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 섭취나 휴면 등 생리적 욕구를 1단계로 하여 생명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 인간으로서 이웃과 어울리고 사회적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귀속의 욕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하고 싶은 자존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고자 하거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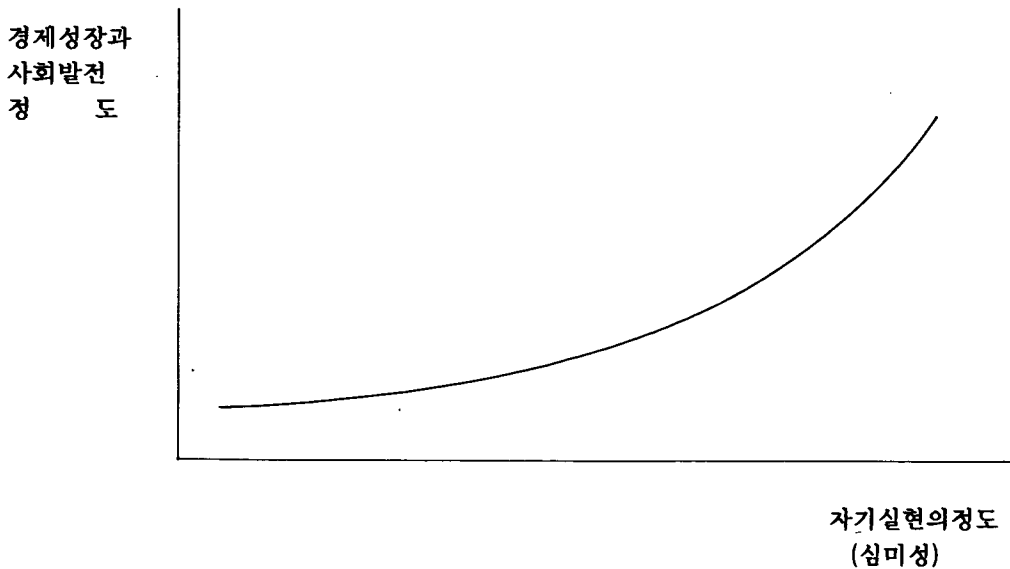
매슬로는 인간 욕구의 위계적 단계에서 인간의 욕구 충족은 낮은 단계에서 점차 상위의 욕구 단계로 이동하면서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즉 인간은 낮은 단계의 욕구에 대한 충족이 있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고²⁾ 있으면서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으로 심리학을 비롯하여 경영학 등 여러 학문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

²⁾ 인간의 욕구는 매슬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상 위계적인 구조를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슬로의 이론은 비판받고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로 하는 욕구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매슬로의 동기 이론은 사람들의 욕구와 일에 대한 만족도가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영학에서 인력 관리와 노사관리에 응용되고 있다. 즉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낮은 단계의 욕구 만족에 보다 관심을 보이는 반면,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인간 욕구 만족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론에 의할 때 사람들은 경제·사회적 지위나 상태가 높아질수록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고 새로움에 대한 추구하고 관광에의 욕구가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보다 높은 욕구 단계에 도달할수록 관광에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그림 2-2 경제성장 단계와 자아실현의 가능성과의 관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개인에 있어서 경제·사회적 지위나 상태가 높을수록 자아실현이나 창조, 새로움에 대한 욕구, 심미추구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자아실현 기회는 많아지게 된다.

즉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발전 단계가 낮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경제적 발전 단계가 높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아실현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갖게 된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민들은 여행, 관광 등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한편 일본관광협회(1976)는 인간의 관광 욕구를 다음과 같이 지적 욕구, 심리적 욕구, 사회적 욕구, 활동적 욕구, 보양적 욕구, 경제적 욕구 등 6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지적인 욕구: 자연명소, 지역의 풍속 등 관광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
 - 심리적 욕구: 관광을 통하여 기분전환, 해방감, 호기심, 모험심 등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
 - 사회적 욕구: 미지의 사람과 만나 우정을 나누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도하고 인정도 받고 싶은 욕구
 - 활동적 욕구: 신체를 단련하고 운동을 즐기려는 욕구
 - 보양적 욕구: 건강유지를 위하여 신체를 쉬거나 보양 목적으로 온천욕, 휴양 등을 취하려는 욕구
 - 경제적 욕구: 물건을 구입하거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여행하려는 욕구
- 위의 견해에 따를 때, 인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새로움의 추구, 미적 감상의 추구, 신체적, 심리적 쾌적함의 추구 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관광여행을 하게 되므로 관광 수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문화와 사회심리 이론과 어촌 관광 수요

(1) 경제성장과 어촌 관광 수요

소득 수준과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여가를 즐기기는 어렵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이 향상되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여가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관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국민경제의 성장과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다양한 레저활동의 추구에 의해서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도 증가하게 된다.

국민경제의 성장과 소득의 향상으로 도로, 교통, 통신 등 관광에 필요한 하부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 오지로 남아 있던 어촌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게 되어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교통 조건의 제약 때문에 관광 행위는 자연 대중적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의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과 도로 개발로 개인들의 관광 행위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외적 메카니즘을 확보하게 되고 이와 같은 외적 여건의 변화는 관광주체인 소비자의 심리적 개성화와 결합하여 관광행위는 더욱 다양하게 전개된다. 따라서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가 더욱 확대되게 된다.

관광의 주체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촌관광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경제가 성장하고 여가가 확대됨에 따라서 레저 및 스포츠와 관광 여행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고 보통 사람들의 생활속에 보편적 생활 패턴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은 사회가 지니는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생활 패턴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둘째, 관광이 현대인의 보편적 생활문화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서 관광 행태

가 개인의 취미와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관광 행태에 대한 수요 충족의 일환으로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관광이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대중적인 관광으로 그 유형이 획일성을 지니지만 점차 개인의 취미와 문화적 성향에 따라서 개인중심, 또는 가족과 같은 소규모 친밀집단을 중심으로 관광패턴이 개성화, 다양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여가가 증대되면 개개인의 경제적 여유와 자아실현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따라서 관광 주체인 개인들의 관광 패턴이 다양화되고 개성화 되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대중적인 관광지를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관광행태를 즐길 수 있는 농어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게 된다.

(2) 포스트 모더니즘과 어촌 관광 수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지만 관광 수요와 관련해서는 두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현대성(modernity)의 반대 의미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현대성을 전통성의 연장으로 보려는 견해다. 반현대성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성이 전통성을 거부했던 것과 같이 현대성을 거부하고 전통성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다. 즉 일단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현대 문명으로부터 탈피하여 전통으로 회귀하려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산업화의 진전으로 현대 산업문명에 식상한 사람들이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심리가 증가하고 인공적인 도시환경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연환경을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촌지역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광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성을 전통성의 연장으로 보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견해로는 현대성에 잊혀졌던 전통성을 접합시키려고 시도한다.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잊혀져가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이나 전통적 문화 등을 현대의 생활에 접목하려고 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전통적인 생활양식, 문화 등을 체험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생활문화가 살아 있는 농어촌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전통적인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3) 반문화 이론과 어촌지역의 관광 수요

반문화(conterculture)란 보편성을 지향하는 기존 문화를 거부하는 일부 집단이 그들만의 독특한 하부문화(subculture)를 구축하는 일단의 문화 유형을 의미한다. 반문화론에 의하면 현대인, 특히 젊은 층의 일부 집단은 기존의 문화 패턴을 거부하려는 성향을 지니며 기존의 문화에서 정착하고 있는 대중관광지를 여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부분의 관광객이 찾지 않는 오지, 벽지를 방문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 반문화론자들은 기존의 대중 관광지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광 행태와 가치까지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대부분 배낭 여행을 하며 기존의 문화에 반하는 관광 행위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촌지역의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에 기능적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³⁾

이상에서 어촌지역의 관광 수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개인의 행동 동기 이론과 문화 및 사회심리 이론을 검토하였다. 개인의 동기 이론은 개인들의 관광 욕구를 설명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나 어촌지역의 관광수요 증가를 행동 동기 이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문화 및 사회심리 이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어촌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는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관광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로개

³ 이와 같은 반문화집단의 예로 히피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성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특한 의상과 생활양식을 취하고 마약 등을 복용하며 여행지의 문화를 오염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발, 교통조건의 개선, 신속한 관광정보, 소득증대 등 물적 기반의 구축에 의해서 급속히 확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이론

어촌지역의 관광지 개발은 그림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광지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개발하는 일과 관광시설,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것을 포괄하며 이 과정에서 개발주체의 문제와 지역개발의 문제 등을 포함한다. 관광개발은 정부와 민간부문 모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두 부문이 합동으로 이를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이론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가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에 개입하려는 이론적 배경은 시장경제학적 관광개발이론, 후생경제학적 관광개발이론, 종속론적 관광개발이론, 환경친화론적 관광개발이론 등 네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가.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시장경제학적 접근

정부의 관광개발 정책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과 관광서비스 종사자 즉 관광업자 중심의 정책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어촌지역 관광개발에서 소비자 중심의 관광개발 정책의 배경은 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광행위 당사자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경관이 좋은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는 곧 소비자들의 관광에 대한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에 의한 어촌지역 관광개발 정책은 국가 경제의 성장, 개인의 소득 증대, 레저 문화의 개성화와 다양화 등에 의한 전 국민의 관광 수요 추정 등을 토대로하여 전국의 관광지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개발하려

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실시되는 관광개발 정책은 어촌과 해안지역을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는 일이 주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주체와 주민참여, 지역개발의 필요성 등 지역 주민의 관심 사항을 소홀히 다루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나.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후생경제학적 접근

관광종사자나 관광업자 중심의 어촌지역 관광개발 정책은 소비자의 입장보다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혜택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 경우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촌지역의 주민들로서 어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지역의 개발을 주 정책 목표로 어촌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어촌 관광개발 정책은 주로 후생경제학적 입장에서 농어촌개발의 한 전략으로 추진되어 왔다. 농어촌지역은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개발의 한 전략으로 취해 온 불균형 성장의 결과로 상대적 저발전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지역의 생산성 저하, 경제활동 위축, 이농·이화에 의한 노동력 부족과 영농·영어후계자의 단절 등으로 심각한 경제·사회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지역간 불균형 성장은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심화시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국 불균형성장을 시정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지역에 관광산업을 유치하여 농어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젊은 인력을 정착시켜 농어촌을 활력 있고 삶에 매력이 있는 정주공간으로 만들고자 농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이론에 근거한 어촌지역 관광개발 정책은 관광지 개발에 관심이 치우친 나머지 관광 행위자인 소비자의 입장과 시장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지역개발과 지역 주민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관광개발 계획을 시행하려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시장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조성된 관광지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운영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종속론적 접근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종속론적 비판은 지역자원의 외지인 지배와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및 지역주민의 개발 참여 기회 상실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어촌주민들은 훌륭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개발할 자본과 관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등의 대자본에 그 개발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필연적으로 지역자원의 외지인 지배를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개발 이익이 외지로 유출된다. 특별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인 어촌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된다고 해도 관광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외지인에 의한 관광개발, 특히 대자본에 의한 대규모 관광개발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지역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다.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이 이와 같은 종속적 지배 관계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지역 자본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개발과정과 관광사업 운영에 지역 주민의 참여 폭이 넓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민 본위의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이 대규모로 단시일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역주민이 자주적으로 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적정 규모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80년대에 개발된 대중관광지는 개발의 주체가 지역

주민이 아니고 자본 또한 지역 자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자원의 도시 자본가 지배를 면하기 어려웠고 관광지의 개발이 지역사회개발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외지자본에 의한 지역자원의 지배라는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지자본을 배제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의 자본만으로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는 어렵다. 관광개발은 고도의 자본과 서비스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고급 서비스 산업인 만큼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지역 자원에 대한 외지인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 주민 본위의 개발주체를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과 정부와 민간자본의 협조 체제가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환경친화론적 접근

환경친화론적 입장에서의 어촌 관광개발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사회의 공익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관광개발 정책이다. 대규모 대중관광개발은 개발 과정에서 흔히 환경파괴와 자원 고갈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해안지대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주거환경 및 생산활동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산림과 방풍림 등이 제거되고, 대규모 관광객의 유입으로 청정 해역이 오염되고 수산물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민들의 생활터전이었던 백사장과 갯벌과 바다는 관광객의 해양스포츠의 장이 되고 이 지역의 수산자원은 고갈된다.

해안지대의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가져오는 이와 같은 부정적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본래 어촌이 지니는 해양생태와 수산경제적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수산자원과 자연자원을 보호하면서 수산물 생산활동과 관광행위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개발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소규모 개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은 개발의 집적효과가 적어 개발의 효과가 더디고 그 크기도 적은 단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친화론적 소규모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과제는 여하히 환경과 경제활동을 유지·보존하면서도 적정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속적으로 관광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에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어촌 관광개발과 관련된 제 이론을 검토해 볼 때, 어촌 관광개발은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어촌관광개발은 점증하는 국민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촌지역의 관광자원과 관광시설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자원의 개발은 관광상품 개발을 의미하며 도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각종 편의시설,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장 등 시설개선이 수반되어야 하고 관광객이 도시지역의 관광업소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 이상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어촌 관광개발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로 연결되어 어촌 주민들의 복지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촌 관광개발 정책이 도입된 것은 도시 관광객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이 첫째의 목적이다. 따라서 어촌 관광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역개발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어촌 관광개발 정책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셋째, 어촌 관광개발은 외부의 자본에 의해서 어촌지역의 자원이 점유되지 않도록 어촌 주민의 주도적 참여 하에 주민 본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어촌 관광개발을 주민들만의 힘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하고 민자가 유치될 경우에도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되고 관광개발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어촌관광개발이 생태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기존의 수산업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촌 관광개발은 급속한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며 적정 규모로 점진적인 개발을 지향한다. 낙후된 주택이나 도로, 마을 구조는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어구와 어장, 생산기술은 개량되어야 하지만 어촌의 전통적 특성은 살려야 하며 현재 어촌생활의 원형이 유지되어야 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 어장이 황폐되어 고기잡이를 할 수 없는 어촌은 더 이상의 어촌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곳에 어촌관광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제 3장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쟁점과 대안 검토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에 관한 쟁점은 크게 어촌지역을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성격의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가?” 라는 점으로 요약된다.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논의할 때 흔히 녹색관광 개발을 거론한다. 그러나 녹색관광의 의미는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개발 주체에 관한 문제도 개념적으로는 주민본위의 개발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주민본위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어촌지역의 관광지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어촌지역의 관광 매력과 이에 관한 관광 정보를 도시의 관광객들에게 소개하여 이들을 어촌지역으로 유치하는 홍보 전략이다. 이 장에서는 녹색관광개발의 의미를 살펴보고 어촌 관광개발에 녹색관광 개발 전략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와 개발주체의 문제, 관광 상품개발의 문제, 어촌 관광지 소개를 위한 홍보전략 등 어촌 관광과 이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과 그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녹색관광개발

어촌지역 관광개발이 지니는 가장 큰 특성은 어촌지역이 지니는 자연환경과 생활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이와 같은 환경을 추구하는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그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관광은 녹색관광(green tourism)을 표방한다. 녹색관광(green tourism)은 국가마다 그 사용하는 의미가 약간 다르나 대부분 농업관광(agricultural tourism) 또는 농어촌관광(rural tourism)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녹색관광이 발전되어 온 동기와 그 과정도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다.

독일에서 녹색관광은 농업 및 농촌관광을 의미하며 도시인들이 농촌지역의 농가나 숙박업소에서 머물며 농업과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말한다. 즉 “농촌에서 휴가를”이 독일의 녹색관광이 표방하는 캐치프레이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녹색관광은 “농촌지역에서의 휴가”와 “농가에서의 휴가”라는 두 개념을 모두 지니고 있다.

독일의 녹색관광은 농업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소재로 농가가 관광객을 유치하여 이들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겸업소득을 올리는 것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면서 시작되었다. 농가들은 자신들의 주택 일부를 이용하거나 관광객을 위해 별도로 농장에 전용 주택을 신축하여 민박을 제공한다. 독일 녹색관광의 주 요소는 농촌, 농가, 농업이며 여기에 부분적으로 현대적 스포츠와 레저가 가미되는 형태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의 녹색관광은 관광행위자인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주민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자연과 레저를 즐기는 프랑스인들에게 휴가는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값싸게 휴가를 지낼 수 있는 방

안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모색되어 왔고 이의 대안 중의 하나가 농촌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다.

한편 전통과 문화를 중요시하는 프랑스인들에게 농촌지역은 오랜 건축물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의 현장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영향으로 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나자 농촌에는 빈집들이 발생하게 되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빈집들은 폐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편 유서 깊은 농촌지역의 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것은 프랑스 상류층이 즐길 수 있는 고급문화로 도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의 유서 깊은 농가에서 체류하며 휴가를 즐기는 것을 도시 서민들은 동경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농촌지역의 빈집들을 수리하여 도시의 휴가자들에게 빌려주는 일은 농촌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일이자 농가의 겸업수입을 증가시키는 일이 된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녹색관광 산업은 도시민과 농촌주민 쌍방의 필요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

프랑스의 녹색관광이 제공하는 숙박시설은 민박과 호텔, 휴가촌의 캠프장, 간이 숙소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박은 호텔보다 값이 싸고 인간적 친밀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으며, 민박의 형태도 빈 집 전체를 빌려주는 형태, 기존 주택의 방의 일부를 빌려주는 형태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의 녹색관광은 농촌에 남아 있는 전통 주택의 유지, 전통문화의 보존, 폐가의 활용, 농촌인구의 유출 방지, 도시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값싼 숙박을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녹색관광은 농촌관광 또는 전원관광이라고도 불리며 녹색관광을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보존과 국토가꾸기, 지역의 전통문화와 전통적 건축물의 보존,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며 이와 동시에 도시민에게 자연속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녹색관광은 독일식의 농촌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추구하는 녹색관광과 가깝지만 프랑스가 추구하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도시민들에게 녹색의 관광

을 제공한다는 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다. 1991년 6월에 개최된 제19회 전국농협대회에서 제창된 “21세기를 통한 농업·농촌진흥을 위한 쾌적한 지역 만들기”운동은 지역농업진흥계획, 농촌마을의 환경보존, 농촌마을 정비대책,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며 특히 농촌 전원도시 건설과 농촌형 휴양정비 대책 등은 농촌생활종합센터 정비,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시설, 음식시설, 민박시설, 농업공원시설, 임대농원, 별장, 어린이촌 등을 포함하여 도시민의 농촌교류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설 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녹색관광의 특징을 살펴볼 때, 어촌관광에서 녹색관광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특징화할 수 있다.

1. 도농교류적 관광

녹색관광은 도농교류(都農交流)를 통하여 문화교류와 문화 진흥의 역할을 한다. 프랑스와 일본에서와 같이 녹색관광을 통하여 유서 깊은 건축물이나 생활문화가 보존되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 전통문화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상품으로 실생활속에 재현된다. 도시주민들은 어촌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어촌의 생활문화를 체험을 통하여 이해하고 어촌 생활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어촌생활에 대한 정체성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

어촌 생활에 대한 정체성의 확인은 어촌 주민은 물론 도시민들도 어촌의 생활이 사라져 갈 열등적인 생활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가치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촌의 생활문화가 보편성을 지니는 생활문화로서 존속되게 되며 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들도 자신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긍지를 지니게 되고 삶의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하게 된다.

한편 어촌의 생활은 도시의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개량, 개선되기 때문에 어촌의 생활문화는 꾸준히 그 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더욱이

도시적인 문화가 어촌 문화와 융합하여 더 훌륭한 생활문화로 정착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도농교류적 관광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가. 어촌·어가에서 휴가를 즐기는 관광

관광의 대상지역은 어촌지역이며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서 주말 등 휴가를 보내는 관광이다. 따라서 녹색관광의 개념에서 볼 때, 관광객의 숙박은 대부분 어가의 민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박이 아닌 호텔이나 간이 숙소, 캠프장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녹색관광의 개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숙박시설은 보조적인 숙박시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촌관광에서의 숙박은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어가 주택, 또는 비어있는 어가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민박용 숙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녹색관광은 도시민들이 적은 경비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과 같이 어촌 주민들도 적은 자본을 투입해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가급적 대규모의 신규 투자를 줄이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신규 투자가 필요할 때에는 어가의 취약한 경제력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나. 어촌의 생활문화를 토대로 하는 관광

어촌지역에서의 녹색관광의 또 다른 특징은 어촌, 어업, 어가의 생활문화를 주 관광요소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촌의 삶 그 자체가 매력있는 상품이고 또 매력있는 관광상품으로 가꾸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농업적 요소들만으로 관광행위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기 쉬운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스포츠인 스키, 골프, 승마, 등산 등이 녹색관광 상품으로 가미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대적인 스포츠와 레저의 경우도 그 배

경이 어촌이고 어업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 체험적 관광

어촌지역에서의 녹색관광은 체험적 관광을 중시한다. 어촌관광에서 체험은 어업생산 또는 어업과 관련된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얻기위한 실생활체험이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어업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즐기고 여기서 얻은 수확물의 대가를 어민들에게 지불하고 이를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의 관광적 목적의 생활체험이 있다.

어촌관광에서 체험관광은 어촌생활에 대한 도시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어촌생활의 가치를 확인토록하는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생산하는 수산물 생산에 이들을 참여시켜 노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수확물을 적절한 값에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체험관광은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되고 있다. 도시근교의 고구마 농장인 경우 도시민들을 유치하여 고구마를 수확하게 하고 그들이 수확한 고구마를 원하는 만큼 값을 지불하고 사도록 한다면 고구마를 수확하는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마진을 줄이고 적절한 선에서 고구마를 판매할 수 있는 이득이 있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서남해안의 패류 양식장은 도시민들에게 좋은 체험어장이 될 수 있다. 도시의 아이들이 어촌에서 가꾸어 온 조개 양식장에서 조개를 잡도록 하고 잡은 조개를 원하는 만큼 사 가도록 한다면 어민들은 조개 수확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조개를 적절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도시의 관광객들은 해양생태에 대한 이해의 확대와 함께 조개잡이라는 매우 흥미있는 작업을 통하여 즐거움을 만끽하고 수확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체험어업은 패류 양식장 뿐만 아니라 낙지잡이 등 어선어업, 해조류 양식장, 해삼, 전복 등 양식장에 도입할 수 있다.

2. 어촌개발을 토대로하는 관광

어촌지역의 녹색관광은 그 관광의 장소가 어촌지역이고 관광의 대상이 어업, 어촌환경, 어촌 생활문화이기 때문에 어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녹색관광이 어업과 어촌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업의 생산성과 어촌의 생활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면 관광 대상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녹색관광은 어업의 발전과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촌개발은 어촌의 주택, 마을도로, 마을조경, 상하수도 설치, 환경보존, 자연보호 등을 포함하며 해안정비와 어항, 어장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어촌개발은 그 개발 과정에서 전통문화와 생활기술을 파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전통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문화와 기술체계를 구축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가. 환경친화적 관광

녹색관광 개념 속의 관광개발은 개발이 자연보호나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 개발은 환경의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은 화합하기 어려운 상반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녹색관광에서는 이 두 상반된 개념을 하나의 목표로 수렴하고자 한다. 잘 보존된 환경이 곧 훌륭한 관광자원이 된다는 점과 관광개발은 이와 같이 보존된 자원과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환경친화적 개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관광개발

환경친화적 개발은 첫째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흔히 나타나고 있다.

- 개발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게 될 때, 경관이 좋은 산자락이나 언덕 등을 절개하거나 절경을 이루는 해안 암벽, 기암괴석을 제거하는 경우
- 방파제를 축조하기 위하여 수천년 동안 형성되어온 해안 암벽을 폭파하는 경우
- 호텔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관이 좋은 산허리, 언덕 등을 절개하여 자연경관을 해치는 경우

환경친화적 개발의 첫 번째 요건은 이와 같이 개발을 한다고 천혜의 자연환경이나 인문사회적 문화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발을 시도할 때, 기존의 환경과 자원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개발의 결과가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개발

개발이 직접적으로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지만 그 결과로 인해 공해가 발생하여 환경이 파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어촌지역에 가공공장을 건설하였지만 공해방지 시설의 미비로 청정해역을 오염시키는 경우
- 신축한 호텔이나 음식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하수로 인해 해역이 오염되는 경우

(3) 개발의 결과가 환경을 보존하거나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발

이와는 반대로 개발의 결과가 오히려 환경이나 자원을 유지 보존시키는 경우가 있다. 화훼단지의 조성은 공해발생이 적은 녹색산업을 통해 지역민의 소득과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다. 어촌의 경우 자연산 어류를 포획하여 횡집을 경영할 때 자연산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와 증식이 개발계획으로 고려된다면

개발의 결과는 어족자원을 보호, 보존, 유지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 지속 가능한 관광

녹색관광은 어업의 생산활동과 이의 가공 및 유통활동 등을 주 요소로하여 관광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녹색관광개발이 어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촌지역의 녹색관광은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된다. 녹색관광이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을 만큼 자율적으로 관광객의 규모를 조절하는 것과 같이 지역이 지니는 어업 자원의 생산력 범위 안에서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조절되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을 예방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다.

제2절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개발

어촌지역의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에 못지 않게 누가 개발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어촌지역 관광지 개발의 주체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어촌지역의 주민이다. 그러나 어촌주민들은 관광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 아이디어 등이 전문가에 비해서 부족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경영기술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개발에서 주도적 위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고 있다.

어촌지역의 관광지 개발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느 한 개인의 사업경영 문제로 귀착되어서는 안된다. 어촌지역의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 개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특수성과 공공성 때문에 어촌관광

개발은 주민본위로 추진되어야 하고 주민이 부족한 기술과 정보 및 재정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지원을 통하여 개입하게 된다. 주민본위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지역자원의 이용, 개발자본의 유치와 이용, 개발사업에의 참여, 개발조직의 운영 등의 제반 문제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참여하는나 하는 점들이다.

1. 지역 자원의 이용문제

어촌지역의 관광자원은 마을공동소유 자원과 개인소유 자원으로 구분된다. 어촌은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바다와 갯벌, 양식장, 방풍림지대, 창고, 작업장 등 여러 가지의 마을공동의 자원과 자산을 지니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공동체의 공동자원이나 자산은 규범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고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법제가 정비되면서 공동체의 자원이나 자산이 사유화되거나 사적 전유물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⁴⁾

이와 같이 공동체의 자원인 자산이 사유화되었을 때 이 지역의 관광개발은 자원의 소유권과 이용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한편 마을내의 토지 이용은 관광개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토지가 소수의 개인이 독점하거나 외지인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의 이용권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역의 공동자원이나 자산을 이용해서 관광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은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메카니즘을 확보해야 한다. 한 지역사회가 공동의 자원을 이용하여 관광개발사업을 할 경우 자원의 이용과 그 이익금의 처분권이 지역주민에게 있을 때에만 관광개발은 지

⁴⁾ 어촌지역에서 공동자원이 사유화된 대표적인 예는 방풍림에서 찾아진다. 어촌지역의 방풍림은 해풍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조성한 것이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그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 사유화한 경우가 많다. 마을 공동어장의 개인에 대한 양식 면허도 마을 공동자원의 사적 점유의 한 유형이다.

역주민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자원이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을 때 지역주민과 자원의 소유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게 된다. 또한 지역자원을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없을 때 지역주민은 관광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역자원과 관련된 첫 번째의 쟁점은 지역자원, 특히 공공적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이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 그 자원의 이용권을 지역주민이 우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공동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사업을 경영할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자원 이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관광개발사업을 지역주민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는 법인 형태의 공동사업과 비법인 형태의 공동사업으로 다시 구분된다. 법인형태의 공동사업은 민법에 규정된 회사나 조합형태로 운영되는 법인이다. 이러한 형태의 공동사업은 사업의 운영 이익금이 커서 회사형태의 관광사업을 운영해도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익이 기대될 때 적용될 수 있다.

비법인 형태의 공동사업은 주민합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임의의 조직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성격을 지닌다. 이 경우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투자, 공동 노력 투입, 공동분배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된다. 대부분 개발 초기, 또는 개발 이익금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을 경우 흔히 이용된다.

두 번째의 형태는 마을 공동자원을 개인 또는 전문 기업에 위탁해서 경영하는 형태로서 계약에 의해서 개발 이익금을 마을 기금으로 수납하는 형태다. 이러한 경우는 전문적 경영을 통해 충분한 개발 이익금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지역의 공동자원이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다.

어촌지역의 공동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나 가용 토지자원을 특정인이 독점하고 있을 때에도 지역주민들이 관광지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조직 간에 일

정한 협약을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인에게 인정해 주면서 토지의 이용권의 일부를 지역 주민조직이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법 등 제도에 의해서 지역자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권이 유보되는 경우가 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내의 토지와 관광자원, 해상국립공원내 어촌지역의 관광자원 등은 지역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자원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사례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역 자원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2. 개발 자본의 이용 문제

지역 자원이 동원 가능하다고 해도 이 자원을 개발할 자본을 주민들이 동원할 능력이 없으면 주민 본위로 관광지를 개발하기 어렵다. 국민경제가 성장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개발자본을 주민들이 동원하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지는 국가가 국가자본을 동원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개발해 왔다.

한편 개발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발하지 않는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은 도시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개발하게 된다. 이 때의 명분은 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개발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자본이 부족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은 어촌지역의 주민들이 관광사업에 투자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관광개발에 따른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고급 서비스업인 관광사업에 고용될 수 있는 인력은 젊은 인력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외지자본에 의한 지역자원의 관광개발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못한다. 반대로 지역의 공동자원이었던 지역자원은 도시 자본가의 사적 소유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자

원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은 위축된다.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와 민간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에서 제외된 자원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개발 효과가 뛰어난 자원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민간자본에 의해 점유되어 개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발 효과도 뛰어나지 않고 주민들의 자본 동원 능력도 높지 않은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에 있어 개발자본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성공시키는 관건이 된다.

어촌관광개발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부족한 자본동원 능력을 보완해 주는 수단으로 중요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주민들이 일정한 계획 하에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 도로개발, 상하수도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관광시설 개발을 위한 직접보조와 융자지원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관광개발은 어느 특정인의 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직결될 때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개발 여건이 불비했던 어촌지역이 도로개발 등 정부의 재정투자로 인해 개발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민자유치가 가능하게 된다. 어촌관광 개발에서 민자의 유치, 즉 외부의 자본개입은 지역 자원의 외지인 지배라는 우려로 인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외지자본을 유치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에 외지자본의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자본동원 능력이 부족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명한 방법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려는 관광개발사업에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지원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발자본을 유치하고 주민과 정부 및 민간자본이 공동으로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는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방식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3. 개발 참여의 문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에서 주민참여의 문제는 개발자본의 동원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때 과연 누가 어떠한 사업에 참여하여 관광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도시 이동으로 어촌지역의 인구구조는 노령인구 중심으로 변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령인구로는 고급 서비스 산업인 관광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노령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관광사업은 대부분이 민박업이다. 따라서 수익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음식점 운영, 기타 시설 중심의 관광사업은 노령층 중심의 어촌지역 인구구조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할 때 실질적으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유입된 자본가일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마을의 공동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는 마을 공동의 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사업을 실시할 경우 이를 특정인에게 임대하여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지역 주민들은 자원의 이용방법과 임대조건, 환원되는 개발이익금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관광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두 번째는 관광사업체를 법인화하여 사업체를 회사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흔히 어촌지역의 공동사업체는 협동조합식 운영방식을 채택한다. 협동조합 방식은 조직의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균등한 조건을 지니고 있어 노동조건이 대등할 때 적용되기 쉬운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현대의 어촌사회는 연령과 교육조건, 경제조건 등에서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협동조합방식의 관광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회사방식의 관광사업체 운영이 보완해 줄 수 있다. 즉 회사형태의 관광사업체는 경영진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은 이 관광사업체의 출자자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사업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주민 중에서 회사 경영에 경험이 있거나 능력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에 고용되어 관광사업 운영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4. 주민조직의 문제

어촌지역사회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지만 어촌의 관광개발을 둘러싸고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의견을 지닐 수는 없다. 어업생산과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두 구성원은 자원의 이용과 환경보존의 문제로 서로 간에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갈등관계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기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둘러싸고 소집단 또는 이익집단 간에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부의 이익집단 간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통합하기 위한 주민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어촌관광개발을 위한 주민조직은 관광사업의 공동대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촌지역사회가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관광개발사업을 공동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광사업에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은 개인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 관광사업의 대표적인 예가 민박업이나 횃집운영, 개인별 수산물 판매업 등이다. 그러나 공동어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해야 하는 경우와 공동시설을 이용한 공동의 관광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처하

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어촌지역의 관광사업을 홍보하는 방법도 개별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주민조직은 기존의 어촌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마을 내에 다양한 이익집단이 서로의 주도권을 쟁탈할 경우 이익집단 간의 협의체나 법인화된 회사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민 조직은 마을 관광사업의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의사 결정이나 의견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⁵⁾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관광농업의 경우 관광농원을 경영하는 사람은 농원을 소유하거나 타인의 농장을 임대하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농장 운영자와 관광사업 운영자는 대부분 동일한 인물이 된다. 그러나 어촌관광의 경우에는 고기를 낚거나 양식하는 사람이거나 조개 등을 양식하거나 채집하는 사람들과 횃집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같은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는 어업과 횃집이라는 서비스업이 매우 상반된 직업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영세한 어업종사자들이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횃집을 쉽게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관광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이들이 사용하는 자원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주민조직체가 필요하게 된다.

⁵⁾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관광사업 운영에 관한 주민 조직은 민박업자의 숙박요금이나 식사요금, 횃집 등 음식점의 가격, 시설 이용료의 가격 결정 등 마을내의 관광 서비스 요금 조정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제3절 지역성을 살린 관광상품의 개발

1. 지역성과 지역의 매력을 관광상품화

어촌지역의 관광상품은 지역성을 지니면서 지역의 매력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어촌지역의 지역적 특성은 해양성이라는 점이다. 온화한 기후와 바다 풍경, 모래사장과 기암, 섬, 일출과 일몰, 해양 동식물 등이 어촌지역이 지니는 자연적 매력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 매력물에도 지역 주민들이 이루고 있는 생활문화와 수산업이 어촌지역의 종합적인 매력이다.

어촌지역의 마을 조경이나 정원을 지역의 특산 식물로 가꿀 때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지역의 매력이 살아나게 된다. 해변가의 곰솔, 해당화, 동백 등은 대표적인 해변 식물이지만 이와 같은 수목으로 마을을 가꾼 어촌은 전국적으로 찾아보아도 매우 드물다. 이 외에도 어촌지역의 해변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수목과 초화들이 많지만 이들 수목과 초화가 선택되어 정원에 가꾸어지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변은 아열대성 상록수목이 자랄 수 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온난한 기후로 인해서 독특한 아열대성 식생대를 형성하고 있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아열대성 수목으로 마을 조경이 이루어져 자연적인 매력물로 창출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어촌지역 주민들은 어촌지역을 개발한다고 할 때, 도시지역의 개발 패

⁶ 전남 완도군과 강진군, 경남 남해군 등의 해안과 섬에는 천연 상록수림이 조성되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아열대성 수목의 하나인 동백나무는 태안반도까지 자생하고 있지만 태안반도의 동백군락은 남획으로 사라졌고 이제 뜻있는 독지가들에 의해서 실생번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 전역에 자생하던 해당화 군락도 남획으로 사라졌다.

턴을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다. 주택과 마을 구조, 심지어는 도시민들이 사용하는 꽃과 나무로 마을 주변을 가꾸려 한다. 어촌지역은 햇살과 바람이 강하고 토양에는 염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에 강한 나무와 초화류로 조경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해변을 국화나 장미 등 도시민들이 즐기는 초화로 마을 주변을 조경할 경우, 생육 상태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어촌지역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보다 도시적인 취향을 따르는 것은 자신들의 지역과 생활문화에 긍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어촌지역의 주택과 마을 조경, 정원 수목 등을 해변에 자생하는 소재로 가꿀 때, 어촌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고 지역적 매력물로 관광객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박인 경우도 지역의 특성을 지닐 수 있도록 주택의 구조와 서비스의 형태를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주택의 구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주택의 구조는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새롭게 건축되는 민박 주택은 대부분이 동일한 양식이다. 소위 서양식이라는 외관적 모습에다 구조, 재료, 주택 외관의 색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민박의 모습과 그 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지역마다 비슷하여 차별성이 없다면 새로운 체험을 위해서 새로운 지역을 방문한다는 취지가 반감될 것이다. 어촌지역의 관광을 문화중심의 고급 관광행태로 개발·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획일성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웃 마을과도 차별성이 나타나야 하지만 한 마을에 있는 주택들도 그 구조, 재료, 외관, 색상에서 서로 차별성이 나타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어촌마을은 지니고 있는 자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백사장 모래의 크기에 따라서 백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스포츠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연안의 수심의 완급에 따라서 해수

욕장의 특성이 결정되고 관광객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연안의 수심이 낮아 안전한 곳은 어린이들의 해수욕장으로 인기 있는 반면, 수심이 깊어 해수욕장으로 적당하지 못한 곳은 스킨 스쿠버들에게 좋은 활동무대가 될 수 있다.

동해안의 백사장들은 바다의 수심이 깊고 맑으며 파도가 커 파도타기나 스킨 스쿠버 활동에 적합한 곳이 많다. 반면에 남해안의 연안은 파도가 잔잔하여 요트타기 등에 적합한 곳이 많다. 따라서 어촌들은 각각 어촌이 지닌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이를 적극 상품화해야 한다. 어촌관광의 성공 여부는 이와 같이 각 지역이 지닌 매력을 어떻게 상품화하는냐에 달려있다.

어촌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출과 일몰, 해안선, 점 점이 흐르는 섬도 모두 지역의 매력물이다. 다만 어느 어촌이나 섬에서 이를 먼저 지역의 매력 상품으로 개발하느냐가 문제다. 전남 여수의 돌산읍의 향일암 인근의 마을들은 정월 초하루날의 일출을 맞이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붐빈다. 일출을 맞이하기에는 동해바다가 남해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나 동해안 주민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이곳이 성공적으로 일출광경을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결과로밖에 보기 어렵다.

전남 진도의 회동마을은 음력 5월에 영등제를 지내며 이때 바닷길이 갈라지는 광경을 보러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전국은 물론 일본에서까지 몰려온다. 소위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름난 이곳의 바다갈라짐 현상은 우리나라 서남해안 도처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진도에서 먼저 이를 관광상품으로 성공시킨 것이다.

서해안의 일몰은 가히 절경이다. 서해안의 일부 어촌에서는 서울의 사진작가를 초청하여 일몰 광경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계기로 일몰을 촬영하거나 일몰 광경을 구경하려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부각시켜 지역 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주택, 민박, 서비스 시설, 조경을 차별성 있

게 조성하여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마을의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역은 해변의 매력물을 중심으로 사진 촬영 대회를 갖거나 요트 대회, 파도타기 대회, 해변을 잇는 두 지역간의 횡단 수영 대회, 비치 발레볼 대회, 등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매력을 특징화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이를 중앙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역의 매력물을 상품화할 수 있다.

2. 지역산업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어촌지역의 대표적인 상품은 횃집과 민박이다. 횃집에서 사용하는 생선은 자연산과 양식 생선으로 구분된다. 자연산일 경우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선을 사용하게 되지만 양식 생선일 경우에는 대부분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연산을 이용하는 경우 그 생선은 지역의 특산물로서 독특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지역의 특산물인 자연산 생선은 지역의 독특한 맛을 대변할 수 있고 지역의 청정성을 대변할 수도 있다.⁷⁾ 따라서 지역성을 대변할 수 없는 양식 생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지역산의 생선을 상품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 특산 어종을 개발,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 어종에 대한 양식사업과 어린 치어를 방류시켜 지역자원을 조성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한다. 어촌지역별로 지역 특산물을 횃감으로 사용할 경우 지역의 산업인 수산업도 발전하게 된다.

서남해안에서는 자연산 해조류를 생산하는 어촌이 있지만 이들이 생산해내는 해조류도 일반 해조류와 마찬가지로 수협이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

⁷ 자연산 생선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의 예로 영광굴비, 섬진강 송어, 강화 송어 등이 있다. 이러한 생선은 그 지역 강 하구의 독특한 부유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지역의 독특한 맛을 지닌 것으로 이름 나 있다. 그 외에도 전국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굴, 맛 등은 그 지역의 청정성을 대변하는 상품으로 인식된다.

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그들의 특산품은 다른 상품과 차별성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다른 어촌과는 다르게 자연산 미역이나 김을 생산해 내는 어촌은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 이를 일반 시장에 내지 않고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전국에 소포로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의 특산품은 고유한 상표를 지녀야 한다.⁸⁾

어촌지역에서의 민박업은 숙소만을 빌려주는 업이 아니라 외국에서와 같이 저녁이나 아침을 함께 제공하는 숙식업(B&B: bed and bread)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현재의 쉼집은 그 상품이 일률적이고 그 가격도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민박을 제공하는 집에서 비교적 값이 싸게 이와 같은 생선류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관광객들은 지역특산물을 값 싸게 맛볼 수 있고 어민들은 자신들이 수확한 수산물을 손쉽게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진흥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⁹⁾

3. 문화적 관광상품 개발

어촌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산업은 결국 어촌지역의 문화라는 상품으로 수렴된다. 문화란 건축물이나 미술품, 음악과 같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광의의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 제도 및 삶의 도구 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생활 그 자체가 어촌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촌주민들의 생활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⁸ 이와 같은 지역의 특산품은 점차 나타나고 있다. 전남 진도의 팽목리 자연산 김과 미역은 그 진가를 인정하는 전국의 소비자에게 통신주문을 통해 팔려나가고 있다. 서해 갈월도의 작은 어촌에서 생산하는 갈월도어리굴젓도 그 예 중의 하나다.

⁹ 어민들이 자신들의 배로 잡은 자연산 생선을 값싸게 쉼집으로 이용하고 민박업을 운영하는 어촌으로 경북 영덕군의 노물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마을은 작은 포구를 낀 한적한 오지의 어촌이지만 자연산 생선을 값싸게 맛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홍보되어 안동 등 내륙지방은 물론 인근의 울진, 포항, 부산 등 큰 항구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에서 중요하게 차지해온 관광상품이 대부분 횃집과 민박이다. 어촌에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어촌관광의 수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광 행태는 점차 어촌지역의 자연과 생활문화를 음미하고 체험하는 쪽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미래의 어촌지역 관광행태를 전망할 수 있다면 어촌지역에서 개발해야 하는 관광상품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이외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택과 마을환경,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과 조경, 신선한 해산물을 중심으로 짜여진 소박하고 건강한 식단, 건전한 놀이문화, 자연과 친화된 종교문화, 마을의 역사와 전통, 전승되는 신화와 전설의 현재화 등이 될 것이다.

어촌지역이 생활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촌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의 주택이 도시지역 못지 않게 깨끗하고 생활에 편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어촌마을의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장 등 생활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어촌주민들의 식단도 신선한 해조류와 해물류 및 건어물류로 특색화하여 어촌의 식사가 건강 식단으로 도시인에게 인기를 끌도록 개선되어 민박의 소박한 식단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촌지역은 역사와 각종 전설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섬과 섬 사이, 섬의 바위와 동굴, 나무 등에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정서를 담은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향토 문학가들이 이러한 이야기, 전설 등을 정선하여 문학작품으로 다듬고 편찬하면 훌륭한 지역의 매력상품이 될 수 있다.¹⁰⁾

¹⁰⁾ 한 가지 예를 들면 경남 남해는 조선조 문학가인 김만중이 귀양살이를 한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우리나라 신문학의 배태가 되는 구운몽을 썼는데 글 중의 무대가 남해다. 따라서 구운몽에 나오는 지명이 실제로 남해에 있기 때문에 김만중이 귀양살이를 하던 노도지역과 구운몽의 실제 무대는 이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조선시대 저술된 자산어보의 산실은 거문도다. 정약전이 귀양살이를 한곳이 거문도이고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자산어보를 저술한 것이다. 정약전이 거주하던 집터와 그

어촌지역의 마을 공동신앙인 풍어제와 당산제도 훌륭한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 풍어제와 당산제는 모두 다 험난한 자연 속에 살아가야 하는 어촌 주민들이 풍어에 대한 기원과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을 단위로 지내는 공동종교 행사다. 이와 같은 마을 공동의 종교행위는 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어촌지역에서는 그들의 생활 속에 살아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교행사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 제당, 제당 주변의 신목(神木) 등도 훌륭한 볼거리가 되고 어느 면에서는 도시인들이 이곳에 찾아와 참배하며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장소를 신역(神域)으로 가꾸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¹¹⁾

4. 체험적 관광상품 개발

어촌관광은 점차 먹고 즐기는 쪽에서 어촌 생활문화를 체험하면서 그 가치를 공유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어촌 지역의 관광에서 체험관광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개발할 수 있다.

가. 어촌생활 체험형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도시인들이 어촌의 어가에 체류하면서 주말휴가나 여름철 휴가를 보내는 유형으로서 민박하는 어가의 가족들과 함께 일상적인 어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이다.

가 바다에 나가 고기를 관찰하던 곳, 고기의 회유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다니던 뱃길 등을 고증하여 되살린다면 이는 거문도의 훌륭한 문화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근대화 과정에서 당한 외침 등 슬한 영욕의 역사 현장도 훌륭한 문화관광상품이 된다.

¹¹ 이와 같은 神域은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마을 마다 모시고 있는 신사(神社)와 같은 의미다. 신사참배는 일본인들에게 일상생활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신사가 마을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장에 나가 조개나 낚지를 포획하거나 어망 등의 손질을 함께 함으로서 도시의 인공적인 생활을 벗어나 자연적인 어촌생활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나. 어장 어획 체험형

어장 어획 체험형은 도시인들이 어장에 나가 굴이나 조개류, 또는 해조류 등을 수확하는 체험형이다. 이 때 조건은 어장 입장료를 받도록 하며 수확한 어획물에 대해서도 일정량의 한도 내에서 수확한 본인이 어장에서 도매시장으로 판매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인수하도록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장 어획 체험형은 특히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단기간 어촌을 방문하여 자연을 배우는 학습의 장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장 어획 체험형을 민박업과 연결시키거나 어촌생활체험형과 연계시킬 경우 어촌·어가의 소득효과는 배증될 수 있다.

다. 어선 어획 체험형

어선 어획 체험형은 위의 두 유형과는 달리 힘들고 위험한 체험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만큼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어선 어획 체험관광은 도시의 직장인을 상대로 극기훈련의 한 과정으로 연계시켜 추진할 수도 있다. 도시의 직장인들은 주말이나 휴가철을 이용하여 어촌마을의 어선과 계약하여 단기간의 용선계약을 하도록하고 이들이 포획한 고기는 계약에 따라서 관광객들이 인수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선주나 어촌계 등은 어장을 안내하는 역할을 맞도록 하며 어선어업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임대해 주는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제4절 홍보 전략 개발

1. 홍보의 주체

어촌관광개발에서 간과하기 쉬운 주체 중의 하나가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전략이다. 여름철의 피서를 위해서 도시의 관광객들은 적당한 관광어촌을 찾아가고 싶어도 관광어촌에 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수협중앙회에서 매년 어촌 민박 안내서인 “섬따라 파도따라”를 발간하고 있으며 동일한 자료를 P.C통신인 천리안과 하이텔에 띄우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천리안을 통하여 유명 관광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해수욕장에 관한 정보와 민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안내자료는 주로 유명한 해수욕장 중심의 안내자료이고 민박업자도 주로 해수욕장 인근의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것도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 민박업소에 관한 정보나 민박에 따른 숙박요금과 식사비 등 가격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촌 관광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민박업소에 관한 정보, 특히 가격, 시설, 숙박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있게 홍보하여 도시의 관광자들로 하여금 어촌관광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촌 관광사업은 개인 또는 마을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홍보자료는 개인이나 어촌 마을 단독으로 작성하여 홍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수협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촌지역의 관광지 소개와 함께 민박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있게 소개하는 홍보전략을 세워야 한다.

현재 수협은 전국 어촌의 민박을 안내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한국관광공사

의 관광정보에도 민박에 관한 정보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광지의 소개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민박을 소개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수협이 어촌의 민박을 소개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수준은 한국관광공사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민박업을 소개하는 것이 주 목적이려면 정보의 체제가 민박업소를 소개하는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 즉 어느 마을에는 민박업자가 몇 명이 있는데 이들의 시설수준, 등급, 가격조건, 음식물 제공의 가능성, 이 민박업소를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관광의 효과, 숙박 가능 인원, 민박 가능 시기, 교통편 및 접근 방법, 주차조건,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 기타 주의 사항 등이 주로 소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이 보완 된다면 도시의 관광객들은 보다 훌륭한 민박 정보를 수협으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어촌의 관광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촌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내고장의 정보를 다른 지역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흥미롭게 도시의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홍보수단과 방법

가.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

현재 어촌관광지를 알리는 가장 유용한 홍보수단은 TV나 신문 등 매스컴이다. 관광산업이 점차 중요하게 자리잡아 감에 따라서 TV와 신문 등은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면서 지역 소식과 함께 전국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적은 어촌관광사업 운영자가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의 하나로 기존의 TV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어촌지역

의 관광지와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나. 컴퓨터를 이용한 홍보

정보화 시대의 대명사가 된 컴퓨터는 급속하게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통한 어촌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가 앞으로는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촌관광사업을 도시의 소비자에게 홍보하고자 한다면 현재 천리안이나 하이텔에 띄우고 있는 민박 정보는 관광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로 개선되어야 한다.

도시의 관광자가 어촌을 방문하고자 할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어디를, 어떻게 가서, 어디에서 자고 먹으며, 무엇을 보고 즐길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일 것이다. 따라서 유명 해수욕장 중심의 광역 소개자료보다는 구체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한 소개와 그 마을에서 민박업을 경영하는 사람, 그리고 민박 시설 내용, 시설 사용료, 음식 값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마을과 연계된 인근 관광지의 자료가 보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민박 안내 자료라면 민박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무창포의 관당리에 민박업소가 5호일 경우 무창포를 찾아가서 민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어느 민박집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 민박업소를 정하는 일이 과거와 같이 무조건 찾아가서 민박업소가 있을 때 값을 흥정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박업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사전에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민박을 제공하는 집은 어떠한 형태이며 언제 지은 집이고 머무는 동안 불편한 점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의 구조,

건축년도, 사용 가능한 방 수, 수용 인원, 화장실, 샤워장, 주방 시설 등 편의시설, 주차장 여부, 방 사용료, 음식 제공 가능 여부, 기타 민박 조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관광객은 자기가 이용할 민박업소를 결정할 수 있고 예약을 할 수 있다.

자료 1. 수협의 민박안내 자료(천리안)

제 목 : 무창포해수욕장

* 위치 : 보령시 웅천면 관당리

* 특징 : 무창포해수욕장은 변잡하지 않아 오붓한 곳으로 인기가 있다. 조선시대의 군창지였던 곳으로 1.2km의 백사장에 완만한 경사, 따뜻한 바닷물이 가족단위나 단체 휴양객들에게 제격이다.

* 민박현황 : 가구수-15가구, 방수-350개, 수용인원-600명

* 민박제공자(지역번호 : 0452)

김교덕 936-3381 김명기 936-3447 김봉환 936-3318

김상학 936-3752 김종우 936-3763

* 문의(지역번호:0452)

보령수협 지도과 31-0248 무창포어촌계 936-3455

(작성일자: 1996년 6월 17일)

자료 2.: 민박 소개를 위한 대안

1. 김 말동

주 소 : 충남 보령시 웅천면 관당리 32-1번지

전 화 : 0452-936-3256

주택형태 : 붉은 벽돌로 지은 2층 슬라브 집(건축년도 1993)

민박용 방 수 : 이층 방 3개

- 이층에 현대식 화장실과 샤워장 별도 시설
- 이층 실내에 현대식 공동 취사 시설 (단 가스는 본인 부담)
- 필요한 경우 방 3개를 콘도미니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음

숙박 가능인원 : 6~12인

숙박비 : 1실당 18,000원, 단 7~8월 파서철에는 1실당 25,000원

음식비 : 보통 식사 1인 1식 3,000원

예약에 한하여 아침과 저녁 식사 제공 가능

생선회 : 20,000원부터

주차 시설 : 승용차 6대까지 주차 가능, 주차료 무료

기타 조건 :

- 무창포 해수욕장과 300m 거리
- 인근 갯벌에서 자연산 조개와 낚지를 잡을 수 있음.
- 이층 베란다에 앉으면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황홀한 낙조를 즐길 수 있음.

도착 방법 : 보령시 또는 웅천역에서 시내버스 ○○번 이용하여 관당리

정류장에서 하차

웅천 기차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은 5,000원 정도

자료 2.: 민박 소개를 위한 대안

2 : 김 명 기

주소 : 충남 보령시 웅천면 관당리 30번지

전화 : 0452-936-3230

주택 : 충남지방의 전통적인 한옥 (약 50년 된 가옥)

민박용 방 수 : 2개

-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완비
- 공동 취사시설 비치(단 가스는 본인 부담)

숙박 가능인원 : 4~6인

숙박비 : 1실당 15,000원, 단 7~8월 피서철에는 1실당 20,000원

음식비 : 보통 식사 1인 1식 3,000원

예약에 한하여 아침과 저녁 식사 제공

생선회 : 20,000원부터 희망에 따라서 제공

주차장 시설 : 승용차 4대까지 주차 가능

기타 조건 :

- 무창포 해수욕장과 100m 거리
- 인근 갯벌에서 자연산 조개와 뉘지를 잡을 수 있음.
- 집 주변에 150년생 해당화 숲이 있어 2~4월에는 아름다운 해당화를 즐길 수 있음
- 여름철에는 집에서 직접 재배한 청정 채소를 이용하여 회를 즐길 수 있음.

도착 방법 : 보령시 또는 웅천역에서 시내버스 ○○번 이용하여 관당리

정류장에서 하차

웅천 기차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5,000원 정도

위 자료 2는 위의 수협중앙회에서 제공하는 민박안내 정보 중에서 민박업소를 안내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재 작성해 본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각 민박업소 마다 집의 구조와 민박 조건이 다르고 매력이 다른 점을 부각시켰다.

이 자료에서는 피서철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평상시 민박 가격의 50% 정도를 더 받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 경우 도시의 관광객들은 이 업소를 우선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예약 없이 왔다가 평시 가격보다 2~4배 높은 바가지 요금에 기분을 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박 안내 자료에 민박의 시설이나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박의 가격이 평상시 가격과 피서철의 가격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서철의 민박 가격은 평상시 가격의 2~4배까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어촌 민박업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이중적 가격 구조로 인하여 관광객들은 피서철에 바가지 요금을 물어야 하며 관광객들은 이와 같은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어촌관광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피서철 바가지 요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박업도 민박 시설의 질과 종류에 따른 차별적 가격을 명시하여 컴퓨터를 통하거나 전화를 통한 예약제를 실시해야 한다. 피서철에도 예약제에 의해 요금을 평상시와 같이 균일하게 받는 민박업을 운영한다면, 또는 피서철인 7~8월에는 평상시 요금의 50%(예를 들면)를 인상하여 민박요금을 받는 것으로 명시한다면 도시의 관광객들은 이와 같은 민박업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피서철이 아닌 때에도 민박을 이용하려는 관광행태가 정착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 관계가 성립되어 연중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민박업자는 피서철에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되는 것 이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국의 국립농업센타에서 인터넷을 통해 띄우고 있는 농장

민박 소개자료(“Stay on a Farm” 프로그램)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자료는 광역의 지역 소개자료와 함께 민박업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 서남부 콘월(Cornwall)지방의 헨드라농장(Hendra Farm)의 경우 민박 주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소개되고 민박요금이 명시되고 있다.

이 농장의 경우 숙박과 아침식사를 포함하여 1인당 14~17파운드를 받고 있으며 이 농장에서 숙박이 가능한 인원은 5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 농장의 민박 집 전경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고 농장의 매력, 관광 포인트, 놀이조건,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조건, 요금 조건, 민박 운영 기간, 금기 사항 등이 자세히 제공되고 있다

다. 회원제를 이용한 홍보

민박사업이 관광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된다면 민박업자는 고정된 단골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즉 어촌지역의 한 민박업소에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도시의 관광객이 받았다면 그는 다음 번 어촌지역 방문 때에도 같은 장소의 같은 민박업소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 나아가 도시의 관광객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민박업소를 소개함으로써 고정된 단골 고객은 확대될 수 있게 된다.¹²⁾ 이 관계를 조금 확대하면 민박업에도 회원제를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1일 민박이 2만원이라고 할 때, 단골 관광객에게 20~30%의 숙박료 할인을 해 줄 수 있다면 관광자는 이 할인의 혜택으로 인해 이

¹²⁾ 이와 같은 단골 민박 관광객의 유치는 제주도 등 유명한 관광지에서 확대되고 있다. 민박업소에서는 전화 예약 등을 통해 수용 가능한 관광객을 시기별로 적정 안배하기 때문에 관광객과 민박업소가 적정선에서 서로 만족할 수 있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의 경우 횃집과 민박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대부분 육지부의 단골 손님들이다. 이들 관광객들은 노물리를 찾기 전에 먼저 횃집이나 민박업소 주인과 전화를 통하여 예약하고 방문하며 횃집업소에서는 이곳을 찾는 단골 손님들에게 실비로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소를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민박업소는 할인의 대가로 고정된 고객을 년중 수 차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산에서는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고정된 단골 관광객에게 민박 이용에 따른 할인 혜택을 주고 관광객은 년중 수 차례 이 업소를 방문하는 관계로 발전한다면, 이를 공식적인 회원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민박업 운영의 전략으로 삼아 홍보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연중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해양관련 행사 유치

어촌관광지의 홍보수단으로 효과적인 것은 바다와 어업에 관련된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군의 한 어촌은 갯벌 축제를 유치하여 관광지를 소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은 이의 한 예다. 바다 낚시터로 유명한 어촌은 바다 낚시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일출이나 일몰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 촬영 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갯벌이 좋고 바다의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유치하여 수영 강습회나 해양스포츠 수련대회 또는 갯벌 생태 관찰 대회, 게 잡기, 조개줍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미래의 관광객들에게 바다와 어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도 있다.

마. 지역 특산품의 상표화를 통한 지역의 홍보

우리나라 어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지역의 특산물로서 상표를 지니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있다면 완도 미역, 광천 김, 영광 굴비 등이 유명했던 지역의 특산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엄격히 지역의 등록된 상표는 아니다. 따라서 가짜가 많고 품질 관리가 어렵다.

그러나 매우 드물게 간월도 어리굴젓과 같이 작은 어촌의 지역 상표가 유명

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 어리굴젓은 어리굴젓의 상표이기도 하지만 무공해 바다에서 생산된 어리굴젓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간월도를 공해 없는 청정해역으로 기억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의 관광객들이 여름철 피서지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머리 속에 청정 바다로 기억된 장소를 우선 생각하게 된다.

어촌은 모두 고유의 지명이 있으며 잠재적인 고유의 특산물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모두 유명한 지역 특산물로 상표를 지니고 소비자들에게 유통될 때, 이 고유의 상표들은 어촌지역을 홍보해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된다.

바. 지역 관광안내소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할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관광 안내소는 시청 또는 군청의 민원실의 한 모퉁이에 안내자료를 전시, 제공할 수 있는 책상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줄 직원 하나면 족하다. 이 경우 직원도 안내만 전담하기보다는 다른 일과 겸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이면 충분하다. 현재 시청이나 군청의 민원실에는 안내만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 인력을 훈련시켜 배치하면 훌륭한 관광 안내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내소에는 최소한 지역을 소개하는 관광 지도와 주요 관광지 및 쇼핑센터, 민박과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 필요한 경우 택시 등 교통수단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연락망, 경찰서, 우체국, 병원, 소방서 등 비상시 연락망 등에 대한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신문과 방송에 홍보하여 관광 안내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의 관광 안내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4. 관광진흥공사의 관광지 안내 자료(천리안)

1.

관광지명 : 관매도해수욕장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개 요 :

관매도는 서남해의 섬들 중에서 매우 뛰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는섬이다. 동서로 3km에 이르는 백사장과 주위의 3만여 평에 달하는 울창한 숲, 그리고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관매도에는 백사장이 어느 해변가에나 넓게 깔려 있어 섬 전체가 천연해수욕장이라 할 수 있다. 주변에는 방아모양의 방아섬과 서들바굴 폭포, 후박나무숲도 있고, 황혼이 질 때 정상에서 내려다 보면 노을과 어우러진 병풍도의 모습은 그야말로 무릉도원이다. 또한 겨울낚시를 즐기는 강태공들에게는 최고의 낚시터일 뿐 아니라, 공해나 환경오염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야말로 청정해역 그대로이다.

입 장 료 : 없음

개장기간 : 7월 16일 ~ 8월 20일

주차시설 : 소형차 50대정도(도로변, 백사장 주변에 주차 가능)

주차요금 : 없음

편의시설 : 상점8개소, 파출소, 약국, 샤워장 2개소, 화장실 3동 등

현지교통 :

구분/구간	운행시간	배차간격	소요시간	기 타
(군내버스)진도읍-팽목	06:00-19:30	10회	0:40	
(선박) 목포-관매도	09:00	1회	5:00	
목포-조도	08:40	1회		

2.

팽목-조도	07:30-17:30	4회	0:40	차량(\12,000)
조도-관매도	09:30	1회	0:30	
팽목-관매도	14:00	1회	1:00	차량(\24,000) 어른(\4,640)

(팽목-조도, 팽목-관매도 노선은 매년 여름 성수기 증편 운항)

(조도에서 관매도 행 차량만 운반하는 철부도선 1회 운항. 농협주관)

접근방법 :

진도읍에서 버스편을 이용, 임회면 팽목항(전화:0632-544-1688)에서 배를 타고 가면 가장 빠른 길이다. 여름철에는 철부도선이 운행하므로 자가용 이용도 가능.

현지숙박 : 업소명	전화번호	요금수준	위 치
------------	------	------	-----

(여관)	(0632)		
------	--------	--	--

산수장	42-2445	15,000-20,000	조도면소재지(창유리)
-----	---------	---------------	-------------

옥천장	42-9433	"	" "
-----	---------	---	-----

(민박) 안내 - 조도면 농협지도계 42-5383

관매 어촌계	42-2714
--------	---------

박동철(11실, 42-3837), 조성채(13실, 42-3838), 임영복(9실, 42-3802),
 장영자(5실, 42-3854), 김이자(4실, 42-3812), 최이병(5실, 42-3820),
 조창일(3실, 42-3841), 안옥화(3실, 42-3866), 김덕울(93실, 42-3824),
 최수병(2실, 42-5826), 임우춘(4실, 42-3987), 박진선(3실, 42-2714),
 김상호(3실, 42-3861)

(야영) 2개 마을이 있어 민박이 가능하고 송림 숲에서 야영을 하면 더욱 좋다. 관매초등학교에서도 야영 가능

3.

주변명소 : 남도석성(1시간), 병풍도(50분), 형제섬(30분), 서망해수욕장
(팽목 에서 1km 거리), 관매8경

안내문의 : 관매도 여객대리점(0632-42-3837)

0000 정보제공 :1)(539-910)전남 진도군 조도면사무소 장효남 님
2)진도군청 문화공보실

1. 시외교통정보/관매도해수욕

정 류 장 명	전 화
1 진도 터미널	0632-43-5053
2 진도 공용버스 정류장	0632-43-5053

2. 숙박정보/관매도해수욕장

시 설 명	숙박유형	객실수	전 화
진도스타호텔	일반호텔	30	43-0043
대원장	여관	20	43-0505
미도장	여관	20	544-2653
신라장	여관	18	544-2284
일월장	여관	27	42-6811
진월장	여관	23	42-1414
혜성장	여관	19	43-9600
삼일여관	여관	12	544-3180
영진파크장	여관	20	544-2115
귀빈장	여관	10	42-4343

4.

뉴월드장	여관	9	42-4191
대교장	여관	16	42-8508
세종장	여관	13	42-4353
진도하우스	여관	25	42-7788
오일장	여관	9	43-1049
성은장	여관	17	43-7727
의림장	여관	9	43-4420
가든장	여관	9	43-3023
미도장	여관	8	43-3024
제왕장	여관	10	43-3033
산수장	여관	9	42-2445
옥천장	여관	11	42-8822

3. 음식점정보/관매도해수욕장

음 식 점 명	음식점유형	전 화
진도각휴게소	향토음식점	(0632)42-4000
초원식당	한식당	(0632)544-2282
태양집	한식당	(0632)544-2835

<천리안 제공 관광정보>

제 4 장

어촌지역의 관광자원 분포와 개발 실태

제1절 어촌지역 관광자원 조사 개요

1. 관광자원의 개념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적 개념으로서의 자원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서 인간생활에 유용한 물질이나 에너지를 의미한다 (G. Tyler Miller, Jr., 1985). 그러나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모두 자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물질을 인간의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어낼 때 비로서 자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지만 현재 인간생활에 유용하지 않거나 유용하게 이용되지 않는 물질이나 에너지는 현재의 기준으로 자원이라고 볼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원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며 양적, 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경제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 양적으로 많다고 해도 이를 인간의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데 경제성이 없다면 이는 유용한 자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원은 시간의 흐름이나 기술의 진보, 경제성장 정도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한낱 보잘 것 없는 물질이지만 기술이 진보해서 이의 이용 가치가 커진다면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현재는 훌륭한 자원이지만 대체자원의 개발로 경제성을 상실하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자원은 현재의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과 의료, 생명공학 등에서 현재 훌륭한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원자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기 전까지 원자력은 인간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다.

자연자원과는 달리 인문자원은 인간이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나 생활도구, 제도와 생활문화 전반을 포함한다. 즉 인문자원은 인간이 긴 역사 과정을 통하여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꾸어 온 문화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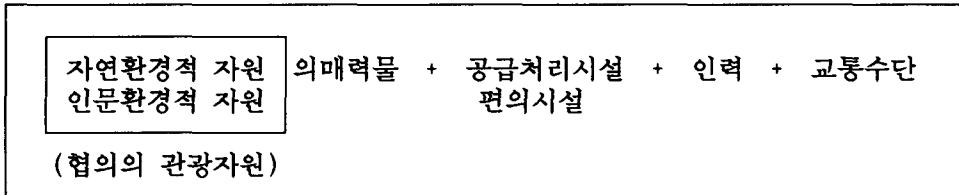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관광자원은 관광의 대상이 되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총칭한다. 자연자원을 산업자원으로 사용하면 대부분은 소모되지만 관광자원으로 사용하면 소모되지 않고 오히려 보존되는 특징이 있으며 인문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보존·보호되는 특징이 있다.

관광자원도 자연자원과 같이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진보, 인간 의식의 전환 등에 따라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관광자원은 자연자원과 같이 우리들의 생활환경 속에 존재한다고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었을 경우에만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관광산업은 관광자원을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과정이다. 따

라서 관광자원은 자연자원이나 인문자원 그 자체로서는 재화를 생산해 낼 수 없다. 이와 같은 자원이 재화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자원을 처리해 주는 공급시설, 편의시설, 관광자와 자원을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력, 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 공급시설은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상가시설, 상·하수도시설, 배수시설, 전기·통신시설, 가스 공급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있고, 편의시설은 화장실, 주차장, 안내실, 위험방지시설 등이 있다. 여기서 자연자원이나 인문자원, 관광시설 등을 협의의 관광자원으로, 협의의 관광자원과 공급시설, 편의시설, 인력, 교통수단 등을 광의의 관광자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림 4-1 관광자원의 범주



자료: 박석희(1994)에서 수정하여 작성.

이 연구에서 관광자원은 주로 협의의 관광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광자원은 자연적 관광자원, 인문적 관광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문적 관광자원은 다시 문화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 위락적 관광자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관광자원은 지형, 지질, 경관, 온천, 천연자원, 동식물 등 유형적 관광자원과 기후, 풍토 등 무형적 관광자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적 관광자원들이 관광의 대상으로 상품화되었을 때, 비로소 관광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문화적 관광자원은 사적지, 주거지, 도시, 미술 공예품, 건축물 등 유형적 관광자원과 생활, 민속, 종교, 행사 등과 같이 무형적 관광자원이 있다. 산업적 관광자원은 농장, 어장, 공장, 생산시설, 토산품, 특산품 등 산업과 관련된 생

산, 가공, 유통시설이 있고 어항시설, 어선 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방파제 등과 같이 산업의 하부구조를 이루면서 관광자원을 이루는 것이 있다. 위락적 관광자원은 레저, 스포츠, 놀이를 위한 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위락적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을 말한다.

2. 어촌지역의 관광자원 분류

어촌지역의 관광자원은 앞에서 분류된 것과 같이 자연적 관광자원, 문화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 위락적 관광자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자연적 관광자원 :

- 백사장, 낚시터, 갯벌, 기암·괴석, 동굴, 산과 하천, 하구언, 바다 갈라짐
- 방풍림, 수목과 화초, 철새 서식지, 기타 천연기념물

○ 문화적 관광자원 :

- 유형 : 사적지, 건축물, 사찰, 미술 공예품, 국보 및 보물, 기타 유형 문화재
- 무형 : 전승놀이, 풍어제, 당산제, 음악, 어선·어구 제작, 기타 무형 문화재

○ 산업적 관광자원 :

- 활어공판장, 가공 해산물 판매장, 자연산 해산물 채취장, 양식장, 어선어업, 기타 지역 특산물
- 어항시설, 어선 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방파제, 등 하부구조

○ 위락적 관광자원 :

- 해수욕장, 요트장, 호텔, 콘도미니엄, 민박업 요식업, 캠프장, 관광 유어선

3. 조사방법

- 우편조사와 연구자 현지 방문조사를 병행 실시
- 조사단위: 어촌계에 속한 하나의 행정리
 이 경우 어촌계장이 거주하는 마을을 기준으로 함
- 조사대상: 어촌계장
- 조사대상마을 선정 방법
 - 우편조사 대상 마을: 수협 중앙회에서 발간한 전국 어촌계 현황 자료의 어촌계 명부 중에서 매 5번째의 어촌계를 통계적으로 추출하되 도시 지역이거나 규모가 커서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제외
 - 면접조사 대상 마을: 우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어촌계 중에서 면접자 임의로 선정

4. 조사 및 분석 대상 어촌계 규모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자료에 의하면 1994년 말 현재 전국에는 1,679개의 어촌계가 있다. 이번 우편조사에서는 총 어촌계의 22.4%에 해당하는 370개 어촌계를 전국 어촌계 명부에서 추출하여 설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이들 중 회수된 조사표 103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의 회수율은 27.8%였다. 한편 연구자가 직접 해안선에 접한 8개도의 66개 어촌마을을 방문하여 관광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의 면담 조사마을은 우편조사 마을과 중복되지 않는 마을로서 관광어촌의 유형과 관광산업의 발전도, 정부지원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시설의 유무등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총 분석대상 어촌마을 수는 169개로서 총 어촌계의 10.1%에 해당한다. 도별 어촌계 수와 표본의 크기는 <표 4-1>과 같다.

표 4-1 도별 어촌계 현황과 관광자원 분석 대상 어촌계 규모

도 별	총 어촌계 수 (A)	우편조사대상 어촌계 수(B)	B/A	조사표 회수율	면접 어촌계수	분석대상 어촌계수
경 기	87 (5.2)	24 (6.5)	27.6	29.2	5	12 (7.1)
강 원	62 (3.7)	15 (4.1)	24.2	33.3	1	6 (3.6)
충 남	67 (4.0)	29 (7.8)	43.3	31.0	20	29 (17.2)
전 북	55 (3.3)	22 (6.0)	40.0	18.2	10	14 (8.3)
전 남	809 (48.2)	159 (42.9)	19.7	22.0	12	47 (27.8)
경 북	137 (8.2)	43 (11.6)	31.4	46.5	2	22 (13.0)
경 남	364 (21.7)	59 (15.9)	16.2	27.1	16	32 (18.9)
제 주	98 (5.8)	19 (5.1)	19.4	36.8	0	7 (4.1)
계	1,679 (100.0)	370 (100.0)	22.0	103 (27.8)	66	169 (100.0) (전체의10.1%)

제2절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잠재력

1. 자연적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잠재력

전국의 어촌이 가장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연자원은 낚시터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어촌의 72.2%가 바다 낚시터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 중 88.5%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낚시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낚시터 다음으로 중요한 자원은 마을 주변의 산이었고 백사장, 갯벌, 기암 괴석이 다음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마을 주변에 산을 자원으로 지니고 있는 마을은 55.6%로 나타나지만 산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은 이 중 63.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사장을 지니고 있는 어촌은 49.1%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중 백사장을 해수욕장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마을은 75.9%로 비교적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갯벌을 지니고 있는 어촌은 전국 어촌의 45.0%이지만 이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기에 좋다고 응답한 어촌은 59.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 주변에 기암·괴석이 있는 마을은 33.7%였으며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어촌은 이 중 82.5%로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전국 어촌의 26.0%가 방풍림을 지니고 있으며 25.4%의 어촌이 철새 서식지를 지니고 있고 18.3%의 어촌이 관상적 가치가 있는 수목과 화초를 자원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풍림과 수목을 자원으로 지니고 있는 마을 중 각각 72.7%, 67.7%가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철새 서식지를 지니고 있는 마을은 46.5%만이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

동굴과 바다 갈라짐, 하천과 하구언을 지니고 있는 마을도 각각 13.0%, 13.5%, 14.8%씩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2 자연적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잠재력

	어촌마을의 자원보유율 (A)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		
		좋다(B) (B/A)	보통	좋지않다
백사장	49.1	37.3 (75.9)	8.3	3.6
낙시터	72.2	63.9 (88.5)	6.5	1.8
동굴	13.0	6.5 (50.0)	1.8	4.7
바다 갈라짐	11.8	6.5 (55.1)	2.4	3.0
갯벌	45.0	26.6 (59.1)	10.1	8.3
방풍림	26.0	18.9 (72.7)	3.6	3.6
수목 및 화초	18.3	12.4 (67.7)	3.0	3.0
기암 괴석	33.7	27.8 (82.5)	3.0	3.0
마을 산	55.6	35.5 (63.8)	10.1	10.1
하천 및 하구언	14.8	7.1 (48.0)	3.0	4.7
철새 서식지	25.4	11.8 (46.5)	8.9	4.7

자연적 관광자원의 도별, 해안별 분포를 보면 <표 4-3> 및 표4-4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사장은 강원도와 경북도 지방에 높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고 간사지가 많은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분포율이 낮다. 백사장의 분포를 해안별로 볼 때, 동해안은 80.6%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서해안은 50.9%, 남해안은 36.1%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갯벌은 강원도와 경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서남해안 일대에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다 갈라짐 현상은 간사지가 잘 발달된 서해안에서는 14.5%, 남해에서는 13.3%의 분포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간사지가 발달하지 않은 동해안과 제주도 지방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촌의 경관 유지와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조성된 방풍림은 강원도에서 50.0%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와 충남, 경북지방의 어촌이 33.3%, 37.9%, 22.7%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고 전남, 경남, 제주 등 남해안 지역은 방풍림 보유율이 23.4%, 21.9%, 14.3% 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암·괴석의 보유율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보다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바닷물에 의한 침식 작용이 컸던 서·남해안에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 마을의 산 보유율은 경기도와 전북지방에서 83.3%, 64.3%로 높게 나타나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50% 내외로 비슷한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안별로 나누어 볼 때,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의 어촌은 각각 63.6%, 54.8%의 산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남해안 지역 어촌마을의 산 보유율은 50.6%로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의 어촌에 비해서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철새 서식지를 지니고 있는 어촌지역 중 충남과 전남, 경남과 제주도지방은 27~28%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16.7%로 낮으며 그 외의 지방에서는 21~22% 수준의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해안별로 구분해 볼 때,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 어촌의 철새 서식지 보유율이 각각

22.6%, 23.6%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해안 어촌은 27.7%로 나타나고 있다. 서해안 지역은 넓은 간사지와 하구언에서 생산되는 먹이가 풍부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이 철새 서식지의 보유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도권 일원의 공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3 도별 자연적 관광자원의 분포 실태

	백사장	갯벌	바다 갈라짐	늪시터	방풍림	마을 산	기암괴석	철새 서식지
경기	50.0	66.7	8.3	83.3	33.3	83.3	58.3	16.7
강원	100.0	-	-	83.3	50.0	66.7	16.7	16.7
충남	48.3	62.1	17.2	68.9	37.9	55.2	37.9	27.6
전북	57.1	71.4	14.3	71.4	14.3	64.3	28.6	21.4
전남	38.3	63.8	12.8	68.1	23.4	51.1	29.8	27.7
경북	72.7	-	-	63.6	22.9	50.0	31.8	22.7
경남	37.5	31.3	18.8	75.0	21.9	53.1	34.4	28.1
제주	42.9	-	-	100.0	14.3	42.9	28.6	28.6
계	49.1	45.0	11.8	72.2	26.0	55.6	33.7	25.4

표 4-4 해안별 자연적 관광자원의 분포 실태

구분	백사장	갯벌	바다 갈라짐	늪시터	방풍림	산	기암괴석	철새 서식지
서해	50.9	65.5	14.5	72.7	30.9	63.6	40.0	23.6
남해	36.1	47.0	13.3	74.7	21.7	50.6	30.1	27.7
동해	80.6	3.2	3.2	64.5	29.0	54.8	32.3	22.6

자연적 관광자원 중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자원은 늪시터와 백사장이다. 방풍림, 기암·괴석, 수목과 화초도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어촌지역의 동굴과 갯벌, 바다 갈라짐, 하천과 하구언, 철새 서식지 등도 훌륭한 생태

관광지가 될 수 있지만 어촌지역 주민들은 이들 자원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백사장이나 낚시터와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현재 우리나라 어촌관광이 해수욕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연경관 감상과 생선회 즐김과 바다 낚시 등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갯벌과 하구언의 철새 서식지, 동굴, 바다 갈라짐 등은 훌륭한 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촌관광은 해안 생태관광에 더 관심을 표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지역에 산재한 산도 훌륭한 관광자원이지만 이와 같은 자원이 어촌 관광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해수욕 중심의 어촌관광은 한철 관광이지만 어촌지역의 생태학습 관광과 인근 산을 이용한 등산활동과 연계시킬 때, 어촌관광은 사철 관광으로 확대 발전될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2. 산업적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잠재력

어촌지역에서 산업적으로 중요한 자원은 방파제, 항구 및 포구, 어선 접안시설 등과 자연해산물 채취장, 양식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전국 어촌의 63.3%가 방파제를 갖추고 있으며 어항과 포구를 지니고 있는 어촌은 56.2%, 어선의 접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촌은 49.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촌의 수산업 자원 중 전체 어항 및 포구의 68.5%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방파제는 52.3%, 어선 접안시설은 46.5%가 관광자원화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 지역의 여객터미널은 전체 어촌의 16.0%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 중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된 여객터미널은 전체 여객 터미널의 59.4%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어촌에서 수산업과 관련된 관광자원으로 어선 어업을 하는 어촌이 66.3%, 자연산 해산물 채취장이 있는 어촌이 58.0%, 활어 양식장이 있는 어촌이

33.1%, 패류 양식장이 있는 어촌이 49.1%, 해조류 양식장이 있는 어촌이 37.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활어 공판장을 갖춘 어촌이 22.5%, 가공 해산물 판매장을 갖춘 어촌이 16.6%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높은 것은 가공 해산물 판매장과 활어 공판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공 해산물 판매장을 갖춘 78.3%의 어촌이, 활어 공판장을 갖춘 76.4%의 어촌이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 패류 양식장, 활어 양식장, 자연산 해산물 채취장 등을 갖춘 어촌에서도 72.3%, 64.4%, 66.4%의 어촌들이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4-5 산업적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잠재력

	어촌마을의 자원보유율 (A)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		
		좋다(B) (B/A)	보통	좋지않다
항구 및 포구	56.2	38.5 (68.5)	9.5	8.3
여객터미널	16.0	9.5 (59.4)	2.4	4.1
방파제	63.3	33.1 (52.3)	14.2	16.0
어선집안 시설	49.7	23.1 (46.5)	13.0	13.6
활어공판장	22.5	17.2 (76.4)	2.4	3.0
가공해산물판매장	16.6	13.0 (78.3)	1.8	1.8
자연해산물채취장	58.0	38.5 (66.4)	12.4	7.1
어선어업	66.3	37.9 (57.2)	14.8	13.6
활어양식업	33.1	21.3 (64.4)	5.3	6.5
패류양식업	49.1	35.5 (72.3)	8.3	5.3
해조류양식업	37.3	22.5 (57.5)	7.7	7.1

산업적 관광자원의 도별, 해안별 분포는 <표 4-6> 및 <표 4-7>과 같다. 어항과 포구는 강원도와 경북 등 동해안 어촌의 64.5%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해와 남해안 어촌의 56.4%, 53.0%가 어항 또는 포구를 지니고 있다. 동해안 어촌이 항구 보유율이 높은 것은 동해안이 수심이 깊어 항구

의 개발 조건을 갖춘 곳이 많다는 지리적 잇점 이외에도 간사지 등이 부족한 동해안의 어촌들은 양식업보다는 주로 어선 어업을 통하여 어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객 터미널은 도서가 많은 서남해안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가공 해산물 판매장을 보유한 어촌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전북도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안별로도 서해안이 21.8%로 동해안 16.1%, 남해안이 13.3%로 나타난다. 자연산 해산물 채취장을 보유하고 있는 어촌의 비율은 강원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나타난다. 해안별로는 남해안과 동해안이 각각 62.7%, 61.3%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서해안은 49.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서해안이 간사지가 많아 자연산 해산물 채취장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못한 이유는 접근성 불량과 서해안의 오염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자연산 수산물 채취 어장은 주로 해녀들의 활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잠수장비를 갖춘 심해 채취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활어 공판장을 보유하고 있는 어촌의 비율은 경북도가 가장 높으며 전북도가 가장 낮았다. 활어 공판장의 보유율은 동해안 어촌이 29.0%로 가장 높으며 서해안 21.8%, 남해안 20.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해안에 어항이 많은 것과 연관이 있다.

활어 양식업은 전북, 경남, 제주도의 어촌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강원, 경기, 충남, 경북도 어촌지역에서 낮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다. 해안별 어촌의 활어 양식장 분포율을 보면 남해안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해안 29.1%, 동해안 22.6%로 낮게 나타난다.

패류 양식장 보유율은 경기, 충남, 전북 등 서해안의 어촌이 72.7%로 높으며 남해안은 45.7%, 동해안은 16.1%로 낮게 나타난다. 반면 해조류 양식장 보유

울은 전남, 경남 등 남해안의 어촌에서 44.6%로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서해안의 어촌에서 40.0%, 동해안 어촌에서는 12.9%로 낮게 나타난다. 남해안은 활어 양식과 해조류 양식업의 비율이 더 높고 서해안은 잘 발달된 간사지를 이용한 패류 양식업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해안에 양식업 비율이 높은 것은 남해 지역이 다도해 지역으로서 양식업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었으며 양식업 기술이 남해에서 먼저 발전하여 서해와 동해로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6 산업적 관광자원의 도별 분포 실태

	항 구	여 객 터미널	활 어 공판장	가공해산물 판매장	자연산 채취장	활 어 양식장	패 류 양식장	해조류 양식장
경기	66.7	25.0	25.0	16.7	41.7	25.0	66.7	33.3
강원	50.0	-	16.7	-	16.7	16.7	33.3	0.0
충남	48.3	20.7	27.6	17.2	58.6	24.1	72.4	41.1
전북	64.3	14.3	7.1	35.9	35.7	42.9	78.6	42.9
전남	46.8	19.1	14.9	14.9	59.6	38.3	42.6	61.7
경북	63.6	4.5	31.8	13.6	68.2	22.7	9.1	9.1
경남	59.4	18.8	28.1	15.6	65.6	40.6	56.3	28.1
제주	85.7	-	28.6	14.3	85.7	42.9	14.3	14.3
계	56.2	16.0	22.5	16.6	58.0	33.1	49.1	37.3

표 4-7 해안별 산업적 관광자원의 분포 실태

구분	어 항	여 객 터미널	활 어 공판장	가공해산물 판매장	자연산 채취장	활 어 양식장	패 류 양식장	해조류 양식장
서해	56.4	20.0	21.8	21.8	49.1	29.1	72.7	40.0
남해	53.0	15.7	13.3	13.3	62.7	39.8	45.8	44.6
동해	64.5	9.7	16.1	16.1	61.3	22.6	16.1	12.9

3. 문화적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잠재력

문화적 관광자원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산제와 풍어제 등 어촌의 공동 종교행사와 사찰, 사적지, 전통 식음료 등이다. 반면 전승 놀이나 전승 음악, 미술, 공예품 제작 등은 그 보유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지역에서는 풍어제보다 당산제를 행하는 어촌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당산제를 지내는 어촌의 비율이 36.1%인 반면 풍어제를 지내는 어촌의 비율은 32.5%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당산제는 매년 지내는 공동 종교행사로써 년 1회 또는 년중 4회씩 제사를 지내는 반면 풍어제는 매년 1회 지내는 어촌에서부터 3년,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지내는 어촌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¹³⁾

풍어제와 당산제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어촌은 각각 78.2%와 70.5%로 나타나고 있다. 풍어제는 강원도 어촌지역에 83.3%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이 경북도와 제주도로써 각각 66.6%, 42.9%를 나타내고 있어 풍어제는 동해안과 제주도 등 대해에 연한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경기, 충남, 전남북, 경남도 등 서남해안의 어촌에서는 풍어제를 지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당산제는 경북도, 강원도, 전북도 등의 어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 어촌의 72.7%가, 강원도와 전북도 어촌의 50.0%, 42.9%가 각각 당산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산제를 지내는 어촌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도 지역으로 10.3%의 어촌에서만 당산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¹³⁾ 어촌에서 당산제는 매년 1~4회 지내는 반면 풍어제는 년 1회에서부터 수년 마다 1회씩 지내는 것은 종교적 믿음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보인다. 즉 당산제는 비교적 간단한 제물을 마련하여 은밀히 지내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볼 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풍어제는 흔히 외지에서 제사를 집전할 제주(대개 무녀)를 초청하여 수 백만원의 경비를 들여 지내는 큰 곳이기 때문에 매년 풍어제를 지내기에 경제적 부담이 따르게 된다.

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역별로 나누어 볼 때, 동해안의 어촌지역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비율이 67.7%로 높게 나타나며 남해안은 32.5%로, 서해안의 어촌에서는 23.6% 만이 당산제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풍어제와 당산제가 동해안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현상은 흥미롭다. 풍어제는 표면상으로는 풍어를 기원하는 종교 행사이지만 그 속에는 격랑속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선원과 어선의 안전 귀항을 염원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 당산제는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마을의 집단적인 종교 행위이다. 두 종교 행위의 공통점은 마을 구성원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예기치 못했던 재해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마을 주민들의 염원이 강하게 배어 있는 전통적인 종교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동해안과 제주도 등지에 이와 같은 종교 행위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들 지역 주민들이 위험한 어로 작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풍어제나 동제와 같은 종교 행위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정도가 타 지역보다 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풍어제는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벌리는 큰 굿판이기 때문에 관광적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당산제는 마을 공동 행사이지만 마을에서 선택된 제주가 한 밤중에 혼자 은밀히 지내는 종교 행사로서 당산제 자체로서는 풍어제보다 관광적 요소가 떨어진다. 그러나 당산제는 제사를 전후하여 마을 주민들이 모여 풍물을 이용해 기분을 돋우는 축제적 행사를 수반하므로 이러한 뒷풀이 축제가 오히려 관광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풍어제와 동제를 지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를 종교 문화적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찰과 사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어촌의 비율은 15.4%와 13.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찰과 사적지는 연중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찰의 경우 84.6%의 어촌이, 사적지의 경우는 73.9%의 어촌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사찰은 주로 경기도와 전북도, 경남도의 어촌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적지의 경우는 제주도와 경남도, 경기도, 전북도 등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 음식이나 술 등을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촌의 비율은 각각 7.7%, 5.3%로 낮지만 이러한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7%, 66.7%로 높게 나타난다. 전통 놀이와 전통 음악은 각각 7.1%, 3.0%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의 관광자원화 가능성은 42.3%, 20.0%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4-8 문화적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잠재력

	어촌마을의 자원 보유율 (A)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		
		좋 다(B) (B/A)	보 통	좋지않다
전승놀이	7.1	3.0 (42.3)	2.4	1.8
풍 어 제	32.5	17.8 (54.8)	7.7	7.1
당 산 제	36.1	16.0 (44.3)	9.5	10.7
전통음악	3.0	0.6 (20.0)	-	2.4
사 찰	15.4	11.2 (72.7)	1.8	2.4
주요건축물	5.9	2.4 (40.7)	1.2	2.4
사 적 지	13.6	7.7 (56.6)	2.4	3.6
전 통 술	5.3	3.6 (67.9)	-	1.8
전통음식	7.7	5.9 (76.6)	-	1.8
기타음식, 음료	13.0	8.9 (68.5)	1.2	3.0
도자기(옹기)제작	3.0	0.6 (20.0)	0.6	1.8
그림(미술가)제작	3.0	1.2 (40.0)	0.6	1.2
어선제작	10.1	3.6 (35.6)	2.4	4.1
조개껍질 가공	4.1	1.8 (43.9)	0.6	1.8
기타 특산물	11.8	10.7 (90.7)	-	1.2

표 4-9 도별 문화적 관광자원의 분포 실태

	풍어제	당산제	사찰	사적지
경기	33.3	33.3	50.0	25.0
강원	83.3	50.0	-	-
충남	27.6	10.3	3.4	-
전북	28.6	42.9	14.3	25.0
전남	23.4	31.9	10.6	10.6
경북	63.6	72.7	9.1	11.1
경남	18.8	37.5	31.3	28.1
제주	42.9	28.6	-	60.0
계	32.5	36.1	15.4	23.6

표 4-10 해안별 관광자원의 분포 실태

구분	풍어제	당산제	사찰	사적지
서해	29.1	23.6	16.4	7.3
남해	22.9	32.5	15.7	20.5
동해	64.5	67.7	12.9	6.5

어선을 제작하는 어촌의 비율은 10.1%에 달하지만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자기나 용기제작, 그림제작, 조개 껍질 가공 등 공예품을 제작하는 어촌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이를 관광자원화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산물을 생산하는 어촌이 11.8%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산물을 생산하는 어촌에서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한 어촌은 90.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관광자원은 분포율도 낮고 개발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풍어제와 당산제, 사찰과 사적지, 전통적인 식음료와 어선 제작, 기타 특산물들은 훌륭한 문화적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어촌관광이 먹고 즐기는 관광에서 생활문화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장으로 발전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한 계절성이 강한 어촌관광을 문화 중심의 사철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촌의 전통문화와 종교 및 관습 등을 정비하여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

4. 위락적 관광자원의 분포와 개발 잠재력

어촌지역에 가장 많이 보급된 숙박업소는 민박이다. 전국 어촌의 50.3%에 민박이 보급되어 있다. 반면에 호텔과 콘도미니엄과 같은 대자본이 투입된 숙박시설 겸 위락시설은 극히 적다. 호텔이 입주한 어촌의 비율은 3.0%였으며 콘도미니엄이 입주한 어촌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관업은 20.1%의 어촌에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횃집과 일반 음식점도 비교적 많이 입주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 어촌의 54.4%에 횃집이 들어서 있고 일반음식점은 30.2%의 어촌에 입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선 또는 낚시용 유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어촌은 42.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캠프장이 설치된 어촌은 8.3%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지역의 숙박시설은 주로 민박업이지만 민박업소가 있는 어촌은 50.3%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50%정도의 어촌은 민박업 마저도 없는 관광의 황무지로 나타나고 있다. 관광 편의시설인 주차장, 공중 화장실, 공중 샤워장 등을 갖춘 어촌도 전국의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캠프장이 설치된 어촌은 8.3%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촌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민박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확충과 주차장 시설, 공중 화장실, 샤워장 등 관광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1 위락적 관광시설의 분포 실태

구 분	어촌마을의 자원보유율	어촌 마을당 시설 분포 비율			
		1~5개	6~10개	11~15개	15개이상
호 텔	3.0	100.0	-	-	-
콘도미니엄	1.2	100.0	-	-	-
여 관	20.1	64.7	26.5	2.9	5.9
민박업소	50.3	28.3	18.8	14.1	38.8
일반음식점	30.2	58.8	25.5	2.0	13.7
횃 집	54.4	69.6	15.2	5.4	9.8
관광유어선 운영	42.6	37.5	29.2	8.3	25.0
주차장	32.0	92.6	7.4	-	-
공중화장실	36.1	93.4	6.6	-	-
공용샤워장	21.3	86.1	11.1	-	2.8
관광상품 판매장	5.9	80.0	-	-	20.0
캠프장	8.3	100.0	-	-	-

표 4-12 어촌지역의 문화재 보유 실태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천연기념물	5.3	지방문화재	11.2
국 보	1.2	유형문화재	6.5
보 물	-	무형문화재	3.6

5. 관광자원간의 상관관계

관광자원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연적 관광자원과 산업적 관광자원, 문화적 관광자원 상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표 4-1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산업적 관광자원인 항구, 여객 터미널, 방파제, 등이 타 자원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첨부된 부록 자료 4-1 참조).

표 4-13 주요 관광자원간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 관계

관광자원	상관관계가 있는 관광자원
해수욕장	방풍림, 풍어제, 기암·괴석,
낙시터	방파제
갯벌	바다 갈라짐, 패류 양식장
마을 하천, 하구언	방풍림, 바다 갈라짐, 철새 서식지, 자연산 수산물 채취장, 어선 어업
방풍림	해수욕장, 마을 하천, 도자기 제작
철새도래지	마을 하천, 여객 터미널, 어선 어업
항구	여객 터미널, 방파제, 활어 공판장, 자연산 수산물 채취장, 어선 어업, 활어 양식장
여객터미널	철새 서식지, 항구, 방파제, 활어 공판장, 젓갈류 판매장, 어선 어업, 활어 양식업, 그림 미술 제작, 어선 제작, 패각 공예
방파제	항구, 여객 터미널, 활어 공판장, 어선 어업, 활어 양식업, 풍어제, 어선 제작
활어공판장	항구, 여객 터미널, 방파제, 풍어제, 어선 제작,
젓갈 판매장	여객 터미널, 도자기 판매
자연산 채취장	마을 하천, 항구, 어선 어업, 활어 양식업, 패류 양식업
어선 어업	항구, 여객 터미널, 방파제, 자연산 수산물 채취장, 활어 양식업, 풍어제, 사찰
활어 양식업	낙시터, 항구, 여객 터미널, 방파제, 자연산 수산물 채취장, 어선 어업, 사찰
굴 양식업	바다 갈라짐, 갯벌, 자연산 수산물 채취장,
풍어제	백사장, 방파제, 활어 공판장, 어선 어업, 당산배
당산제	풍어제, 도자기 제작, 그림 제작,
사찰	어선 어업, 활어 양식업, 사적지, 그림 제작, 도자기 제작,
사적지	사찰, 어선 제작,
도자기 제작	방풍림, 가공 수산물 판매장, 당산제, 사찰, 그림 제작
그림 제작	여객 터미널, 가공 수산물 판매장, 당산제, 사찰, 도자기
어선 제작	여객 터미널, 방파제, 활어 공판장, 사적지
패각 가공	여객 터미널

주: 통계적 유의수준 0.5% 이내의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임.

즉 항구는 여객 터미널, 방파제, 활어 공판장, 자연산 수산물 채취장, 어선어업, 활어 양식업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객터미널은 항구 외에도 방파제, 활어 공판장, 수산 가공품 판매장, 어선 어업, 활어 양식업, 철새 서식지, 그림등 미술품 제작, 어선 제작, 패각 공예 등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백사장은 방풍림, 기암·괴석, 풍어제와, 낚시터는 방파제와, 그리고 갯벌은 바다 갈라짐과 굴 등 패류 양식업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적 관광자원이 자원 상호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원들이 전후방 산업간의 연관 효과를 유발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촌관광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어촌 지역에 숙박시설이나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 편의시설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어항개발이나 여객 터미널과 같이 전후방 산업간 연관 효과가 높은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연관 산업을 유치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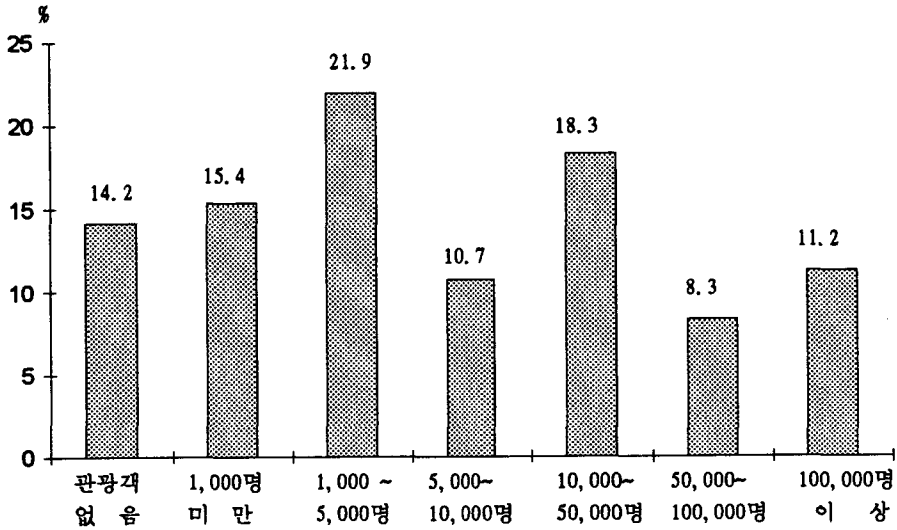
제3절 어촌지역의 관광행태

1. 어촌관광객 수와 관광객의 특성

어촌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들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전국 평균으로 볼 때, 관광목적으로 어촌을 찾는 관광객 수는 어촌 당 5,8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이 전혀 찾지 않는 어촌도 14.2%에 달하며 연간 1000명 미만의 관광객이 찾는 한적한 어촌도 15.4%에 달하고 있다. 연간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의 관광객이 찾는 어촌은 21.9%에 이르고 있고 연간 관광객이 10,000명 이상 방문하는 어촌은 37.8%에 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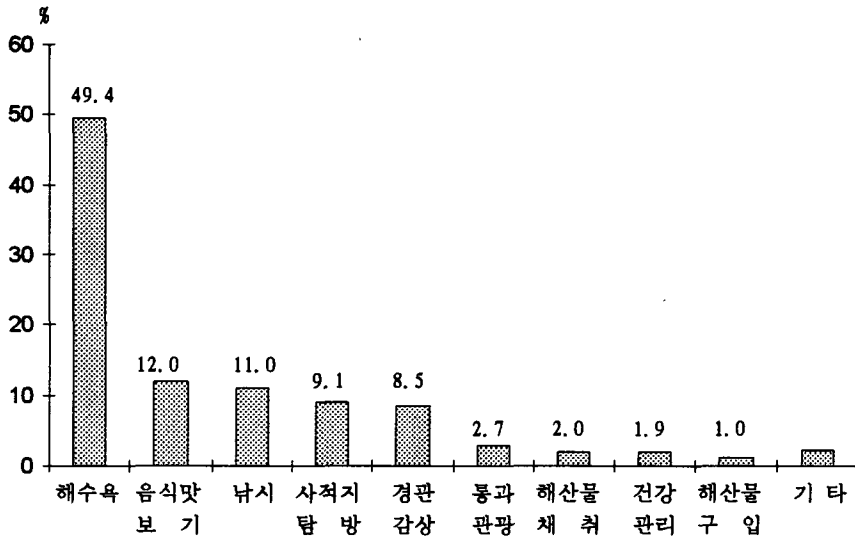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 관광객 수별 어촌의 분포 비율



어촌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해수욕객들이다. 1995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의 어촌계장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해수욕객이 어촌 관광객의 49.4%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생선회 등 바닷가 음식을 맛보기 위하여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비율이 12.0%, 낚시객이 11.0%, 사적지 탐방객이 9.1%, 바닷가의 풍광 감상을 위한 관광객이 8.5%, 여객 터미널을 통한 통과 관광객이 2.7%, 자연 해산물 채취 등 채취활동을 위하여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2.0%, 모래욕 등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1.9%, 해산물 구입을 위해 어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1.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3 어촌관광지역의 관광활동별 관광객 비율



어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주로 가족단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지역을 방문할 때의 동반자가 가족인 경우가 6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친구나 단체 관광객이 20.6%로 많았다. 이들 단체 관광객은 고향친구, 직장 동료인 경우도 많지만 계모임의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4 어촌지역 관광객의 성격

구분	비율
가족단위 방문객	63.1
친구 등 단체 관광객	20.6
연인간	2.8
기타	5.7
무응답	7.8

어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주로 30~50대의 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지역별로 방문객 수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연령대를 분석해 볼 때, 30~50대의 연령층이 방문객 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변한 어촌의 비율이 6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20~30대의 연령층이 2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50대 연령층의 비율은 8.3%로 낮았으며 10대는 1.8%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촌지역을 방문하는 주 관광객은 30~50대의 원기 왕성한 청장년층으로 나타나며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5 어촌별 관광객의 연령대별 구성 비율

연령별 구성비	10대	20~30대	30~50대	50대 이상
없 음	25.4	4.1	0.6	10.1
10% 미만	37.3	7.7	-	27.2
20% 미만	20.7	34.9	6.5	26.0
30% 미만	14.8	32.0	27.8	28.4
40% 미만	1.8	14.8	23.7	4.7
50% 미만	-	3.5	26.0	1.8
60%미만	-	1.8	5.3	0.6
60% 이상	-	1.2	10.1	1.2
30%이상 구성비	1.8	21.3	65.1	8.3

2. 어촌관광의 매력 상품

어촌지역에서 매력적인 관광상품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관광자원이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고 있는가?

전국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촌지역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유를 분석해 볼 때 관광객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낚시를 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이 해수욕이고 어촌과 바다의 자연경관 감상, 생선 회 등 바닷가의 음식을 즐기기 위하여 어촌을 방문하는 것이 그 다음의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어촌 중 낚시를 하기 위하여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응답한 어촌이 63.9%, 해수욕을 목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어촌이 42.6%, 자연경관 감상을 위하여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어촌이 33.1%, 바닷가의 음식맛을 보기 위하여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어촌이 31.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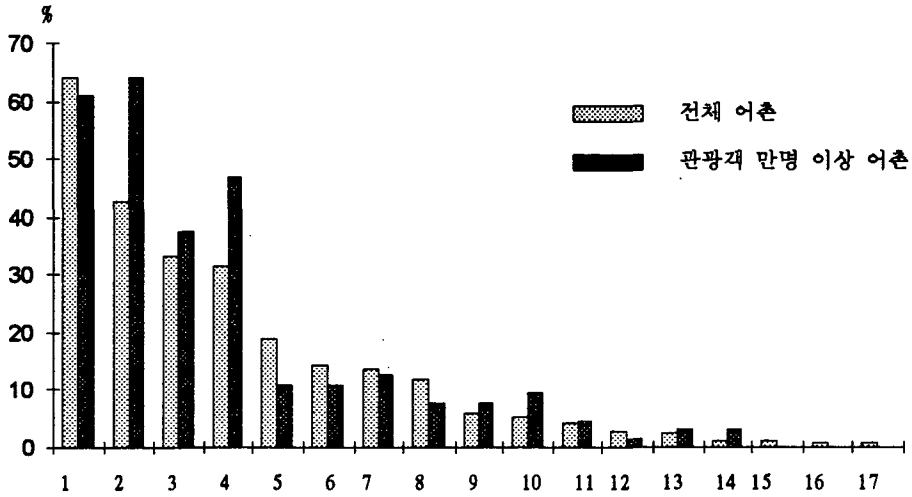
표 4-16 어촌지역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유

전 체		관광객 10,000명이상 오는 마을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낚 시	63.9	낚 시	60.9
해수욕	42.6	해수욕	64.6
자연경관감상	33.1	음식맛보기	46.9
음식맛 보기	31.4	자연경관감상	37.5
자연산 해산물 채취	18.9	자연산 해산물 채취	10.9

주 : 중복응답율임

그러나 연간 관광객 수가 10,000명 이상 방문하는 어촌을 대상으로 이를 분석해 보면 해수욕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비율은 64.6%, 바닷가의 음식맛을 보기 위하여 찾아오는 경우가 46.9%, 자연경관 감상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37.5%로 전국 어촌의 경우와 달리 높은 경향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낚시를 목적으로 어촌을 찾아오는 비율은 60.9%로, 해산물을 채취하러 오는 비율은 10.9%로 전국의 비율보다 오히려 낮았다.

그림 4-4 어촌지역 전체와 관광객이 많은 지역간의 관광 행태 차이



1낚시, 2해수욕, 3자연경관 감상, 4음식 맛보기, 5해산물 채취, 6휴식, 7해산물 구입, 8벉놀이, 9바다 모래욕, 10사적지 탐방, 11의지 통과, 12등산, 13숙박, 14파도타기, 15요양, 16온천욕, 17풍어제 관람

표 4-17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어촌의 자원 보유 실태와 전체 어촌과의 비교

구 분	전 체	관광객 만명이상 방문 어촌 마을	차 이
백사장	49.1	70.3	21.2
낚시터	72.2	78.1	5.9
기안괴석	33.7	39.1	5.4
마을산	55.6	62.5	6.9
갯 별	45.0	32.8	-12.2
방풍림	26.0	29.7	3.7
항구/포구	56.2	60.9	4.7
활어공판장	22.5	32.8	10.3
활어양식업	33.1	39.1	6.0
자연해산물 채취장	58.0	64.1	6.1
어선어업	66.3	70.3	4.0
풍어제	32.5	40.6	8.1
사 찰	15.4	17.2	1.8
음식, 음료	13.0	18.8	5.8

주: 해수욕, 횃집 등 음식 맛보기 등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변화를 토대로 유추해 볼 때,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어촌의 주 매력물은 현재로서는 해수욕, 생선회 등 바닷가의 음식, 바다와 어우러진 어촌의 자연 경관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전국 어촌의 관광자원 보유 실태와 연간 관광객이 10,000명 이상 찾아오는 어촌의 자원 보유 실태를 비교해 볼 때 더욱 명확해 진다. 전국 어촌의 관광자원 보유율과 관광객이 연간 10,000명 이상 찾아오는 두 지역의 자원 보유율에서 두드러진 차가 나타나는 자원은 백사장, 갯벌, 활어공판장 등이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어촌에 오히려 갯벌 보유율이 적은 점을 볼 때, 갯벌을 이용하는 관광행태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관광자원은 백사장과 활어공판장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어촌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해수욕과 생선회 등 음식맛보기 등이라는 점과 일치한다.

2. 어촌지역의 관광행태와 계절성

어촌지역에의 관광행태는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하지만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낚시, 해수욕, 자연경관 감상, 음식맛 보기, 해산물 채취, 문화행사 참여 등이다. 바다모래욕, 사적지 탐방, 온천욕, 뱃놀이, 수산물 구입, 휴양 등의 활동도 중요한 관광행위지만 그 비중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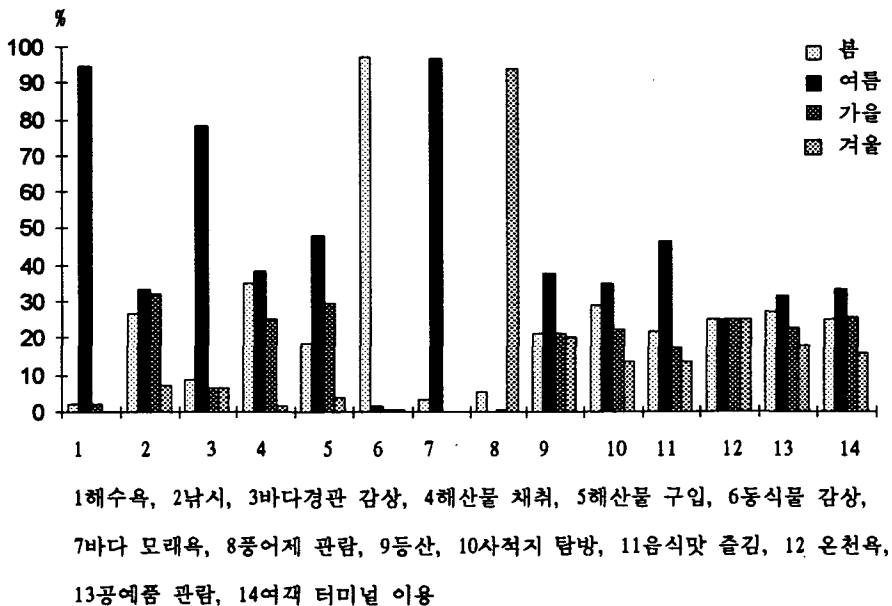
어촌관광행위의 가장 큰 특징은 계절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해수욕, 모래욕, 파도타기, 요트타기 등은 대표적인 여름 관광행위에 속한다. 이와 같은 관광행위 중심의 어촌관광지는 여름철이 지나면 관광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풍어제나 영등제와 같이 특정시기에 실시하는 종교행위를 중심으로 발달된 어촌관광지의 관광행태도 계절성을 면하기 어렵다. 진도의 회동마을의 영등제는 국내

외적으로 유명한 종교행사이며 이를 관람하기 위하여 수십만의 관광객이 몰려 들지만 이들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는 매년 음력 5월 초순 바닷물길이 갈라지는 3~4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곳의 어민들은 이들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민박업을 한다고 해도 민박 운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박 운영에 따른 적절한 시설 개선을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계절성이 강한 해수욕이나 특정 종교활동은 대규모의 관광객을 특정 시기에 유치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계절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에 온천욕은 4계절 운영할 수 있으며 바다 풍경 감상, 음식 맛 보기, 사적지 탐방, 낚시 등도 비교적 계절성을 덜 타는 관광상품이다. 이와 같은 상품은 계절과 관계없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힘은 계절성이 강한 해수욕 등 해양 스포츠보다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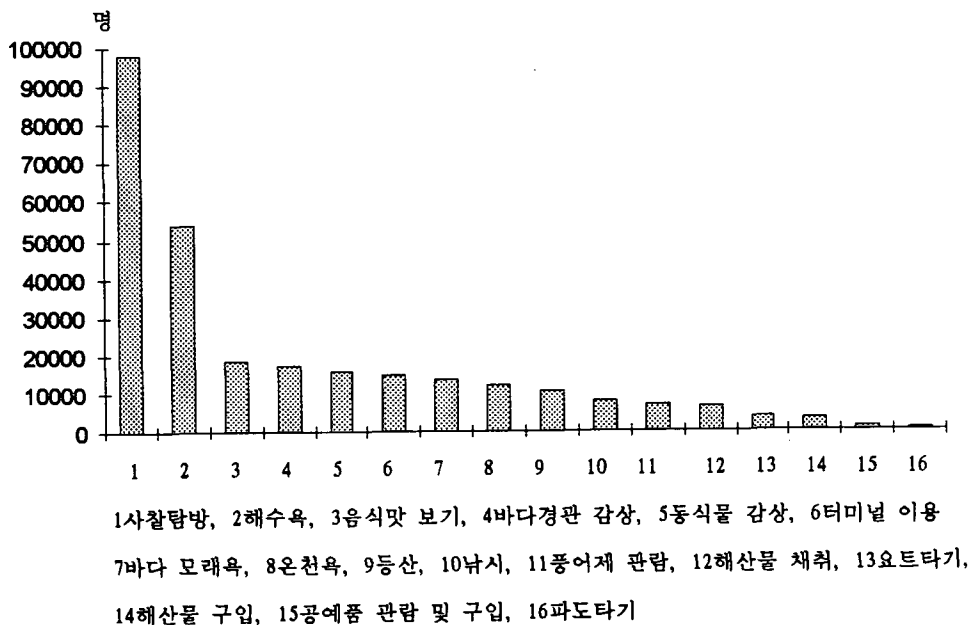
그림 4-5 어촌관광의 관광 활동별 계절성



어촌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관광활동은 위에서와 같이 해수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해수욕은 여름 한철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년중 관광객 유치 면에서 다른 관광활동에 비해 가장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국 어촌의 관광객 내방 수를 그 활동별로 나누고 단위 활동별로 분석해보면 단위 관광지별 관광객을 가장 많이 유인하는 관광활동은 사찰을 중심하는 사적지 탐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촌지역이 계절과 관계없이 관광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여기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 상품을 한두 가지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6 어촌관광의 단위 활동별 연간 관광객 흡입력



제4절 어촌 관광지 개발 의사와 개발 가능성

1. 어촌지역의 관광지 지정과 개발 정도

전국 어촌의 53.9%는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도립 및 군립공원 지역, 국민관광지, 관광어촌 등의 이름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관광지 이름을 부여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국립공원이며 다음이 관광어촌이다. 따라서 46.1%는 지금까지 어떠한 관광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공원 지역에 속한 어촌은 일부 관광지로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어촌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원한 관광어촌은 한 어촌계에 민박집이나 찻집 하나 정도를 지원해 준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광지로의 개발 정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지역의 24.3%가 국립공원 등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어촌지역의 29.6%가 지정관광지 등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원이나 관광지구 지정이 곧 어촌 지역의 관광지 개발과 연계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전국 어촌 중에서 이미 훌륭한 관광지로 개발되었다고 응답한 어촌은 0.6%로 극히 낮았으며 14.8%의 어촌이 이제 막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어촌은 81.0%에 달한다. 이 중에서 4.1%의 어촌은 지역의 여건 상 관광지로 개발되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76.9%의 어촌은 관광지로서의 개발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4-18 어촌지역의 관광지 지정 실태

구 분	비 율	구 분	비 율
국립공원	21.9	지정관광지	5.3
도립공원	1.2	관광어촌	21.3
군립공원	1.2	국민관광지	3.0
공원지역	24.3	관 광 지	29.6

표 4-19 어촌지역의 관광지 개발 정도

구 분		비 율
개 발	이미 훌륭한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다. 관광지로 개발 중	0.6 14.8
미개발	아직 미개발이나 개발 가치가 크다. 관광지 개발 가치 없다.	76.9 4.1
무 응 답		3.6

어촌지역이 아직 까지 관광지로 개발되지 못한 이유로서 중요한 것은 개발 자본의 부족과 오지로서 교통과 접근성의 불량, 주민들의 개발 의욕 부족, 기타 개발을 제한하는 법과 규정 등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서 전국의 도로망이 정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확장되고 있으므로 어촌지역의 오지 또는 접근성 불량은 해소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개발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농특세원을 마련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므로 어촌관광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의 조달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된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농어촌 투자가 계속된다면 어촌지역의 관광을 제약해온 접근성의 불량과 개발 자본의 부족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어촌 주민들의 개발 의욕 진작과 어촌지역의 관광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법 및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0 어촌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지 못한 이유

구 분	비 율
오지로서 도로 및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20.1
군사시설,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6.5
국공립지역이기 때문에	7.1
개발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45.6
개발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에	21.9
기타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 때문에	16.6

주 : 중복응답율임

표 4-21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

구 분	비 율
민박, 음식점, 주차장 등 관광시설 개발	60.4
마을도로 포장·확장 등 마을도로 개발	46.7
어항정비	37.9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장 등 마을환경정비	41.4
해안정비	34.3
버스노선 확장 등 교통수단 개발	24.3
수산특산물 공급 능력 확대	24.3

주 : 중복응답율임

어촌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중요한 대책은 우선 민박, 음식점, 주차장 등 관광객을 맞이하기에 부족하기 쉬운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마을도로의 확장과 포장, 주택개량, 상하수도 정비, 쓰레기 처리장 건설, 어항 정비, 해안정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것이 버스노선의 확장 등 교통수단의 확장, 수산물 공급능력의 확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즉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관광 편의시설 확충 못지않게 마을 환경정비, 주택개량, 어항정비, 교통 수단의 개선 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 어촌지역의 관광지 개발 가능성

전국의 어촌은 얼마나 관광지로 개발 가능한가? 이와 같은 질문은 향후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전국 어촌계장의 92.3%는 현재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어촌이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어촌이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3.0%나 나타나고 있다. 어촌이 관광지로 개발되는 것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지 개발이 어장을 황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관광사업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두렵고 관광객의 내왕이 마을의 질서를 깨뜨리고 문화를 오염시키고 별 소득도 없이 쓰레기가 발생하는 등 마을 환경이 오염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¹⁴⁾

표 4-22 어촌의 관광지 개발 의사

구 분	비 율
찬 성	92.3
반 대	3.0
무 응 답	4.7

¹⁴ 이와 같은 의견은 연구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의견을 종합한 것임.

그러나 어촌주민들이 희망한다고 모든 어촌을 관광지로 개발할 수는 없다. 개발자원의 제약과 함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어촌부터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촌지역은 얼마나 관광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어촌의 정비와 자원의 조성 여하에 따라서 개발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우 좋은 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정도 여건을 갖추고 있다면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촌계장을 통한 자원 조사에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¹⁵⁾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어촌 중 자연적 관광자원을 둘 이상 지닌 어촌은 66.3%, 개발할 가능성이 좋은 편인 산업적 관광자원을 둘 이상 지닌 어촌은 65.7%, 개발할 가능성이 좋은 문화적 관광자원을 하나 이상 지닌 어촌이 42.6%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연적 관광자원과 산업적 관광자원 중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을 둘 이상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어촌의 비율은 각각 40.8%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적 관광자원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어촌의 비율은 29.6%였다.

표 4-23 개발 가능성이 높은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어촌의 비율

구 분	개발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을 지닌 어촌	개발 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을 지닌 어촌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연적 관광자원을 둘 이상 지닌 어촌	66.3%	40.8%
개발 가능성이 있는 산업적 관광자원을 둘 이상 지닌 어촌	65.7%	40.8%
개발 가능성이 있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하나 이상 지닌 어촌	42.6%	29.6%

¹⁵ 여기서 개발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이란 관광자원 조사표에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란에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이며 여기서 개발가치가 높은 높은 관광자원이란 관광자원 조사표에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란에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별로 개발 가능성을 분석하면 전체 어촌 중에서 얼마만큼의 어촌이 개발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어촌의 관광자원은 상호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 4-24와 같은 기준을 지니고 있는 어촌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 어촌의 84.6%가 관광지로 개발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15.4%의 어촌은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관광자원을 현재로서는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 잠재력이 있는 자연적 관광자원과 산업적 관광자원 및 문화적 관광자원을 고루 갖춘 어촌의 비율은 30.8%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세 분류의 자원 중 2분류 이상의 개발 가능한 관광자원을 지닌 어촌은 31.9%로, 한 분류에 해당하는 개발 가능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어촌은 21.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4 관광개발 잠재력을 지닌 어촌의 구분

기 준	관광지로 개발 가능한 어촌	
	개발 잠재력이 있는 어촌	그 중에서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어촌
우수한 자연적 관광자원과 산업적 관광자원을 2 이상 지니고 우수한 문화적 관광자원을 하나 이상 지닌 어촌	30.8%	12.4%
위의 세 분류 중 둘 이상의 자원을 지닌 어촌 - 자연적 자원 + 산업적 자원 - 자연적 자원 + 문화적 자원 - 산업적 자원 + 문화적 자원	31.9% (13.0%) (7.7%) (4.1%)	23.7% (13.0%) (7.7%) (3.0%)
위의 세 분류 중 하나의 자원만을 지닌 어촌 - 자연적 자원 - 산업적 자원 - 문화적 자원	21.9% (7.7%) (10.7%) (3.5%)	26.6% (7.7%) (12.4%) (6.5%)
계	84.6%	62.7%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어촌은 전체 어촌의 6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국 어촌의 62.7%는 관광지로 개발할만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자연적 관광자원과 산업적 관광자원 및 문화적 관광자원을 모두 갖춘 어촌의 비율은 12.4%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세 분류의 자원 중 2분류 이상의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닌 어촌은 23.7%로, 한 분류에 해당하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어촌은 26.6%로 나타나고 있다.

부록 자료 4-1

CORRELATION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 Prob > |R| under Ho: Rho=0 / N = 169

	X1	X2	X4	X5	X6	X10	X11	X12	X13	X14	X16	X17	X18
X1	1.0000 0.0	0.05679 0.4633	0.06093 0.4313	-0.04330 0.5762	0.36659 0.0001	0.11576 0.1339	0.11953 0.1216	0.20020 0.0091	0.08564 0.2682	0.14492 0.0601	0.07492 0.3330	0.01507 0.8459	0.19214 0.0123
X2	0.05679 0.4633	1.0000 0.0	0.15377 0.0459	0.04324 0.5767	0.09964 0.1974	-0.00115 0.9882	0.13755 0.0745	0.12929 0.0939	0.12762 0.0982	0.21935 0.0042	0.15078 0.0504	0.10295 0.1829	0.18599 0.0155
X4	0.06093 0.4313	0.15377 0.0459	1.0000 0.0	0.30463 0.0001	0.13316 0.0844	0.24258 0.0015	0.15579 0.0431	0.11427 0.1390	0.06439 0.4056	0.05093 0.5108	0.02861 0.7119	0.09734 0.2080	0.18343 0.0170
X5	-0.04330 0.5762	0.04324 0.5767	0.30463 0.0001	1.0000 0.0	0.03839 0.6202	0.08336 0.2813	0.07175 0.3539	0.01649 0.8315	0.19245 0.0122	0.02647 0.7327	-0.06251 0.4195	0.00832 0.9145	0.02295 0.7671
X6	0.36659 0.0001	0.09964 0.1974	0.13316 0.0844	0.03839 0.6202	1.0000 0.0	0.32462 0.0001	0.19494 0.0111	0.11276 0.1444	0.12796 0.0973	0.04803 0.5352	0.08783 0.2562	0.03612 0.6410	0.18533 0.0159
X10	0.11576 0.1339	-0.00115 0.9882	0.24258 0.0015	0.08336 0.2813	0.32462 0.0001	1.0000 0.0	0.32333 0.0001	0.20587 0.0072	0.18808 0.0143	0.18123 0.0184	0.12427 0.1074	0.08465 0.2738	0.29851 0.0001
X11	0.11953 0.1216	0.13755 0.0745	0.15579 0.0431	0.07175 0.3539	0.19494 0.0111	0.32333 0.0001	1.0000 0.0	0.13381 0.0828	0.28162 0.0002	0.16118 0.0363	0.13942 0.0706	0.15751 0.0408	0.19367 0.0116
X12	0.20020 0.0091	0.12929 0.0939	0.11427 0.1390	0.01649 0.8315	0.11276 0.1444	0.20587 0.0072	0.13381 0.0828	1.0000 0.0	0.23433 0.0022	0.35736 0.0001	0.37984 0.0001	0.13460 0.0810	0.29047 0.0001
X13	0.08564 0.2682	0.12762 0.0982	0.06439 0.4056	0.19245 0.0122	0.12796 0.0973	0.18808 0.0143	0.28162 0.0002	0.23433 0.0022	1.0000 0.0	0.30418 0.0001	0.24861 0.0011	0.28368 0.0002	0.17102 0.0262
X14	0.14492 0.0601	0.21935 0.0042	0.05093 0.5108	0.02647 0.7327	0.04803 0.5352	0.18123 0.0184	0.16118 0.0363	0.35736 0.0001	0.30418 0.0001	1.0000 0.0	0.44796 0.0001	0.13703 0.0756	0.17545 0.0225
X16	0.07492 0.3330	0.15078 0.0504	0.02861 0.7119	-0.06251 0.4195	0.08783 0.2562	0.12427 0.1074	0.13942 0.0706	0.37984 0.0001	0.24861 0.0011	0.44796 0.0001	1.0000 0.0	0.12569 0.1035	0.18720 0.0148
X17	0.01507 0.8459	0.10295 0.1829	0.09734 0.2080	0.00832 0.9145	0.03612 0.6410	0.08465 0.2738	0.15751 0.0408	0.13460 0.0810	0.28368 0.0002	0.13703 0.0756	0.12569 0.1035	1.0000 0.0	0.13734 0.0750
X18	0.19214 0.0123	0.18599 0.0155	0.18343 0.0170	0.02295 0.7671	0.18533 0.0159	0.29851 0.0001	0.19367 0.0116	0.29047 0.0001	0.17102 0.0262	0.17545 0.0225	0.18720 0.0148	0.13734 0.0750	1.0000 0.0
X19	0.08620 0.2651	0.18645 0.0152	0.12831 0.0964	0.20836 0.0066	0.03148 0.6845	0.22517 0.0032	0.23485 0.0021	0.33506 0.0001	0.24525 0.0013	0.32746 0.0001	0.20607 0.0072	0.19255 0.0121	0.32869 0.0001
X20	0.09694 0.2099	0.21988 0.0041	0.19664 0.0104	0.10028 0.1946	0.04350 0.5744	0.18439 0.0164	0.19634 0.0105	0.21895 0.0042	0.24955 0.0011	0.33382 0.0001	0.17426 0.0235	0.09239 0.2322	0.27790 0.0003
X21	0.06775 0.3815	0.08503 0.2717	0.22488 0.0033	0.32337 0.0001	0.10666 0.1675	0.14738 0.0558	0.15820 0.0400	0.04896 0.5273	0.20408 0.0078	0.09702 0.2095	0.02480 0.7489	0.11244 0.1455	0.25862 0.0007
X22	0.14500 0.0600	0.12383 0.1087	0.11376 0.1408	0.20159 0.0086	0.18289 0.0173	0.14636 0.0576	0.01438 0.8528	0.02898 0.7084	0.08784 0.2561	0.08924 0.2486	-0.06678 0.3883	-0.08477 0.2731	0.13654 0.0767
X24	0.21896 0.0042	0.10086 0.1920	0.09853 0.2025	-0.01977 0.7986	0.16204 0.0353	0.12201 0.1141	0.11910 0.1230	0.20563 0.0073	0.16961 0.0275	0.27053 0.0004	0.34575 0.0001	0.13418 0.0820	0.18310 0.0172
X25	0.18439 0.0164	0.01869 0.8094	0.11892 0.1236	0.03535 0.6482	0.08641 0.2639	-0.01207 0.8762	0.04708 0.5433	0.07317 0.3444	0.16502 0.0320	0.06798 0.3799	0.04269 0.5815	0.07221 0.3508	0.02644 0.7329
X27	-0.06483 0.4023	0.04622 0.5507	0.15953 0.0383	0.04098 0.5968	0.06689 0.3876	0.17039 0.0268	0.16397 0.0332	0.18646 0.0152	0.21076 0.0060	0.14868 0.0537	0.13245 0.0860	0.16590 0.0311	0.19376 0.0116
X29	-0.00869 0.9108	0.15440 0.0450	0.00799 0.9179	-0.05442 0.4822	-0.04345 0.5748	0.07239 0.3496	0.14501 0.0600	0.08039 0.2988	0.06370 0.4106	0.12376 0.1089	0.18482 0.0161	0.17096 0.0263	0.19371 0.0116
X34	0.16480 0.0323	0.06302 0.4156	0.14774 0.0553	0.00905 0.9071	0.21865 0.0043	0.11144 0.1492	0.05812 0.4529	0.07033 0.3635	0.06396 0.4087	0.01612 0.8352	0.04543 0.5575	0.22050 0.0040	0.15006 0.0515
X35	0.18352 0.0169	0.10552 0.1721	0.08857 0.2521	0.09847 0.2028	0.14944 0.0525	0.07285 0.3466	0.02527 0.7443	0.10854 0.1601	0.22380 0.0034	0.10510 0.1739	0.16437 0.0327	0.32302 0.0001	0.19849 0.0097
X36	0.04649 0.5484	0.07813 0.3126	0.08728 0.2592	0.13869 0.0721	-0.02964 0.7020	0.01170 0.8800	0.06194 0.4237	0.10354 0.1804	0.27750 0.0003	0.26853 0.0004	0.32648 0.0001	0.06399 0.4085	0.05890 0.4469
X37	0.01653 0.8311	0.00704 0.9276	0.06420 0.4070	0.05945 0.4426	0.10880 0.1591	0.04854 0.5309	-0.00122 0.9874	0.13390 0.0826	0.22455 0.0033	0.20180 0.0085	-0.00813 0.9165	0.04541 0.5577	0.02324 0.7642

	X19	X20	X21	X22	X24	X25	X27	X29	X34	X35	X36	X37
X1	0.08620 0.2651	0.09694 0.2099	0.06775 0.3815	0.14500 0.0600	0.21896 0.0042	0.18439 0.0164	-0.06483 0.4023	-0.00869 0.9108	0.16480 0.0323	0.18352 0.0169	0.04649 0.5484	0.01653 0.8311
X2	0.18645 0.0152	0.21988 0.0041	0.08503 0.2717	0.12383 0.1087	0.10086 0.1920	0.01869 0.8094	0.04622 0.5507	0.15440 0.0450	0.06302 0.4156	0.10552 0.1721	0.07813 0.3126	0.00704 0.9276
X4	0.12831 0.0964	0.19664 0.0104	0.22488 0.0033	0.11376 0.1408	0.09853 0.2025	0.11892 0.1236	0.15953 0.0383	0.00799 0.9179	0.14774 0.0553	0.08857 0.2521	0.08728 0.2592	0.06420 0.4070
X5	0.20836 0.0066	0.10028 0.1946	0.32337 0.0001	0.20159 0.0086	-0.01977 0.7986	0.03535 0.6482	0.04098 0.5968	-0.05442 0.4822	0.00905 0.9071	0.09847 0.2028	0.13869 0.0721	0.05945 0.4426
X6	0.03148 0.6845	0.04350 0.5744	0.10666 0.1675	0.18289 0.0173	0.16204 0.0353	0.08641 0.2639	0.06689 0.3876	-0.04345 0.5748	0.21865 0.0043	0.14944 0.0525	-0.02364 0.7020	0.10880 0.1591
X10	0.22517 0.0032	0.18439 0.0164	0.14738 0.0558	0.14636 0.0576	0.12201 0.1141	-0.01207 0.8762	0.17039 0.0268	0.07239 0.3496	0.11144 0.1492	0.07285 0.3466	0.01170 0.8800	0.04854 0.5309
X11	0.23485 0.0021	0.19634 0.0105	0.15820 0.0400	0.01438 0.8528	0.11910 0.1230	0.04708 0.5433	0.16397 0.0332	0.14501 0.0600	0.05812 0.4529	0.02527 0.7443	0.06194 0.4237	-0.00122 0.9874
X12	0.33506 0.0001	0.21895 0.0042	0.04896 0.5273	0.02898 0.7084	0.20563 0.0073	0.07317 0.3444	0.18646 0.0152	0.08039 0.2988	0.07033 0.3635	0.10854 0.1601	0.10354 0.1804	0.13390 0.0826
X13	0.24525 0.0013	0.24955 0.0011	0.20408 0.0078	0.08784 0.2561	0.16961 0.0275	0.16502 0.0320	0.21076 0.0060	0.06370 0.4106	0.06396 0.4087	0.22380 0.0034	0.27750 0.0003	0.22455 0.0033
X14	0.32746 0.0001	0.33382 0.0001	0.09702 0.2095	0.08924 0.2486	0.27053 0.0004	0.06798 0.3799	0.14868 0.0537	0.12376 0.1089	0.01612 0.8352	0.10510 0.1739	0.26853 0.0004	0.20180 0.0085
X16	0.20607 0.0072	0.17426 0.0235	0.02480 0.7489	-0.06678 0.3883	0.34575 0.0001	0.04269 0.5815	0.13245 0.0860	0.18482 0.0161	0.04543 0.5575	0.16437 0.0327	0.32648 0.0001	-0.00813 0.9165
X17	0.19255 0.0121	0.09239 0.2322	0.11244 0.1455	-0.08477 0.2731	0.13418 0.0820	0.07221 0.3508	0.16590 0.0311	0.17096 0.0263	0.22050 0.0040	0.32302 0.0001	0.06399 0.4085	0.04541 0.5577
X18	0.32869 0.0001	0.27790 0.0003	0.25862 0.0007	0.13654 0.0767	0.18310 0.0172	0.02644 0.7329	0.19376 0.0116	0.19371 0.0116	0.15006 0.0515	0.19849 0.0097	0.05890 0.4469	0.02324 0.7642
X19	1.00000 0.0	0.37543 0.0001	0.19457 0.0112	0.10481 0.1750	0.32933 0.0001	0.19653 0.0104	0.27523 0.0003	0.05311 0.4928	0.10026 0.1946	0.16244 0.0349	0.08501 0.2718	0.15094 0.0501
X20	0.37543 0.0001	1.00000 0.0	0.14813 0.0546	0.19648 0.0105	0.19844 0.0097	0.18996 0.0134	0.24820 0.0011	0.12833 0.0964	0.10367 0.1798	0.05682 0.4631	0.07372 0.3408	-0.06853 0.3760
X21	0.19457 0.0112	0.14813 0.0546	1.00000 0.0	0.12986 0.0924	0.00552 0.9432	-0.07493 0.3330	0.17120 0.0260	0.03713 0.6318	0.11009 0.1542	0.16410 0.0330	0.09154 0.2366	0.13994 0.0696
X22	0.1048 0.1750	0.19648 0.0105	0.12986 0.0924	1.00000 0.0	-0.04991 0.5193	-0.03950 0.6102	-0.08618 0.2652	-0.06111 0.4299	0.00388 0.9601	-0.03220 0.6777	0.01400 0.8566	0.14845 0.0541
X24	0.32933 0.0001	0.19844 0.0097	0.00552 0.9432	-0.04991 0.5193	1.00000 0.0	0.27158 0.0004	0.21473 0.0051	0.17178 0.0255	0.03178 0.6817	0.15365 0.0461	0.09651 0.2119	-0.00988 0.8986
X25	0.19653 0.0104	0.18996 0.0134	-0.07493 0.3330	-0.03950 0.6102	0.27158 0.0004	1.00000 0.0	0.08976 0.2458	-0.08804 0.2550	0.22828 0.0028	0.29822 0.0001	0.01535 0.8429	0.06449 0.4049
X27	0.27523 0.0003	0.24820 0.0011	0.17120 0.0260	-0.08618 0.2652	0.21473 0.0051	0.08976 0.2458	1.00000 0.0	0.36483 0.0001	0.30487 0.0001	0.22233 0.0037	0.12915 0.0942	0.02540 0.7430
X29	0.0531 0.4928	0.12833 0.0964	0.03713 0.6318	-0.06111 0.4299	0.17178 0.0255	-0.08804 0.2550	0.36483 0.0001	1.00000 0.0	0.18066 0.0187	0.12709 0.0996	0.28283 0.0002	-0.02995 0.6991
X34	0.10026 0.1946	0.10367 0.1798	0.11009 0.1542	0.00388 0.9601	0.03178 0.6817	0.22828 0.0028	0.30487 0.0001	0.18066 0.0187	1.00000 0.0	0.73852 0.0001	0.11826 0.1257	0.15911 0.0388
X35	0.16244 0.0349	0.05682 0.4631	0.16410 0.0330	-0.03220 0.6777	0.15365 0.0461	0.29822 0.0001	0.22233 0.0037	0.12709 0.0996	0.73852 0.0001	1.00000 0.0	0.06301 0.4157	0.11705 0.1296
X36	0.0850 0.2718	0.07372 0.3408	0.09154 0.2366	0.01400 0.8566	0.09651 0.2119	0.01535 0.8429	0.12915 0.0942	0.28283 0.0002	0.11826 0.1257	0.06301 0.4157	1.00000 0.0	0.04305 0.5783
X37	0.1509 0.0501	-0.06853 0.3760	0.13994 0.0696	0.14845 0.0541	-0.00988 0.8986	0.06449 0.4049	0.02540 0.7430	-0.02995 0.6991	0.15911 0.0388	0.11705 0.1296	0.04305 0.5783	1.00000 0.0

주: 변수번호는 자원조사표 양식의 자원조사항목 순서와 동일함.

제 5 장

어촌 관광 참여 실태와 관광 수요

제1절 어촌 관광 수요 조사 개요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광 참여 실태와 향후 관광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 및 농촌 주민들에 대한 어촌관광 참가 여부와 그 목적 및 향후 어촌관광 희망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과 광역시등 대도시 지역 주민, 도청소재지를 포함하는 중·소도시 지역 주민, 그리고 읍 소재지를 포함하는 농촌 지역 주민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연구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설문지를 해당 지역의 초, 중학교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학부모가 직접 기입하도록 요청한 후 학생들을 통하여 회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회사의 직원들에게 같은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후 다시 회수하였다. 조사에 응해준 학교는 수도권 지역의 초·중등학교 3개교이며 각 학교별로 2개 학급 학생들의 학부모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회사는 서울에 소재하는 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을 주거지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대도시 주민이 34.7%였으며, 도청소재지를 포함하는 중소도시 거주민이 47.8%, 읍지역을 포함하는 농촌지역(군지역) 거주자가 17.5%였다. 이들은 남성이 37.2%, 여성이 51.9%였고, 설문지의 성별 구분 난에 응답하지 않은 성별 불명자가 10.9%였다.

표 5-1 조사 대상자 거주지별 현황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계
조사인원(인)	113	153	56	320
비 율(%)	34.7	47.8	17.5	100.0

표 5-2 조사 대상자 성별 현황

	남	여	불 명	계
조사인원(인)	111	166	35	320
비 율(%)	37.2	51.9	10.9	100.0

표 5-3 조사 대상자의 학력별 현황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불 명	계
조사인원(인)	23	178	84	35	320
비 율(%)	7.2	55.6	26.3	10.9	100.0

표 5-4 조사 대상자 연령별 현황

	20~30세	30~40세	40세 이상	불명	계
조사인원(인)	15	176	91	38	320
비율(%)	4.7	55.0	28.4	11.9	100.0

표 5-5 조사 대상자 소득별 현황

	1000만원 미만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	3000~5000만원	5000만원 이상	불명	계
조사인원(인)	17	104	105	44	6	44	320
비율(%)	5.3	32.5	32.8	13.8	1.9	13.7	100.0

표 5-6 조사 대상자 직업별 현황

	농림수산	자영업	회사 관리직	노무직	공무원	주부	불명	계
조사인원(인)	4	60	71	21	34	94	36	320
비율(%)	1.2	18.8	22.2	6.6	10.6	29.4	11.9	100.0

조사 대상자들을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자가 7.2%였고, 고졸자가 5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 이상자는 26.3%였다. 학력별 구분에서도 자신의 학력을 밝히지 않은 불명자가 10.9%나 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을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30~40세의 비중이 55.0%로 가장

높았으며 40세 이상자가 28.4%, 20~30세가 4.7%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 구분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11.9%가 자신의 연령 구분에 응답하지 않았다.¹⁶⁾

조사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을 구분해 보면 년 가구당 소득이 2000~3000만원 미만인 조사 대상자가 3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0~2000만원 미만인 조사 대상자가 32.5%로 비슷하였다. 반면 년 가구당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조사자는 5.3%, 5000만원 이상인 조사 대상자는 1.9%였다. 자신의 연간 소득을 밝히지 않은 소득 불명자도 13.7%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은 농림직 종사자 1.2%, 자영업자 18.8%, 관리직 종사자 22.2%, 노무직 종사자 6.6%, 공무원 10.6%, 주부 29.4%였고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은 직업 불명자는 13.1%였다.

제2절 어촌 관광의 참여 실태

1. 어촌관광 참가 여부

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어촌 관광을 경험한 비율은 70.0%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지난 1년간 어촌 관광을 경험한 횟수는 평균 2회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관광 경험율을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66.7%가, 중소도시 거주자는 75.8%가, 그리고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60.7%의 주민들이 어촌관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3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에 나타난 전국민의 관광목적의 여행 경험을 93.2%보다 낮다.

¹⁶⁾ 이 조사는 초중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20대 미만의 조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5-1 어촌지역 관광여행 참여율과 전국민 관광여행 참여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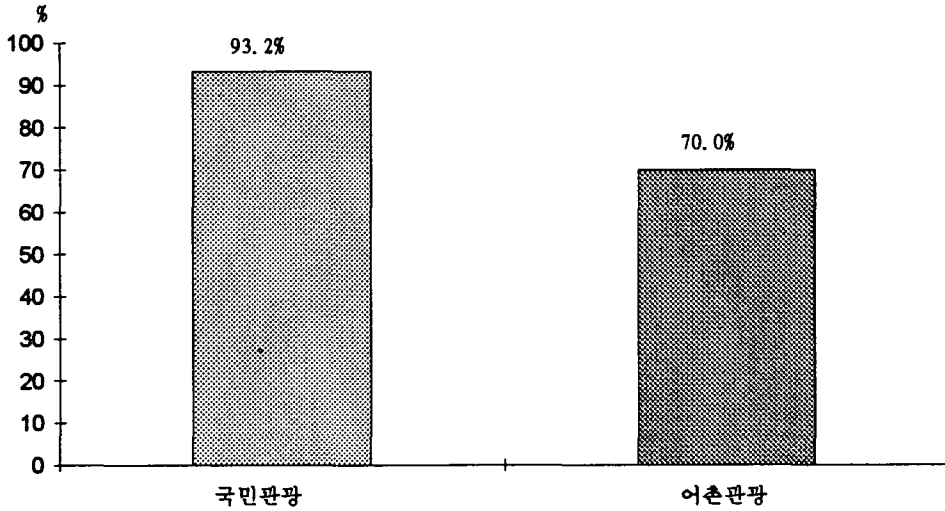


표 5-7 어촌 관광 경험 여부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계
있 다.	74 (66.7)	116 (75.8)	34 (60.7)	224 (70.0)
없 다	37 (33.3)	37 (24.2)	22 (39.3)	96 (30.0)
계	111 (100.0)	153 (100.0)	56 (100.0)	320 (100.0)

어촌관광 경험을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20대가 73.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30대가 68.8%, 40대 이상이 62.6%로 나타나고 있어 어촌을 관광대상으로 하는 관광활동 비율이 활동성이 높은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촌관광 경험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층에서 47.8%가, 고졸의 학력층에서 68.0%가, 그리고 대졸 이상의 학력층에서 71.4%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어촌관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경험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72.3%, 여성이 63.3%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이 사회활동의 범위도 넓고 여성보다 활동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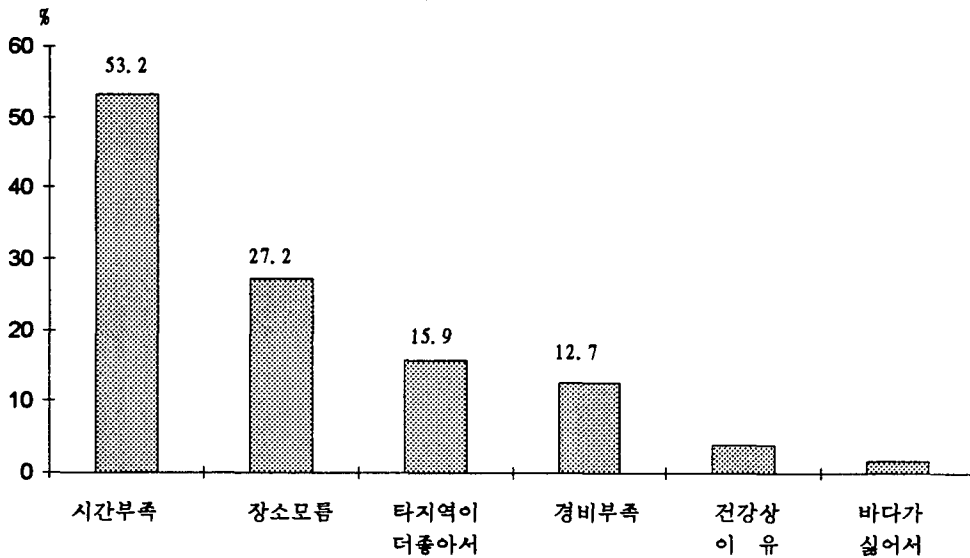
어촌관광을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볼 때,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계층은 47.1%, 1000~2000만원 미만인 계층은 65.4%, 2000~3000만원인 계층은 70.5%, 3000~5000만원 미만인 계층은 75.0%, 연간 가구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계층은 66.7%로 나타난다. 이 결과에 의하면 어촌관광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소득 계층이 연간 가구소득 2000~5000만원 미만의 소득 계층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간 가구소득이 5000만원을 상회하는 소득계층의 경우는 어촌관광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연간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 층에서는 어촌관광의 비율이 타 소득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어촌관광은 중간소득 계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직업별 어촌관광 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업 종사자와 관리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노무직 근로자,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영업자, 주부등은 앞의 관리직보다 어촌 관광 참여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한편 어촌관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촌 관광 여행을 하지 않은 사유를 살펴보면 어촌관광 여행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으며 찾아갈 적당한 어촌 관광지를 알지 못해서 어촌관광여행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 어촌보다 더 매력적인 장소를 여행하기 위해서 어촌을 여행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9%였다. 이외에도 바다가 싫어서 어촌 관광 여행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6%, 여행경비가 없어서 12.7%, 건강이 나빠서 4.0%로 나타나고 있다.¹⁷⁾

¹⁷⁾ 여기서 비율은 복수 응답을 포함한 것임.

그림 5-2 어촌 관광 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



3. 어촌관광의 목적과 여행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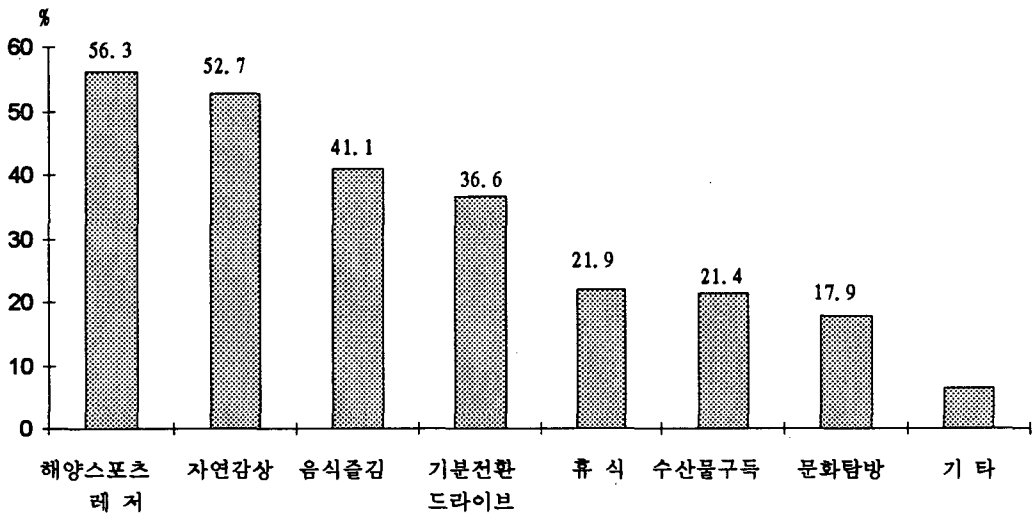
가. 어촌관광 목적

도시 및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어촌 지역을 여행하는 목적은 해수욕 등 해양 관련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함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바다와 해변 풍광 등 자연경관 감상, 해산물 요리 맛보기, 드라이브를 겸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도에 어촌 관광 여행을 경험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분석해 볼 때, 해수욕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련 스포츠·레저를 목적으로 지난 1년간 어촌을 여

행한 비율은 56.3%로 나타나며, 바닷가의 경관감상을 목적으로 어촌지역을 여행한 비율은 52.7%, 생선회 등 해산물 중심의 바닷가 음식 맛보기를 목적으로 어촌을 여행한 비율은 41.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3 어촌 관광 여행 목적



한편 드라이브를 겸한 휴식을 목적으로 어촌지역을 여행한 경우는 36.6%로 나타나고 있으며 휴양 및 휴식, 수산물 채취와 구득, 문화유적 탐방 등을 목적으로 어촌을 여행하는 비율은 각각 21.9%, 21.4%, 17.9%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 관광 목적별 참여율을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해양스포츠, 자연 경관 감상, 문화유적 탐방, 해산물 요리 즐김과 같이 정신적, 경제적 여유를 요구하는 관광활동에의 참여율은 도시지역 주민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수산물 채취와 같이 큰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관광활동에의 참여율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분전환 겸 가벼운 드라이브를 목적으로 하는 어촌관광 여행에서는 중·소도시 주민들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어촌관광 목적을 조사 대상자의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20~30대의 젊은 층에서는 해양 스포츠와 레저활동, 기분전환겸 드라이브 등 활동성을 요구하는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30~40대와 40대 이상에서는 자연경관 감상, 해산물 요리 즐김, 조용한 휴식 등 정적인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8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거주 지역별 관광활동 목적별 참여율

관 광 목 적	지 역 별 참 여 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계
해양스포츠·레저	58.1	56.9	50.0	56.3
자연경관 감상	55.4	54.3	41.2	52.7
해산물 요리	47.3	40.5	29.4	41.1
기분전환겸 드라이브	28.4	40.5	41.2	36.6
조용한 휴식	27.0	20.7	14.7	21.9
수산물 채취	10.8	24.1	35.3	21.4
문화유적 탐방	18.9	18.1	14.7	17.9
기 타	1.4	8.6	8.8	6.3

주 : 참여율은 복수 응답율임.

표 5-9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연령별 관광활동 목적별 참여율

관 광 목 적	연 령 별 참 여 율				
	20~30	30~40	40대이상	불 명	계
해양스포츠·레저	54.6	58.7	45.6	65.7	56.3
자연경관 감상	36.4	56.2	49.1	51.4	52.7
해산물 요리	36.7	40.5	49.1	31.4	41.1
기분전환겸 드라이브	72.7	40.5	31.6	18.4	36.6
조용한 휴식	18.2	20.7	29.8	13.2	21.9
수산물 채취	9.1	24.8	8.8	11.4	21.4
문화유적 탐방	9.1	24.8	6.6	10.5	17.9
기 타	18.2	5.0	8.8	2.9	6.3

주 : 참여율은 복수 응답율임.

표 5-10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학력별 관광활동 목적별 참여율

	학력별 참여율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불 명	계
해양스포츠·레저	27.3	55.4	58.3	65.6	56.3
자연경관 감상	-	55.4	58.3	50.0	52.7
해산물 요리	27.3	40.5	51.7	28.1	41.1
기분전환점 드라이브	27.3	46.3	28.3	27.3	36.6
조용한 휴식	45.6	24.0	18.3	12.5	21.9
수산물 채취	27.3	22.3	16.7	27.3	21.4
문화유적 탐방	-	17.4	25.9	-	17.9
기 타	-	8.3	5.6	3.1	6.3

주: 참여율은 복수 응답율임.

한편 수산물 채취 활동, 문화유적 답사 등과 같이 관광활동에 30~40대의 참여율은 비교적 높으나 20~30대 연령층과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 어촌관광의 목적을 분류해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해양 스포츠·레저활동, 자연경관 감상, 해산물 요리 즐김, 문화유적 탐방 등의 관광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조용한 휴식과 수산물 채취활동은 저학력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소득 계층별로 어촌관광 활동 목적을 살펴보면 가구당 소득이 중간정도의 계층에서 대부분의 어촌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양스포츠·레저활동, 자연경관 감상, 해산물 요리 즐김, 기분전환 점 가벼운 드라이브,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어촌관광 활동은 가구당 소득 수준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인 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당 소득 수준이 50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는 자연경관 감상이나 해산물 요리 즐김, 문화유적지 탐방 활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해양스포츠·레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어촌관광에의 참여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산

수산물 채취 행위와 같이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관광활동에의 참여율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1000만원 미만인 계층에서는 전반적으로 어촌관광 활동에의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해수욕 등 해양 스포츠, 조용한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어촌 관광활동에의 참여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1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소득 계층별 관광활동 목적별 참여율

	소득 계층별 참여율					불명	계
	1천만원미만	1~2천만원미만	2~3천만원미만	3~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해양스포츠·레저	62.5	44.1	66.2	57.6	25.0	59.5	56.3
자연경관 감상	25.0	41.2	66.2	48.5	100.0	51.4	52.7
해산물 요리	37.5	30.9	44.6	60.6	100.0	29.7	41.1
기분전환겸 드라이브	25.0	44.1	36.5	42.4	25.0	21.6	36.6
조용한 휴식	50.0	27.9	17.6	21.2	25.0	13.5	21.9
수산물 채취	11.8	9.6	15.2	20.5	-	27.3	21.4
문화유적 탐방	12.5	14.7	27.0	6.0	50.0	13.5	17.9
기타	12.5	7.4	4.0	12.1	-	2.7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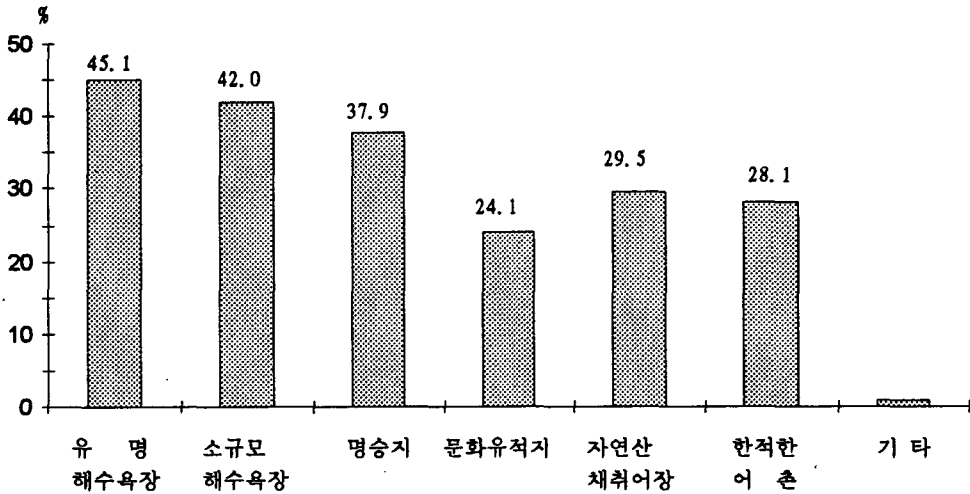
주: 참여율은 복수 응답율임.

나. 여행지역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어촌관광을 선택했을 때, 이들이 여행한 지역은 주로 어떠한 곳인가? 지역별로 어촌관광을 위한 여행지를 분석해 보면 많은 응답자들이 해수욕장이 있는 어촌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 관광객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을 여행한 비율은 45.1%, 소규모 해수욕장을 여행한 비율은 42.0%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어촌 관광객의 37.9%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해안가 명승지를 여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안가 문화유적지, 굴, 조개 등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어촌, 수산물을 채취할 수 없지만 한적한 어촌 등을 여행한 비율도 각각 24.1%, 29.5%, 28.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4 어촌 관광시 여행한 지역



따라서 45.1%의 어촌 관광객들은 이미 개발된 유명 해수욕장을 여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규모 해수욕장을 여행한 비율도 42.0%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한적한 어촌을 여행한 비율은 2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순수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관광객들의 어촌 관광지 여행 경향을 분석해 보면 대도시 주민들은 유명 해수욕장, 해안가 명승지, 해안가 문화유적지 등을 여행한 비율이 높은 반면 중·소도시 주민들은 소규모 해수욕장, 수산물 채취 가능한 어촌과 한적한 어촌 등을 여행한 비율이 높았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어촌 관광 참여율이 도시 지역보다 낮은 가운데 수산물 채취 가능한 어촌을 여행한 비율이 높았다.

어촌 관광지 선호 경향을 연령 계층별로 분석해 보면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유명 해수욕장을 여행한 비율이 63.6%로 월등히 높았으며 소규모 해수욕장을 여행한 비율은 9.1%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30~40대 이상의 연령층에

서는 사람이 적고 조용한 소규모 해수욕장을 여행한 비율이 높았으며 해안가 명승지를 여행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문화 유적지와 한적한 어촌을 여행한 비율에서는 연령 계층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젊은 연령층의 전체적인 어촌관광 비율은 높았지만 이들이 여행한 지역은 주로 유명 해수욕장이었기 때문에 소규모 관광어촌을 방문한 연령층은 주로 3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2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거주 지역별 여행지별 참여 비율

	지역별 참여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계
유명 해수욕장	55.4	40.5	38.2	45.1
소규모 해수욕장	41.9	46.5	26.5	42.0
해안가 명승지	45.9	35.3	29.4	37.9
해안가 문화유적지	31.1	25.0	5.9	24.1
수산물채취가능한 어촌	16.2	37.9	29.4	29.5
한적한 어촌	25.7	30.2	26.5	28.1
기타	1.4	-	2.9	0.9

주: 참여율은 복수 응답율임.

표 5-13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연령별 여행지별 참여 비율

	연령별 참여율				
	20~30	30~40	40대이상	불명	계
유명 해수욕장	63.6	43.8	35.1	60.0	45.1
소규모 해수욕장	9.1	45.4	42.1	40.0	42.0
해안가 명승지	27.3	42.1	36.8	28.6	37.9
해안가 문화유적지	27.3	26.4	24.6	14.3	24.1
수산물채취가능한 어촌	36.4	36.4	15.8	25.7	29.5
한적한 어촌	27.3	28.9	26.3	31.4	28.1
기타	-	0.8	-	2.9	0.9

주: 참여율은 복수 응답율임.

표 5-14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학력별 여행지별 참여 비율

	학력별 참여율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불 명	계
유명 해수욕장	36.4	45.4	41.7	53.1	45.1
소규모 해수욕장	27.3	43.8	41.7	43.7	42.0
해안가 명승지	18.2	39.7	40.0	34.4	37.9
해안가 문화유적지	9.1	27.3	25.0	15.6	24.1
수산물채취가능한 어촌	27.3	32.2	25.0	28.1	29.5
한적한 어촌	-	28.9	26.7	37.5	28.1
기 타	-	-	1.7	2.1	0.9

주: 참여율은 복수 응답율임.

학력별로 어촌 관광지 여행 경향을 분석해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해수욕장 등 어촌지역을 여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수산물 채취가 가능한 어촌 지역을 여행한 비율에서는 학력간 격차가 뚜렷하지 않았다.

소득 계층별로 어촌 관광지 여행 경향을 분석해 보면 연간 소득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중간 소득층의 어촌관광 여행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해수욕장, 해안가 명승지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표 5-15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의 소득 계층별 여행지별 참여 비율

	어촌관광 활동별 소득별 주민의 참여율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미만	2~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불 명	계
유명 해수욕장	62.5	39.7	51.3	30.3	25.0	54.1	45.1
소규모 해수욕장	25.0	36.8	47.3	48.5	25.0	40.5	42.0
해안가 명승지	37.5	30.9	44.6	42.4	50.0	32.4	37.9
해안가 문화유적지	50.0	17.6	29.7	18.2	50.0	21.6	24.1
수산물채취가능한 어촌	12.5	25.0	35.1	30.3	50.0	27.0	29.5
한적한 어촌	25.0	23.5	35.1	21.2	25.0	29.7	28.1
기 타	-	-	1.4	-	-	2.7	0.9

주: 참여율은 복수 응답율임.

4. 숙박 관광과 당일 관광

어촌 관광활동에서 관광객들의 71.4%가 관광지에서 숙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촌 관광객의 26.8%는 어촌 지역을 여행했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숙박하지 않았다.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 주민들의 숙박율이 각각 74.3%와 75.0%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숙박율 52.9%보다 월등히 높다. 어촌 관광활동에서 숙박율을 참여자들의 학력별로 나누어 볼 때, 고학력자일수록 숙박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령층과 소득계층에서는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5-5 어촌 관광의 숙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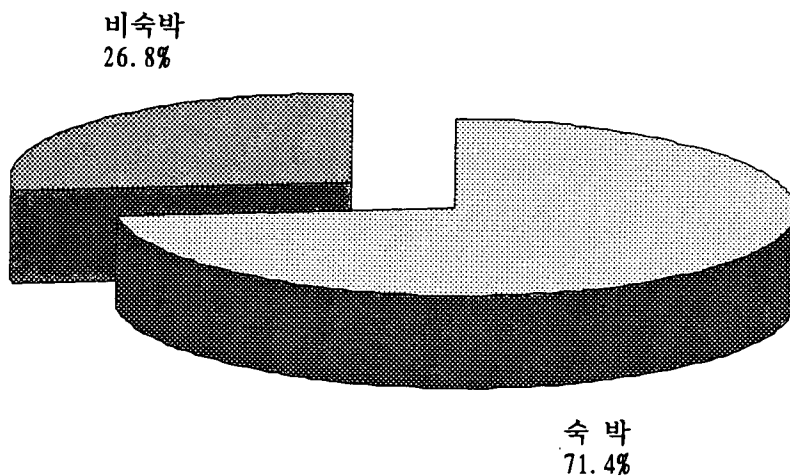


표 5-16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 거주 지역별 현지 숙박 여부

	어촌관광 숙박 여부에 대한 지역별 참여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계
숙박했다	74.3	75.0	52.9	71.4
하지않았다	25.7	23.3	41.2	26.8
무응답	-	1.7	5.9	1.8

표 5-17 어촌 관광활동 참여자 학력별 현지 숙박 여부

	어촌관광 활동별 학력별 주민의 참여율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불 명	계
숙박했다	54.6	71.9	80.0	59.4	71.4
하지않았다	36.4	25.6	20.0	40.6	26.8
무응답	9.1	2.5	-	-	1.8

어촌 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숙박을 한 경우와 숙박을 하지 않은 당일 관광에는 그 활동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숙박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 활동은 해수욕과 같은 해양스포츠와 자연경관 감상, 기분전환을 겸한 드라이브 등을 목적으로 어촌을 여행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숙박 관광객들이 해수욕 등 해양스포츠와 바닷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목적으로 어촌을 여행한 비율은 62.5%와 56.9%로 비숙박 관광객들의 경우 41.7%와 43.3%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선회 등 해산물 요리를 즐기기 위하여 어촌을 여행하는 경우와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어촌을 여행하는 비율은 비숙박 관광객들에게서 월등히 높았다. 즉 숙박 관광객이 해산물 요리를 즐기기 위하여 어촌을 여행하는 경우는 16.9%였던 반면 비숙박 관광객이 해산물 요리를 즐기기 위하여 어촌을 여행한 비율은 40.0%로 높았으며 수산물 채취의 경우에는 숙박 관광객이 16.9%인 반면 비숙

박 관광객은 31.7%로 높았다.

조용한 휴식이나 기분전환을 겸한 드라이브 등을 목적으로 어촌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비숙박 관광객이 각각 23.3%, 38.3%로 숙박 관광객 21.5%, 35.6%보다 약간 높았고 문화유적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어촌관광에서는 숙박 관광객이 18.8%로 비숙박 관광객의 15.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관광활동에는 숙박과 비숙박 관광객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여행지별로 어촌 관광의 숙박 여부를 분석해 보면 유명 해수욕장을 여행한 경우와 해안가 문화 유적지를 여행한 경우, 그리고 한적한 어촌을 여행한 경우에 숙박 관광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수산물 채취가 가능한 어촌을 여행했을 경우에는 비숙박 관광객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소규모 해수욕장을 여행하거나 해안가 명승지를 여행한 경우에는 비율 자체는 높지만 비숙박 관광에 비해 숙박 관광의 비율이 크게 높지 않았다.

그림 5-6 숙박 여부에 따른 어촌 여행 목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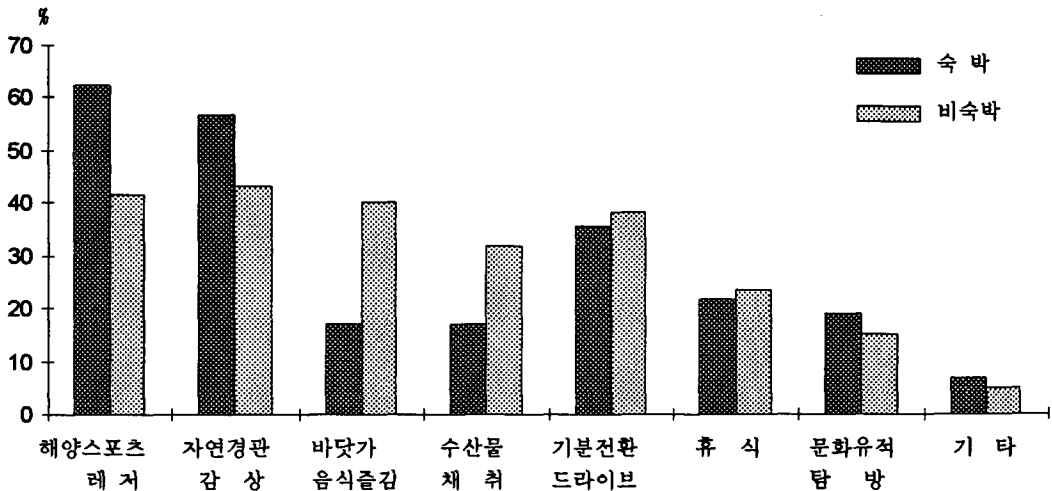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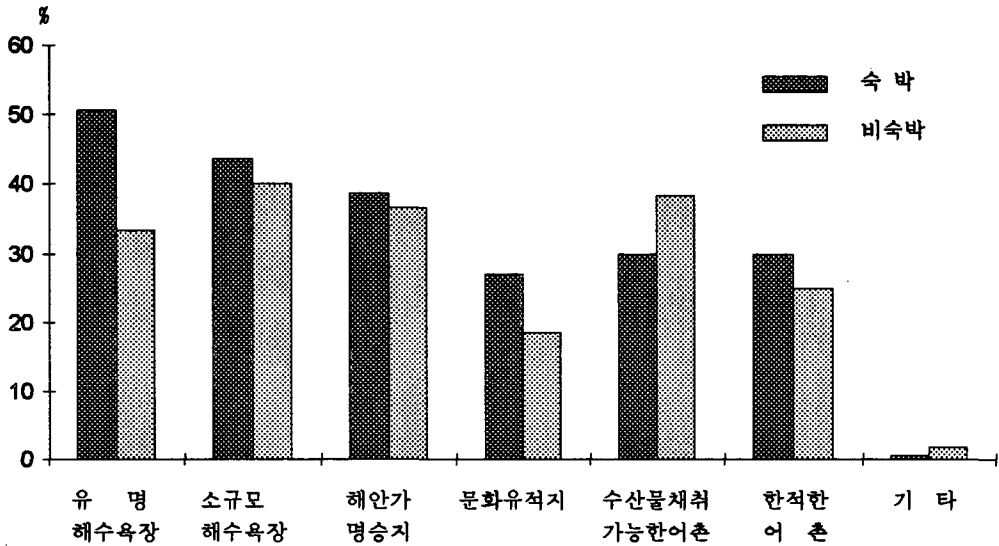


그림 5-7 숙박 여부에 따른 어촌 여행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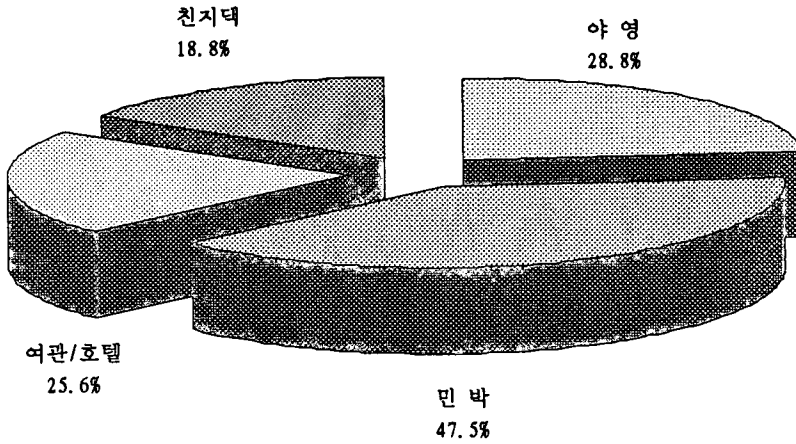


5. 숙박 시설

어촌 관광객이 현지에서 숙박을 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숙박 시설은 민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도의 어촌 관광 여행시 현지 숙박 관광객의 47.5%가 민박을 이용했으며 야영이 28.8%, 여관이나 호텔을 이용한 관광객이 25.6%였으며 18.8%의 관광객이 친지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야영하는 비율은 대도시 주민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각각 33.3%와 38.9%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박과 여관 또는 호텔에서 숙박은 대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어촌지역에서 숙박한 관광객 중에서 대도시 주민들은 52.7%가 민박을 선택했고 중·소도시 주민들은 47.1%가 민박을 선택했다. 반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22.2%만이 민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8 어촌관광 여행시 이용한 숙박 시설



여관이나 호텔에서 숙박한 경우는 대도시 주민에게서 40.0%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중·소도시나 농촌 주민의 경우 각각 17.2%와 22.2%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친지택을 숙박처로 선택한 경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지역이 각각 16.4%, 20.7%, 16.7%로 지역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 계층별로 숙박시설 이용 실태를 분석해 보면 야영의 경우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55.6%로 높았고 민박의 경우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64.4%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관이나 호텔의 이용에 있어서는 연령 계층별로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숙박처로 친지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젊은층보다는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8 어촌 관광활동중 숙박 시설에 대한 거주 지역별 이용율

	지역별 이용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계
야 영	18.2	33.3	38.9	28.8
민 박	52.7	47.1	33.3	47.5
여관이나 호텔	40.0	17.2	22.2	25.6
친지댁	16.4	20.7	16.7	18.8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19 어촌 관광활동중 숙박 시설에 대한 연령별 이용율

	연령별 이용율				
	20~30	30~40	40대이상	불 명	계
야 영	55.6	27.4	22.2	36.4	28.8
민 박	33.3	44.1	64.4	31.8	47.5
여관이나 호텔	22.2	21.4	24.4	45.5	25.6
친지댁	11.1	21.4	17.8	13.6	18.8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20 어촌 관광활동 중 숙박시설에 대한 학력별 이용율

	학력별 이용율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불 명	계
야 영	33.3	31.0	22.9	31.6	28.8
민 박	16.7	48.3	52.1	42.1	47.5
여관이나 호텔	16.7	23.0	25.0	42.1	25.6
친지댁	33.3	23.0	10.4	15.8	18.8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21 어촌 관광활동중 숙박시설에 대한 소득 계층별 이용율

	소득 계층별 이용율						불명	계
	1천만원미만	1~2천만원미만	2~3천만원미만	3~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야영	-	30.8	32.8	21.4	25.0	33.3	28.8	
민박	57.1	41.0	50.8	53.6	50.0	38.1	47.5	
여관이나 호텔	-	25.6	23.0	21.4	50.0	42.9	25.6	
친지댁	57.1	25.6	14.8	14.3	-	14.3	18.8	

주 : 중복응답율임

학력별로 숙박시설 이용 실태를 분석해 보면 민박과 여관 및 호텔 이용율은 고학력 일수록 높았고 야영이나 친지댁을 이용하는 비율은 저학력층에서 높았다. 소득 계층별 숙박시설 이용율을 살펴보면 야영과 친지댁 이용은 저소득층에서, 민박과 여관 및 호텔 이용은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박 이용에서는 소득 계층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6. 여행 경비

1995년도에 어촌지역을 여행한 관광객 1인이 지출한 1일의 평균 여행 경비는 51,514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교통비로 23.8%, 음식물비로 34.7%, 숙박비로 19.2%, 기타경비로 22.3%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촌관광 경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음식물비였다. 어촌관광에서 음식물비가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어촌 관광의 상당 부분이 고급 해산물 음식맛을 즐기기 위한 관광으로서 생선회 등 고가의 수산물을 소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3년도 국민관광여행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1일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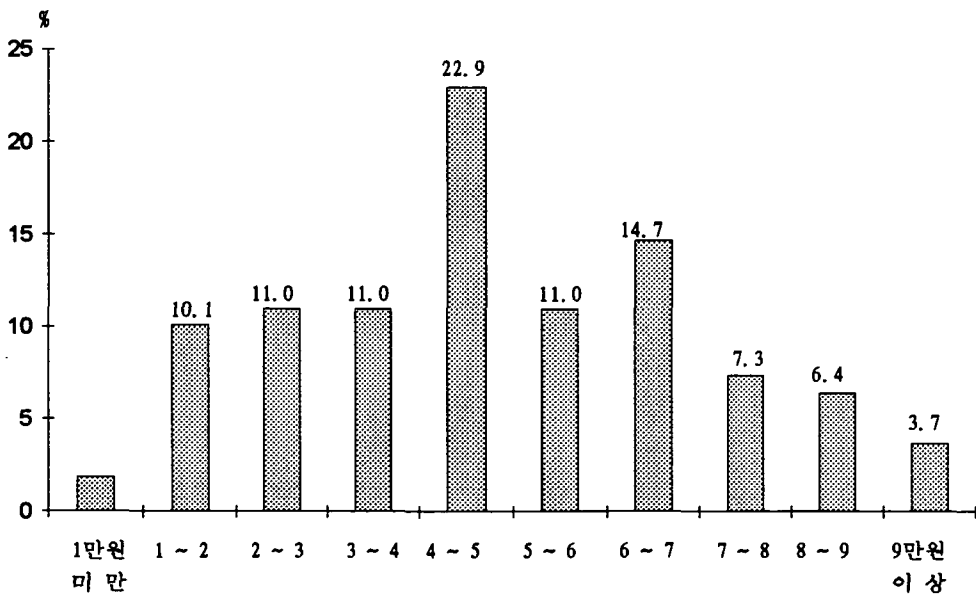
광경비가 숙박관광일 경우 52,000원 정도, 당일관광의 경우 24,860원을 썼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볼 때 어촌관광은 국민 1인당 평균 여행경비 지출액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5-22 어촌관광시 1인당 지출한 여행 경비

교통비	음식비	숙박비	기타경비	계
12,229원 (23.8%)	17,876원 (34.7%)	9,904원 (19.2%)	11,505원 (22.3%)	51,514원 (100.0%)

주: 어촌관광시 소요 여행 경비 질문에 응답한 109명이 지출한 경비의 평균으로서 1995년도 기준임.

그림 5-9 어촌관광 소요 경비의 규모별 지출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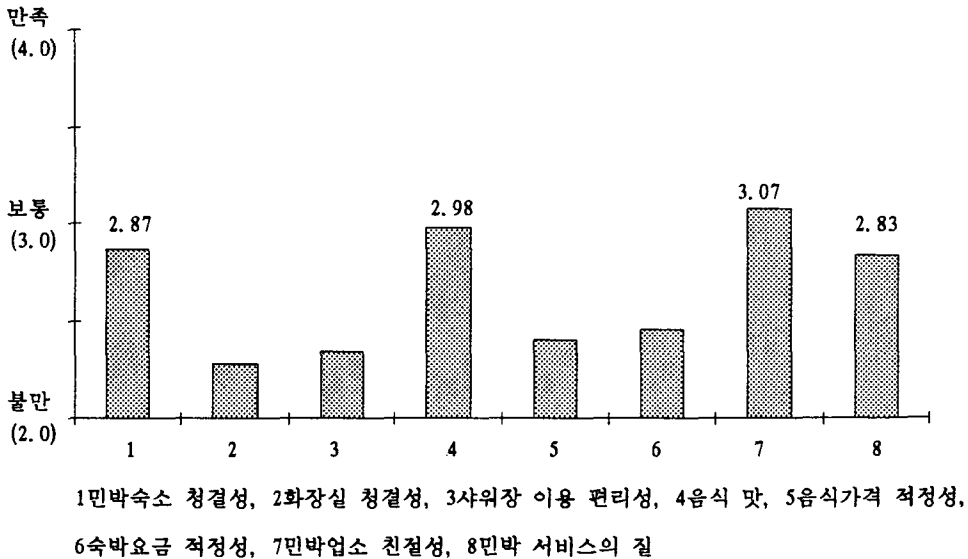


제3절 어촌 관광 여행의 만족도

1. 민박에 대한 만족도

1995년도에 경험한 어촌 관광여행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의 민박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그 결과는 기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박업소의 화장실 시설의 청결성과 샤워장 시설 이용의 편리성, 숙박비와 음식비의 적정성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민박업소의 편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식비와 숙박비가 서비스의 질에 비해서 비싸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민박 집의 전반적인 청결성과 음식 맛은 보통 이하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나은 편이고 숙박업소의 친절성은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5-10 민박업소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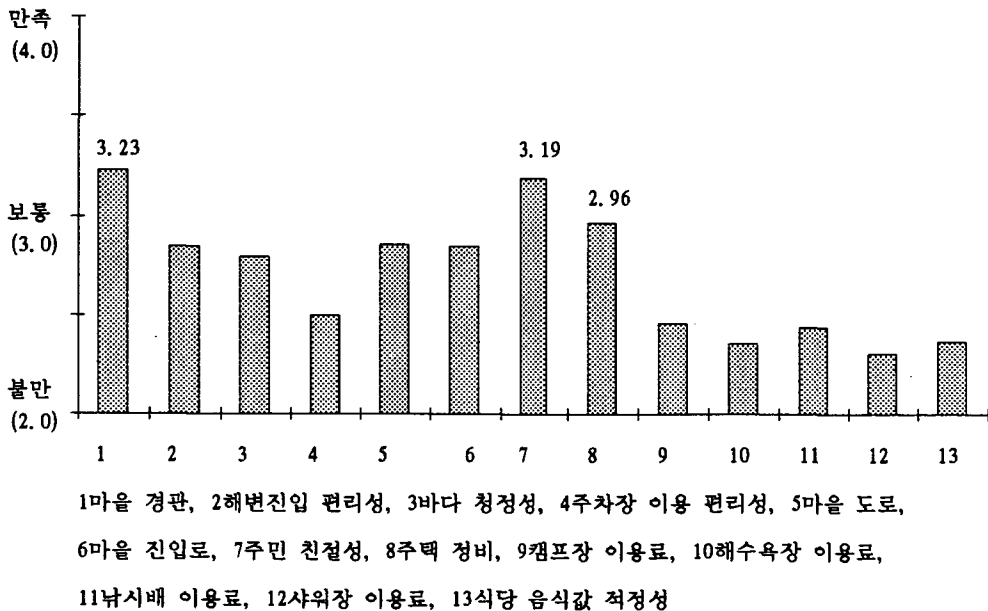


어촌관광지를 여행하는 관광객의 47.5%가 민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의 민박업에 대한 평가가 이와 같이 보통 이하이거나 불만족 상태에 있다면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전망은 밝다고 보기 어렵다. 민박업소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 평가는 어촌 관광개발과 민박업의 발전을 위해서 민박업소의 편의시설, 즉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이 근대적 시설로 개선되고 음식비와 숙박비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어촌 마을에 대한 만족도

어촌 관광지의 민박업소에 대한 만족도와는 달리 어촌마을 그 자체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즉 많은 관광객들은 어촌마을의 주변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친절성에 대해서도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우선 어촌 마을 그 자체가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관광객들이 평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11 어촌마을의 관광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마을 주택의 정비, 해변으로의 진입로 정비, 마을 진입로 정비, 마을 내 도로 정비, 바다 해안의 청결성에 대해서도 보통 이하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양호한 평가라고 보여져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한다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을 내의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다. 즉 마을 내의 샤워장 이용료, 식당 음식값, 주차장 이용료와 이용의 편리성, 해수욕장 입장료, 캠프장 이용료, 낚시배 이용료 등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민박 등 숙박시설의 확충과 시설 이용료, 음식물비 등의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어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주로 중간 소득층 이하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어촌의 실제 생활문화를 체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제공되는 시설 이용료가 기대 이상으로 비싸서는 안될 것이다.

민박업소와 어촌지역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이용료가 비싼 것은 어촌관광의 계절성과 연관성이 크다. 관광지의 관광업 종사자들은 일년 중 여름 휴가철에 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많은 시설 투자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름 한철 시설 수용 한도를 넘어 한꺼번에 몰려오는 관광객 때문에 각종 시설 이용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촌지역의 관광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촌 관광업의 계절성이 극복되고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어야 하며 낙후된 서비스 시설은 근대적 편의 시설로 교체되어야 한다. 특히 어촌지역의 관광서비스 시설 이용료가 타 지역의 서비스 이용료에 비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어촌 관광에 대한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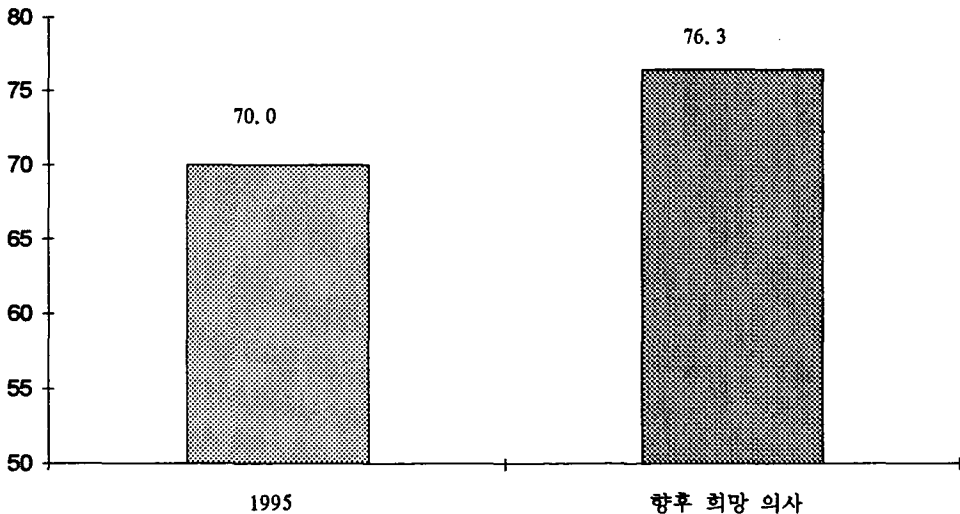
제4절 어촌 관광 여행에 대한 향후 의사

1. 향후 여행 의사

앞으로 어촌이 깨끗하고 조용한 관광지로 개발된다면 어촌지역을 관광여행 목적으로 여행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76.5%가 여행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율은 1995년도 어촌 관광 여행 참여율 70.0%보다 높아진 것이다.

어촌관광 여행에 대한 향후 희망 의사에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등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남녀 성별 구분에서도 여성의 여행 희망 의사가 남성보다 약간 높지만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5-12 향후 어촌 관광 여행 희망 비율



그러나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구분에서는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어촌관광 여행에 대한 향후 희망 의사는 30대 이상의 연령층일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다시 말해서 젊은 층과 고학력층, 고소득층의 향후 어촌 관광여행 의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동성이 넘치는 젊은 층과 고소득층, 고학력 층에게 어촌관광은 현재의 수준에서 볼 때 큰 매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표 5-23 향후 관광 목적의 어촌지역 여행 의사

	비 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계
있다 (245)	74.8	79.1	73.2	76.5
없다 (7)	3.6	1.3	1.8	2.2
무응답 (68)	21.6	19.6	25.0	21.3

표 5-24 조사 대상자 성별 현황

	남	여	불 명	계
있다 (245)	80.7	86.1	17.1	76.5
없다 (7)	4.2	1.2	-	2.2
무응답 (68)	15.1	12.7	82.9	21.3

표 5-25 조사 대상자의 학력별 현황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불 명	계
있다 (245)	91.3	84.8	79.8	17.1	76.5
없다 (7)	4.4	1.1	4.7	-	2.2
무응답 (68)	4.3	14.0	15.5	82.9	21.3

표 5-26 조사 대상자 연령별 현황

	20~30세	30~40세	40~50세	불명	계
있다 (245)	66.7	84.1	85.7	23.7	76.5
없다 (7)	-	1.7	4.4	-	2.2
무응답 (68)	33.3	14.2	9.9	76.3	21.3

표 5-27 조사 대상자 소득별 현황

	1000만원 미만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	3000~5000만원	5000만원 이상	불명	계
있다 (245)	94.1	82.7	84.6	79.5	100	29.5	76.5
없다 (7)	-	3.8	1.9	2.3	-	-	2.2
무응답 (68)	5.9	13.5	13.3	18.9	-	70.5	21.3

2. 희망하는 어촌 관광 활동

향후 어촌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여행한다면 희망하는 관광활동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1995년도 어촌 관광 행태와 비교해 볼 때, 해수욕이나 낚시 등 해양스포츠나 자연경관 감상, 바닷가 요리 즐김, 수산물 채취활동 등에서 향후 희망하는 어촌 관광행태는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드러진 차이는 어촌에서 조용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희망이 21.9%에서 43.7%로 높아졌고 어촌 생활문화 체험에 대한 욕구도 2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어촌지역이 조용한 휴식 공간으로서, 어촌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문화 공간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촌 생활문화 체험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장래 어촌지역에서의 관광활동의 행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995년도의 관광 행태와 대동소이하다. 즉 해수욕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스포츠와 자연경관 감상, 생선회 등 바닷가 음식 즐김과 어촌에서의 조용한 휴식은 대도시 주민들이, 바다 낚시와 어촌생활문화 체험, 수산물 채취 활동 등은 중·소도시 주민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민들의 수산물 채취 활동이나 조용한 휴식에 대한 희망은 1995년도 실태보다 더 높다.

어촌관광에 대한 미래 희망에 있어서 연령별 계층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 해양 스포츠·레저 활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어촌관광 활동에서 20~30대의 참여 희망율이 대단히 높다. 특이한 점은 1995년도의 어촌 관광 실태에서는 조용한 휴식과 생선회 등 바닷가 요리 즐김이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았으나 향후 의사에서는 20~3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 채취 활동이나 자연경관 감상은 여전히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28 1995년도 어촌 관광 활동과 미래에 희망하는 관광 활동 참여율 비교

	1995년도	향후 희망
해수욕등 해양 스포츠 (바다낚시)	56.3%	34.7%
자연경관 감상	-	23.7%
문화유적 탐방	52.7%	52.7%
어촌생활문화체험	17.9%	-
기분전환 겸 드라이브	-	23.3%
해산물 요리 즐김	36.6%	-
수산물 채취	41.1%	40.4%
조용한 휴식	21.4%	23.7%
기타	21.9%	43.7%
	6.3%	1.6%
참여자수(%)	224(70.0%)	245(76.5%)

주 : 참여율은 복수 응답임

표 5-29 향후 희망하는 어촌관광 활동

	지역별 의견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계
해수욕 등 해양스포츠	34.9	28.9	31.7	31.4
바다낚시	19.3	23.1	24.4	22.0
수산물 채취나 구입	18.1	24.0	22.0	21.6
자연경관감상	51.8	55.4	39.0	51.4
어촌생활 체험	15.7	24.8	26.8	22.0
조용한 휴식	41.0	43.0	26.8	39.6
생선회 등 음식 즐김	43.4	36.4	17.1	35.5
기타	3.6	0.8	-	1.6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30 어촌 관광 활동 중 숙박 여부에 대한 연령별 비율

	연령별 의견				
	20~30	30~40	40대 이상	불 명	계
해수욕 등 해양 스포츠	40.0	33.8	26.9	22.2	31.4
바다낚시	40.0	20.3	21.8	22.2	22.0
수산물 채취나 구입	10.0	23.0	20.5	33.3	21.6
자연경관 감상	40.0	50.0	57.7	33.3	51.4
어촌생활 체험	20.0	22.3	20.5	33.3	22.0
조용한 휴식	60.0	40.5	34.6	44.4	39.6
생선회 등 음식 즐김	50.0	31.1	43.6	22.2	35.5
기타	-	2.0	1.3	-	1.6

주 : 중복응답율임

어촌관광 활동에 대한 학력별 관심에서도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도의 관광 유형과 다른 점은 저학력층에서 높았던 조용한 휴식과 수산물 채취 활동이 고학력층에서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즉 어촌의 생활체험에 대한 고학력층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미래 희망하는 어촌 관광활동을 소득 계층별로 분석해 보면 연간 소득 2000

~3000만원의 소득 계층이 어촌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어촌관광의 주 고객은 향후에도 여전히 중간층의 소득 계층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소득이 1000~2000만원,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도 바다낚시, 어촌 생활문화 체험이나 조용한 휴식, 수산물 구득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31 어촌 관광 활동별 학력별 주민의 참여율

	학력별 의견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불 명	계
해수욕 등 해양 스포츠	28.6	28.5	40.3	16.7	31.4
바다낚시	9.5	23.2	23.9	-	21.6
수산물 채취나 구입	19.1	21.2	23.9	33.3	22.0
자연경관 감상	28.6	53.0	55.2	50.0	51.4
어촌생활 체험	14.3	22.5	20.9	50.0	22.0
조용한 휴식	28.6	36.4	49.3	50.0	39.6
생선회 등 음식 즐김	14.3	35.1	44.8	16.7	35.5
기타	-	2.0	1.5	-	1.6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32 어촌 관광 활동별 소득별 주민의 참여율

	소득별 의견					불 명	계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미만	2~3천만원 미만	3~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해수욕 등 해양 스포츠	25.0	23.3	38.2	42.9	16.7	23.1	31.4
바다낚시	18.7	17.4	29.2	20.0	-	15.4	22.0
수산물 채취나 구입	37.5	11.6	28.1	22.9	33.3	23.1	21.6
자연경관 감상	25.0	52.3	52.8	51.4	66.7	61.5	51.4
어촌생활 체험	18.8	14.0	30.3	20.0	16.7	30.8	22.0
조용한 휴식	43.8	34.9	42.7	40.0	50.0	38.5	39.6
생선회 등 음식 즐김	18.8	24.4	41.6	54.3	50.0	30.8	35.5
기타	-	1.7	3.4	-	-	-	1.6

주 : 중복응답율임

3. 희망하는 관광 형태와 여행 동반자

향후 관광을 목적으로 어촌을 여행할 때 희망하는 여행의 형태는 정기 휴가가 52.7%로 가장 높고 주말 여행의 형태가 47.3%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일 여행은 11.4%로 낮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촌 관광을 희망하는 관광객들은 당일 여행보다는 숙박 여행을 수반하는 정기 휴가 여행이나 주말 여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정기 휴가 여행을 희망하는 비율이 주말 여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말 여행은 여행의 빈도에서 정기 휴가를 압도하기 때문에 향후 주말 여행이 어촌관광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아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주말을 이용한 관광여행이 보편화될 전망이지만 기존 대중관광지의 관광객 수용 한계와 조용한 휴가지를 원하는 관광객들의 사회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서 어촌 관광지에 대한 주말 여행객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13 희망하는 어촌 관광 여행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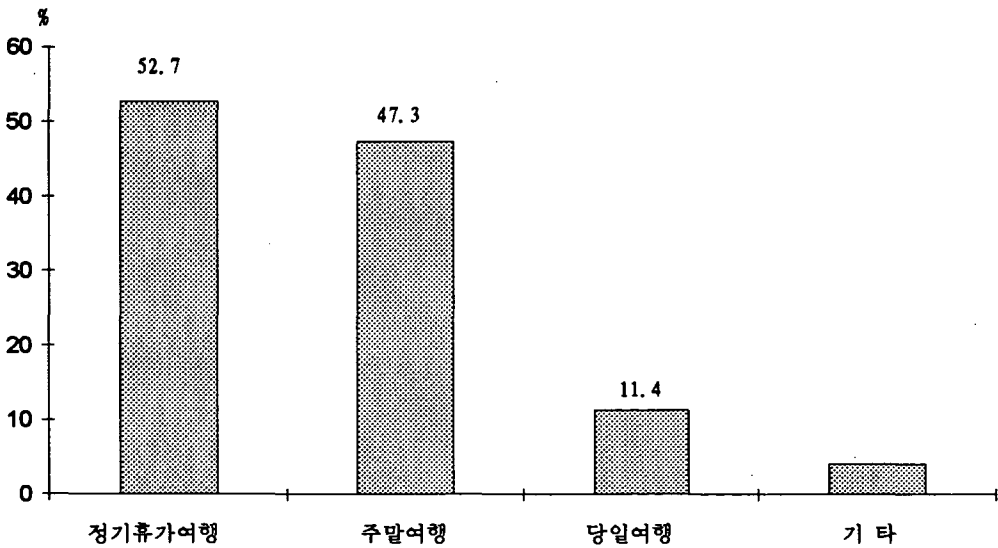


표 5-33 향후 희망하는 어촌 관광 형태에 대한 지역별 주민의 의견

	지역별 의견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계
정기 휴가	59.0	53.7	36.6	52.7
주말 여행	42.2	50.4	48.8	47.3
당일 여행	13.3	8.3	17.1	11.4
기타	3.6	3.3	7.3	4.1

주 : 중복응답율임

어촌 관광여행을 희망하는 관광객의 여행 형태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면 정기 휴가 여행을 희망하는 비율은 대도시 등 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농 촌 지역 주민들보다 높았다. 주말 여행이나 당일 여행에서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약간 높았다. 그러나 그 격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어촌 관광여행의 형태를 관광객의 연령별로 구분해서 분석해 볼 때, 정기 휴가 여행, 주말 여행 모두 20~30대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당일 여행에서는 각 연령층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력별로 나누어 어촌 지역의 여행 형태를 분석해 보면 정기 휴가 여행은 고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저학력층에서는 당일 여행을 이용하려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주말 여행에서는 학력간 경향치가 나타나지 않은채 모든 계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4 향후 희망하는 어촌 관광 형태에 대한 연령별 주민의 의견

	연령별 의견				
	20~30	30~40	40대이상	불 명	계
정기 휴가	70.0	50.0	56.4	44.4	52.7
주말 여행	66.7	49.3	43.6	33.3	47.3
당일 여행	11.1	12.8	9.0	11.1	11.4
기타	-	4.1	5.1	-	4.1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35 향후 희망하는 어촌 관광 형태에 대한 학력별 주민의 의견

	학력별 의견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불 명	계
정기 휴가	28.6	49.7	68.6	40.0	52.7
주말 여행	38.1	49.7	46.2	33.3	47.3
당일 여행	28.6	11.9	4.5	16.6	11.4
기타	9.5	4.6	1.5	-	4.1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36 향후 희망하는 어촌 관광 형태에 대한 소득 계층별 주민의 의견

	소득 계층별 의견						
	1천만원미만	1~2천만원미만	2~3천만원미만	3~5천만원미만	5천만원 이상	불 명	계
정기 휴가	43.8	53.5	55.1	57.1	60.6	30.8	52.7
주말 여행	18.7	41.9	53.9	45.7	66.7	69.2	47.3
당일 여행	31.3	12.8	6.7	14.3	-	7.7	11.4
기타	6.3	7.0	3.4	-	-	-	4.1

주 : 중복응답율임

어촌 관광여행의 형태를 관광객의 소득 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고소득층이 정기 휴가 여행과 주말 여행의 형태로 어촌을 여행하고자 하는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높으며, 저소득층은 당일 여행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촌 관광여행을 떠날 경우 가족을 동반하겠다는 의사가 전체 여행 희망자의 91.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족 다음으로 희망하는 동반자는 친구로서 여행 희망자의 11.4%를 차지하고 있고, 직장 동료를 여행 동반자로 삼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는 5.3%, 혼자서 여행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1.6%였다.

여행 동반자 희망 의사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에

비해서 가족을 동반하겠다는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친구나 직장 동료와 동반하겠다는 희망 비율이 높았다. 이는 도시인이 직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생활 패턴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5-37 어촌 관광 동반 희망자에 대한 지역별 주민의 의견

	지역별 의견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계
가 족	87.9	92.6	95.1	91.4
친 구	15.7	11.6	2.4	11.4
직장 동료	8.4	4.1	2.4	5.3
혼 자	2.4	1.6	-	1.6
기 타	-	0.8	-	0.4

주 : 중복응답율임

어촌관광 여행시 희망하는 동반자를 응답자의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가족과 동반하여 여행하고자 하는 의사는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친구나 직장 동료와 동반하여 여행하겠다는 의사는 30대 미만의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결혼과 자녀의 출산에 따른 가족과의 유대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촌지역 관광 여행에 가족을 동반하고자 하는 의사가 30대 미만의 젊은 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어촌관광 여행에의 동반자 희망 의사를 학력별로 분석해 보면 가족을 동반하고자 하는 의사에서는 학력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친구와 직장 동료를 동반하고자 하는 의사에서는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층이 직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기회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5-38 어촌 관광 동반 희망자에 대한 연령별 주민의 의견

	연령별 의견				
	20~30	30~40	40대 이상	불명	계
가족	60.0	93.2	92.3	88.9	91.4
친구	60.0	9.5	10.3	-	11.4
직장동료	20.0	5.4	3.8	-	5.3
혼자	-	2.7	-	-	1.6
기타	-	0.6	-	-	0.4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39 어촌 관광 동반 희망자에 대한 학력별 주민의 의견

	학력별 의견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불명	계
가족	90.5	92.7	89.6	83.3	91.4
친구	4.7	13.3	10.4	-	11.4
직장동료	-	6.0	6.0	-	5.3
혼자	-	2.0	1.5	-	1.6
기타	-	0.7	-	-	0.4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40 어촌 관광 동반 희망자에 대한 소득 계층별 주민의 의견

	소득 계층별 의견						
	1천만원미만	1~2천만원만	2~3천만원만	3~5천만원만	5천만원 이상	불명	계
가족	81.3	89.5	95.5	88.6	100.0	92.3	91.4
친구	6.3	14.0	13.5	2.9	33.3	-	11.4
직장동료	-	2.3	6.7	11.4	16.7	-	5.3
혼자	6.3	1.2	2.3	-	-	-	1.6
기타	-	1.2	-	-	-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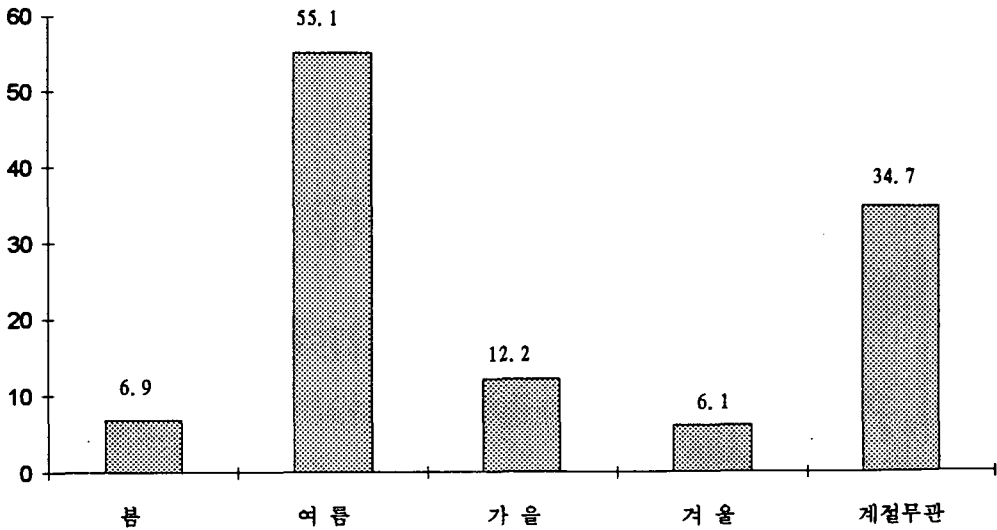
주 : 중복응답율임

소득 수준별로 어촌관광 동반자 희망 사항을 분석해 보면 저소득층이 가족 동반 희망율이 높으며, 친구와 직장 동료와의 동반 희망율은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관광 여행 희망 시기 및 기간

어촌 관광 여행을 희망하는 시기는 계절별로 여름철이 5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가을철로 12.2%, 봄과 겨울철이 각각 6.9%, 6.1%의 희망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계절과 관계없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주말 여행이나 당일 여행을 하겠다는 의사는 34.7%나 된다. 어촌 관광은 바닷가의 특성상 여름철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기 휴가 또한 주로 여름철에 시행되고 있어 어촌관광은 여름철 관광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주 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주말을 선용할 수 있게 되자 계절과 관계없이 주말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14 어촌 관광 여행 시기



관광객의 주거 지역이나 학력별로 희망하는 어촌 관광 여행 시기를 분석해 보면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여름철 관광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과 관계없이 어촌 관광 여행을 하겠다는 의사는 젊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소득 계층별로 분석해 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여름철 관광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계절과 관계없는 주말 여행을 통한 어촌 관광 여행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41 어촌 관광 희망 계절에 대한 지역별 주민의 의견

	지역별 의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계
봄	2.4	10.7	4.9	6.9
여름	63.9	50.4	51.2	55.1
가을	12.0	14.9	4.9	12.2
겨울	9.6	5.8	-	6.1
계절과 관계없이 방문	28.9	38.0	36.6	34.7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42 어촌 관광 희망 계절에 대한 연령별 주민의 의견

	연령별 의견				
	20~30	30~40	40대 이상	불명	계
봄	-	8.8	5.1	-	6.9
여름	50.0	53.4	62.8	22.2	55.1
가을	10.0	12.2	14.1	-	12.2
겨울	-	6.1	7.7	-	6.1
계절과 관계없이 방문	50.0	36.5	28.2	44.4	34.7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43 어촌 관광 희망 계절에 대한 학력별 주민의 의견

	학력별 의견				
	중졸 이하	고 졸	대졸 이상	불 명	계
봄	4.7	9.3	3.0	-	6.9
여 름	61.9	53.0	62.7	-	55.1
가 을	4.8	14.6	9.0	16.7	12.2
겨 울	-	8.0	3.0	16.7	6.1
계절과 관계없이 방문	33.3	34.4	37.3	16.7	34.7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44 어촌 관광 희망 계절에 대한 소득 계층별 주민의 의견

	소득 계층별 의견					불 명	계
	1천만원미만	1~2천만원미만	2~3천만원미만	3~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봄	-	7.0	9.0	5.7	16.7	-	6.9
여 름	75.0	58.1	47.2	62.9	66.7	38.5	55.1
가 을	12.5	10.5	18.0	2.9	-	1.5	12.2
겨 울	6.3	2.3	12.4	2.9	-	-	6.1
계절과 관계없이 방문	12.5	34.9	38.2	40.0	33.3	23.1	34.7

주 : 중복응답율임

어촌 관광 여행을 할 경우 교통 수단은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73.7%로 가장 높았고 기차를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18.2%, 버스 4.4%, 배 2.0%, 비행기 1.7%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어촌 관광 여행객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

어촌 관광 여행에 소요되는 시간으로는 2~3시간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소만 적당하다면 5시간 이상 소요되더라도 어촌 관광 여행을 하겠다는 의사가 21.8%나 된다. 이는 관광 여행시 대부분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관광 소재가 있다면 어디라도 여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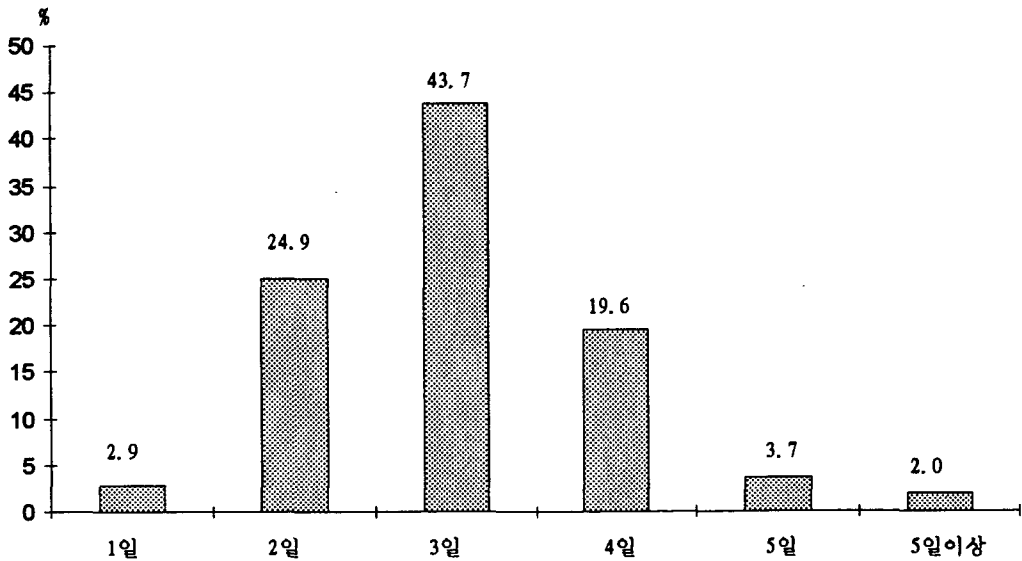
표 5-45 어촌 관광 여행시 이용할 교통 수단

	자가용 승용차	기 차	버 스	비행기	배
응 답 율	73.7	18.2	4.4	1.7	2.0

표 5-46 관광지 도달 적정 시간

	1시간 이내	1~2시간	2~3시간	3~5시간	5시간 이상
응 답 율	4.1	33.9	34.7	5.6	21.8

그림 5-15 어촌 관광 여행 희망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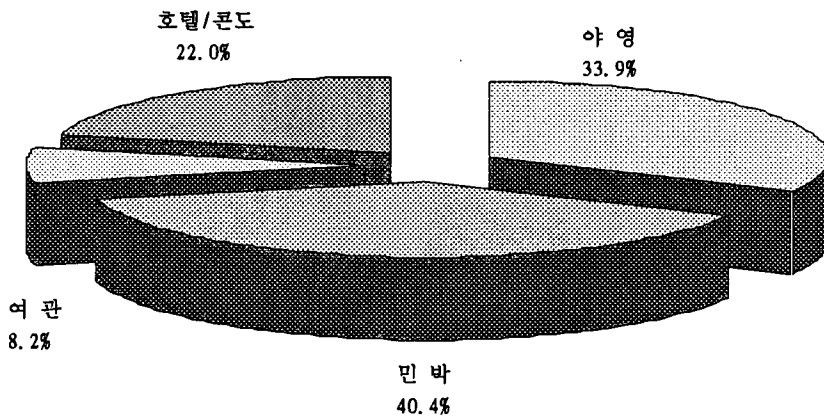
어촌 관광여행에서 희망하는 여행기간은 평균 3일로서 2박3일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즉 어촌 관광여행을 희망하는 미래의 관광객 43.7%가 2박3일의 관광 여행을, 24.9%가 1박2일을, 19.6%가 3박4일의 어촌 관광 여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 관광여행 기간은 대도시 지역이 농촌지역보다 길었고, 고학력자일수록 길었으며 20대의 젊은 연령층이 3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길었다. 소득면에서도 고소득자일수록 여행 희망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

5. 희망하는 숙박 시설

어촌 관광 여행 중 숙박할 경우 희망하는 숙박 시설은 민박이 40.4%로 가장 높았고 야영이 33.9%로 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여관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은 반면 호텔이나 콘도에 대한 선호도는 22.0%로 높았다. 그러나 향후 숙박 시설 이용 희망에서 민박을 선택하는 비율은 40.4%로서 1995년도 어촌 관광 실태에서 관광객이 선택한 민박을 47.5%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림 5-16 어촌 관광 여행시 희망하는 숙박 시설



숙박 시설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보면 대도시일수록 민박과 호텔 및 콘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야영은 농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숙박 시설에 대한 연령별 특성을 분석해 보면 야영은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민박은 4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콘도 등 편리한 숙박 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20~30대의 젊은 층과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숙박 시설에 대한 학력별 특성을 보면 야영은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호텔이나 콘도 이용은 고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박이나 여관의 이용은 학력별 격차가 크지 않으며 비슷한 경향 치를 보이고 있다. 어촌 관광 여행시 숙박 시설 이용에 대한 소득 계층별 특성을 보면 야영은 저소득층에서, 호텔과 콘도 등의 이용은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민박 이용은 소득 계층간 특이한 경향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어촌 관광여행의 숙박 시설 이용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야영이나 호텔 및 콘도 이용과는 달리 민박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계층이 선호하는 어촌 관광지의 대중 숙박 시설로 선택되고 있다. 한편 호텔이나 콘도 등 고급 숙박 시설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가 높은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표 5-47 향후 어촌관광시 희망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의 의견

	지역별 의견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계
야 영	22.9	36.4	48.8	33.9
민 박	45.8	40.5	29.3	40.4
여관	8.4	8.3	7.3	8.2
호텔이나 콘도	34.9	17.4	9.8	22.0

표 5-48 향후 어촌관광시 희망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연령별 주민의 의견

	연령별 의견				
	20~30	30~40	40대 이상	불명	계
야영	30.0	39.2	21.8	55.6	33.9
민박	10.0	42.6	44.9	-	40.4
여관	20.0	7.4	9.0	-	8.2
호텔이나 콘도	40.0	16.9	30.7	11.1	22.0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 49 향후 어촌 관광시 희망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학력별 주민의 의견

	학력별 의견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불명	계
야영	52.4	35.7	25.4	16.7	33.9
민박	33.3	45.0	32.8	33.3	40.4
여관	9.5	9.9	4.5	-	8.2
호텔이나 콘도	4.7	15.9	43.3	-	22.0

주 : 중복응답율임

표 5-50 향후 어촌관광시 희망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소득 계층별 주민의 의견

	소득 계층별 의견						
	1천만원미만	1~2천만원미만	2~3천만원미만	3~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불명	계
야영	37.5	45.4	30.3	14.3	16.7	38.5	33.9
민박	43.8	33.7	47.2	48.6	16.7	23.1	40.4
여관	6.3	9.3	10.1	-	16.7	7.7	8.2
호텔이나 콘도	6.3	13.9	22.5	45.7	50.0	15.4	22.0

주 : 중복응답율임

제 6 장

어촌 관광지 유형별 특성과 개발 방향

제1절 어촌 관광지 유형 구분

어촌의 공간구조는 어촌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른 어촌 관광활동의 유형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어촌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관광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어촌 관광지의 유형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의 자원일지라도 그 자원이 수용할 수 있는 관광활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에 의한 관광지 유형 분류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어항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볼 때, 어항이 개설되면 활어선이 활동하게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활어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 횃집이 운영된다. 따라서 어항이 개설되면 자연스럽게 횃집 중심의 관광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어항이 개설되면 그 구성 요소로 중요한 방파제는 집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항과 방파제 부근은 훌륭한 낚시터가 되며 어항 근처에는 바다 낚시를 즐기는 레저 관광객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어항이라는 하나의 자원을 둘러싸고 횃집 중심의 음식 맛을 즐기는 관광객과 낚시를 즐기는 관광객, 기타 바다 경관을 즐기는 관광객 등 이질적인 관광활동이 혼재하게 된다.

관광활동 유형에 따른 어촌 관광지의 유형 구분은 보다 세분화된 어촌 관광지의 특성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에 의한 어촌 관광지 유형화보다 구체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어촌 관광지의 유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유형별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사한 관광활동을 보다 상위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해수욕, 파도타기, 요트타기, 낚시 등은 해양스포츠·레저라는 큰 범주로 묶을 수 있다. 그러나 해수욕과 파도타기, 요트 놀이 등은 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해양스포츠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낚시는 해수욕장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한 범주로 묶을 수 없게 된다. 즉, 하나의 어촌에 세분화된 여러 형태의 관광활동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게 되므로 어촌 관광지의 특성을 유형화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어촌 관광활동에 의한 어촌 관광지의 유형과 관광자원에 의한 어촌 관광지의 유형을 구분하고 두 방법에 의한 유형화 결과를 비교한 후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에 따라서 어촌 관광지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1. 관광활동 유형에 따른 어촌 관광지 구분

어촌지역에서의 관광행태를 해양 스포츠·레저활동, 수산물 구득활동, 종교 문화활동, 자연경관 감상, 생선회 등 바닷가 음식 맛보기, 휴양·휴식활동 등으로 구분한다면 해양 스포츠·레저형이 가장 보편적인 행태로서 어촌관광의 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감상이 33.7%, 생선회 등 음식 맛보기가

31.4%, 수산물 구매활동이 31.4%, 휴양·휴식이 21.9%로 나타나고 종교·문화활동은 4.1%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 어촌지역의 관광활동 유형 구분

구 분	비 율	비 고
스포츠·레저 활동	82.2	해수욕, 낚시, 요트 및 파도타기, 등산..
수산물 구매 활동	31.4	김, 미역, 조개류, 갯갈류 구입 및 자연 해산물 채취
종교 문화 활동	5.3	종교 문화 행사참석, 사적지 탐방, 생활체험.
자연경관 감상 활동	33.7	동식물 감상, 바다풍광 감상, 수목, 기암 등
생선회 등 음식 맛보기	31.4	생선회 등 지역특산 요리, 음료,
휴양, 휴식	21.9	잠시 휴식, 체류 휴양
기 타	4.1	여객터미널 등을 통한 통과 관광

그러나 대부분의 어촌지역에서는 여러 가지의 자원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활동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표6-2와 같이 어촌지역의 관광활동 유형을 기준으로 어촌의 관광지 유형을 분류해 볼 때, 단일의 관광활동 유형으로 분류되는 관광지는 14.2%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지역의 단일 관광활동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스포츠·레저활동형으로서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구매 활동형은 1.2%로, 기타 활동이 1.2%로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의 관광활동 유형으로 구성되는 관광지는 43.8%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 가지 이상의 관광활동 유형으로 구성되는 관광지는 36.1%로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의 관광활동으로 구성된 관광 유형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스포츠·레저활동형과 자연경관 감상형으로서 13.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스포츠·레저활동형과 수산물 구매형이 8.3%, 스포츠·레저활동형과 음식 맛보기형이 11.2%, 스포츠·레저활동형과 휴양형이 5.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가지 이상의 관광활동으로 구성된 관광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지닌 유

형은 스포츠·레저활동형 + 수산물 구득형 + 자연경관 감상형이 5.9%로 나타나고 스포츠·레저활동형 + 수산물 구득형 + 휴양형이 4.7%, 스포츠·레저활동형+자연경관 감상형+음식 맛보기형이 5.3%, 스포츠·레저활동형 + 수산물 구득형 + 음식 맛보기형이 4.1% 스포츠·레저활동형 + 자연경관 감상형 + 휴양형이 2.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할 때, 어촌지역의 관광은 스포츠·레저활동과 수산물 구득활동, 생선회 등 바닷가 음식 맛보기, 휴양과 휴식, 종교·문화활동 등 두 가지 이상의 관광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관광행태를 지닌 복합적 관광행태가 85.8%를 차지하며 단일 요인에 의한 관광행태는 14.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2 어촌지역의 관광 행태별 관광지 유형

구 분	내 역
단일 요인에 의한 관광지형 (14.2%)	스포츠·레저 활동형 (11.8%) 수산물구득 활동형 (1.2%) 기타 (1.2%)
두 가지 요인에 의한 복합형 (43.8%)	스포츠·레저형 + 경관감상형 (13.0%) 스포츠·레저형 + 수산물구매형 (8.3%) 스포츠·레저형 + 음식맛보기형 (11.2%) 스포츠·레저형 + 휴양형 (5.3%) 기 타 (6.0%)
세 가지 요인에 의한 복합형 (36.1%)	스포츠·레저 + 수산물구득 + 자연경관감상(5.9%) 스포츠·레저 + 수산물구득 + 휴양형 (4.7%) 스포츠·레저 + 자연경관감상 + 음식맛보기형(5.3%) 스포츠·레저 + 자연경관감상 + 휴양형(2.4%) 기 타 (13.7%)
기 타	5.9%

2. 관광자원 특성에 따른 어촌 관광지 유형 구분

어촌지역의 관광자원은 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관광활동을 수반하게 된다. 어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관광자원별로 수반되는 관광활동을 정리하면 <표 6-3>과 같다.

표 6-3 어촌지역의 관광자원별 수반되는 관광활동

자 원 구 분	자 원 별	개발 잠재력이 좋은 어촌의 비율(%)	주요 관광 활동
자연적 관광자원	백사장	37.3	해수욕, 파도타기, 요트타기 스킨 스쿠버 활동
	낚시터	63.9	낚시
	갯 별	26.6	자연해산물 채취, 체험관광
	방풍림	26.6	자연경관 감상, 휴양·휴식
	기암·괴석	27.8	자연경관 감상, 휴양·휴식
	수목과 화초	12.4	자연경관 감상, 휴양·휴식
	마을의 산	35.5	등 산
	하천 하구언	7.1	생태관광
	철새 서식지 동 굴	11.8 6.5	생태관광 생태관광
산업적 관광자원	항 구	38.5	음식즐김, 활어 구입, 경관감상, 낚시, 풍어제 수산물 구입,
	여객 터미널	9.5	관광객의 외지 이동, 특산물 구매
	자연산 채취어장	38.5	체험관광, 자연산 수산물 채취
종교·문화적 관광자원	사찰	11.2	종교순례활동, 문화탐방
	풍어제	17.8	문화탐방
	당산제	16.0	문화탐방
	사적지	7.7	문화탐방
	전승놀이	3.0	문화탐방
	토속 음식	5.9	문화탐방
	그림 제작	1.2	문화탐방 및 체험관광
	어선 제작	3.6	문화탐방 및 체험관광
	특산물 가공	1.8	문화탐방 및 특산물 구입

이 표에 의하면 자연적 관광자원 중에서 자원 보유율이 높은 우수 관광자원은 낚시터, 백사장, 마을 산, 갯벌, 방풍림, 기암·괴석 등이다. 이 중에서 갯벌, 방풍림, 기암·괴석 등은 백사장, 낚시터 등 대표적인 어촌 관광자원 속에 종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촌 관광지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이 되는 자원으로 삼기 어렵다. 마을 산 또한 보유율은 높지만 산을 어촌의 특성을 지니는 관광자원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하천의 하구언이나 철새 서식지, 동굴 등도 좋은 생태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생태관광이 현실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점을 감안 할 때, 이를 어촌 관광지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따라서 자연적 자원 중 낚시터와 백사장을 어촌 관광지를 유형화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어촌지역의 산업적 관광자원 중에서 어항과 자연산 해산물 채취어장 등은 그 보유율이 높다. 어촌지역의 산업적 관광자원 중 방파제, 어선 접안시설, 활어 공판장, 해산물 판매장 등도 보유율이 높지만 이와 같은 자원들은 대부분 어항에 종속되는 자원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광자원들을 독립적으로 어촌 관광지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여객 터미널은 비록 그 보유율은 낮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힘이 크기에 어항과 달리 어촌 관광지를 유형화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여객 터미널이 어항과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동시에 병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항에 종속되는 산업적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다.

자연산 해산물 채취어장은 그 보유율이 높아 어촌 관광지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그러나 자연산 해산물 채취 어장은 대부분 갯벌이나 백사장 주변의 바다 등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 관광지의 유형화를 위한 독립된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문화적 관광자원 중에서 비교적 보유율이 높은 관광자원은 풍어제, 당산제, 사찰, 사적지 등이다. 풍어제는 어항과 어선 어업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를 공연하는 공간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지만 자원 보유율이 높고 어촌지역의 종교·문화적 자원을 대표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어촌관광지 유형화를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당산제는 신역(神域)의 공간은 존재하지만 당산제가 한 밤중에 지정된 제주(祭主)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수행되기 때문에 이의 관광적 요소는 크지 못하다. 사찰과 사적지는 그 비율은 과히 높지 않지만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관광자원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촌 관광지의 유형화를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¹⁸⁾

표 6-4 어촌 관광지 유형화의 기준이 되는 자원과 자원간의 결합 유형

기준이 되는 자원에 의한 어촌 관광지 유형	기준 자원과 결합된 어촌 관광지 유형	비율
1. 어항 중심의 어촌관광지	1-1 어 항	38.5
	1-2 어항 + 여객 터미널	7.1
	1-3 어항 + 해수욕장	18.3
	1-4 어항 + 사찰	6.5
2. 해수욕장 중심의 어촌관광지	2-1 해수욕장	37.3
	2-2 해수욕장 + 갯벌	10.1
	2-3 해수욕장 + 사찰	2.4
3. 낚시터 중심의 어촌관광지	3-1 낚 시	63.7
	3-2 낚시 + 항구	27.2
	3-3 낚시 + 해수욕장	27.2
	3-4 낚시 + 사찰	7.7
	3-5 낚시 + 사적지	5.9
4. 종교·문화적 자원 중심의 어촌관광지	4-1 사 찰	11.2
	4-2 사적지	7.7
	4-3 풍어제	17.8

¹⁸⁾ 어촌지역, 특히 어항이 있는 어촌지역에 사찰이 나타나는 것은 해상에서의 위험한 어로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김성호(1996)는 예로부터 항구를 드나드는 배와 선원들의 안전 항해와 안전 귀항을 기원하기 위하여 항구 주변에 항해사찰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표 6-5 관광자원 중심의 어촌 관광지 유형

기본 유형	세 부 유 형	
	유 형	비 율
1. 어항 중심형 어촌 관광지	① 어항만 있는 어촌 관광지 (해수욕장, 여객터미널 없는 어항)	12.4
	② 어항과 여객터미널 있는 어촌 관광지 (해수욕장 없는 경우)	3.0
	③ 어항과 해수욕장 있는 어촌 관광지	23.1
2. 해수욕장 중심형 어촌 관광지	① 해수욕장만 있는 어촌 관광지 (낚시터, 어장이 없는 경우)	3.6
	② 해수욕장과 어항이 있는 어촌 관광지	25.4
	③ 해수욕장과 낚시터가 있는 어촌 관광지	8.3
3. 낚시터 중심형 어촌 관광지	① 낚시터만 있는 어촌 관광지 (어항, 해수욕장이 없는 경우)	13.0
	② 낚시터와 어항이 있는 어촌 관광지	16.6
	③ 낚시터와 어항과 해수욕장이 있는 어촌 관광지	23.1
4. 종교·문화중심형 어촌 관광지	① 사찰이 있는 어촌 관광지	11.2
	② 풍어제를 지내는 어촌 관광지	17.8

이와 같은 기준들을 종합해 보면 자연적 관광자원으로 해수욕장과 낚시터, 산업적 관광자원으로 어항을, 종교·문화적 관광자원으로 사찰과 풍어제를 어촌 관광지를 유형화하는 기준이 되는 관광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

어촌지역의 관광활동과 관광자원의 특성에 의한 어촌 관광지의 유형화 구분 결과를 보면 자원에 의한 분류가 보다 구분이 명료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촌이 지니는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어촌 관광지를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어촌 관광지의 유형별 특성

1. 어항 중심의 어촌 관광지

가. 터미널과 해수욕장을 갖추지 않은 어항 중심의 어촌

어항을 지니고 있는 어촌은 전체 어촌의 56.2%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발 여건이 좋은 어항을 갖춘 어촌은 전체 어촌의 38.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과 해수욕장을 지니지 않는 어항으로서 관광지로 개발할만한 우수한 여건을 갖춘 어촌은 12.4%에 불과하다.

어항을 중심으로 하는 어촌은 어선이 활동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산업기반인 방파제와 어선 접안시설, 물양장, 보관창고, 저온 저장고, 활어 공판장 또는 활어 저장용 수족관, 어선 수리소 또는 어선 제작창 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어항의 선착장, 방파제 등은 집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낚시터가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어항을 갖춘 어촌의 85.7%가 낚시터를 지니고 있으며 이중 낚시터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어촌은 71.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이나 해수욕장을 지니지 않는 어항중심의 어촌은 어항의 기간 시설인 방파제와 어선 접안 시설을 갖춘 비율이 터미널을 갖추거나 해수욕장을 갖춘 어항에 비해 별로 손색이 없지만 활어 공판장, 해산물 판매장, 활어 양식업 등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항만을 갖추고 있는 어촌은 관광적 매력이 약하며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년 평균 15,981명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고 횃집이나 음식점, 민박, 여관 등 숙박시설도 취약하다.

그러나 터미널과 해수욕장을 갖추지 않은 어항중심의 어촌이라고 해도 어촌의 입지적 조건이나 어촌이 지닌 경관 또는 종교·문화적 자원여부에 따라서 어항중심의 어촌관광지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1) 대도시 주변 어항 중심의 어촌

경기도 김포군 대명리(김포어촌계)는 해수욕장이나 여객 터미널이 없이 어항중심의 어촌으로서 서해 연안의 꽃게, 새우, 기타 잡어를 대상으로 어선어업을 하는 어촌이다. 대명리는 서울과 인천등 수도권 대도시와 강화 등 관광지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잡아온 활어와 새우젓, 밴댕이젓 등 가공한 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횃집과 음식점, 다방 등 유흥업소가 발달되어 있다.

2) 경관좋은 어항 중심의 어촌

경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는 영덕읍에서 10km지점에 위치한 오지지역으로서 918번 지방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접근성이 매우 불량한 어항중심의 어촌이었다. 그러나 노물리는 어항과 주변 경관이 빼어나고 싱싱한 생선회와 낚시 등을 즐기기 위하여 인근의 도시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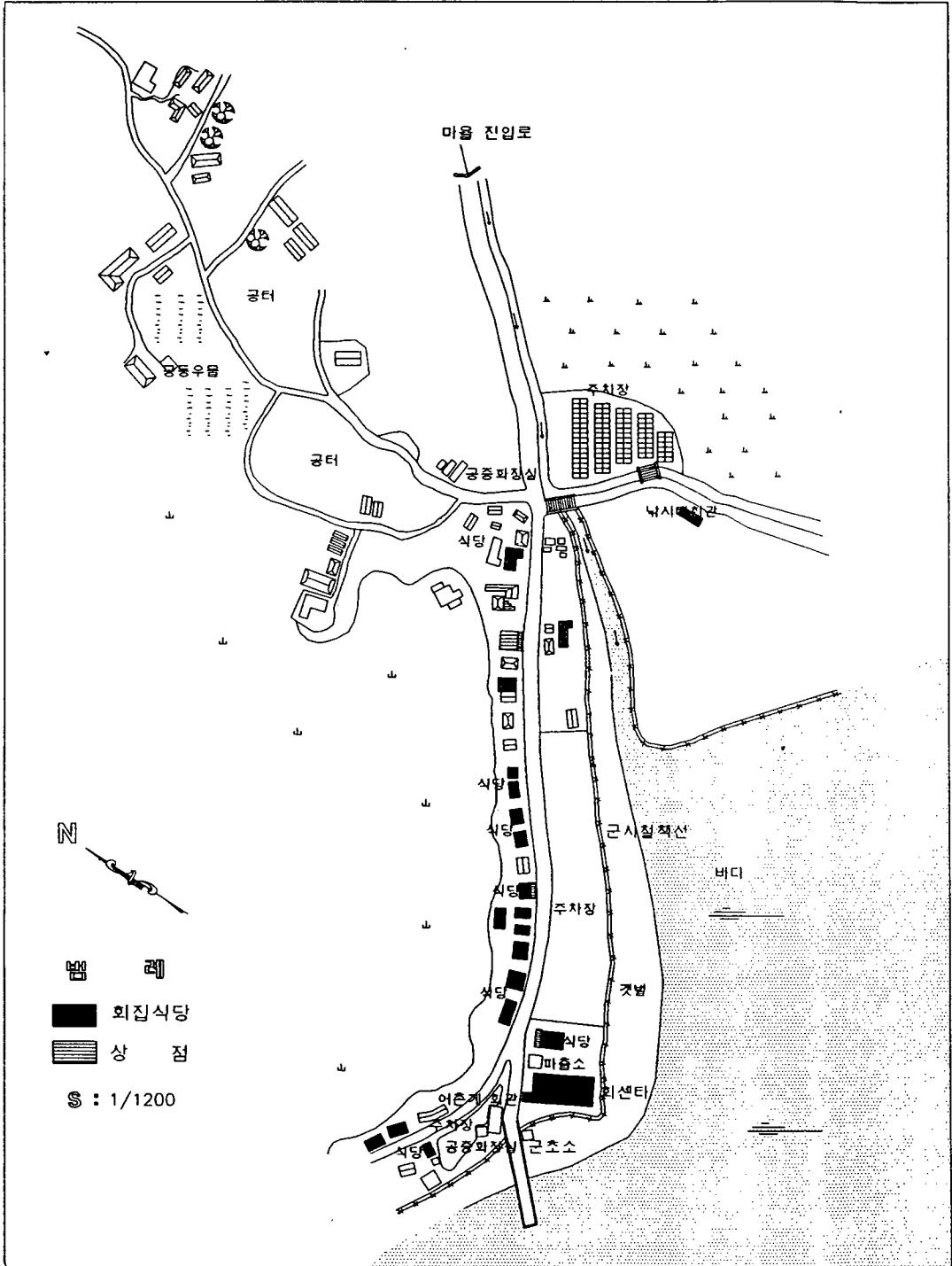
마을 주민들은 이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어획한 자연산 물고기를 이용해 횃집을 운영하고 있다. 노물리 어촌은 빼어난 경관을 바탕으로하고 가격이 저렴한 생선회와 자연산 생선의 독특한 맛, 후한 인심을 매력으로 삼아 인근 도시의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터미널도 없고 해수욕장도 없는 어항 중심의 어촌이지만 인근 도시는 물론 내륙 깊숙한 지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산 회를 즐기기 위하여 이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도로변에는 횃집이 발달하고 있으며 먼 곳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횃집들은 대부분 민박업소를 겸하고 있다.

표 6-6 어항 중심 관광지의 주요 자원 분포 특성

	여객터미널과 해수욕장을 갖추지 않은 어항	터미널을 갖춘 어항	해수욕장을 갖춘 어항
백사장	-	-	100.0
낚시터	85.7	60.0	79.5
바다갈라짐	19.0	-	17.9
방풍림	4.8	-	43.6
철새서식지	23.8	40.0	28.2
어항	100.0	100.0	100.0
여객터미널	-	100.0	23.1
방파제	57.1	60.0	84.6
어선접안시설	61.9	40.0	76.9
활어공판장	28.6	40.0	43.6
해산물판매장	14.3	80.0	17.9
해산물채취장	66.7	60.0	76.9
어선어업	76.2	100.0	74.4
활어양식업	26.6	40.0	48.7
패류양식업	47.6	80.0	46.2
풍어제	33.3	60.0	43.6
당산제	23.8	40.0	48.7
사찰	14.3	40.0	20.5
사적지	23.8	20.0	12.8
어선제작소	4.8	20.0	15.4
호텔	-	20.0	2.6
콘도	-	20.0	2.6
여관	19.0	100.0	33.3
민박	38.1	40.0	76.9
음식점	28.6	40.0	43.6
횃집	66.7	80.0	79.5
관광유어선	52.4	80.0	66.7
관광상품판매점	4.8	20.0	5.1
캠프장	-	-	17.9
어촌당 평균 관광객 수	15,981	33,525	78,889

그림 6-1 도시근교 어항이 있는 어촌 : 김포 대명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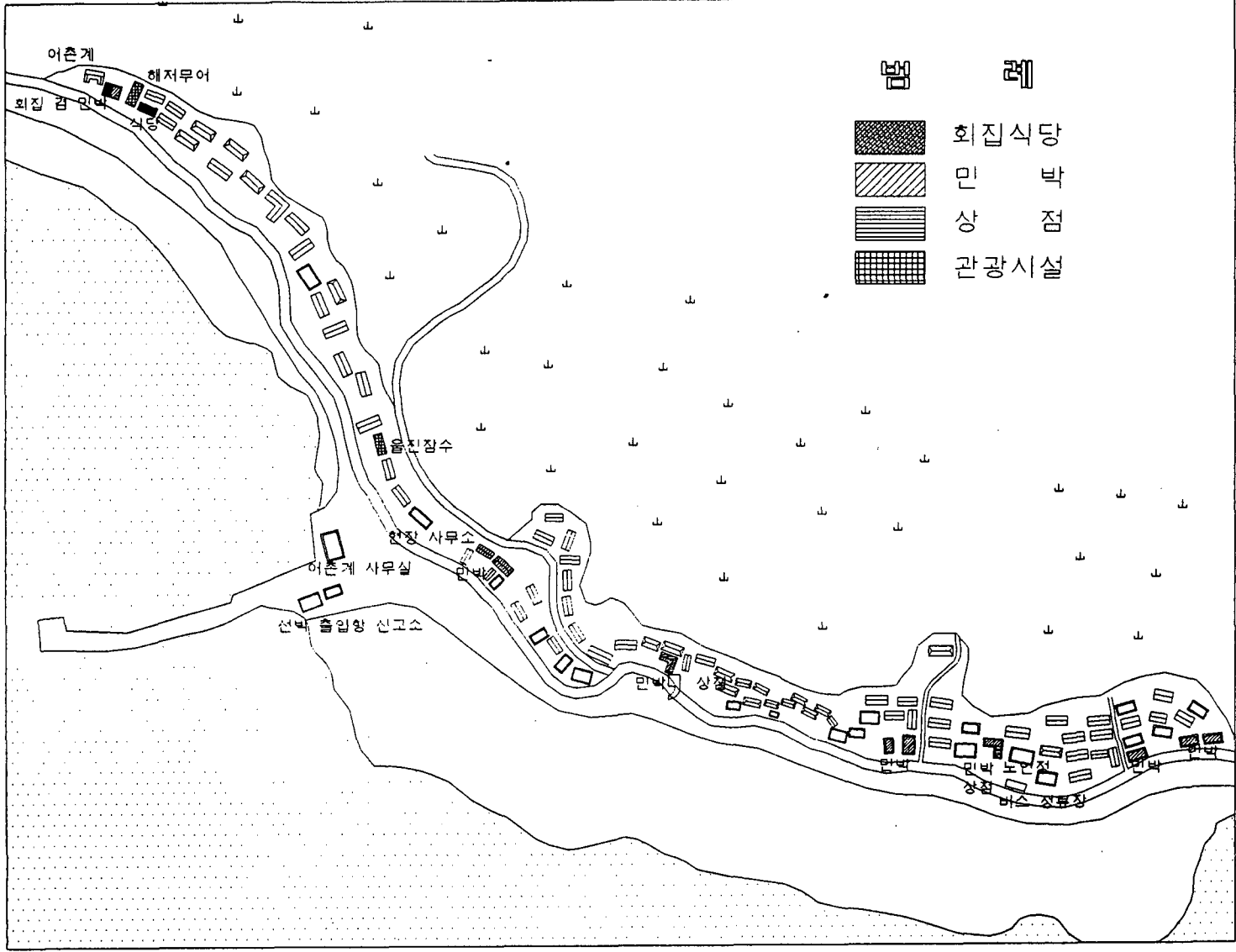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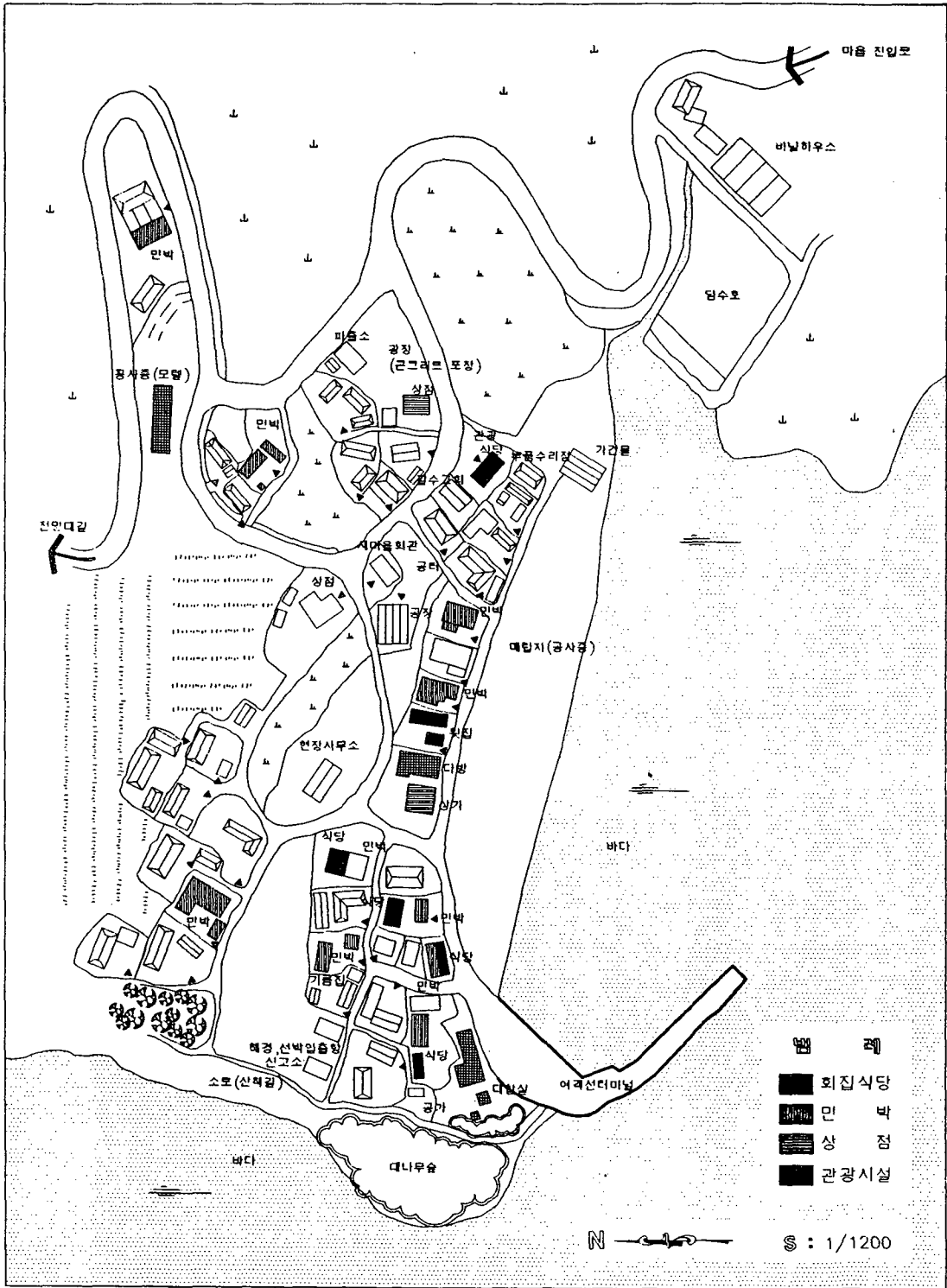


그림 6-2 어항을 갖춘 어촌 : 울진 오산
작성 : 김진

그림 6-3 여객터미널과 어항을 갖춘 어촌: 해남 토말



나. 여객 터미널을 갖춘 어항 중심의 어촌

터미널을 갖춘 어항의 비율은 3.0%로 매우 낮지만 어항에 터미널이 부가되면 어항만 갖춘 어항에 비하여 여러 가지 관광시설과 관광활동이 나타난다. 즉, 터미널과 해수욕장을 갖추지 못한 어항 중심의 어촌과는 달리 여객 터미널을 갖춘 어항은 통과하는 여객 수가 많기 때문에 여관, 음식점, 횃집, 호텔 등 숙박시설이 많이 나타나고 활어공판장, 해산물 판매장, 어선 어업 등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어선 어업 등이 활발하기 때문에 풍어제, 당산제, 사찰 등 종교·문화적 활동이 터미널이나 해수욕장을 갖추지 못한 어항중심의 어촌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

터미널을 갖춘 어촌의 또 다른 특징은 관광상품 판매점과 관광 유어선을 갖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여객 터미널을 통과하는 관광객 수가 년 평균 33,525명으로 어항만 있는 어촌의 경우보다 많기 때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토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해수욕장을 갖춘 어항 중심의 어촌

해수욕장을 갖춘 어항은 전체 어촌의 23.1%로 나타난다. 해수욕장을 갖춘 어항중심의 관광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터미널이나 해수욕장을 갖추지 않은 어항중심의 관광지와 다르다. 첫째, 해수욕장을 갖춘 어항 중심의 어촌 관광지는 해수욕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박업소와 캠프장을 보유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둘째는 터미널을 갖춘 어항과 마찬가지로 해수욕객 등 관광객 수가 많기 때문에 활어 공판장, 해산물 채취장, 활어 양식업, 횃집 등의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을 갖춘 어항 중심의 관광지와는 달리 관광상품 판매점이나

해산물 판매장 등의 보유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풍어제, 사찰 등 어촌 주민들의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원의 보유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해수욕장 중심의 어촌 관광지

가. 낚시터와 어항이 없는 해수욕장 중심의 어촌

낚시터와 어항이 없는 해수욕장 중심의 어촌 관광지는 전체 어촌의 3.6%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낚시터와 어항이 없는 해수욕장 중심의 어촌 관광지는 어선 접안시설이나 여객 터미널이 없고 방파제 보유 비율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년중 평균 관광객의 수도 12,193명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활어 공판장, 활어 양식장, 해산물 판매장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횃집, 음식점, 여관이나 호텔 등의 보유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민박 중심의 숙박시설 보유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낚시터를 갖춘 해수욕장의 경우도 관광객의 수에서 낚시터와 해수욕장을 갖추지 않은 어촌과 별로 다르지 않으며 기타 관광자원의 보유나 시설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어항을 갖춘 해수욕장 중심의 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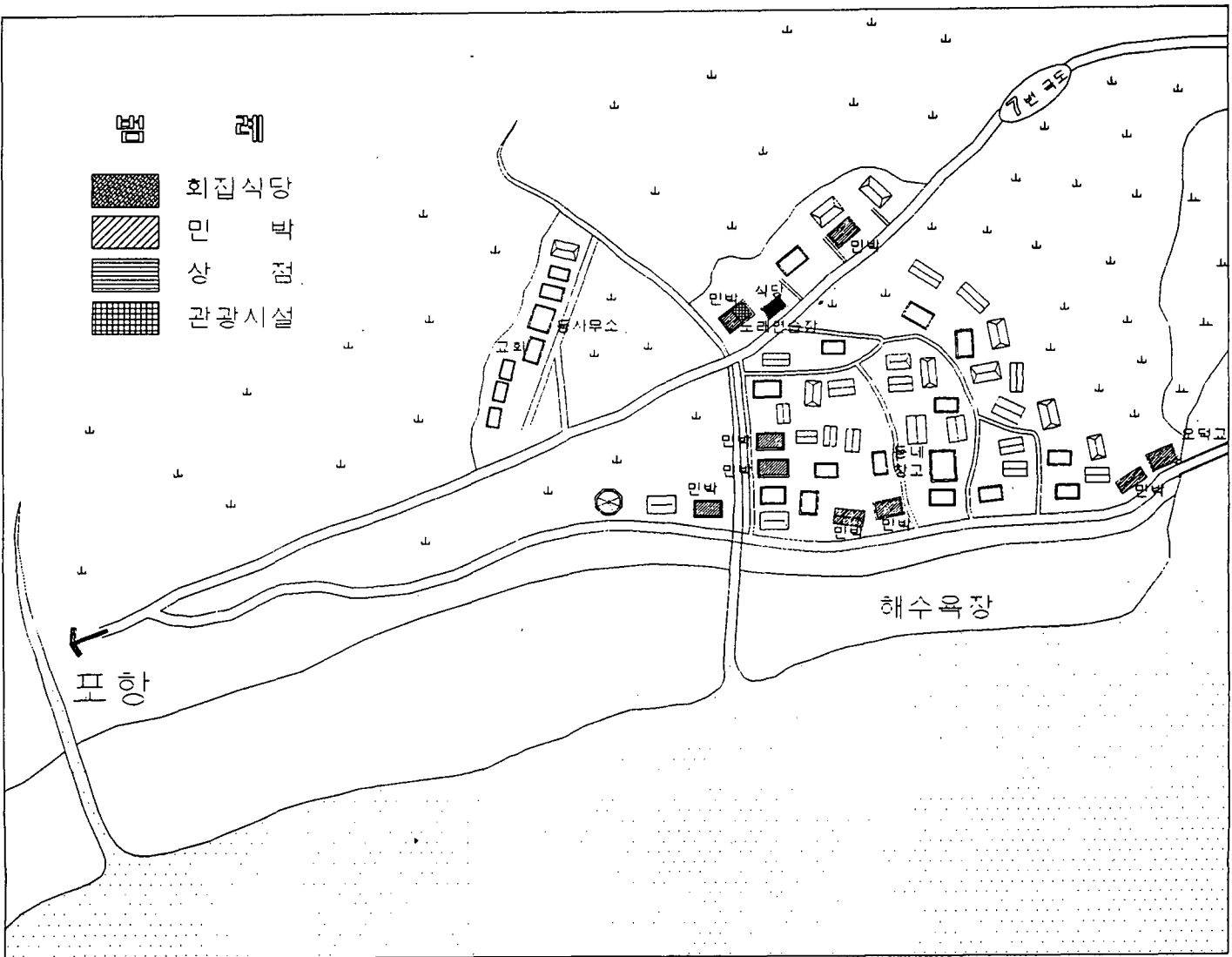
어항을 갖춘 해수욕장은 전체 어촌의 25.4%를 차지한다. 어항을 갖추지 않은 해수욕장과는 달리 어항에 부수되는 산업시설인 어선 접안시설, 방파제 등의 보유율이 높으며 활어 공판장, 해산물 판매장, 해산물 채취장, 활어 양식업 등을 보유한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은 산업기반 시설과 관광 매력물로 인해 어항을 갖춘 해수욕장의 년 평균 관광객 수는 64,344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항이 없이 해수욕장 중심의 어촌에 비해 월등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표 6-7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지 주요 자원 분포 특성

	낚시터와 어항이 없는 해수욕장	낚시터를 갖춘 해수욕장	어항을 갖춘 해수욕장	낚시터와 어항을 갖춘 해수욕장
백사장	100.0	100.0	100.0	100.0
낚시터	-	100.0	79.1	100.0
바다갈라짐	-	25.0	11.6	14.7
방풍림	50.0	-	48.8	50.0
철새서식지	16.7	25.0	27.9	35.3
어항	-	-	100.0	100.0
여객터미널	-	-	16.3	20.6
방파제	16.7	41.7	86.0	91.2
어선접안시설	-	16.7	67.4	67.6
활어공판장	-	-	34.9	38.2
해산물판매장	-	8.3	18.6	20.6
해산물채취장	33.3	41.7	72.1	76.5
어선어업	66.7	50.0	72.1	73.5
활어양식업	-	25.0	51.2	58.8
패류양식업	16.7	58.3	46.5	52.9
풍어제	50.0	33.3	44.2	50.0
당산제	50.0	33.3	55.8	61.8
사찰	-	16.7	9.3	11.8
사적지	-	8.3	14.0	17.6
어선제작소	-	16.7	14.0	14.7
호텔	-	-	2.3	2.9
콘도	-	-	2.3	2.9
여관	16.7	16.7	34.9	29.4
민박	100.0	75.0	81.4	85.3
음식점	33.3	25.0	44.2	44.1
횃집	50.0	66.7	76.7	79.4
관광유어선	-	50.0	67.4	67.6
관광상품판매점	16.7	16.7	7.0	8.8
캠핑장	-	16.7	18.6	23.5
어촌당 평균 관광객 수	12,193	13,482	64,344	76,750

그림 6-4 해수욕장 만 갖춘 어촌: 울진 오산리



어항과 낚시터를 갖춘 해수욕장은 기본적으로 어항을 갖춘 해수욕장과 비슷한 산업기반과 관광 매력물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 유인력에서는 어항만을 갖춘 해수욕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낚시터 중심의 어촌 관광지

가. 어항과 해수욕장이 없는 낚시터 중심의 어촌

어항과 해수욕장이 없이 낚시터만 있는 어촌 중 관광지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어촌은 1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낚시 중심의 어촌은 어선어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파제와 어선접안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관광객 수가 적어 활어 공판장이나 해산물 판매장, 활어 양식업 등의 비율이 낮다.

이들 어항이 없는 낚시중심의 어촌 관광지는 풍어제나 당산제, 사찰 등 종교활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민박, 음식점, 횃집 등의 비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과 관광상품 판매점, 캠프장 등 시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어항이 있는 낚시터 중심의 어촌

어항을 갖춘 낚시터 중심의 어촌은 어항에 부수되는 산업적 기반인 방파제와 어선 접안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낚시터만 있는 어촌과는 달리 어항과 연관되는 어선 어업과 활어 양식업 등이 발달하고 있으며 활어 공판장, 해산물 판매장 등이 나타나고 있다.

어항이 있는 낚시터 중심의 어촌은 어항 및 어선 어업과 관련된 풍어제 등이 나타나는 빈도가 높고 사찰과 당산제 등 종교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한편 민박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횃집, 관광 유어선, 음식점, 여관 등 관광 하부시설을 보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해수욕장이 있는 낚시터 중심의 어촌

해수욕장이 있는 낚시터 중심의 어촌 관광지를 낚시터만 있는 어촌과 비교해 볼 때, 어항이 없기 때문에 어항에 부수되는 수산업 기반시설인 방파제나 어선 접안시설, 활어 공판장, 해산물 판매장 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해수욕 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이 발달하고 캠프장이나 관광상품 판매점 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해수욕장을 갖춘 낚시터 중심의 어촌 관광지는 해수욕장이 갖는 매력으로 인해 년 평균 관광객 수가 53,986명으로 추산되어 낚시터만 있는 어촌이나 어항을 갖춘 낚시터 중심의 어촌에 비해 월등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관광객의 대부분은 여름 한철에 모여드는 관광객들이다.

다. 어항과 해수욕장을 갖춘 낚시터 중심의 어촌

어항과 해수욕장을 갖춘 낚시터 중심의 어촌 관광지는 어항 중심의 산업기반시설을 보유한 비율이 높고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관광 하부시설이 충실하며 어항과 어선어업과 관련된 종교적 관광자원을 보유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관광적 매력을 지니고 있다.

어항과 여객 터미널, 방파제, 어선 접안 시설 등 어항과 관련 산업시설을 보유한 비율이 높으며 활어 공판장, 해산물 판매장, 어선어업, 활어 양식업 등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항과 해수욕장을 갖춘 낚시터 중심의 어촌 관광지의 연간 평균 관광객 수는 74,356명에 이르고 있어 다른 유형의 낚시터 중심 어촌 관광지보다 월등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표 6-8 낚시터 중심의 관광지 주요 자원 분포 특성

	어항과 해수욕장이 없는 낚시터	어항이 있는 낚시터	해수욕장이 있는 낚시터	어항과 해수욕장을 갖춘 낚시터
백사장 낚시터	-	-	100.0	100.0
바다갈라짐	100.0	100.0	100.0	100.0
방풍림	9.1	10.7	20.0	20.5
철새서식지	18.2	10.7	6.7	56.4
	4.5	35.7	20.0	41.0
어항	-	100.0	-	100.0
여객터미널	-	14.3	-	28.2
방파제	50.0	53.6	46.7	92.3
어선접안시설	40.9	53.6	26.7	71.8
활어공판장	4.5	39.3	-	41.0
해산물판매장	4.5	17.9	6.7	23.1
해산물채취장	50.0	57.1	40.0	82.1
어선어업	59.1	82.1	53.3	79.5
활어양식업	13.6	35.7	26.7	64.1
패류양식업	31.8	53.6	60.0	53.8
풍어제	9.1	32.1	33.3	53.8
당산제	18.2	32.1	26.7	59.0
사찰	9.1	17.9	13.3	20.5
사적지	9.1	25.0	6.7	17.9
어선제작소	-	10.7	13.3	12.8
호텔	-	10.7	-	2.6
콘도	-	3.6	-	2.6
여관	-	21.4	20.0	28.2
민박	27.3	35.7	66.7	79.5
음식점	9.1	28.6	26.7	48.7
윗집	22.7	67.9	53.3	79.5
관광유어선	13.6	57.1	53.3	69.2
관광상품판매점	-	10.7	13.3	7.7
캠핑장	-	3.6	13.3	23.1
어촌당 평균 관광객 수	31,262	24,162	53,986	74,356

4. 종교·문화적 관광자원 중심의 어촌 관광지

어촌지역에서 종교적 관광자원으로 중요한 것은 풍어제와 당산제, 사찰, 사적지 등이다. 그러나 어촌지역의 사적지는 그 보유 비율이 낮으며 풍어제와 당산제는 보유 비율이 높다고 하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관광적 매력상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관광적 매력은 큰 편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교·문화적 관광자원은 잘 가꾸면 매력이 큰 관광상품이 된다는 것을 일부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사찰이나 풍어제를 보유하고 있는 어촌의 관광자원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을 일반 어촌과 비교해 볼 때 두 지역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사찰 중심의 어촌 관광지역에서는 민박업소가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횃집이나 관광 유어선의 보유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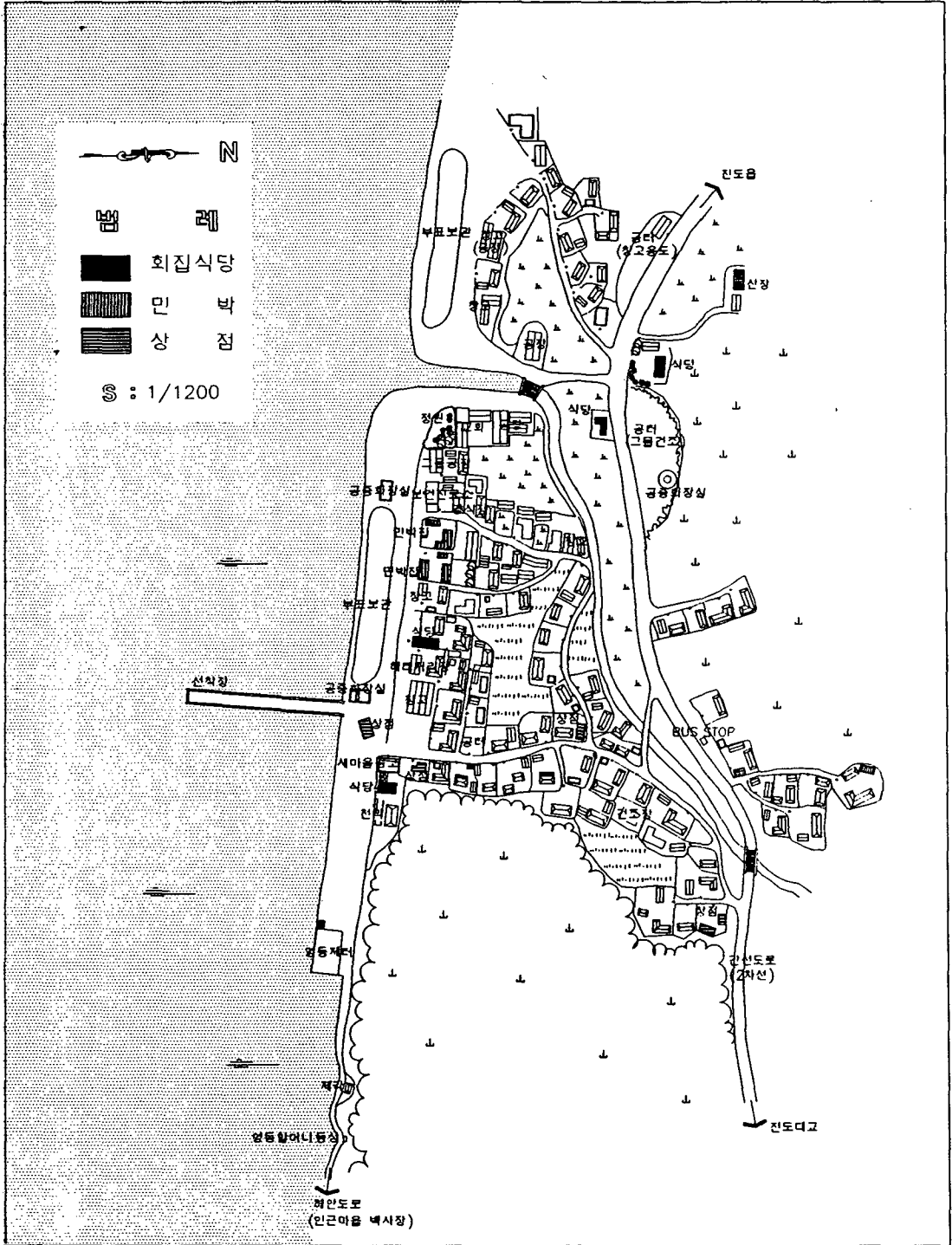
전남 여천군 돌산읍 임포마을은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어촌관광지로서 마을 뒷산의 향일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방문하는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연간 20만명에 이른다. 이 마을에는 작은 포구가 있고 낚시객도 제법 오는 곳이지만 향일암을 찾는 종교적 순례자들이거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포구나 낚시에 의한 공간적 특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주차장으로부터 향일암으로 향하는 도로변에 각종 특산품 판매점, 음식점, 횃집 등이 들어서 있으며 그 뒤로 민박집과 여관 등이 들어서 있다.

향일암은 암자가 서 있는 부근의 바위가 거북무늬 모습을 하고 있고 암자 아래 육지부와 해면이 맞닿는 돌출부가 거북이 바다로 향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북 신앙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더욱이 이곳에서 정월 초하룻날의 일출을 관람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몰려와 겨울에도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따라서 임포마을은 4계절 관광객이 고르게 찾아오는 마을이다.

표 6-9 종교·문화 중심 관광지의 주요 자원 분포 특성

	사찰	풍어제
백사장	42.1	66.7
뉴시터	73.7	80.0
바다갈라짐	21.1	16.7
방풍림	31.6	33.3
철새서식지	42.1	30.0
어항	78.9	73.3
여객터미널	42.1	30.0
방파제	73.7	80.0
어선집안시설	78.9	66.7
활어공판장	31.6	46.7
해산물판매장	31.6	23.3
해산물채취장	78.9	76.7
어선어업	84.2	83.3
활어양식업	63.2	56.7
패류양식업	68.4	53.3
풍어제	57.9	100.0
당산제	42.1	50.0
사찰	100.0	30.0
사적지	36.8	23.3
어선제작소	15.8	16.7
호텔	10.5	13.3
콘도	-	3.3
여관	36.8	30.0
민박	36.8	66.7
음식점	31.6	40.0
횃집	57.9	70.0
관광유어선	36.8	63.3
관광상품판매점	5.3	16.7
캠핑장	5.3	10.0
년 평균 관광객 수	71,693	66,473

그림 6-6 종교 행사 중심의 어촌: 진도 회동



이와는 반대로 전남 진도군 회동마을은 음력 5월 바닷길이 갈라지는 날에 이곳 토속 신앙인 영등제를 지내는 마을이다. 이 마을의 영등제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알려져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유명한 곳으로 영등제를 찾는 관광객이 약 30만을 헤아리고 있다.

그러나 영등제 축제는 단 3일만에 끝나기 때문에 영등제가 끝난 후에는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진다. 따라서 민박은 영등제 때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장려되지만 민박업을 운영하는 기간은 극히 짧고 횡집이나 기타 음식점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잘 알려진 사찰이나 사적지 등 종교·문화적 자원 중심의 관광지는 관광객이 사철 찾아오기 때문에 관광객의 수가 년 중 비교적 균일하여 관광산업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영등제와 같이 일시적인 행사 위주의 종교적 관광자원은 관광객을 대량 유치는 하되 관광객 유치에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 방문이 일시적이고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제3절 어촌 관광지의 유형별 개발 방향

1. 어항 중심의 어촌 관광지

어항은 이에 부수되는 산업기반 시설과 수산업 및 해산물 판매업 등의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항개발에 따른 관광개발의 효과가 어느 자원보다 크다. 그러나 어항 그 자체만으로는 관광객의 유치 효과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어항을 갖춘 어촌 중에서 관광객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어촌의 유형은 어항과 해수욕장 그리고 낚시터가 함께 작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다. 따라

서 어항만을 갖춘 어촌은 어선 접안시설, 방파제 등을 정비하고 여객 터미널 등을 갖추도록하며 어항을 중심으로 하는 낚시터의 개발과 함께 여건이 허락한다면 인근에 해수욕장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항과 해수욕장은 함께 병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어항에서 흘러드는 폐수와 기름이 해수욕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어항으로 적합한 곳은 수심이 깊어 해수욕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항과 해수욕장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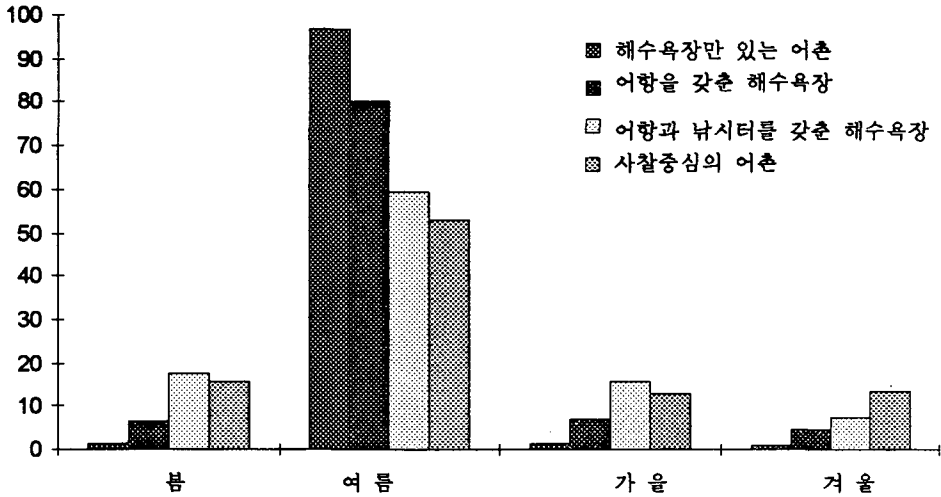
어항을 갖춘 어촌은 기본적으로 어선 어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선 어업으로부터 활어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어 공판장과 활어 횃집 등이 발전할 수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힘을 보장된다. 이와 같은 관광지의 매력은 여객 터미널이 부수되어 많은 관광객이 통과하게 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다.

2. 해수욕장 중심의 어촌 관광지

해수욕은 우리나라 어촌관광의 대표적인 관광행위로서 관광객을 대량으로 유치하는 힘이 있지만 그 활동기간이 20일 안팎으로 짧기 때문에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힘은 약하다. 따라서 해수욕 중심의 관광지는 4계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연중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해수욕 중심의 어촌 관광지의 관광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해수욕 이외에 낚시 등 레저활동과 어항 등 산업적 관광자원 및 문화적 관광자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지에서도 어항과 낚시터 등이 복합된 어촌인 경우가 관광객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와 같이 복합적 관광자원을 지닌 어촌이 여름철이 아닌 계절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7 해수욕장 중심 어촌과 사찰 중심 어촌의 계절별 관광객 방문 패턴



한편 해수욕장을 지니고 있는 어촌은 대중적인 해수욕 활동으로부터 점차 파도타기나 스킨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⁹⁾ 해수욕장이나 해양생태가 훌륭한 어촌은 дай버들을 유치하여 스쿠버다이빙 교습소를 개설하도록 하고 다이빙 교습소를 방문하는 교습생,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3. 낚시터 중심의 어촌 관광지

낚시터는 우리나라 어촌지역이 가장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바다낚시를 즐기는 관광객이 4계절 어촌지역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관광상품이다. 그러나 현재의 바다낚시는 관광객을 대량 유인하는 유인력이 약하고 관광활동의 성격이 개인중심의 레저활동이기 때문에 지역

¹⁹⁾ 이와 같은 다양한 해양스포츠는 이미 동서남해안의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다.

그러나 바다낚시는 낚시의 종류에 따라서 개발 잠재력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갯바위 낚시나 던질낚시 등은 대부분 개인이 갯바위나 백사장에서 별도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즐기는 레저활동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와의 연관 효과가 적게 나타나지만 낚시배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즉 낚시배를 이용하여 연안에서 바다낚시를 하는 경우 낚시는 일반 관광활동과 같이 낚시회 등을 중심으로 단체관광이라는 조직적인 관광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때 이들 관광객들의 숙박과 음식 등을 낚시배 이용과 함께 연계시킬 경우 낚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낚시터 중심의 어촌 관광지의 경우에도 어항이나 해수욕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낚시라는 단일의 관광활동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힘이 약하다. 따라서 낚시터가 있는 어촌은 이를 어항이나 해수욕장과 연계시켜 관광객을 대량 유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낚시터만을 지닌 어촌이 어항이나 해수욕장과 연계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촌이 지니는 해양경관을 이용하여 별도의 매력물을 창출한다거나 어촌이 지니는 문화적 요소를 개발하여 4계절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 종교·문화적 관광자원 중심의 어촌 관광지

유명한 사찰이나 이름난 종교행사를 치르는 일부 어촌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촌은 종교·문화적인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묻어두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이와 같은 종교·문화적 관광자원을 밝혀내고 이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관광상품으로 다듬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종교·문화적 관광자원이라 하더라도 종교·문화적 관광상품 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힘이 크지 못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교·문화적 관광상품을 개발·전시하고 관광객들이 종교·문화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는 배려와 함께 어촌지역의 경관, 관광시설, 편의 시설 등에 대한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유명한 사찰이나 사적지를 지닌 어촌은 4철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특화 상품을 전시·판매하여 소득을 올리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남 진도군 서망 어촌계의 경우 마을 뒷산에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시 최후까지 몽고군에 항쟁하던 삼별초군이 남긴 석성이 있다. 이 석성은 인근 초중등 학생은 물론 내륙의 관광객들이 4계절 찾는 사적지이지만 이 사적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마을 앞의 바다와 별도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마을 앞의 바다나 어촌계의 특산물 판매와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곧바로 석성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마을 앞의 바다와 연계시키는 동시에 바다 앞 마을 광장에 이 지역의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토록하며 진도의 삼별초 유적지인 석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모두 이곳을 통하여 석성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마을의 사적지를 마을의 특산품과 연계시키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진도 회동마을의 영등제도 단 3일만의 행사로 끝난다면 이 세계적인 행사에 비해 주민의 관광소득은 매우 미약하게 된다. 이 경우 영등제와 관련된 전설을 현실 세계에 공간적으로 재현시켜 영등제가 아닌 때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영등제의 소재를 볼 수 있도록 볼 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전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영등할미가 살았다는 집을 재현하고 맞은 편 섬에 살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거처도 재현하여 인근지역을 전설 속의 장소로 조경하여 단장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 두 곳을 배를 타고 둘러 보는 것을 관광코스화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바다경관 및 해양스포츠 등을 개발하여 부수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5월의 3일간의 축제가 아닌 연중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7장

어촌 관광산업의 실태와 관광개발 정책 발전 방향

제1절 조사 개요

정부는 어촌지역의 고용창출과 어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1990년부터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어촌지역에 횃집과 숙박시설, 휴게소 등 관광 서비스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이와 같은 사업과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촌지역의 관광산업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어촌지역의 관광산업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정부의 어촌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와 함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이 도입된 어촌을 중심으로 어촌 유형별로 9개 마을을 유의적으로 선정하여 민박업소와, 활어회 중심의 요식업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 개요는 <표 7-1>과 같다. 이 조사는 사전에 준비된 조사표에 의해서 연구자가 현지 에 출장하여 관광업소 경영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표 7-1 어촌관광지 관광 산업체 조사 개요

조사 지역	관광지 유형	민 박		Hits 집	
		사업체수	조사사업체수	사업체수	조사사업체수
경기 김포 대명리	어항중심	-	-	12	5
충남 태안 신은리	낙시중심	11	3	2	2
충남 태안 파도리	복합형	120	5	6	4
전남 진도 회 동	종교문화	60	9	4	3
전남 해남 송지리	복합형	20	2	7	3
강원 강능 도직리	해수욕장	10	5	2	1
경북 울진 오산리	해수욕장	16	12	2	1
경북 영덕 구계리	어항중심	100	4	10	5
경북 영덕 노물리	어항중심	12	-	11	7
계		349	40(11.4%)	57	31(54.4%)

조사마을은 어항 중심 어촌이 3개마을, 해수욕장 중심 어촌이 3개마을, 어항과 낙시 및 해수욕장이 혼합된 복합형이 2개마을, 종교문화 중심 마을이 1개마을이다. 민박업은 위 9개 마을에서 민박업에 종사하는 총 349호 중에서 11.4%에 해당하는 40호를 조사했으며 Hits 집은 57개 업소중 54.4%에 해당하는 31개 업소를 조사했다.

제2절 민박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민박업소의 운영실태

가. 민박업의 소유와 경영 형태 및 규모

조사대상 민박업체의 97.5%가 개인 소유였으며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단 조사지역의 1개 업소가 횃집을 겸하는 민박업소로서 그 소유는 어촌계에 있었지만 개인이 임대경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박업소는 모두 개인 사업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민박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들은 87.2%가 그 마을 출신으로서 마을에 계속 거주했거나 외지에 출타했다가 귀향한 사람들이다. 다른 마을에 거주하던 사람이 민박업을 위해 이주해 온 경우는 5.1%였으며 도시민이 민박업을 경영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경우는 7.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횃집과 민박업소의 시설은 86.2%가 기존 주택의 일부를 활용하여 민박용 시설로 이용하고 있었고 민박객을 위한 별도의 건물을 지니고 있는 민박업소는 13.8%였다. 주택의 일부를 민박용으로 이용하는 곳은 주로 해수욕장 인근의 어촌지역이었으며 민박용 건물을 별도로 지니고 있는 곳은 여객 터미널이 있어 상시 관광객이 이용하거나 경관이 좋은 지역으로서 년중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민박업소의 평균 방수는 4개로 나타나고 있지만 민박업소의 42.5%가 민박용 방을 2개 이하 소유하고 있는 영세업소였고 방을 4개 이하 소유하고 있는 업소는 72.5%에 달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 민박업소의 27.5%가 민박용 방을 5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종사 노동력

민박업소의 76.3%는 가족 노동력만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가족노동력과 함께 일용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 민박업소는 23.7%였다. 그러나 일용 노동력을 사용하는 업소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일용 노동력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남의 회동마을과 같이 3~4일간의 짧은 종교 행사 기간에 찾아오는 많은 민박객들을 맞기 위하여, 일용 노동력을 고용하는 경우와

충남 파도리와 같이 규모가 큰 민박업소에서 성수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위하여 임시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지역, 특히 해수욕장이 있는 어촌지역의 소규모 민박업소들은 대부분이 가족 노동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박업에 종사하는 가족노동력은 전체 조사대상 업소의 50.0%가 1인이었고 2인이 종사하는 경우는 47.5%였으며 3인 이상 종사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한편 민박업에 종사하는 가족 노동력은 50대 이상이 69.2%로 나타나고 있어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령 가구들이 주로 민박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30대 미만의 노동력과 40대의 노동력은 각각 15.4%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력은 일당을 지급하는 일용 노동력이었으며 주로 성수기에 평균 7일정도 고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력 이용 기간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행사로 인해 노동력을 고용하는 경우 행사기간에만 고용되기 때문에 고용일수가 2일정도로 짧은 반면 해수욕철 성수기에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수욕기간에 해당하는 20일정도 고용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력의 평균 일당은 37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시간과 지역적 특성 및 노동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민박업이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운영 기간

민박업의 운영기간은 평균 45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0일 미만 운영하는 업소가 82.1%로 나타나고 있어 규모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에서도 계절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 업소 중 연간 120일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간 300일 이상 민박업을 운영하는 업소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수도권과 3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 MT나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직원 직무 훈련을 유치하여 연중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해수욕장만을 갖춘 지역의 민박업소의 영업기간은 여름 한철에 평균 30일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철 관광적 매력물이 있거나 업주의 노력에 의해서 특별한 민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숙박객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의 민박업소도 계절성을 극복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영업 행태

민박업은 숙박객들에게 방만을 빌려주는 행태가 87.5%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도의 경우 숙박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12.5%에 불과했다. 이들 업소가 제공하는 식사 메뉴는 3,000원의 간단한 백반에서부터 20,000~30,000원의 토종닭이나 오리탕, 50,000원의 생선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 민박업의 소득 효과

가. 숙박객 수용 및 요금

조사지역의 민박업소들은 1995년 기간 중 평균 387명의 숙박객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박 1일 1실당 평균 4명의 숙박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박업소의 52.6%가 연간 100명 미만의 숙박객을 맞았고 민박업소의 78.9%가 500명 미만의 숙박객을 맞이했음을 볼 때 민박업이 극히 영세한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연간 1,000명 이상의 숙박객을 유치

한 민박업소는 전체 조사대상 업소의 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숙박요금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4인이 숙박할 수 있는 보통 규모의 방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 18,6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지역 중에서 민박 요금이 낮은 지역은 1일 1실 사용료가 10~15천원이었고 가장 높은 지역은 1실 사용료가 5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박요금이 낮은 지역은 주로 민박마을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요금을 규제하는 경우이거나 오지 지역으로서 성수기에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지 않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없이 자율적으로 숙박요금을 정하는 경우, 그리고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민박객이 많이 찾는 지역, 또는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민박 요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민박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는 요금을 적용한다고 응답한 민박업소가 28.1%, 마을에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요금을 적용한다고 응답한 업소가 21.9%였으며 나머지 50.0%는 개별 업소들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인근의 동업자간에 합의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민박객이 많이 찾는 여름철 성수기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와 같은 기준 요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금을 규제하는 지역은 모두 기준 요금을 준수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수기에는 대부분의 민박업소들이 기준 요금의 2~4배까지 인상된 숙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²⁰⁾

나. 소득효과

조사대상 민박업소 중 60.5%가 연간 1,000천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

²⁰⁾ 민박업소당 평균 매출액이 347.9천원일 때 숙박객 수용인원이 387명이고 1실당 4인이 숙박한다면 1실당 숙박요금은 36천원인 것으로 산출된다. 이는 이들 민박업소를 면접 조사했을 때 이들 업소가 객실 1실당 받는다고 응답한 평균 숙박요금 18.6천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민박업소들은 성수기에 기준 요금을 준수하지 않고 인상된 숙박요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며 연간 5,000천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소는 7.9%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지역 민박업소의 연간 평균 매출 총액은 347.9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출액의 차이는 지역별로, 그리고 업소의 시설 정도와 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민박업의 규모가 커 고용노동력을 이용하는 업소의 평균 매출액은 가족노동력만으로 운영하는 업소에 비해 3.5배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며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숙박요금은 동해안이나 남해안 지역의 한적한 어촌에 비해 2~4배의 높은 숙박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중 다양한 민박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역의 민박업소의 매출액은 단순히 해수욕객을 상대로하는 민박업소에 비해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민박업 운영의 문제점

이상과 같이 어촌관광에서 민박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볼 때 어촌지역의 민박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된다. 첫째, 민박업의 계절성이다. 어촌관광에서 민박업은 여름 한철 영업이라는 강한 계절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어촌관광업이 해수욕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기후관계로 해수욕은 년중 20일정도 계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민박업의 영세성과 시설의 낙후성이다. 우리나라 민박업의 86.2%가 기존 주택에 속해있는 빈 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낙후성과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박업소의 화장실, 목욕실, 샤워장, 주차장, 취사시설 등의 낙후성은 민박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²¹⁾

셋째, 민박업의 단순성이다.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민박업은 어촌·어가의 빈 방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민박업은 빈방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숙박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어촌생활 체험, 어장 체

²¹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제5장 민박업의 만족도에서 도출된 것이다.

험 등을 통해서 민박 가정이 지니고 있는 생활문화를 숙박객들에게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문화적 관광사업을 담당하는 민박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넷째, 민박 요금의 불합리성이다. 현재의 숙박요금은 평상시와 성수기 간에 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요금체계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다는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민박의 예약제에 의해서, 그리고 민박이 제공하는 서비스별 요금을 사전에 공개하여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즉 민박을 원하는 고객들이 사전에 공개된 민박 요금과 민박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가늠하여 민박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민박업은 주택의 구조와 시설, 민박업소의 친절성 등에 의해서 서비스의 질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박 요금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요금체계는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박 숙소도 시설과 규모,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도록 요금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4. 민박업의 활성화 방안

민박업의 활성화 방안은 수요자의 측면과 공급자의 측면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수요자의 측면에서 볼 때 민박업은 시설의 현대화와 시설 사용료의 적정화를 기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시설 수준과 서비스 수준에 합당한 시설 사용료를 책정해서 관광객들이 민박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당한 숙박요금의 책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박업도 예약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박업을 소개하는 홍보활동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보편화되는 PC를 통한 홍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전화나 PC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해 져야 한다. 민박업이

예약을 통해서 숙박객들을 받아들인다면 성수기의 바가지 요금 시비도 자연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박에 관한 홍보는 제공되는 정보를 통하여 관광객이 민박업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민박요금, 주택이나 민박 숙소의 구조, 화장실, 목욕실 등 편의시설 이용 조건, 어린이 동반 가능성, 주차장 유무 등 민박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민박 홍보는 민박업 개개인이 하기보다는 어촌관광지역을 하나의 정보단위로 묶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급자의 측면에서 볼 때 민박업은 년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매력있는 관광시설과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민박업을 운영할 때 민박업은 강한 계절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촌의 생활문화와 연계된 어촌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말여행이나 휴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물을 개발하여 연중 민박업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민박 시설의 현대화는 화장실이나 목욕실, 조리시설 등뿐만 아니라 주택의 개선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각각의 주택이 개성을 지니고 다른 주택과 구별되는 구조와 색상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웃 주택 및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조화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어촌지역의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민박업은 숙박객들에게 잠 자는 방(bed)만을 대여하는 민박업에서 숙박과 식사를 함께 제공하는 숙식업(bed and breakfast: B&B)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유의 식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값 싸게 민박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숙박객과 민박업자가 모두 만족감과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3절 횃집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1. 횃집의 운영 실태

가. 업소의 소유와 경영형태

조사지역의 횃집은 90.3%가 개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7%가 어촌계등 공동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 등 공동의 소유인 횃집은 공동으로 경영되는 경우가 없이 모두 개인에게 임대되어 경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횃집은 모두 개인이 사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횃집 경영자들은 민박업과는 달리 다른 마을이나 도시로부터 이주해온 경우가 많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횃집 경영주의 67.8%가 마을에 계속 거주했거나 외지로 출타했다가 귀향한 경우이고 도시로부터 이주해온 경우와 다른 마을에서 이주하여 횃집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16.1%씩 나타나고 있다.

표 7-2 횃집의 소유권과 경영권 보유 실태

	업소수 계 (%)	개 인 소 유	공 동 체 소 유		
			계	법 인	비 법 인
소유권자 직 영	28 (90.3)	28		-	-
개인 임대 경영	3 (9.7%)	-	3	2	1

한편 횃집운영을 위해서 업소들은 초기에 평균 5,343.7천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조사 대상 업소의 63.1%가 50,000천원 미만을 투자한 반면 100,000천원 이상을 투자한 대형 업소도 10.5%로 나타나고 있다. 업소당 자기자본 투자율은 81.1%였으며 나머지는 은행 융자금 등 자본차입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횃집 영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어촌지역의 횃집 운영업자들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횃집 운영에서 초기 투자는 어촌지역의 현지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박과 달리 횃집운영에서는 자본력있는 외지인의 유입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횃집을 경영하는 경영주의 연령은 50대가 36.7%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3.3%, 40대가 23.3%였으며 60대이상의 연령층은 16.7%로 나타나고 있어 민박업을 경영하는 경영주의 연령구조가 노령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횃집 경영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민박업이 현재로서는 방만을 대여해 주는 단순 서비스업인 반면 횃집은 생선을 위생적으로 다루고 미각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젊고 활기 있는 노동력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업소의 운영 기간

민박과 달리 횃집운영은 연간 270일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71.0%로 높았으며 90일 미만 영업하는 업소는 19.4%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횃집의 연 평균 운영일수는 288일로 나타나 어촌지역의 관광이 여름 철의 성수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횃집은 비교적 계절과 무관하게 연중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년중 270일 이상 운영하는 횃집은 도시로부터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어항과 관광 매력물이 결합된 지역일수록 횃집 수도 많고 운영기간도 길게 나타나고 있다. 연간 90일 미만 영

업하는 업소는 주로 접근성이 불량한 오지 지역의 어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횃집의 운영기간은 횃집이 위치한 지리적 요인 외에도 개인의 영업능력, 자금력 등 기타의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어항지역이나 복합형 어촌에서도 영업 기간이 짧고 영업 실적이 좋지않은 횃집이 나타나고 있다.

다. 종사 노동력

어촌지역의 횃집운영은 가족노동력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즉 가족노동력만으로 횃집을 운영하는 업소는 45.2%였으며 가족노동력과 함께 상시고용 노동력을 사용하는 업소가 25.8%, 가족노동력과 함께 계절고를 포함한 일용 노동력을 사용하는 업소가 29.0%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노동력의 경우 업소당 평균 2.3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명이 종사하는 경우도 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수도권에 인접해있는 어촌지역으로 어항이 있어 활어 공판장이 있고 인근에 온천이 있는 지역과 어항을 갖추고 있으면서 국도변에 접해 있어 외지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4계절 관광객이 찾는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3 가동일수별 횃집의 노동력 이용 실태

	업소 수 계 (%)	가족노동력 만으로운영	가족 노동력과 고용 노동력으로 운영		
			계	상시 고용	일용 및 계절고
90일 미만 가동	6(19.4)	5	1	-	1
91 ~ 270	3(9.7)	-	3	-	3
271일 이상	22(71.0)	9	13	8	5
계	31(100.0)	14(45.2)	17(54.8)	2(25.8)	9(29.0)

표 7-4 횃집의 노동력 이용 현황

	가족 노동력	고 용 노 동 력		
		계	상시 고용	일용 및 계절고
종사 노동력수	72	39	18	21
업체별 평균 노동력 수	2.3	1.3	0.6	0.7

이와 같이 노동력을 고용하는 업소들은 연간 270일 이상 운영하고 높은 매출액을 올리는 업소들이 대부분이다. 상시 노동력을 고용하는 업소는 주로 매출고가 100,000천원을 상회하는 업소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업체별로 고용하는 노동력은 평균 1.3명으로 상시고용원 0.6명, 계절고를 포함한 일용노동력 0.7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관광상품의 종류와 가격

조사지역의 횃집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선은 모두 42종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어종은 광어와 농어, 우럭, 도다리, 아나고 등이며 서해와 남해 및 동해안별로 특정 어종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생선은 고급 어종일 수록 어종 고유의 상품, 즉 광어회, 농어회, 우럭회, 도미회 등의 이름으로 상품화되고 있으며 여러 어종을 섞어서 만드는 모듬회라는 상품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고급 어종은 1kg에 5~6만원선이고 중간급이 3~4만원선에 거래된다. 그러나 모듬회는 양에 따라서 2~5만원선으로 거래된다.

상품의 가격은 어종과 제공되는 생선회의 양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자연산인가 아니면 양식산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연산인 경우 어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의 생선인 경우 자연산이 양식산보다 2배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상품화되고 있으며 자연산 장어인 경우는 양식산에 비해 5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어촌에서 자연산 생선 맛을 값 싸게 즐기려 하지만 인기가 있어 대량 소비되는 광어나 우럭 등은 자연산이 매우 드물고 대부분 양식산이며 고급 어종인 도미는 수출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잡어류는 대부분 자연산이다. 가격에 있어서도 판매 단위가 kg이거나 접시(dish)단위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지출하는 단위가 높아지게 된다. 지역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어종인 경우 1kg당 가격은 3~5만원선, 접시당 가격은 2인용 적은 접시가 2만원, 4~5인이 즐길 수 있는 큰 접시가 5~6만원선에 판매되고 있다.

횃집의 상품 가격은 대부분 동업자간의 협정가격이나 개인이 정한 임의 가격을 적용한다. 동업자간의 협정가격을 적용하는 업소는 41.9%였으며 개인이 임의로 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41.9%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횃집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의 58.1%는 자신들이 적용하고 있는 가격이 인근 관광지보다 저렴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38.7%는 비슷한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2. 횃집 운영의 소득 효과

가. 매출 효과

횃집의 평균 매출액은 65,35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횃집의 매출액 규모는 수도권과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은 어촌지역, 그리고 횃감이 좋거나 경관이 좋은 지역에서 높았고 오지 어촌으로 접근성이 불량한 지역이거나 횃감으로 높은 명성을 얻지 못한 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어촌인 김포군 대명리와 도시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영덕군 구계리에 위치한 횃집의 평균 매출액은 비교적 접근성이 불량하거나 횃감으로 명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횃집의 평균 매출액에 비해 5~10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노임 창출 효과

상시 고용원의 평균 임금은 92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방 일 등 전문성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는 경우 월급이 1,500천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지만 월 급여액이 800천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 고용자의 45%에 달하고 있다. 일일 노동력은 관광객이 몰릴 시간에 잠시 도와 주는 형태에서 하루 종일 노동력을 제공하고 1당을 지급받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용 노동력의 일당은 15~20천원에서 30~40천원정도이며 평균 23.3천원의 일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시고용 노동력의 경우 고용인원은 총 18명이었다. 이들 중 마을내 고용이 12명으로 66.7%였으며 마을밖 고용이 6명으로 33.3%였다. 마을 내 고용인의 평균 노임은 월 1,113.6천원이었다. 마을밖 노동력은 주로 보조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 노임은 월556.8천원으로 낮았다. 따라서 업체당 상시 노동력에 지급되는 노임은 연간 평균 6,466.1천원으로 산출된다.

표 7-5 횃집의 노동력 고용과 노임 창출 효과

	마을 내	마을 밖	계	업체당
고용노동력 수(인)	12	6	18	0.6
월 급여액(천원)	1,113.6	556.8	928	-
년간 급여 총액 (천원)	160,358.4	40,089.6	200,448.0천원	6,466.1천원

조사지역의 횃집이 마을 당 평균 6.3개임을 감안 할 때 어촌지역에서 횃집이 창출하는 고용노동력은 평균 4명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 노임은 40,736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횃집에서 고용하는 일용직에 대한 노임까지 합산할 때 횃집이 창출하는 고용효과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횃집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횃집은 비교적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의 신규 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촌지역의 주민들은 자본력이 약하고 경영능력면에서도 취약하다. 따라서 횃집운영에 외지인의 유입이 커지고 있으며 그 영업 규모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횃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가 어촌계에 공동사업으로 지원해 온 횃집이 모두 개인의 사업장이 된 점을 감안한다면 횃집운영은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개인사업으로 지원해 주되, 어촌계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으로 전환하여 횃집운영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촌지역의 횃집을 찾는 소비자는 자연산의 생선을 값 싸게 즐기기를 원한다. 그러나 횃집에서 사용하는 생선의 대부분이 양식산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연산이 지니는 그 지역 어종의 고유한 맛을 즐기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횃집의 증가와 대규모화에 의한 자원의 남획은 어촌지역 고유 어종의 고갈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문제는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맛의 생선회가 공급된다면 소비자가 생선 맛을 즐기러 어촌지역을 찾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어촌지역에서 공급하는 생선회는 지방의 특산물로서 고유한 맛을 지니는 자연산인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횃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촌지역의 바다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어종을 확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산 어종의 보호와 어획량 이상의 치어 방류가 뒤 따라야 하며 청정 해역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촌지역에서 공급되는 생선회는 kg당, 또는 접시당 가격으로 획일화되고 있다. 그러나 어촌지역의 횃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횃집에서 공급되는 상품이 다양하고 그 가격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저렴한 것에서부터 고급품에 이르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누구라도 부담없이 어촌지역을 방문하여 경제사정에 따라 적절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어촌지역에서 공급되는 회를 비롯한 식사는 고급 식문화(食文化)로 승화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²²⁾ 즉 어종에 따라서, 생선의 부위와 요리법에 따라서, 그리고 어획된 시기에 따라서 생선이 지니는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고유의 생선 맛을 음미하는 식문화가 개발되어야 한다. 어촌지역의 식당 및 횃집에서 제공하는 식단도 kg이나 접시 단위의 비싼 생선 요리로 획일화하기보다는 밥 등 다른 음식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생선 요리를 개발하여 품격있는 음식문화로 생선회 요리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²²⁾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고유의 생선은 우리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해안 지방의 조기나 송어 등은 제사 상에 올리는 고급 어종으로 인정받아 왔다. 따라서 특정 어종은 사람의 음식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같은 의미에서 홍도와 흑산도의 홍어, 영산강의 조기, 섬진강의 송어, 제주도 도미 등은 지역 특산품으로서 어획되는 시기, 고기의 크기, 가공 방법, 요리 방법 등에 따라서 독특한 맛과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 문화적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제4절 어촌관광개발 정책의 평가

1. 어촌관광 소득원개발 사업

가. 사업 도입 목적 및 근거

어촌관광 소득원사업은 어촌의 부존자원과 생활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 도시민의 레저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어촌주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어촌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수산청의 행정계획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1994년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지니게 되었다. 즉 동법은 농어촌휴양단지개발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촌관광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업 내용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은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고 사업경영 능력과 자부담 능력이 있는 어촌계를 선정하여 활어횃집, 숙박시설, 휴게소, 관광선 시설 등 관광소득사업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의 재정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용자 60%, 지방비 보조 30%를 지원하고 있다. 용자금의 금리는 년 5%이며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 균등 상환이다.

이 사업은 1990년도에 활어횃집 4건에 대한 지원을 필두로 1995년까지 59개 사업에 3,043백만원의 금리가 낮은 용자금과 1,562백만원의 지방비를 지원하여 총 5,373백만을 투자했다. 따라서 이 사업은 1개 사업당 약 1억원의 사업비

가 투자되었다. 지원된 사업은 활어횃집이 33건, 숙박시설 6건, 휴게소 5건, 유어선 7건, 횃집 및 숙박시설 5건, 횃집 및 휴게소 3건 등이다.

표 7-6 어촌관광 소득원 사업 지원 내용과 규모 및 조건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용자 조건	시행주체	지원 내용
수협법에 근거한 어촌계	1억원 규모 - 용자: 60% - 지방비: 30% - 자부담: 10%	3년거치 7년상환 - 금리년 5%	시장,군수 농림어업 인 단체,	활어횃집, 휴게소, 숙박시설, 관광선, 낚시터 등

표 7-7 어촌관광 소득원 사업 지원 실적

개소, 백만원

계	'90	'91	'92	'93	'94	'95	합계
활어횃집	4	4	4	4	8	9	33
숙박시설	-	2	2	1	1	-	6
휴게소	-	2	-	2	1	-	5
유어선	-	2	2	2	-	1	7
횃집및숙박시설	-	-	-	-	1	4	5
횃집및휴게소	-	-	-	-	3	-	3
용자 지원	195	355	443	479	731	840	3,043
지방비 부담	112	167	259	239	365	420	1,562
자비부담	113	115	121	97	182	140	768
계	420	637	823	815	1,278	1,400	5,373

다. 어촌관광소득원 사업의 평가

어촌관광소득원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한 활어횃집과 민박업 운영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앞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부 지원없이 운영되고 있는 일반 활어횃집과 민박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응용하였다. 어촌관광소득개발을 위하여 조사한 사업체는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5개도의 8개업체였다.

표 7-8 정부지원하에 추진된 어촌관광사업체 사례 조사

조사대상도	조사업체 수	사 업 의 종 류		
		활어횃집	횃집 겸 민박	횃집 겸 휴게소
강 원	1	1	-	-
충 남	4	-	3	1
전 남	1	1	-	-
경 북	1	1	-	-
경 남	1	-	1	-
계	8	3	4	1

1) 운영실태

조사 대상 사업체는 모두 어촌계 명의로 사업체가 선정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8개 지역중 2개 지역이 어촌계가 건물을 건축하였을 뿐 나머지 6개 지역은 어촌계의 명의를 빌려 개인이 사업체를 건축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건축한 횃집이나 숙박업소는 어촌계에 2,000천원 내지 5,000천원 정도의 명목상의 임대료를 지불한후 건물의 소유와 운영은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계에서 횃집이나 숙박업소를 건축하였을 경우 연간

임대료는 홿집 단독의 경우 6,000천원, 숙박시설을 겸한 홿집인 경우 30,000천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개인이 축조한 업소의 임대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촌계의 명의를 얻어 개인이 축조한 사업체의 경우 어촌계와의 임대 계약은 1년에서부터 19년까지 다양했으며 임대료를 불입하는 경우도 매년 불입하는 경우와 19년의 계약기간 중 단 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년1회의 임대료를 불입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촌계 명의를 자산 투자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이거나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일종으로 이를 어촌계에 임대료 납부 형태로 환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19년간의 계약기간 중 단 1회로 끝내는 임대료 불입은 어촌계 명의로 보조금과 장기 저리 용자를 얻은 것에 대한 사례금을 어촌계에 납부하는 형식인 것으로 해석된다.

활어 홿집이나 숙박시설을 겸한 활어 홿집인 경우 개인의 자기자본 투자는 50,00천원 내지 15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 지원 없이 홿집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홿집의 투자액 53,437천원보다 투자액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활어홿집의 경우 년 평균 매출액 38,000천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 홿집 년평균 매출액 65,000천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²³⁾ 그러나 홿집의 운영은 주로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지를 맞출수 있지만 숙박시설은 일부 유명 관광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⁴⁾

²³ 활어홿집의 매출액 조사는 청취에 의한 개략적인 조사다. 그러나 매출액 조사의 경우 어촌계와의 임대조건 등의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매우 어려웠다. 여기에 제시된 금액은 경향치를 파악하기 위한 개략적인 매출액임을 밝힌다.

²⁴ 조사업체 중 유명관광지가 아닌 지역에 홿집을 겸한 숙박시설이 있는 업체가 3지역이 있었다. 이들 업소의 숙박객 접객일수는 여름철 20일, 기타 계절 15~20일 정도였다. 따라서 년평균 40일정도가 고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숙박 수입이 매우 낮았다. 더욱이 어려운 일은 난방이 필요한 때에 숙박객이 들면 1명이 숙박을 해도 전체 난방시설을 가동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숙박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의 문제점

(가) 먹거리 중심의 관광개발

어촌관광개발은 제2장 그림2-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어촌지역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 이외에 관광 편의시설, 서비스의 개선, 개발주체와 주민참여의 확장 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며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정보의 공급, 마케팅, 교통, 통신수단의 개발 등 다양하며 이와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관광개발의 효과가 커지게 된다.

그동안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활어횃집, 숙박시설, 휴게소, 관광유어선 등 어촌지역의 먹거리와 숙박 및 휴게소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횃집에 대한 지원이 전체 지원사업의 81.3%를 차지하고 있어 어촌 관광객의 먹거리 개발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앞장에서 검토된 바와같이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과 국민 각자의 개성의 다양화, 의식의 선진화 등의 추세에 따라 관광수요는 먹고 마시는 추세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주민들의 생활문화 및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경관 및 자연환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레저문화를 형성해 가기 때문에 생선회 중심의 먹거리 개발로는 어촌관광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어촌지역의 관광 횃집개발은 경관이 좋은 어촌이라는 특수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매력의 초점으로 횃집을 개발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향만 등 수산자원 개발과 함께 주택, 상하수도, 조경, 쓰레기 관리, 환경보존 등 환경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광하부구조에 대한 개발은 주민 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나) 지원대상 및 지원 주체의 한정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수협 또는 수협법에 근거한 어촌계를 대상으로하며 어촌계에 속한 어촌계원 개인은 사업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즉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활어횃집, 숙박시설, 휴게소, 관광유어선 등 사업은 어촌계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시설 관리의 주체가 된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7조).

표 7-9 농림어업인단체 등의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 범위

농림어업인 단체	개발 범위	시설의 종류
농림어업인, 농어촌진흥공사,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관광농원 사업	농수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운동시설, 휴양 시설, 숙박시설, 음식제공 시설, 기타시설
농어촌진흥공사,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농지개발조합,	농어촌휴양 단지,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 판매장, 체육 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기타시설,
농림어업인, 농어촌진흥공사, 농업협동조합,	주말농원 사업	농지의 임대시설, 기타시설
농림어업인	농어촌 민박사업	숙박시설, 취사시설, 기타시설

그러나 어촌계가 소유한 횃집과 숙박시설, 휴게소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지원한 이러한 사업이나 시설은 어촌계에 의해서 직영되지 않고 모두 개인에게 임대되어 경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활어 횃집이나 숙박시설 및 휴게소 운영이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검

토할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어촌계 명의로 추진된 정부지원사업은 두가지 형태로 개인에게 임대되고 있었다. 첫째는 시설을 어촌계가 건설하고 투자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받고 개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다. 이 경우 시설 임차자는 임대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운영 비용이 높아지게 되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거나 서비스의 값이 비싸져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어촌계에 지불하는 임차료 만큼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계가 임대하는 시설이 개인이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다.

한편 어촌계가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시설은 반드시 지역 주민에게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임대되기보다는 외지인에게 임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주민은 자본력의 경쟁에서 외지 자본력에 비해 열위에 있으며 어촌계는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임차자를 자본력이 큰 외지인 속에서 찾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둘째, 명의로만 어촌계일 뿐, 사실상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정부지원 어촌관광사업의 경우다. 이 경우 정부지원액은 임대료 형태로 마을의 어촌계로 환원되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어촌관광개발로 인해서 주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어촌계에 직접 지원해주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원 자금의 흐름 과정에서 일정한 액수의 관리비용이 손실된다는 점이다. 즉 자금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어촌계가 직영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임대해서 경영하게 되는 개인사업적인 영리사업은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개인 사업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참여율과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자금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정부가 지원해온 보조금은 장기 저리의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사업의 분산과 지원액의 과소

어촌관광소득원사업은 1개 어촌계에 1개의 사업을 지원해 왔다. 하나의 홑집을 이미 개발된 유명관광지에 지원할 경우 그 홑집의 운영은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유명 관광지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1개의 홑집이나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의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고 운영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현행 지원제도에 의하면 지역 여건이 좋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고 해도 형평상 그 다음에는 결국 여건이 좋지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도 1개의 홑집이나 1개의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결국 지역이 지닌 관광개발의 여건이나 개발가능성, 경제성에 대한 검토보다는 지역에 대한 안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경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은 분산되어 개발의 집적 효과가 적어지게 된다.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의 사업당 투자비는 1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이 규모로는 하나의 홑집에 대한 투자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어촌계당 1억원 규모의 투자로는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효과를 유발하기 어렵다.

2. 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

가. 사업도입 및 추진 현황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으로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공

업화 우선의 불균형개발 정책의 결과로 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왔고 어업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연안 어업자원의 관리와 수산업의 성장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수산업 부문도 증산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소규모의 연안 어촌지역의 어민들은 개발 잠재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수준의 저조 등으로 일부 품목에 국한된 소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투자효과가 낮고 그 결과가 연안 어촌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수산청, 1995).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어·패류양식사업 등 소득증대사업과 소득원도로 등 생산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어민회관 등 어민복지시설을 연계시켜 65개소의 마을에 시범사업으로 18,74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7-10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1994	1995	1996	계
참여어촌계 수	56	116	95	267
세부사업 수	128	354	333	815
사업비(백만원)	13,295	52,792	52,500	118,587

자료:수산청, 1995

그러나 시범사업 시행 결과 생산기반사업들은 마을단위로 분산되어 사업의 효과가 저하되고 마을간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쟁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평가되어 1994년부터는 만(灣)중심의 권역별 종합개발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수산청, 1995). 1994년도의 사업비는 권역당 13억원씩 지원하였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 권역당 35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역과 관광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은 육지지역으로서 어촌, 바다지역으로서 어장, 어촌과 어장이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어항과 해안 접안시설 등을 포함한다. 어촌지역에는 어촌의 정화시설이나 폐선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과 산지 가공시설, 냉동·냉장시설, 작업장, 직판장 등 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공동목욕장, 회관, 해안 조명시설 등 어촌사회 복지시설을 지원한다. 접안지역에는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등 어선 계류시설, 방사시설, 보전시설, 해안도로 등 해안시설, 그리고 활어횃집, 낚시터, 유어선, 체험어장시설 등 어촌관광시설을 지원한다. 바다지역에는 종묘생산이나 양식시설 등 수산자원조성, 해중 가두리시설, 해류 변경시설 등 고정물 시설을 지원한다.

표 7-11 어촌종합개발 사업 내역

	시설 구분	세부 사업 내역
육지지역	어촌환경시설 유통가공시설 복지시설	정화시설, 폐선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산지가공시설, 냉동냉장시설, 작업장, 직판장 숙박식사시설, 공동목장, 회관, 해안조명시설
접안지역	어선 계류 시설 해안 시설 어촌관광개발	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선양장 방사시설, 보전시설, 해안도로 활어횃집, 낚시터, 유어선, 체험어장시설
바다지역	수산자원조성 고정물시설	종묘생산, 종묘배양, 양식시설, 인공어초 해중가두리, 잠제, 해류변경시설

어촌종합개발에 포함된 어촌관광개발사업은 <표 7-1>에 나타난바와 같이 년차별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횃집과 숙박시설, 낚시터, 관광유람선, 관광유어선, 체험어장, 수산물직판장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광개발사업은 체험어장과 수산물직판장 등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이 다루고 있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7-12 어촌종합개발 계획 중 관광개발 사업 내용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수(개소)			사업비(천원)		
		전체(a)	관광(b)	b/a (%)	전체(c)	관광(d)	d/c (%)
1994	식사숙박		4			1,069,552	
	유어선		1			184,220	
	낚시터		1			100,000	
	관광어장		1			100,251	
소계		128	7	5.5	13,295,529	1,454,023	10.9
1995	횃집		3			746,250	
	수산물직매장		6			1,283,151	
	체험어장		3			30,750	
	식사숙박		12			2,484,833	
	유람선		1			126,000	
	낚시터		3			57,500	
	주차장		4			427,498	
	수중투시선		2			249,000	
소계		354	34	9.6	52,791,845	5,404,982	10.2
1996	횃집센터		7			200,000	
	부업 및관광시설		2			2,513,000	
	식사 및숙박시설		2			200,000	
	숙박시설		7			2,190,000	
	유료낚시터		3			1,320,000	
	유람선		1			100,000	
	관광낚시어선		8			580,000	
	소계		333	30	9.0	52,791,845	7,103,000
합계		815	67	8.2	118,587,374	13,962,005	11.8

어촌종합개발에서 다루고 있는 관광개발도 사업의 분산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즉 1994~'95기간에 267개의 어촌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관광개발사업은 67개사업으로 평균 4개 어촌계에 하나 정도의 관광개발사업이 도입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기존의 어촌관광소득원사업이 1개 어촌계에 1개사업이 추진되어온 것과 크게 다를바 없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개 사업지구당 35억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대부분 수산업 생산기반 시설 비용으로 투자되고 있으며 관광개발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사업당 2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 규모는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보다 증액된 것이지만 이는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의 부족한 예산규모를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

다. 어촌종합개발에서의 어촌관광개발의 문제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육지지역과 바다지역, 그리고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접안지역을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개발하는 종합개발의 성격을 지니지만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수산업의 생산기반과 수산물의 가공, 유통시설 정비에 치중하고 있어 어촌지역의 정주환경 정비와 관광시설 개발, 주민참여 등 어촌관광개발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더욱이 어촌종합개발이 다루는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에 의해서 다루는 어촌관광개발사업과 사업내용, 사업의 크기, 투자규모 면에서 크게 다를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어촌지역 관광개발 정책의 개선 방향

가. 지원대상의 개선

이제까지의 어촌관광소득원개발 정책 사업은 어촌에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어민들의 관광소득을 증대시킨다는 목적 하에 어촌지역에 입지하는 관광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적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을 개인이 아닌 어촌계로 한정하고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나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지원한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은 대부분 어촌계가 직영하지 못하고 개인에게 임대되어 경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횃집, 숙박시설, 휴게소 등과 같이 수익성이 있는 영리적 사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개인들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영리성은 적지만 관광하부구조를 이루어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정책지원의 방향전환이 요청된다.

나. 개발방식의 전환과 주민 참여의 확대

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은 투자가 분산되고 투자 규모가 적으며 사업이 단조롭고 사업간의 연계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분산식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개발 여건이 우수한 어촌계 또는 인근의 2~3개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어촌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어촌관광단지의 개발은 이미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과 신규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이들의 주도적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어촌관광단지가 어촌개발과 어민들의 생활문화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어촌지역의 관광단지 개발에 도시 등 외지의 대자본이 유입되어 어촌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않된다. 어촌계가 공동사업으로 규모가 큰 회센타를 조성할 경우 회센타 내에서 영업을 할 주역은 이미 횃집을 운영하거나 새로이 횃집 운영을 희망하는 어촌지역의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 센터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을 계획할 경우라할지라도 이 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먹는 것 이외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 잘 정비된 마을 도로와 주택, 편리한 주차장 이용, 친절한 마을 인심, 전통과 마을의 문화 유적 등이 관광소재가 되도록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다. 자금지원 방식의 개선

지금까지 정부가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하여 횃집이나 숙박시설 건축에 지원해 오던 정부의 보조금은 관광지 조성에는 필요한 어항과 해안 정비, 도로 정비, 마을 가꾸기, 마을 조경, 공공시설 또는 관광 상징물 조성 등에 사용토록 지원방식을 전환하고 횃집이나 민박시설 등 영리적으로 개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삭제하고 대신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리적 사업일지라도 성격상 어촌계 또는 마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계속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규모가 큰 회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회센터의 조성과 건물의 축조는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하되 회센터 내의 각각의 횃집 또는 생선회 코너는 어촌계원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회원들의 개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어촌계는 회센터 건물과 주차장, 화장실 등 공동시설의 관리, 회센터의 변영과 관련된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의견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어촌계가 공동으로 회센터를 건설할 경우 정부는 회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액 중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내에서 횃집을 운영하는 개인에게는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민박업도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개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되 정부가 지원해 오던 보조금은 장기 저리 융자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러나 민박업이라 할지라도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현재의 주택을 개량해서 민박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민박마을 조성 등은 기존의 농어촌정비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개량해서 민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민박시설이 여관 수준 이상의 시설을 신규로 건축하고자 할 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명분이 약하므로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8장

어촌관광 개발계획 수립 사례

제1절. 어촌관광 개발계획 수립의 접근방식

1. 지역사회 설계 방식에 의한 관광개발 계획 수립

지역사회(community)는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 단위에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그 공간 단위의 주체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 놓은 시설인 인문환경들로 구성된다. 어촌관광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사회 설계적인 접근방식은 어촌 지역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관광개발을 위해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의 산업과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자연 및 인문환경을 정비하며 관광시설을 설계하는 일련의 계획과정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설계(community design) 방식에 의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계획 수립은 크게 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관광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기존의 지역계획이 계획전문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수행되어 온 한계를 지적하고, 계획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계획가와 주민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관광개발 계획을 함께 설계해 가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계획대상 지역의 공동체적 삶과 정주패턴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공간적 환경설계를 중심으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는 입장이다. 계획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의 원칙, 역사·문화환경의 보전, 주거양식, 공간구조, 정주패턴 등을 강조하면서 관광개발을 환경계획을 통해 실현하려는 입장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단순히 공간의 물리적 형태에만 치중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동인을 중요한 계획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고유한 건축양식의 보전, 지역 정체성의 확보, 지역사회의 이미지 제고 등과 같은 환경의 심미적 양식을 중시하면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가는 입장이다. 지역계획에서 신 복고주의 흐름과 전통 문화환경 보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지역에 독특한 건조물 및 공간구조에 기초한 환경계획의 수립을 주창하는 입장으로 독일의 마을재정비(Dorferneuerung), 일본의 마을만들기(むらづくり)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연구에서 어촌관광개발 계획수립은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입장을 취한다.

가. 주민참여에 의한 관광개발 계획 수립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무엇보다 어촌지역의 주민과 계획 작업팀간의 쌍방향 의사소통(two-way communication)을 전제로 점진적인 계획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이 계획 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지 설계방식(open community design forum)을 구현할 수도 있고, 관광개발을 위한 계획 대안은 계획전문가에 의해 작성되고 주민들은 대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계획과정에 전체 주민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기능별로 또는 마을 구성원들의 특성별 분 류에 의해 소그룹별로 부문별 계획팀(sectoral planning group)을 구성하여 참 여할 수도 있다.

표 8-1. 단계별 어촌관광 계획수립 과제와 주민 참여

단 계	계획 대상	세부 계획 과제	주민참여 형태
제1단계 현황파악 및 목표설정	지역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지리적 입지, 정주환경 • 인구 및 가구 구성, 마을조직 등 사회적 운 영체계의 특성 • 수산업, 농업, 상업 및 관광산업 등 경제적 운영체계의 특성 	대표자 모임 개별가구 접촉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참여그룹별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 	소그룹 대표자 모임
제2단계 기본 구상	관광자원 목록작성 및 관광매력 물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의 분류와 자원목록 작성 • 관광자원의 매력찾기(가치 재발견) •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방향 설정 	소그룹 현장조사
	마을 운영체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매력의 소득자원화, 어항 및 정주환경 정비 등 어촌관광의 기반 구축 • 관광활동 도입에 따른 새로운 관광운영 체계 구성 • 어촌 관광사업의 운영주체 설정 	소그룹 대표자 모임
	어촌관광 프로그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관광 도입 프로그램 작성 • 관광루트 구성 	소그룹 개별가구 접촉
	관광활동공간 정비 및 경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관광활동별 공간 정비 • 마을경관 조성 	소그룹, 개별가구, 마을 전체회의
제3단계 계획확정 및 실 천	계획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총의에 의한 확정 • 행정계획에 반영 	마을 전체 회의 대표자 모임
	어촌 관광사업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조직 및 추진체계 구성 • 단계별 사업 추진 	대표자 모임

어촌 관광개발 계획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주민 또는 주민 대표와 계획 전문가가 일체가 되어 지역현황 분석과 개발목표의 설정, 개발 전략과 추진 방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이 된다. 그러나 주민이 계획수립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분 계획 수립은 계획 전문가가 담당하되 주민들은 지역의 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 개발과제에 대한 의견 개진 등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주민 참여의 주된 역할은 마을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이의 관광적인 매력과 가치를 자원목록으로 작성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과 자원목록에 포함된 유형, 무형의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향을 적극 모색하여 관광개발 계획 수립의 대안 설정 작업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이다.

나. 환경계획적인 관광개발 계획 수립

1) 공간 통합적 관광개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관광시설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계획 수립의 공간적 범위는 어촌주민의 일상활동과 관광객들의 관광활동이 전개되는 전체 공간범역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어촌지역 관광개발 계획에서 공간적 통합이란 어장(개인어장, 어촌계 공동어장, 개펄 등 수산물 생산공간), 어항(출어, 수산물 수집, 유통, 판매, 선박대기, 어로공동작업, 수조 등 어업생산을 지원하는 방과제, 물량장, 선양장, 수족관 등), 어촌 주거공간(농·어민 주거공간), 농경지(농업 생산공간), 주변 녹지공간, 해변 휴양공간을 하나의 계획단위로 묶으면서 관련된 단위 공간들을 종합 연계·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문별 활동의 종합적 관광개발

부문별 활동의 종합적 관광개발이란 특정한 관광자원 그 자체를 점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공급하고 있는 수산업 생산활동, 농업활동, 상품판매활동, 관광위락활동,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각 산업별 부문이 종합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산업활동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횡집운영을 위해서 활어공급 등 유통체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바다에서 활어를 어획하는 수산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횡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획을 담당하는 수산업, 유통업 등이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객 유치는 횡집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 청정해역을 유지하여 질 좋은 생선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정비 문제, 마을 정비와 조경문제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개발 계획은 각 산업 부문별 활동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

3) 지역사회 운영체계의 재구성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계획은 단순히 어촌마을에다 관광시설이나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지역의 자연 및 문화경관, 어획물의 생산 및 유통 판매, 어촌의 일상생활, 주변 농업의 생산과 유통, 향촌 사회의 문화활동, 지역특산물, 지역의 이미지와 장소적인 정체성 등 어촌 각 부문의 다양한 공간 요소와 이를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활동을 결합하여 관광자원화하는 것이므로 관광자원의 개발은 곧 어촌 지역사회의 운영체계, 특히 사회·경제적 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어촌관광 개발계획 수립은 관광자원의 개발에 앞서 어촌의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구조를 파악한 뒤, 마을의 관광자원은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운영체계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의 개발로 나타나는 결과는 어촌마을의 사회·경제적 운영체계에 어떻게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관광개발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의 작성도 관광활동과 마을의 사회경제적인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작성해야 한다. 계획하려는 어촌마을의 사회경제적인 운영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구성원들간의 관광개발에 갈등이나 관광사업의 문제점 등이 계획 과정에서 표출된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대상 마을의 지역사회 운영체계에 대한 정보는 계획가가 직접 조사하여 얻을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불충분하므로 계획 전문가와 주민들과의 격의 없는 의사교환과 마을의 소집단별로 도출된 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 전문가와 주민대표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파악하게 된다.

다. 생태·문화적 관광개발 계획

1) 생태적 관광개발

소규모이면서 국지적인 어촌마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계획은 그 특성상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바다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의 접안지역에 놓인 어촌은 생물의 종이 다양하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을 찾아내고 관광루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생태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어촌에 산재한 자원은 거의 주민의 중요한 생업 및 생활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현재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마을 주민의 자원에 대한 인지 및 태도가 계획 요소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관광자원의 개발이나 관광 시설 도입으로 수산업이나 농업 또는 기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변질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과 함께 관

광자원을 찾아내고 관광자원 목록을 작성하며 목록에 수록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원 이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촌지역의 마을이 생태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연생태가 개발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주민의 역할, 관광활동의 유도 방법, 공간계획 등을 고려하되,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문화적 관광개발

어촌지역에는 마을의 오랜 역사와 함께 유·무형 문화재와 생활양식, 전통과 전설, 주거양식, 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있다. 따라서 계획 과정에서 계획가와 지역 주민들은 계획 대상 어촌이 지니고 있는 유형·무형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자원목록을 작성하며 목록화된 자원의 가치와 매력을 발굴하여 관광활동의 유인 요소로서 활용해야 한다.

주민의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마을의 경관, 농업 생산활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토지의 경관, 어업의 전진기지이자 해산물의 집산지인 어항의 경관, 사찰이나 문화재 등의 역사적 유적지, 지역특산품, 어촌주민의 일상생활, 민속 신앙, 전승놀이 등이 모두 어촌관광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관광적 가치와 매력을 지닌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상품화내지 관광루트의 한 요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주민의 역할, 내방객의 관광활동 유도, 환경계획적 요소 등이 사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어촌지역의 환경과 역사 및 문화유산을 유지하면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마을 재정비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어촌관광 개발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마을 주변에 산재한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생활문화 유산 등을 잘 보전하는 것이 곧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 재정비 방식을 어촌관광 개발계획에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신규 관광단지 조성 방식과 계획 절차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게된다. 신규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계획은 일반적으로 대상지의 기존의 여건, 즉 지역 주민 및 지역이 지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문 사회환경적 여건 등에 대한 고려가 소홀해 진 채 새로이 도입되는 관광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관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대상지에 잠재되어 있는 관광자원들은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도 계획 대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에 반해 마을 재정비 방식에 의한 어촌지역 관광개발 계획은 자연 및 인문환경과 주민들의 생활문화, 가치, 전통 등을 소중히 고려하기 때문에 마을이 지닌 부존자원과 경제 사회적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관광요소를 추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마을의 운영체계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기존의 운영체계와 자원 및 관광활동이 새로 도입될 관광활동보다 우선 고려된다.

2.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계획수립 과정

가. 계획수립 절차

어촌관광 개발 계획은 ① 지역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발굴, ② 개발계획의 기본 방향 설정, ③ 목표 설정, ④ 계획의 기본 구상, ⑤ 계획의 확정 및 실천이라는 4단계를 거쳐 수립된다. 이와 같은 계획수립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 발굴

계획수립의 첫 번째 단계인 지역현황 파악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한다. 지역 현황 파악과 문제점 도출은

어촌마을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 설정과 개발의 목표 설정을 위해서 중요하다.

- 지리적 위치, 교통 조건, 지형적 조건, 기후적 조건, 식생상태 등
- 인구 및 가구 구성, 주요 산업의 생산과 유통 및 가공활동, 특히 수산업의 현황, 소득의 핵심이 되는 산업 현황과 문제점
- 마을의 역사와 유·무형 문화, 주민들의 생활양식, 주거 및 식문화
- 마을 도로, 주택, 토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 지역의 관광매력물과 잠재적인 관광자원의 실태와 이용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마을의 사회 경제 조직과 운영 상황
- 관광개발에 대한 마을 주민 및 마을 내 이익단체들의 의견

2) 개발의 기본 방향 설정

대상 지역의 현황분석과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 및 마을이 지니고 있는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하여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 목표를 설정한다.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 관광활동에 주민 참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 어촌지역의 수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자원의 이용율을 높일수 있어야 한다.
-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주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관광개발이어야 하고 지역자원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 개발의 효과가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개발의 효과가 분배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어촌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되지 않고 유지 보존되어야 한다.

- 지역의 특산어종 등 지역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 보존되어야 한다.
- 기존의 지역사회구조와 지역 문화가 존중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및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 개발이어야 한다.

3) 개발 목표의 설정

관광개발의 목표는 위에서 설정한 개발의 기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이다. 따라서 설정된 개발의 기본 방향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문제의 도출과 개발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설정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관광개발 계획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는 ①마을 전체회의, ② 직능별 대표자(이장, 어촌계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소년회장, 개발위원 등) 모임, ③분야별 계획소그룹 모임(선박보유 어촌계임원, 부녀회 모임, 노인회 모임, 민박·상점·회집가구 모임, 영농회 모임, 청소년모임), ④개별 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4) 계획의 기본 구상

앞 단계에서 설정된 개발방향 및 개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단과 전략을 동원하는 과정이다. 계획의 기본 구상 단계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쳐 수립한다.

가) 관광자원 목록 작성

마을이 지니고 있는 관광자원을 마을 주민과 계획 전문가가 함께 발굴하고 이를 자원의 유형에 따라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에는 관광자원의 현황과

특성, 이용실태, 자원이용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인식, 개발방향과 관리 방향에 대한 주민과 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기재하여 관광활동 프로그램 구성시 활용하도록 한다.

나) 관광프로그램 구성

관광프로그램의 구성은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활동을 도입하는 단계다. 따라서 관광프로그램은 관광객에게는 만족감을 더해 주고 주민들에게는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관광프로그램의 구성은 마을이 지니고 있는 자연 및 인문자원과 어촌주민들의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그 마을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매력물을 발굴하여 관광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프로그램이 구성되면 이를 마을이 지니고 있는 전체 자원을 대상으로 관광루트를 구성하여 관광활동에 변화와 재미를 더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 공간 및 경관 계획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제별로 관광활동을 도입하고 그 활동이 일어날 공간에 대한 시설계획과 공간 정비계획이 따라야 한다. 관광활동을 위한 공간 계획은 관광시설 계획과 공간 정비계획으로 구성된다. 어촌지역에서의 주요 관광활동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어촌 및 농어업체험, 자연 경관 감상, 해양 스포츠 및 레저, 먹거리와 숙박 등이다. 따라서 공간계획은 이들 활동을 수용할 시설 및 공간계획이 된다.

어촌 경관계획은 관광객을 직접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아무리 관광시설이 훌륭하다고 해도 경관이 불량하다면 그 어촌의 관광개발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경관은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관을 가꾸는 계획이 도입되어야 한다.

경관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마을의 전반적인 스카이라인,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와 색상, 주변의 환경에 어울리는 나무와 초화류 등 식생대의 조성, 바다와 해안, 해안선의 절벽과 기암, 방파제와 방풍림 등 다양하다. 따라서 마을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자원은 더욱 유지 발전시키고 취약한 부분은 경관 조성을 통해서 보강해 주는 계획이 필요하다.

라) 관광사업 운영체제 구성

어촌 마을에 새로운 관광활동이 도입되면 이를 이용 관리하는 주체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재편되게 된다. 따라서 관광활동 도입에 따른 관리 주체, 참여자, 관리방법 등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운영체제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는 어촌관광이 개인 중심의 개별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community based tourism)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사업 운영체제의 구성은 관광활동별 관광사업 참여자, 어촌계 등 어촌관광과 관련있는 기구와의 관계, 관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간에 관광자원 이용과 관리, 소득분배에 대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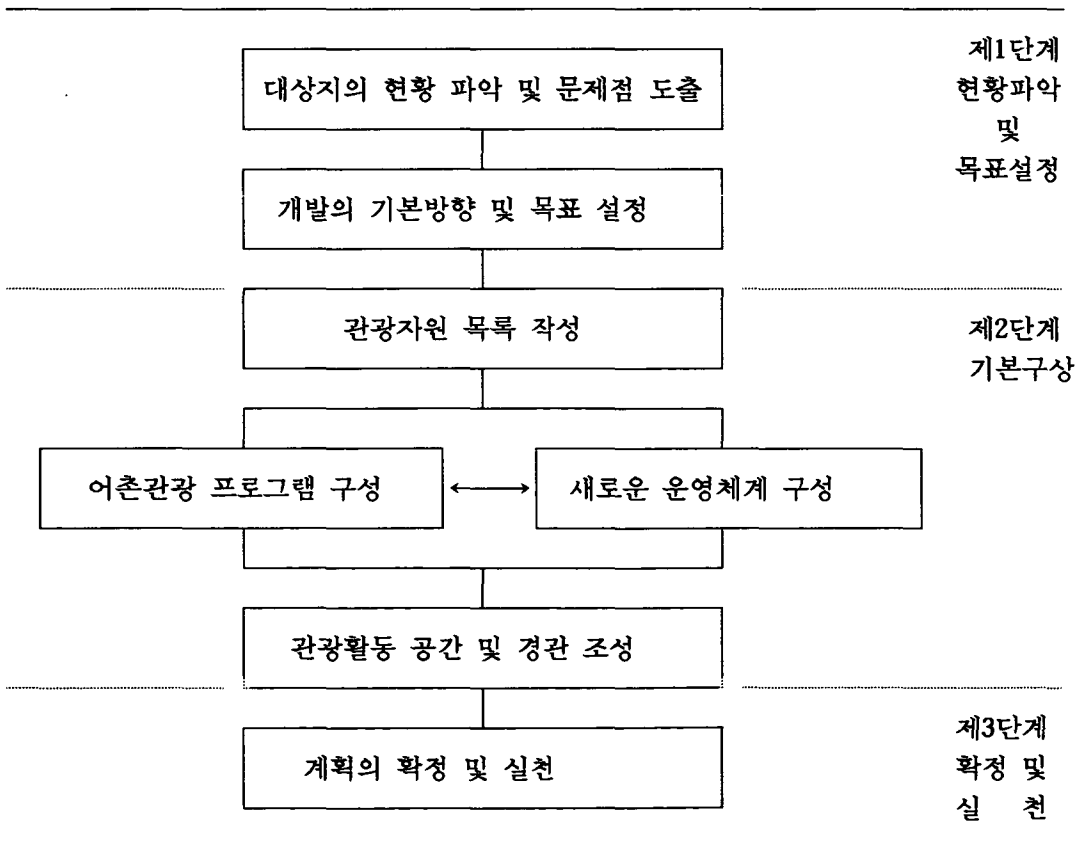
5) 계획의 확정과 실천

주민과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된 어촌관광개발 계획은 확정 단계를 거쳐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어촌 마을단위 관광개발 계획의 확정은 주민총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일단 수립된 계획은 주민 총회에 상정되어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촌관광 계획이 수 개 마을에 걸쳐 수립될 때도 편의

상 계획은 계획 전문가와 주민대표들의 협의로 수립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전체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어촌 마을의 관광개발 계획은 현재로서는 법적 뒷받침이 되는 법정 계획이 아니다. 따라서 수립된 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이 계획을 군이나 도의 어촌종합개발계획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어촌휴양단지개발계획으로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실천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마을 주민들은 수립된 관광개발계획이 군이나 도 및 중앙정부의 행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림 8-1. 어촌관광 개발계획 수립 절차도



일단 계획이 행정계획으로 반영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되고 이 계획은 정부 재정 집행절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천된다. 따라서 관광계획의 실천을 위한 주민 조직화와 자금 동원계획 및 관광지에 대한 홍보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개발 계획의 실천을 위한 주민 조직은 현재의 대동계나 어촌계 중 어느 한 조직에서 담당할 수 있다. 또한 관광사업의 실천을 위해서 마을의 직능별 대표로 구성된 가칭 “관광개발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관광개발을 주관하는 주민 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민들의 자금동원 계획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어느 경우라도 주민들의 자금동원이 가능한 선에서, 그리고 금융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개발을 조속히 이루려 할 경우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외부자본 유입에 의해 지역자원의 외부 점유로 주민들은 개발의 실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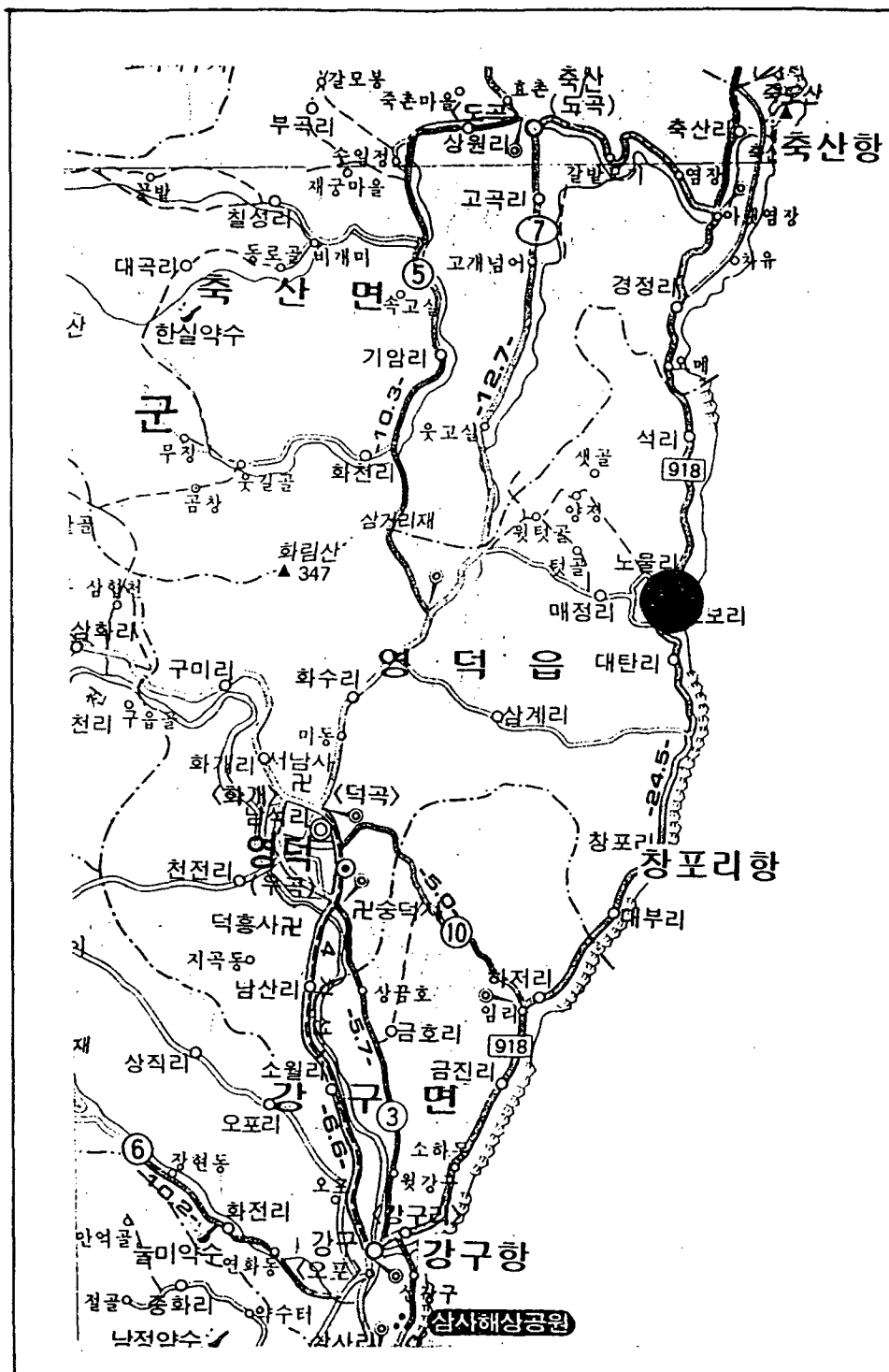
어촌관광지의 홍보는 주민들이 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다. 따라서 어촌관광지의 소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촌 관광지의 홍보는 관광권을 하나로 묶어 PC, 신문, 라디오와 TV, 잡지, 홍보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관광개발 대상지의 현황 분석

1. 지리적 특성

- 행정구역상의 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 경북 중부 해안에 위치, 인근 남측에 강구 연안항과 창포 2종항, 북측에 경정 2종항과 축산 1종항이 11km 반경내 입지하며 일대가 경북 최대의 수산업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음.
- 관광객과 물류의 흐름이 918번 지방도를 이용하고, 영덕읍(10분 거리)에서 7번 국도를 통해 포항(50분), 경주(90분), 울진(30분)과 연결 됨.
- 대상지 서측편의 고래산(285m)-화림산(347m)-삿갓봉(206m)으로 이어지는 급경사 산록과 해안선이 접변되는 지점에 어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평탄지의 국면이 남북 방향으로 좁고 길게 분포되어 있음.
- 주민들의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는 곳은 홍골, 건농골, 그릉박골, 장그릉박골 등으로 좁은 산간분지에 세장형으로 입지해 있고, 이 곳에는 주거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마을이 들어선 곳은 골말(내동), 외동, 끝말 등인데 현재 끝말은 인구 유출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음. 노물리는 하나의 군거취락으로 발달해 있으나 과거에는 내동과 외동으로 공간분절의 단위를 이루어, 농경지와 인접한 내동에는 농가위주, 해안선에 면한 외동에는 어가위주로 주택이 분포해 있음. 이러한 농가와 어가의 분포상의 구조적 특징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되고 있음.

그림 8-2 노물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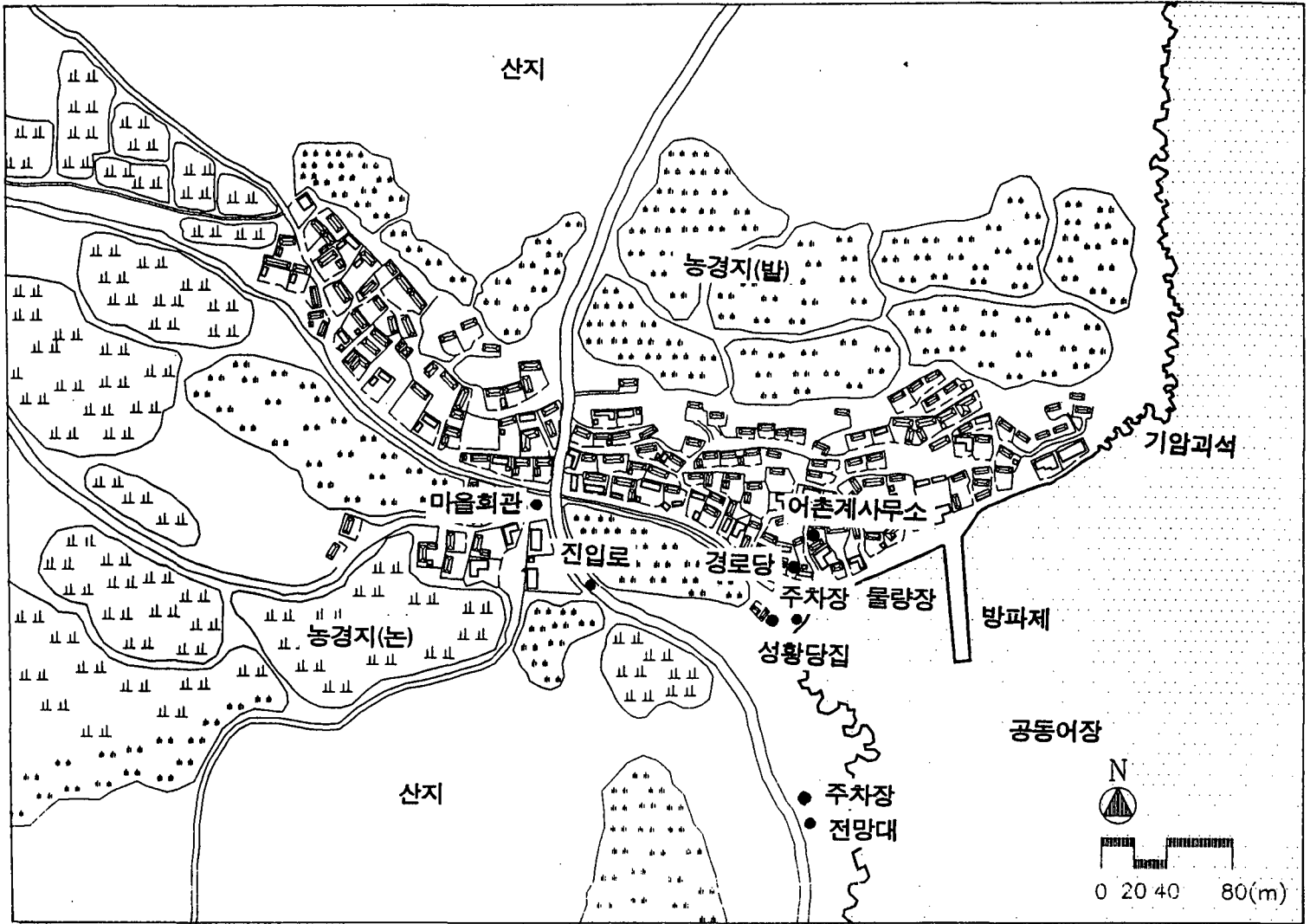


그림 8-3 노물리 마을 배치도

2. 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 사회적 특성

1) 가구 및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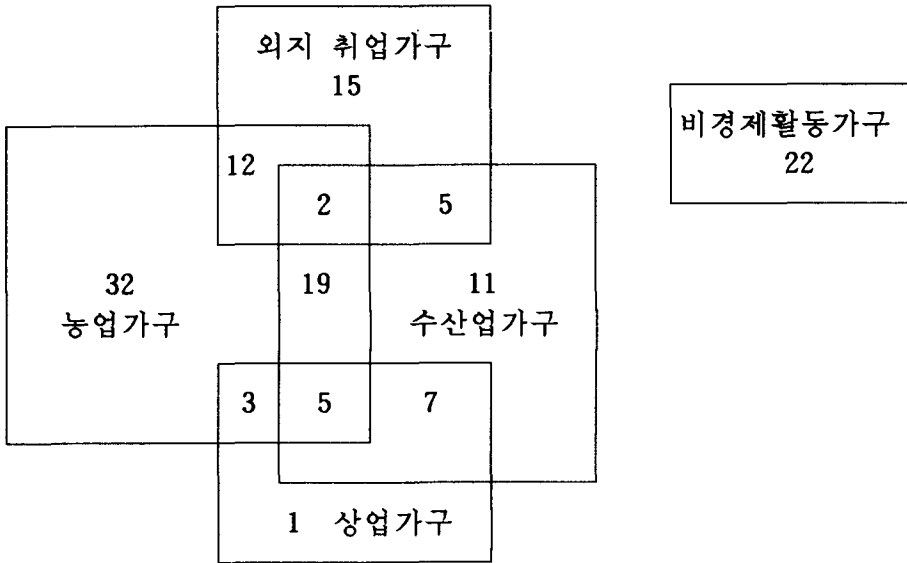
- 노인 1세대 가구가 절반 이상인 59.0%를 차지하고, 가구주 평균 연령은 65세로서 농어촌 노령화 현상이 뚜렷함.
- 가구별 가구원수는 2명 이하가 전체의 66.4%로서 노인 1세대 가구의 증가와 노령화의 영향으로 평균 가족규모가 작음.
-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총학생수는 53명, 가구당 학생수는 0.4명 정도.
- 생활보호 대상자가 20명으로 마을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건실하지 못함
- 기존 농업가구의 비농업 취업으로 인한 겸업 가구의 급속한 증가와 관광 활동 도입에 따른 상업가구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총농업종사 가구수 73호 이중 겸업가구 41호
 - 총어업종사 가구수 49호 이중 겸업가구 38호
 - 총상업종사 가구수 16호 이중 겸업가구 15호
 - 총외지취업 가구수 34호 이중 겸업가구 19호
- 농업, 어업, 상업, 외지취업 등 전업가구는 59호로 전체의 44.0%를 차지하고, 2종 겸업가구는 46호 34.3%, 3종 겸업가구는 7호 5.2%를 차지함.
- 상업가구는 전업은 1호에 불과하고 농업, 수산업을 겸한 겸업가구가 15호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면서 회집을 경영하는 경우가 12호로서 어촌관광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8-2 노물리의 가구 유형별 분포

단위: 호(비율)

구 분	가구 유형	가구수	소 계
전업가구	농업가구	32(23.9)	59(44.0)
	어업가구	11(8.2)	
	상업가구	1(0.7)	
	외지취업가구	15(11.2)	
겸업가구	농업+어업가구	19(14.2)	53(39.5)
	농업+상업가구	3(2.2)	
	농업+외지취업가구	12(9.0)	
	어업+상업가구	7(5.2)	
	어업+외지취업가구	5(3.7)	
	농업+어업+상업가구	5(3.7)	
	농업+어업+외지취업가구	2(1.5)	
경제활동 비종사 가구		22(16.4)	22(16.4)
계		134(100.0)	134(100.0)

그림 8-4 노물리의 가구유형별 분포



주: 그림의 숫자는 가구수를 나타내고 있음

2) 사회조직

-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있고 마을 총회를 주관하며 이장 산하에 직능별 대표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있음.
- 어촌계: 어업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결속력과 대면적인 친분관계가 강함. 어촌계원은 96명, 임원은 12명으로 구성. 대규모 마을행사인 풍어제를 주관, 수산물 채취, 어항 및 어장의 관리
- 노인회: 노령화의 진전으로 회원수는 120명. 어촌계에서 연 300만원을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음.
- 부녀회: 회원 60명, 연 1회정도의 단체관광 추진, 활동이 활발하지 못함.
- 청년회: 마을 인구 구조상 청년층의 부재로 유명무실함.

나. 경제적 특성

1) 농업

- 영세 소농구조
 - 마을전체 영농면적(논+밭) 69,900평, 농가 호당 평균 영농면적 957.5평
 - 영농규모별 농가 분포는 500평 이하가 39.8%, 1,000평 미만 24.7%, 1,500평 미만 7.5%, 2,000평 미만 4.5%, 2,500평 미만 4.5%, 2,500평 이상 3.0%
 - 미백 중심의 영농
- 농업기반정비와 농업기계화의 부진

2) 수산업

- 영세한 어선어업이 주를 이루고 일부 양식업에 종사
 - 어가의 대부분은 겸업어가
 - 주로 1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 28척 보유
 - 유자망 어업중심에 채낚기와 통발을 겸함
 - 어선어업으로 어획한 생선은 주로 활어회로 사용됨. 어획되는 주요 어종은 우럭, 광어, 도미, 꽁치, 양미리, 문어, 아나고, 열기, 오징어 등
- 어항시설
 - 일제시대 때 축조된 방파제 110m가 있으나 규모가 적음.
 - 태풍이나 해일의 피항처로는 부적합하고, 어선세력 확장과 전업어가의 규모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물량장의 확충과 선양장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

표 8-3 노물라 수산업의 현황

구 분	현 황
어업종사 가구	총 49호의 어가 전업 11호(자영 4호, 어업피고용 7호) 겸업 38호(농업겸업 19호, 상업겸업 7호, 외지취업 5호, 3종 겸업 7호) 잠수일 15명(해녀 13명)
선박 보유	총 동력어선수 28척 어선 평균 0.73톤, 17.4마력, 무동력선 2척
어선 업종	유자망 28건(하공치, 열기), 통발 13건(문어, 아나고), 채낚기 24건(문어, 아나고, 오징어 등 거의 모든 고기)
어획량 및 어획고	어획량 105 M/T, 총어획고 310백만원, 0.8톤 보유 어가 연평균 1,000만원, 2.0톤 2,500만원 정도의 소득
공동 어장	해상거리 2km 주어종은 양미리, 청어, 문어, 전복, 가자미, 성게 개인에 대한 3건의 공동어장 이용권으로 123백만원의 어촌계 수입(개인 수입의 4할은 어촌계 몫)
양식장	8.0ha(미역, 전복, 명게, 우렁챙이등 총 7건) 바다양식권 7년
어항시설	제2종 어항으로 지정 기존 방파제 110m를 연장 건설하는 안과 신규로 건설하는 안을 설계 완료한 상태

3) 관광 및 기타 서비스업

- 회집 12호, 민박 12호, 가게 3호, 유어선(낚시배) 27척, 20대용 주차장
- 연간 18,000명의 관광객 중 회먹기 15,000명(83.3%), 낚시하기 3,000명(16.7%) 정도로 어촌관광 활동의 대부분은 회먹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계절별 관광객수 분포는 봄 25%, 여름 40%, 가을 10%, 겨울 25%
 - 친구동행 단체관광객이 대부분이고 계모임, 가족단위도 많음.
 - 단체 관광객은 평균 4-5인으로 전체 관광객의 70% 정도를 차지

다. 정주환경

- 해안을 연한 동남향 경사면으로 주택이 배치되어 있어 바다나 진입도로 상에서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
 - 그러나 해안가의 횃집 등 상가 건물이 고층으로 들어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주택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음
-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
- 주택이 경사지면에 영세한 규모로 밀집되어 있어 주택간 도로, 마을 안길 등이 비좁고 자동차의 운행이 어려움.
- 건천인 소하천이 마을을 관통하나 하수도, 쓰레기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고 있음. 소하천을 통한 바다오염의 우려 있음.
- 어항의 방파제 주변에 물량장 겸 주차장 시설이 있으나 몰려오는 관광객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절대 부족함.

제3절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과 개발 목표

1. 개발의 기본 방향

- 청정해역에서 어획한 자연산 생선을 중심으로 횃집과 민박업을 육성
- 수려한 바다와 해안 절경, 마을의 경관을 중심으로 매력물을 창출하여 관광객 유치
- 열악한 정주기반을 정비하여 관광객 유인 요소로 활용
- 풍어제, 당제, 당집과 당목, 사찰 등 문화적 관광자원을 개발

-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독특한 먹거리 개발
- 청정해역을 유지하기 위한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시설 구비
- 관광객에게 숙식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문객 센터 건립
- 특산 어종의 증식을 위한 치어 방류사업 시행 및 양식업 확대

2. 개발 목표

- 마을 전체회의, 주민 대표자 모임, 분야별 소그룹(계획 소그룹), 개별 가구 등 주민의 참여 그룹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표 8-4 주민 그룹별 어촌관광 개발의 목표 설정

참여 그룹	개발 목표
마을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정주기반 확충: 마을안길 정비, 항내진입로 정비, 하천부분복개 정비 · 마을 관광기반의 마련 : 경관조망점 · 경관감상로 개설, 공동주차장 확충 · 마을기금의 조성
주민 대표자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조직 재구성과 마을개발위원회 결성 · 추진체계의 마련과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 마련 · 공동기금의 마련과 주민 홍보, 풍어제 · 당제의 활성화 · 3개의 공동시설을 통합한 마을센터(방문객센터 겸용) 건립
분야별 소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 방파제 · 물량장 · 선양장 건설, 공동회센터 마련, 공동위판장 및 수족관 건립, 수변데크 조성, 수산물 수납용 공동창고 건설, · 부녀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폐수 및 쓰레기 처리) · 경로회: 당집주변 성역화, 주거지 인접 산책로 조성 · 학생회: 공동 놀이터(소규모 마을공원), 해안-산림 연결 경관로(트립코스) 조성 · 농가모임: 내방객 상대 농산물 판매, 경지인접 농막의 건립
개별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박주택 및 회집식당 개조 · 마을안길 정비에 따른 개인 주택 신개축 · 개인 관광시설의 입간판 및 부착 안내판의 정비 · 지붕색 및 주택벽체의 색감과 재질의 미관 증진

제4절. 관광개발의 기본구상

1. 관광자원의 목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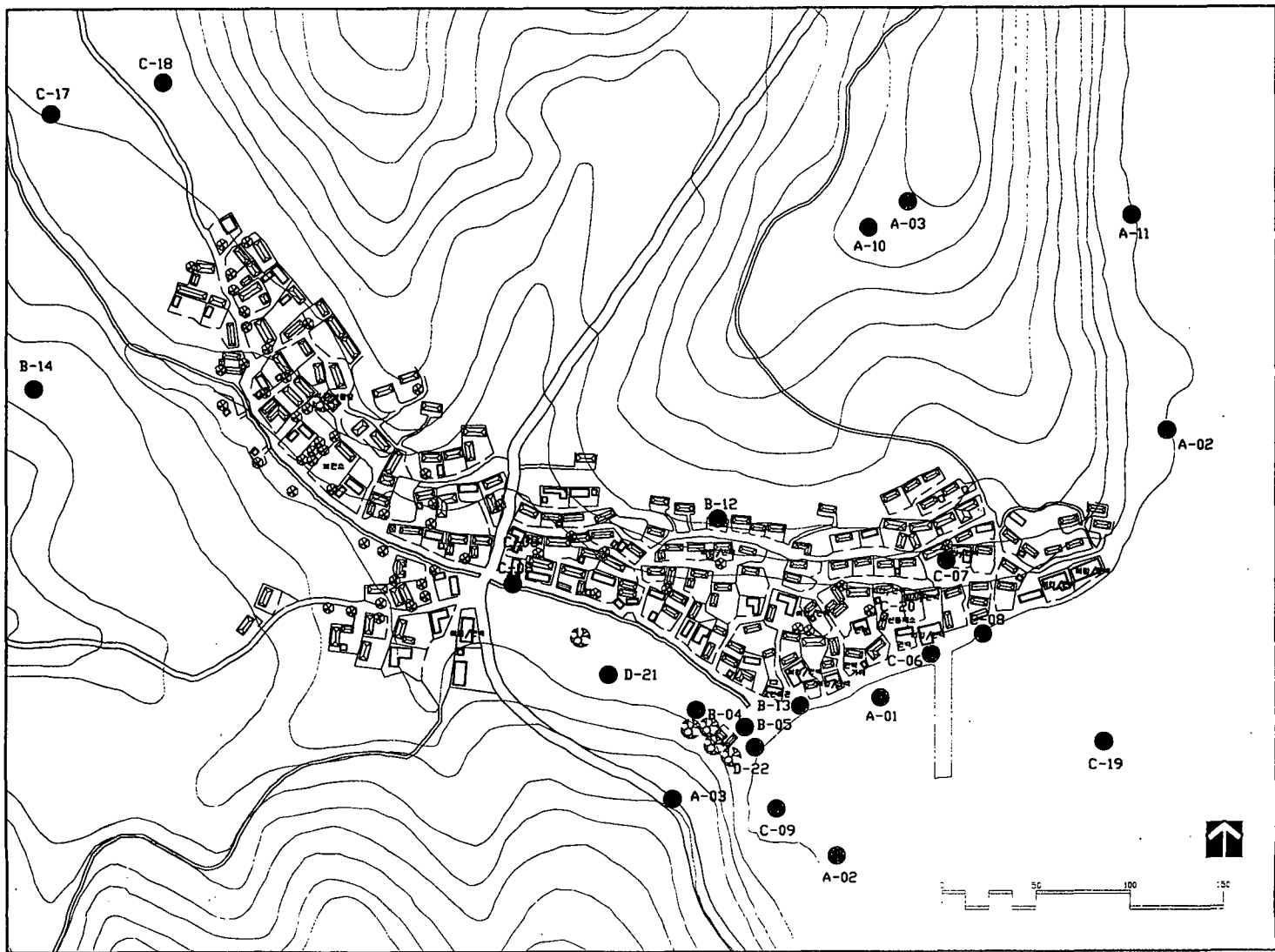
가. 마을 관광자원의 분류

- 관광자원은 자연자원, 인문·사회자원으로 대별하고, 후자는 문화자원, 산업자원, 위락자원으로 다시 구분함
- 많은 잠재 자원중에서 관광적 가치, 시각적 형태, 내방객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주민과의 공동 조사 및 토의를 거쳐 최종 선정함
- 자원은 기개발 자원과 잠재자원으로 구분하여 개발 및 관리방향 설정
- 분류된 관광자원은 공간적인 분포도를 작성토록 함.

표 8-5 노물리 관광자원의 분류 목록

구 분		기개발 자원	기호	잠재 자원	기호
자연적 관광자원		방파제 주변의 포구 경관 해안선 기암괴석 경관조망점에서의바다경관	A-01 A-02 A-03	마을 뒤산의 경관 조망점 마을 북측 해안 기암괴석	A-10 A-11
인문· 사회적 관광자원	문화 자원	당집과 手形의 당목 10년차로 열리는 풍어제	B-04 B-05	층계형 마을주거경관 독특한 색·형태의 건물 사찰(3개소) 1년 4번의 당제 풍물놀이	B-12 B-13 B-14 B-15 B-16
	산업 자원	활어회집과 민박집 물량장 겸용 주차장 가게(3개), 단체 바다낚시용 유어선	C-06 C-07 C-08 C-09	계절별 농업체험 산지 농산물 산지 수산물 지역별미(따개비죽, 물회)	C-17 C-18 C-19 C-20
	위락 자원			관광객 안내 센터 폐선이용 미니파크	D-21 D-22

그림 8-5 노물리의 관광자원 분포도



<p>■ 분류기호 : B-04</p>	<p>■ 자원명 : 마을성황당과 手形の 唐木</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어와 마을의 번성, 항해조업의 안녕을 기원하는 성소 · 조상과 후손, 출타자와 재향인의 고리를 엮어 주는 터 · 당제와 풍어제를 올리는 제례공간 · 마을의 자부심과 규범을 지켜주는 가장 신성한 상징공간 · 마을의 유래와 발전에 얽힌 전설을 간직한 곳 · 외부인의 출입이 금기시 되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집과 당목 주변을 마을의 중심공간으로 자리하도록 성역화 추진 · 주민 생활동선과 내방객의 동선을 분리하여 성스런 상징공간의 감정을 고조시킴 · 당목 밀등의 특이한 형상을 강조하면서, 당목에 얽힌 전설 이야기판 설치 · 슬레이트 당집을 험고 제각처럼 한옥으로 신축하여 한 칸에는 풍어제 행사를 보여주는 마을기념실 마련 · 경로회에서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담당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 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집 옆에 위치한 당목의 밀등이 특이하여 마치 사람의 왼손이 땅에서 큰 옥구슬을 캐내는 형상 · 이용행태: 당제때 제주만 이용하고 평소엔 철문과 블록담으로 통제. 당목의 그늘은 여름철 마을사람들의 유일한 공동 휴식처 · 문제점1 : 제각 곁에 슬레이트 부속 건물이 성황당의 역사·문화적 맥락과 부합하지 않음. · 문제점2 : 당집 옆의 내방객용 주차장이 신성 공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그림 8-6 노물리의 관광자원 목록(예시)

나. 관광자원의 목록 작성

- 분류된 관광자원의 목록에는 개별 관광자원에 대한 마을주민의 인식, 내방객의 이용행태, 자원의 특성과 관광매력을 기록하되, 관광매력은 내방객을 유인할 수 있는 경관적인 매력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작성함.(그림 8-6, 노물리 관광자원 목록 예시 참조)
- 목록화된 개별 관광자원에 대하여 계획 소그룹별로 개발 및 관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목록에 기록하고, 여기에는 자원의 매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소적인 이미지나 공간형태 등을 기술함. 동시에 각 개발 및 관리의 주체를 명시토록하여 자원의 보전을 유도하고 특히 주민 감시를 통하여 관광객에 의한 자원 훼손을 미연에 방지토록 함.(그림 8-6 참조)
- 자원목록에는 시각적인 효과와 이해를 돕기 위해 현황 사진, 자원의 공간적인 배치도면, 자원개발 구상도를 삽입시키도록 함.(그림 8-6 참조) 현황 사진은 자원의 관광적 매력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하고, 배치도와 개발 구상도에는 자원 주변의 현재 지형물과 장래 도입될 시설물이나 지형의 변경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의 역할을 하도록 함.

2. 관광자원의 소득화와 관광기반 정비

가. 관광매력물의 소득 자원화

- 소득원 개발에는 직접소득 자원과 간접소득 자원으로 구분하여 자원개발의 방향을 달리하여 접근.
- 직접 소득자원이란 마을 내방객을 상대로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나

접촉(체험)을 통하여 상업적 영리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 매력물을 말하는데, 주로 주민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음식점, 상점, 숙박업, 관광농원, 유어선 등을 통해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 간접소득 자원은 내방객을 상대로 판매나 체험을 통한 상업적 영리를 도모하지 않고, 다만 어촌 관광체험 효과만 증진시키는 관광매력물을 말함. 주로 주민 개인이 주체가 되어 개발, 관리되기보다는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하여 공동적인 생활편익, 환경적인 공익성을 가져오는 특징이 있음. 마을의 공동시설, 문화행사, 공공녹지, 경관, 마을 상징공간 등이 이에 해당함
- 따라서 직접 소득자원 개발은 누가 이와 같은 소득자원 개발에 참여하는가가 중요하게 되고, 간접 소득자원 개발은 마을전체 주민이나 특정 그룹을 개발주체나 관리주체로 설정하도록 함.
- 개별 가구별로 참여가 가능한 직접 소득화 자원에는 각종 활어회, 민박, 가게, 유어선, 향토 음식, 공동 어장, 농작물 재배 경지 등이 있음
- 주민이 그룹별로 참여하여 개발하는 간접지원 소득자원에는 포구 경관, 해안선의 기암괴석, 풍어제, 당집·당목, 마을 뒷산, 층계형 주거경관, 사찰, 마을센터(방문객 센터), 공공 수족관 및 공동회센터 등이 있음.

나. 어항 개발

- 어촌 마을에서 어항은 어업의 생산·유통·가공·저장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공간이자 포구경관을 이루고 있음. 또한 어항은 인근의 바위 낚시, 해상 스포츠, 회집 등으로 인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점 공간이며 마을 주민에게는 주차, 공동 휴식 및 만남, 어린이 놀이, 풍어제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어항의 개발은 어촌관광 사업은 물론이고, 수산업의 활성화와 마

을 정주환경 정비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따라서 어촌관광 개발은 그 전제로서 필히 어항건설 사업과 연계되어야 하고, 특히 주민이 주체가 어촌의 활성화를 꾀하는 관광사업이라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어항의 개발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함.

- 현재 주민 제1의 숙원 사업은 물량장 확장(방파제변 공유수면 매립, 주차장으로 사용), 선양장 포장(길이 100×40m), 신규 방파제 건설임. 이를 위해선 기존의 방파제를 연장하여 건설하던지 아니면 신규 방파제를 현재보다 외곽에 건설해야 함.
- 1996년 현재 기존 방파제를 연장 건설하는 안(동방파제 210m, 남방파제 35m, 공사비 45억 6천만원)과 신규로 건설하는 안(동방파제 310m, 남방파제 70m, 공사비 57억 9천만원)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전자의 안으로 어항설계를 완료하고, 1997년부터 어항개발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임.
- 주민의 입장은 기존 방파제를 단순히 연장하는 것보다 현재 어항 보다 외곽으로 규모가 크게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항을 관리하는 도 및 군당국에서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전자의 안을 수용한 상태임.
- 외곽시설의 조성
 - 기존 110m 방파제의 천단고 및 단면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보강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항내 정온이 양호하고 충분한 수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곽시설을 배치토록 함.
- 접안시설의 조성
 - 접안시설 규모는 1차적으로 대상 선박수(28척)에 지배되므로 세력권 내 어선은 물론 외래 어선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시설을 계획하도록 함.

- 본 항은 물량장 곡부지점이 많고 물량장과 기시설물의 거리가 짧으므로 장기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함.
 - 휴식어선의 종접안수를 고려하여 목표년도의 소요시설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배후지 토지이용계획(주차장, 소규모 마을공원, 당집)과 부합되도록 배치함
- 방파제변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물량장의 확장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폭 조정함

표 8-6 어항건설 계획

시 설 구 분		규 모	
시설 계획	외곽시설	동방파제	210m(305m)
		남방파제	25m
		계	245m(340m)
	접안시설	물양장	65m
		휴식부두	30m
		계	95m
	호 안		30m
수역 시설	총수 면적		15,400m ²
	소요 수면적		2,200m ²
	정온 수면적		3,400m ²
매 립 지 면 적		1,400m ²	
준 설 량		1,900m ²	
공 사 비		4,565백만원	

○ 육상기능 시설

창고는 어획물의 10%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소요면적, 50평 정도를 계획하고 공동위판장 50평에는 8개의 수족관 설치

○ 어항개발의 효과

- 수산업적 효과

어획량 증대(현재 105M/T에서 300~350M/T으로 증대)와 어선규모 확대(현재의 0.73톤에서 3~5톤으로 확대) 예상, 신규 어항기능 시설의 도입

- 관광적 효과

어획량 증대 → 개인회집 증가, 어촌계 공동위판장·회센터 건립 → 다양한 활어회의 공급과 관광객수 증가 예상

- 정주환경 개선 효과

항내 진입로, 주차장 확보

다. 정주기반 정비

○ 주민숙원 사업은 마을내 소하천(건천, 길이 130×4m) 복개를 통한 항내 진입로 확충, 공동창고(대지 150평, 건평 50평 규모) 건립임

○ 하천정비 및 항내 진입로 확장

- 항내로 흐르는 개천 하구에 작은 다리를 설치하여 이미 부분(약 5m) 복개한 상태. 파도에 토사가 쌓이면서 다리보다 소하천 지대가 낮아져 물이 웅덩이를 이룸으로써 부패현상 발생.

- 항진입로 확장은 제1차 숙원사업인점을 감안,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 복개 실시.

○ 마을안길 확장 및 개설

- 차량 진입할 수 없는 협소하고 경사진 안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서 방향의 마을내부 안길과 외곽도로의 개설 필요

- 마을내부 도로가 확충되면, 현재 포구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식당이나 민박이 조망이 좋은 고지대에 입지할 가능성 높음.

○ 공동주차장 확보

- 장차 증가될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선 현재 어항 인접의 물량장을 겸한 마을 공동주차장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함.

○ 마을센터 겸 방문객 센터 조성

- 현재의 마을회관, 어촌계사무소, 동사무소 3개의 공공시설을 한 장소로 통합하여 마을센터 겸 방문객센터로 활용
- 방문객센터: 내방객 상대 숙식편의와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마을 생산 농수산물 및 지역특산물판매(주문 및 우편판매 가능)

3. 새로운 마을 운영체계 구성

- 2005년 목표연도의 유형별 가구분포를 예상해 보면, 비경제활동 가구는 현재의 22호(16.4%)에서 47호(35.1%)로 늘어나고, 소멸되는 가구(농어가 후계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단독가구)도 34호(25.4%)로 증가될 전망이다.
- 전업어가는 현재의 11호(8.2%)에서 14호(10.4%)로 다소 늘어나고, 현재의 겸업어가 38호는 상당수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의 전업농가는 농업소득의 쇠퇴로 32호(23.9%)에서 6호(4.5%)로 급감할 것으로 보이며 이의 상당수는 비경제활동 가구인 은퇴농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임.
- 어촌관광과 관련된 민박, 회집, 가게 등의 운영에 종사할 가구는 현재의 134호 중에서는 총 15호인 11.2%(겸업관광 11호 8.2%, 전업관광 4호 3.0%)가 될 것으로 추정됨. 이는 인구노령화로 현재의 16호보다는 줄어든 규모이지만 관광기능 도입으로 마을 밖에서 신규로 유입될 가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체 관광종사 가구(상업가구)는 늘어날 전망이다.

표 8-7 노물리 관광매력물의 개발 및 소득자원화 방안

유형	자원명	관광활동	관광자원 개발 및 소득화 방향	참여주민 가구번호
직접 소득 자원	활어회	회먹기	- 우럭, 광어, 돔 등의 생선회, 명게, 해삼, 오징어물회, 모듬물회의 판매 등(주민의 가장 큰 관광소득원) - 개인판매 위주. 개인 주택을 식당으로 개조(마을환경개선이나 경관육성의 차원에서 계획적관리 필요) - 어항건설 이후 마을 공동의 활어회 센터 건립 추진(어촌계 주관)	50,57,75, 88,90,93, 96,98,99, 106
	민박	숙박 어촌체험	- 회집식당, 유어선과 연계된 민박 - 내방객에게 잠자리, 먹거리, 바다낚시 혹은 바다 놀거리 등 세트화된 어촌관광프로그램 제공 - 주택의 개조를 통해 민박객 유치 가능한 시설 도입	50,57,73, 75,88,90, 93,95,96, 98,99,106
	가게	구매	- 늘어나는 관광객 상대로하여 다양한 식품이나 잡화류의 구비하여 판매 - 현재의 소규모 동네가게(구멍가게)를 슈퍼마켓 수준으로 확대 필요	30,49,95
	유어선	낚시	- 현재 0.8톤 규모 정도의 유어선 27척이 있으나 기존의 어선과 겸용하고 있고, 유람객이나 낚시객을 승선하여 운행하기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음 - 어항이 건설되면 3톤-5톤 규모 정도로 어선의 대형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기대되고 이로 인해 승선인원이 늘어나고 안전성도 증대 - 유어선 겸용 어선 이외에도 수입이 높은 전문레저용 모터보트, 제트스키 대여 가능	29,30,32, 35,48,55, 57,75,77, 88,89,93, 95,96,98, 99,104, 106,116, 122,132
	향토 음식	먹기	- 따개비죽, 물회	50,57,75, 88,90,93, 95,96, 98
	공동 어장	어장체험	- 관광철의 명게따기, 미역따기, 조개줍기, 바다게 잡기, 그물치기, 치어방류	어촌계
	농작물 재배지	수확참여 농산물 판 매	- 고추따기, 사과따기 - 고추, 기타 농작물 판매	1,18,99, 116

(표 8-7의 계속)

간접 자원	포구경관	산책, 낚시	- 마을 공원 : 작은 동네마당,	마을전체
	기암괴석	산책,사 진촬영	- 데크 산책로 조성, mini-shelter, - 낚시 포인트 데크 조성	마을전체
	당집,당목	믿음, 관람, 휴식	- 전통적 신앙의 장소로 당집의 신역화(神域化) - 육손이 모양의 당목 시각적 강조, - 당목에 관한 이야기판 설치	(노인회 주관)
	풍어제	관람, 참여	- 10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풍어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하기 : 행정지원(홍보) 필요	어촌계
	당제	관람 소원빌기	- 풍어제, 당제의 기물이나 행사전말을 소개하는 기념실 마련(현재의 당집을 활용하거나 당집과 통합한 소규모 노물리 풍어제 기념관 건립 추진)	마을전체
	마을뒷산	산책, 휴식	- 주요 경관 조망점 연결한 산책로 조성 - 노물리 마을의 주거 경관을 위요하는 배경 역할 : 현재는 목힌 밭으로 경관의 위요감을 상실 - 위요 경관용으로 자생 수목이나 사철 관상적 가치가 유지되는 초화류 식재 - 경관 조망점에 파고라, 벤치 설치	마을전체
	마을경관	사진촬영 마을조망	- 마을전경 조망점: ①마을진입부(현재 유료 주차장 자리), ②마을입구 큰소나무, ③마을뒷산 둔덕자리, ④마을앞 바다에서 본 마을경관 - 마을 이야기판과 주요시설 위치도 설치 - 경관관리 : 주거경관의 색조와 건물형태, 입간판, 안내판 정비, 주택 층고의 관리	마을전체
	사찰	관람,산 책,예불	- 마을 및 인근 마을 주민의 사찰 - 진입 동선의 접근성 향상	사찰 및 암자
	커뮤니티 센터 겸 방문객 안내센터	정보수집 공동모임 의 장소	- 현재의 마을회관, 어촌계 사무소, 동사무소 등 3개의 공공시설을 한 장소로 통합하여 마을 커뮤니티센터 겸 방문객의 안내 센터로 활용 - 안내 센터: 내방객 상대로 숙식편의와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마을생산 농수산물 및 지역특산물판매 (주문 및 우편판매 가능)	마을전체 (어촌계 주관)
수족관	관람, 학습	- 다양한 어류의 관람이 가능하도록 어촌계 공동위판장에 수족관 설치 - 공동수족관에서 어류 소매 가능(값싼 산지가격)	어촌계	

- 관광활동 도입에 따른 신규유입 예상가구는 가게, 식당(회집), 숙박업(민박, 여관) 등에 종사할 가구 20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노물리 마을은 어항이 확장 건설됨으로 인해 이에 부수되어 진입로, 주차장, 공동시설 등 주거환경이 대폭 정비되고 한편에선 관광시설이 신규로 도입됨으로써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경제적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으로 농업이 위축되는 추세에 더하여 어항건설로 수산업 및 상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증대하면 반농반어가의 경우 농업에서 어업 혹은 관광업으로 전환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표 8-8 목표년도(2005년)의 가구 유형 예상

가구 형태	호수(%)	가 구 번 호
비경제활동 (은퇴 포함)	47(35.1)	5, 6, 7, 8, 13, 15, 17, 18, 19, 22, 24, 25, 26, 34, 36, 42, 45, 51, 53, 55, 56, 63, 64, 68, 70, 71, 72, 74, 78, 79, 85, 91, 95, 100, 103, 110, 111, 112, 113, 114, 119, 120, 125, 126, 128, 133, 134
소멸예상	34(25.4)	3, 4, 10, 12, 14, 20, 21, 28, 31, 40, 41, 44, 47, 52, 58, 60, 62, 66, 69, 73, 76, 80, 81, 83, 84, 86, 87, 92, 101, 107, 118, 124, 127, 131
전업어가	14(10.4)	16, 29, 32, 35, 46, 61, 67, 77, 89, 94, 102, 116, 122, 132
농 가 (겸업농포함)	6(4.5)	2, 23, 37, 54, 97, 130
겸업 관광	11(8.2)	30, 43, 48, 57, 75, 88, 93, 96, 98, 99, 106
전업 관광	4(3.0)	39, 49, 50, 90
외지취업	8(6.0)	9, 27, 59, 65, 105, 108, 121, 129
겸업외지취업	10(7.4)	1, 11, 33, 38, 82, 104, 109, 115, 117, 123
계	134(100.0)	

- 현재 민박, 식당(회집), 가게 등 상업에 종사하는 가구 규모가 15호에서 어촌관광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면 숙박업(민박, 여관), 식당(회집, 일반식당), 유어선 및 해상스포츠 운영, 관광농원, 공동주차장 관리, 비지니스 센터, 마을 활어회센터 및 공동수족관, 슈퍼마켓 등에 종사할 가구가 35호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4. 어촌관광 프로그램 구성

- 어촌관광 프로그램은 2005년 계획 목표연도를 감안하여 어촌의 풍물 체험, 어장 및 어로활동 체험, 해안선 접하기, 해양레저, 경관감상, 영농 체험, 먹거리, 숙박 등 주제별로 도입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작성함.
- 노물리의 어촌체험에는 풍물체험, 어업체험, 영농체험이 있는데, 풍물체험에는 풍어제, 당제, 당목, 풍물놀이, 비지터센터, 마을기념실, 민박 등에 대한 현장체험이 포함되고, 어업체험에는 어류채취 참여, 연안어선조업 참여, 어선구조 감상, 수산물 물량과정 관찰, 어류 유통과정 관찰 및 구매하기 등이 있고, 영농체험에는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원에서의 농작물 채취참여, 농산물 구매 등이 있음.
- 어촌관광에서의 해양레저 및 경관감상에는 유어선 이용하기, 해면레이싱, 해안트립코스 참여 등과 포구경관, 마을전경, 마을경물, 농업경관 감상 등이 있고 배타고 해안경관 접하기도 포함될 수 있음.
- 먹거리와 숙박에는 활어회집, 마을회센터, 향토음식점에서의 먹거리와 민박이나 여관에서 숙박이 포함됨.

표 8-9 노물리 어촌관광 도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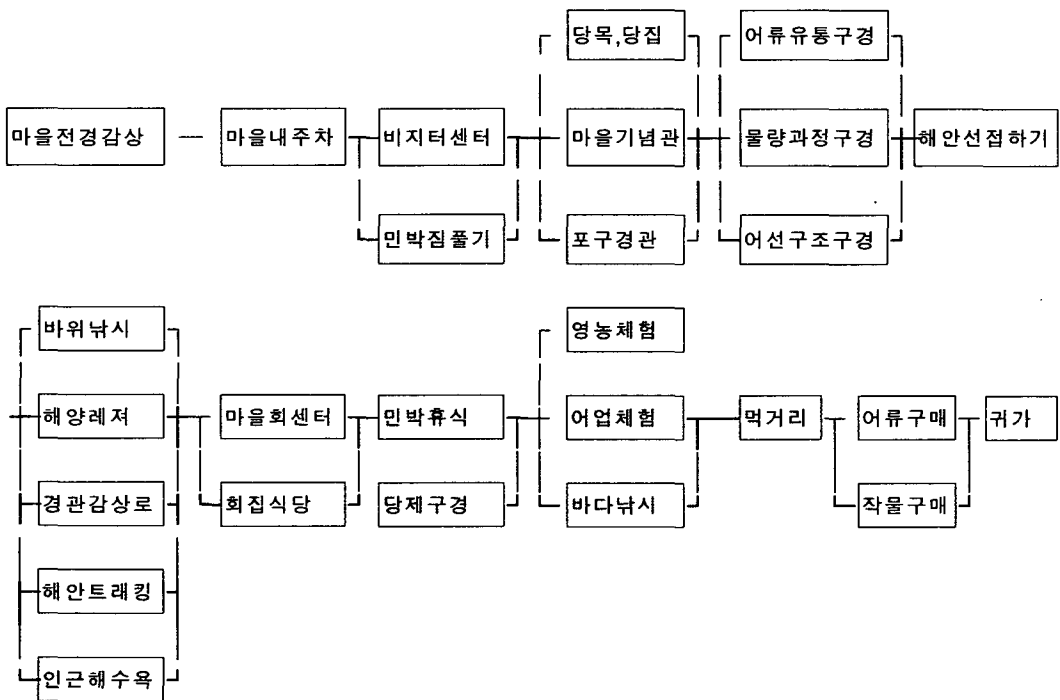
주체	도입 활동	주민참여		바위 낚시	동회의
어촌 풍물 체험	풍어제	전주민 동회의	해안선 접하기	수산물 관찰, 채취	어촌계
	당제	祭主 전주민		배타고 기암괴석 접하기	어업가구
	唐木(握旨形)	동회의		해양 레저	유어선 이용
	풍물놀이	동회의	해면 레이싱		개별가구
	비지터센터방문	동회의	해안 트립코스		동회의
	마을기념실 방문	동회의	경관 감상		포구경관 접하기
	민박	민박가구		전경 감상	동회의
어업 체험	어류채취 참여	어업가구		배타고 마을보기	어업가구
	연안 어선조업 참여,	어업가구		마을 景物 감상	전주민
	어선구조 구경	동회의		농업경관 감상	농가
	물량과정 관찰	동회의	영농 체험	농작물채취 참여	농가
	어류유통과정 관찰 및 구매하기	어촌계 어업가구		농산물 구매	농가 동회의
먹거리 숙박			먹거리 숙박	활어회집 먹거리	식당가구
				회센터 먹거리	어촌계
				민박	민박가구

- 도입되는 여러 가지 관광활동별로 주민의 참여 형태를 설정하게 되는데, 노물리의 경우 동회의를 통한 마을전체 참여, 어촌계 단위의 참여, 어가·농가·민박가구 등 개별 가구가 참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동회의나 어촌계가 주체가 되어 어촌의 관광활동을 개발하는 것은 당목 감상, 비지터센터, 마을기념관, 공동수족관, 어장체험, 해안선 및 주변지형

트립코스, 마을전경 감상, 마을활어회센터 등과 같이 공동의 마을시설이
나 문화공간을 대상으로 내방객의 관광활동을 유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접적인 상품판매나 영리활동이 거의 개재되지 않음.

- 유어선 이용, 먹거리, 숙박, 어업체험 등 직접적인 상행위가 발생하여 영
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농가, 어가, 상업가구 등 개별 가구를 관광활
동의 개발주체로 참여시켜 주민의 직접적인 소득원이 발생되도록 함.
- 어촌의 관광루트는 당일 관광과 체류 관광을 구분함으로써, 내방객이 다
양한 방문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관광루트의 선택폭을 넓혀서 계획하
도록 함.

그림 8-7 어촌 관광루트 구성도



주: 체류관광(1박 이상)의 경우

- 어촌 관광루트는 마을 비지터센터의 안내자가 내방객을 상대로 노물리 마을의 관광정보를 제공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된 루트가 고정되어 확일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
- 제시된 루트를 쫓아 관광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장소체험에 따른 분위기나 이미지의 기승전결이 원만히 이루어져 관광객에게 보다 깊고 풍부한 체험이 되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5. 관광활동 공간 및 시설 조성

- 어촌관광 도입활동 프로그램에 의하여 소요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파악하도록 함.
- 관광시설 프로그램은 기존 정비와 신규 건설로 나누어 작성토록 함.

표 8-10. 노물리 어촌 관광시설의 종류와 규모

주제	도입 활동	소요 공간/시설	시설 규모(면적)	비 고	
				기존정비	신규건설
어촌 체험	풍어제	당집/마을기념실	150m ²		●
	당제				
	唐木(握旨形)	당목주변 성역공간	50m ²		●
	풍물놀이	주차장, 물량장		●	
	방문객센터	주민센터/안내센터	200m ² (2층)		●
	마을기념실 방문	당집/마을기념실	150m ²		●
	민박	민박주택	20호(현재 12호)	●	

(표8-10의 계속)

주제	도입 활동	소요 공간/시설	시설 규모(면적)	비 고	
				기존정비	신규건설
어업 체험	수산물 채취, 연안 어 선조업 참여, 어선구조 및 수리과정 참여, 물 량과정 관찰, 어류유통 관찰, 구매	방파제	210×5m		●
		선양장	100×40m		●
		공동위판장/수족관	165㎡(50평)		●
		공동주차장	3,500㎡	●	
		수산물 공동창고	165㎡(50평)		●
해안선 접하기	바위 낚시, 기암괴석 및 수산물 관찰,채취,	데크	450m(폭 1m)		●
		포인트 데크	8개소		●
해양 레저	해안 트래킹	장거리 트래킹코스 단거리 트래킹코스	2.5km 0.9km		●
경관 감상	포구경관접하기, 전경 감상, 배타고 마을보기, 마을景物 감상, 농업경 관 감상	경관감상로	1.7km	●	
		전망대	25㎡(2층, 1개소)		●
		파고라	20㎡(2개소)		●
		농막	25㎡(2층, 1개소)		●
		소규모 마을공원	130㎡		●
영농 체험	농산물 판매	방문객센터	200㎡(2층)		●
먹거리 숙박	활어회집 먹거리	개인운영 회집	15호(현재 10호)	●	
	회센터 먹거리	마을공동 회센터	200㎡(점포당 6.6㎡, 15호, 통로100㎡)		●

6. 마을경관 조성

- 마을의 여러 지점에서 조망되는 다양한 경관형태: 파노라믹 전경, 층계형 주거경관, 계단식 농업경관, 구릉지 경관, 포구 경관, 바다 경관, 선상에서의 마을전경
- 경관형태별로 경관특성을 밝히고 그 특성을 최대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조망점 설치 등 경관꾸미기 추진

표 8-11. 노물리 마을경관의 조성

경관 요소	조망지점	경관 특성	경관 꾸미기
A. 파노라믹 전경	918번 지방도 남측 진입부	경사진 구릉지에 둘러쌓인 주거경관과 바다경관	-경관조망점 설치
B. 층계형 주거경관	918번 지방도 남측 진입부 (마을근접)	남향 구릉의 경사지에 위치한 계단식의 주거경관(지붕색과 바다색의 대비)	- 경관조망점설치 - 층계형 마을경관의 특성 보전 - 주거지남측 고층 건물 입지 규제
C. 계단식 농업경관	마을 서측 농경지	서고 동저형의 마을지형에서 발달한 계단식 다락논의 주거경관	- 조망지점에 내방객 및 주민 이용 농막 설치
D. 구릉지 경관	마을 뒷산	마을뒷산에서 바라본 구릉지의 위요경관	- 소규모 경관전망대(2층), 파고라 설치
E. 포구경관	마을 뒷산	어촌 특유의 어로작업과 물량 광경이 보이는 포구경관	- 위와 동일 시설
F. 바다경관	마을 뒷산	공동어장의 어로활동과 양식장의 바다경관	- 위와 동일 시설
G. 선상 마을전경	바다위 선상	남향구릉의 층계형주거경관과 포구경관	- 선상 유람코스 개발
H. 手形の 唐木	성황당	왼손이 옥구슬을 쥐고 있는 형국	- 성황당 성역화 - 당목의 전설 안내판 설치
I. 기암괴석	해안선	갖가지 모양과 이름을 가진 바다 바위	- 기암의 유래설명 - 선상 유람코스 개발 - 해변 데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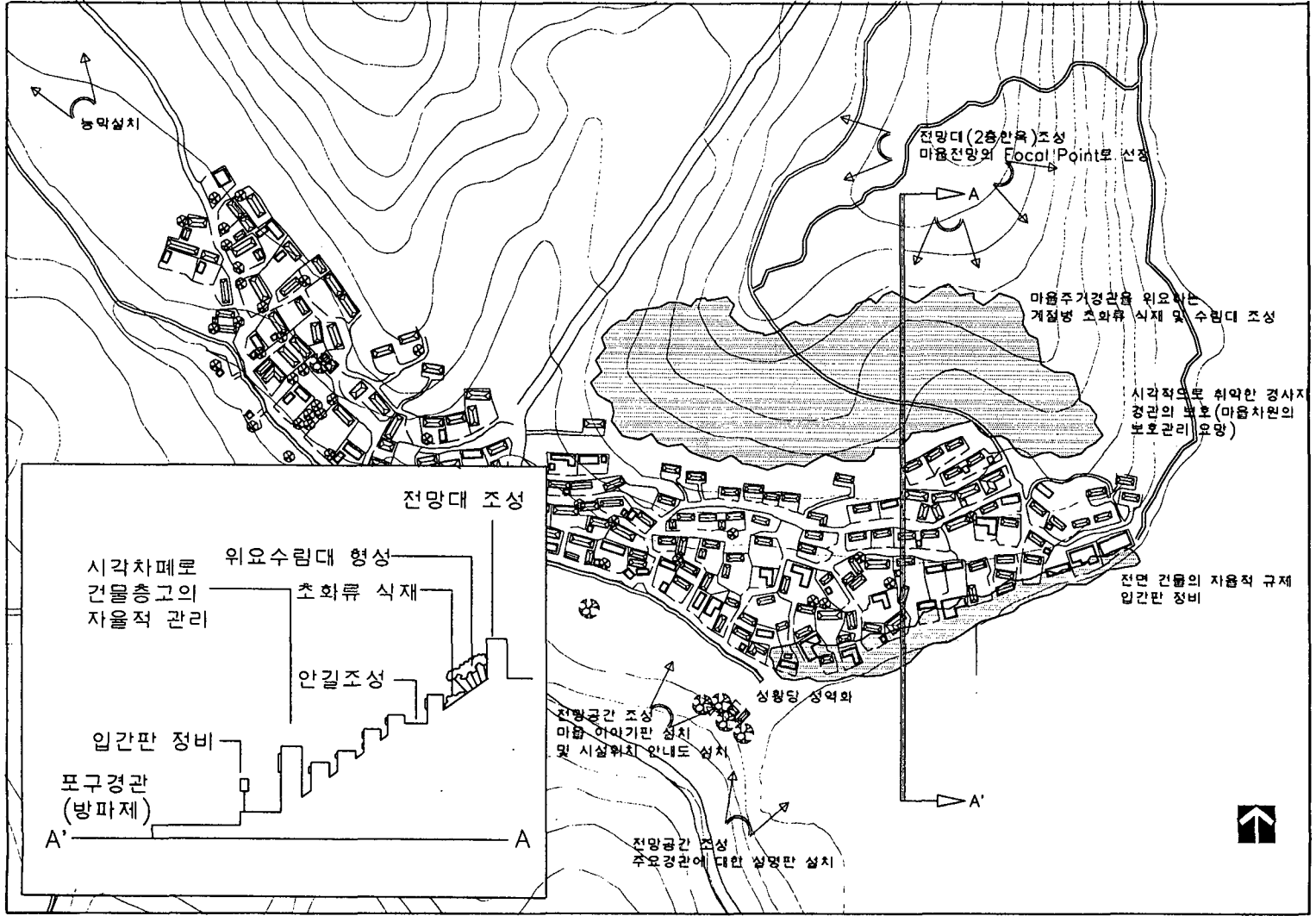


그림 8-9 노를리 경관조성 구성도

제5절 계획의 확정 및 실천

1. 계획의 확정

- 주민대표와 계획 전문가가 수립한 관광개발 계획은 마을 내의 직능별 소그룹 또는 이익단체별로 검토를 마친 후 마을 총회에 부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후 노물리 관광개발계획으로 확정짓도록 함.
- 그러나 마을 자체계획만으로는 계획의 실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실천되도록 함.
 - 주민 총의를 얻은 계획은 군의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반영시키거나 군 종합개발계획 또는 어촌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정부로부터 계획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도록함.
 - 어촌관광개발계획은 해양수산부의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2. 주민조직 및 추진체계 구성

- 전체주민회의(동회)와는 별도로 “노물리 어촌관광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는 기존의 어촌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를 참석시키고, 이 외에도 계획 소그룹에서 활동했던 청소년 학생모임이나 농가 모임, 상가 모임도 참석하여 관광활동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초기에는 관광사업이 어촌계와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어촌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어촌계장이 맡으면서 어촌계 임원도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행정기관은 본 계획을 행정계획으로 적극 수용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하고 영덕군청 및 영덕읍사무소는 관광지 소개를 위한 대외홍보를 담당.

3.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

- 1단계(1996~2000년): 사업계획 수립, 어항 건설, 정주기반 정비, 활어관련 관광시설 도입
- 2단계(2001~2005년): 주거환경 개선, 공동시설 정비, 관광시설 건설
- 2005년 이후 3단계 사업은 본 계획의 추진과는 별도로 주민과 민간주도로 마을인근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확장하고, 이에 따라 신규 주택지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표 8-12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

단위: 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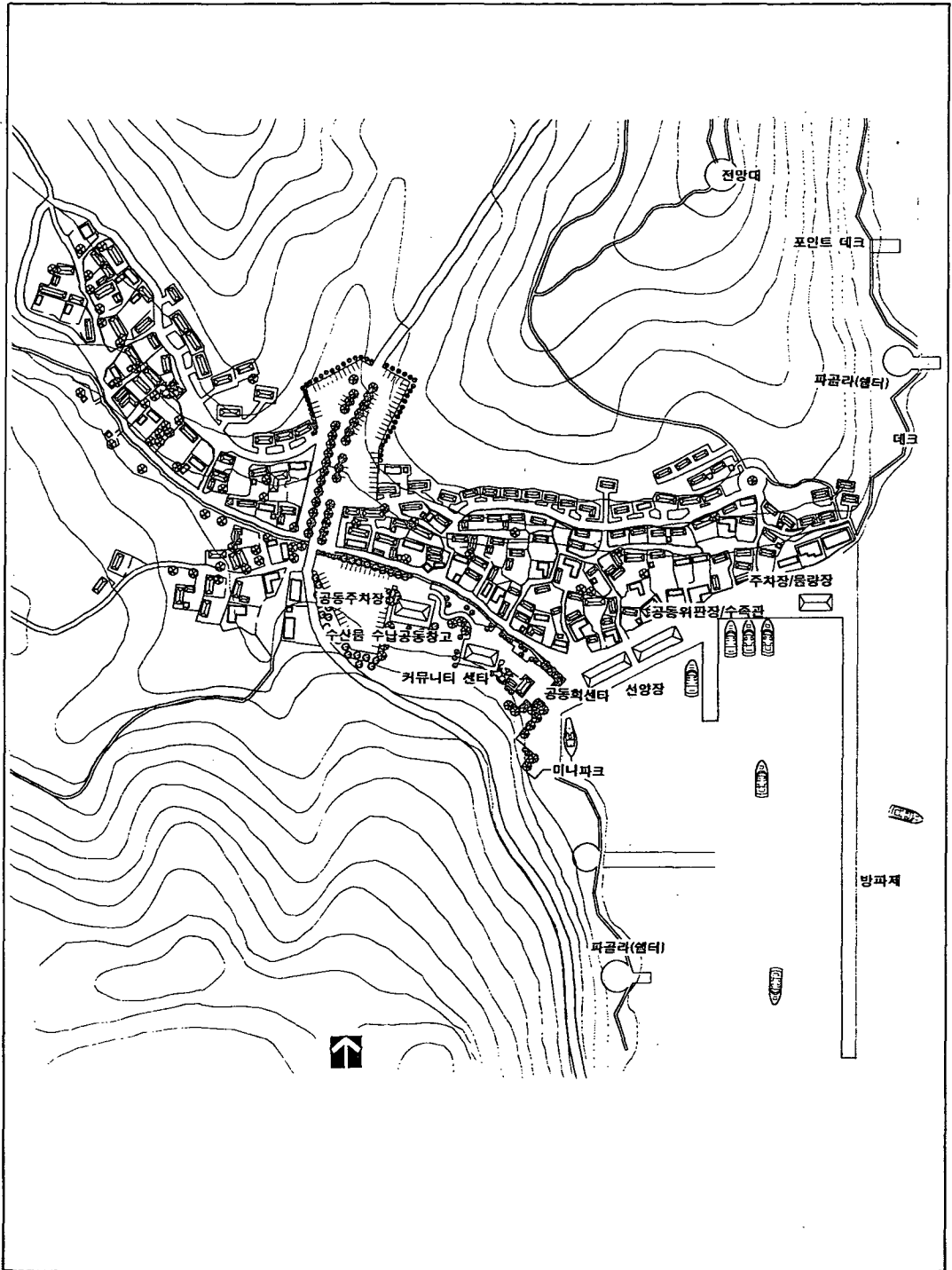
추진단계	추진 사업 및 소요 자금	금액	자금 분담	
			정부지원	주민부담
1단계 (1996~2000)	· 사업계획 수립(어항, 어촌관광계획)	1	100	
	· 어항건설(방파제, 물량장, 선양장 등)	(48)	100	
	· 정주기반정비(항내진입로, 안길, 주차장)	14	100	
	· 활어관련 관광시설도입(회센터,수족관)	5	70	30
2단계 (2001~2005)	· 주거환경개선(주택, 환경처리)	(10)	30	70
	· 공동시설정비(커뮤니티센터,당집)	4	70	30
	· 관광시설건설(레저,경관조망시설,테크,미니파크)	18	100	
합 계		42 (58)		
3단계 2005년 이후	· 마을인근 관광단지 조성 · 신규 확장 주택지 조성			

주 1) 계획 목표년도는 2005년이고, 3단계 사업은 2005년 이후임.

2) 어항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은 어촌관광사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비로 계상.

3) 정부지원 중에는 금융지원 포함

그림 8-10 노물리 어촌관광개발 기본계획도



제 9 장

요약 및 결론

1. 어촌지역의 관광자원 보유 실태

어촌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중요한 것은 백사장, 낚시터, 방풍림과 수목, 어항 관련 시설 및 어업과 관련된 산업시설, 풍어제와 당산제 등 종교행사, 사찰 및 주요 사적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어촌마을 중 자연적 관광자원으로서 백사장과 낚시터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의 비율은 각각 49.1%와 37.3%였고 산업자원인 어항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56.2%, 풍어제와 당산제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의 비율은 각각 32.5%와 36.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이 지니고 있는 관광자원 중 개발의 연관 효과가 큰 자원은 어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풍어제와 당산제는 개발 잠재력은 있지만 보유율에 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정도가 미약하다.

어촌지역에 마을 산, 갯벌, 철새 서식지 등도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어촌관광활동과의 연계성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태관광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들 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어촌지역의 위락적 관광자원으로 중요한 것은 민박과 횃집, 관광유어선 등

이며 이들 자원의 어촌마을 보급률은 각각 50.3%, 54.4%, 42.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호텔과 콘도미니엄과 같은 고급 숙박시설의 보급률은 각각 3.0%와 1.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숙박시설의 선호가 높아 어촌지역에도 고급 숙박시설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어촌지역의 관광 행태

어촌지역 전체 관광객의 70.6%가 여름철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관광은 계절성이 강한 여름 한철 관광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촌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관광활동은 해수욕과 이와 연관된 파도타기나 스쿠버 다이빙 등 해양스포츠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활동은 낚시, 생선회 등 바닷가 음식 맛보기, 자연 경관 감상, 해산물 채취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촌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관광활동인 해수욕은 1년 중 20일 정도의 기간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어 강한 계절성을 보이는 반면 생선회 맛보기, 낚시, 문화 유적지 탐방, 공예품 관람 등 활동은 년 중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지역 관광은 주로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간소득층의 30~50대 연령층이 선호하고 있다. 20~30대의 연령층은 해수욕 등 해양스포츠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나 주로 유명관광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어촌관광활동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3. 어촌지역의 관광산업 실태

어촌지역의 관광산업으로 중요한 것은 민박업소와 관광횃집이다. 전국 어촌의 50.3%가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연간 평균 45일 정도 가동하고 있으며 민박업소의 82.1% 이상이 연간 30일 미만 가동하는 계절성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민박업소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347.9천원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민박업소가 기존의 주택 일부를 활용하여 민박업을 운영하는 영세성과 시설의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박업소의 고용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관광호텔은 대부분이 개인 소유로서 개인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9.7%)의 호텔도 개인에게 임대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호텔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65,350천원이었고 평균 투자액은 53,437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액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본력이 있는 외지인의 유입이 32.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호텔의 고용효과는 민박업소보다는 높았으나 업소당 고용효과는 상시고용 0.6인, 일시고용 0.7인으로 연간 1.3인에 불과했다. 상시노동력에 지급된 연간 노임 총액은 200,448천원으로 1인당 11,136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어촌관광의 만족도

어촌관광에서 민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지만 민박으로부터 관광객이 얻는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박업소의 화장실 등 시설의 불편성과 불결성, 그리고 값에 비해 비싼 숙박요금과 음식물비 등이 불만족스러운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어촌마을 그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즉 어촌마을의 자연경관, 주민의 친절성 등은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면 어촌마을의 주차장 이용, 해수욕장 이용, 공중화장실 이용, 샤워장 이용, 기타 각종 관광 편의시설의 이용이 이용료에 비해서 불편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5. 어촌관광에 대한 미래 수요

도시와 농촌주민의 70.3%가 어촌관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

관광에의 참여율 93.2%보다 낮았다. 향후에도 어촌지역을 관광대상지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76.3%로 높았다. 향후 주 5일 근무제의 확산과 레저의 확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어촌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주말 여행 선호가 높아 어촌관광은 사철관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관광에서 가장 선호하는 관광기간은 2박3일 이었으며 선호하는 숙박시설로는 민박이 40.4%, 야영이 33.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선호도도 22.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어촌관광은 먹고 마시는 관광에서 점차 어촌지역의 생활문화 체험, 조용한 휴식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어촌지역의 관광지 개발 의사와 개발 가능성

전체 조사 대상 어촌의 53.9%가 국공립공원 등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관광지로 개발되었다고 응답한 어촌의 비율은 0.6%에 불과하고 14.8%의 어촌이 현재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관광지로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어촌은 92.3%에 달하고 있다.

어촌지역의 관광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어촌마을 중 84.6%가 개발 가능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어촌의 67.7%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촌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기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는 어촌지역의 부족한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60.4%로 가장 앞서 있으며 마을도로 개발이 46.7%, 마을 환경정비가 41.4%, 어항정비가 37.9%, 해안 정비가 34.3%의 순서로 나타나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이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관광시설 확충과 함께 마을도로, 주택 개축 등 마을 환경정비, 어항정비, 해안선 정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7. 어촌관광지 유형과 개발 방향

어촌관광지를 자원 중심으로 구분할 때, 어항 중심, 해수욕장 중심, 낚시터 중심, 종교·문화활동 중심의 관광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어항이나 해수욕장 및 낚시터, 풍어제 등 개별적인 관광자원을 단독으로 지니고 있는 어촌 관광지에 비해서 위와 같은 자원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어촌 관광지가 관광객의 유치에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항은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촌관광개발에서 어항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어항, 해수욕장, 낚시터 등 어촌이 지니고 있는 기간적인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개발을 추구하되 다른 관광자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특히 사계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어촌지역을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할 때, 어촌지역 관광개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어촌관광의 계절성이다. 현재의 어촌관광은 해수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성이 심하다. 따라서 해수욕과 관련된 관광산업인 민박업이 평균 45일 이내의 영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 연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대다수의 어촌마을이 우수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반면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부 경관이 우수한 어촌지역은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나 도시 대자본에 의해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되었으며 이와 같은 어촌지역의 대중관광지에서의 주민참여나 지역개발의 효과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

서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은 지역 주민의 주도적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재까지의 어촌관광개발은 횃집 중심의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시설 확충에 치중되어 온 결과 어촌관광개발이 어촌지역사회개발과 연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촌의 전통적인 생활문화 및 역사·문화유적지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어촌관광은 먹는 관광 중심에서 어촌의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그리고 다양화된 해양스포츠 및 레저와 연계된 문화관광의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관광시설개발은 어촌지역의 정주환경 정비와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어촌관광개발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어촌지역의 무한한 관광자원은 깨끗한 바다와 수려한 경관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문화다. 관광개발로 인해 이와 같은 자원들이 오염되거나 파괴된다면 개발의 효과는 반감되거나 그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행위나 무분별하게 자원을 남획하거나 고갈시키는 행위가 근절되어 지속적으로 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9. 어촌지역 관광개발 정책 개선 방향

그 동안 어촌관광소득원개발 사업은 횃집, 숙박업소, 휴게소, 관광유람선 지원 등 관광시설을 1개 어촌계에 1개소씩 지원해 왔다. 따라서 분산적으로 지원해온 관광개발이 마을 개발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어촌관광소득원사업은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지원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은 명분상으로 어촌계 공동사업이면서도 실제 소유나 운영은 개인이 담당하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어촌지역 관광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과 정책 운영상의 개선이 요망된다.

첫째, 정책적으로 어촌계에 지원해 오던 숙박업소, 횃집, 휴게소 사업 등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개별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록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업적 성격의 관광시설 사업에 개인의 직접 참여를 보장할 경우 이제까지 지원해 오던 정부의 보조금은 저금리의 장기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시설 건축에 따른 주민부담을 감소시켜주어야 한다.

셋째,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어촌지역의 휴양관광단지를 지방자치단체나 수협 등에서 조성할 때, 시설의 종합관리는 시설 시행자가 담당할 수 있으나 단지 내의 숙박시설, 특산품 판매점, 음식점, 휴게소 등은 어촌 주민들에게 분양 또는 장기 임대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규로 어촌지역에 휴양단지를 조성할 경우 기존의 업소를 포용하도록 하여 기존의 업체와 신규 참여자 간에 갈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재정 보조금은 관광단지 내의 공공시설 건축이나 마을 구조개선, 조경, 관광 상징물의 건립 등 관광하부구조 개선에 투입되도록 재정 투자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관급 이상의 고급 숙박시설을 신규로 신축하는 숙박업에 대한 지원은 금융지원으로 대체할지라도 어촌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민박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정책 기준에 따라 시설개선 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한다.

다섯째, 어촌관광개발이 어촌의 지역사회개발과 연계되도록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취락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을 어촌관광개발사업과 연계시키도록 한다.

여섯째, 마을별로 개별, 분산 투자되어온 어촌관광소득원사업은 개발 투자 효과가 낮으므로 여건이 좋은 어촌지역에 지원을 집중시켜 어촌관광단지 개념으로 발전시키되 인근마을 및 기존의 관광사업 참여자와 연계·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0.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계획 수립

중앙정부는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의 보유와 이용실태에 관한 센서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어촌지역의 관광개발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계획, 연안어장개발사업 등과 마을 단위에서 종합되어 관광개발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장기적인 어촌지역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관내 어촌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촌관광개발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어촌지역의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신겸, “강화 동검도 해안생태공원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권옥진, “남해 노루목 관광어촌마을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용택, “선유도 해상휴양지 개발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향자, “관광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교통연구」, 통권 60호, 교통개발연구원, 1991, pp.33~41.
- 교통부·한국관광공사, 「1994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4.
- 문화체육부, 한국관광공사, 「1995년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5
- 민상기, 김정연, 「어촌지역의 관광사업 실태와 개발 과제」, 연구자료 D1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석희, 「신관광자원론-개발·이용·관리」, 일신사, 1994.
- 박성쾌 외, 「어장·어항·어촌을 통합한 어촌종합개발 모형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 박유정, “오비도 관광어촌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三田育雄, “일본 농촌지역에 있어서 제3섹타 방식에 의한 관광농업,” 「지방화시대의 관광을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전략」, 제2회 관광농업개발 국제 토론회, 한국관광농업학회, 1994. 7, pp.23~49.
- 수협중앙회, 「어촌민박 안내 : 섬따라 파도따라」, 1995.
- 신만숙, “서해안지역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태안해안국

- 립공원, 안면도, 대천지역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신순호, “신안지역의 관광개발 여건과 제도적 개선 방향”, 「2000년대를 향한 신안군 관광개발 심포지움 보고서」,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 연구소, 신안군, 1990.
- _____,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특성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 신한종합연구소, 「관광으로 열어가는 지방 시대」, SRI연구자료 95-9, 1995.
-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지방화시대의 신어촌운동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사례집」, 수경연 연구자료-3, 1995.
- 장기성, “우리나라 해안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어정희, “농촌 휴양촌마을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하품2리 사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임서호, 「관광지역 주민소득 증대방안」, 교통개발연구원, 1989
- 엄서호·김영래·김승현, “주민 관광사업 계획수립의 사례연구-마케팅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관광농업연구」, 제2권 제1호, 한국관광농업학회, 1995. 2, pp.1~19.
- 임주환, “한국의 보전적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 유선무, “농어촌 휴양·관광산업의 개발과 농어민 참여방안”, 「농어촌발전위원회 회 산업진흥소위원회 발표자료집(I)」, 부속자료 4, 농어촌발전위원회, 1994. 7, pp.331~345.
- _____, 「관광농업 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1994.
- _____, 「관광농업의 개발과 경영」, 형설출판사, 1995.

- _____, “관광농촌마을 조성방법,” 「지방화시대의 관광을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전략」, 제2회 관광농업개발 국제 토론회, 한국관광농업학회, 1994. 7, pp.85~188.
- 이재천, 「관광어촌의 형성과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연택,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 관광도 상품이다,” 「지방화시대의 관광을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전략」, 제2회 관광농업개발 국제 토론회, 한국관광농업학회, 1994. 7, pp.1~22.
- 이주희·이미혜, 「관광·레저의질 수용대책-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 이장춘, 「관광계획·개발-관광발전계획의 이론과 실제」, 대왕사
- 이훈구, 「사회심리학」, 법문사, 1995
- 장성수, “농어촌 관광·휴양산업의 활성화 방안-제주도를 중심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 산업진흥소위원회 발표자료집(I)」, 부속자료 4, 농어촌발전위원회, pp.347~365.
- 정익준, 「최신 관광사업론」, 형설출판사, 1994.
- 최진욱·김규수, “농어촌 휴양단지 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1994.
- 태안군, 「제1차 군건설 종합계획(1992~2001)」, 1991.
- 한국관광공사, 「외국 국민관광 정책과 제도」, 1986.
- _____, 「향토특산물 실태조사」, 1987.
- _____, 「전국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보고서)」, 1989.
- _____, 「해안관광자원조사연구」, 1993.
- _____, 「국민관광지 개발사례 조사」, 1993.
- _____, 「1994년도 국민 여행실태 조사」, 1994.

- 한국어항협회, 「어항종합개발계획 연구보고서」, 수산청, 1995.
- 日本觀光協會, 「觀光計劃の手法」, 1976
- 山岐光博·小山善彦·大島順子, 「グリーン・ツーリズム」, 家の光協會, 1993.
- Ashworth, G.,J., Planning for Sustainable Tourism-A Review Article, *TPR*, 63(3), 1992
- Chow, Willard T., Integrating Tourism with Rural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7-4, 1980
- Cointat, Michel, Rural Tourism,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6-1, 1991
- Cohen, Erick., Alternative Tourism-A Critique,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2-2, 1987
- Cooper, C. P. and Ozdil, I., From Mass to Responsible Tourism: the Turkish Experience, *Tourism Management*, 13-4, 1992
- Dernoi, L. A., About Rural & Farm Tourism,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6-1, 1991
- , Prospects of Rural Tourism: Needs and Opportunitie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6-1, 1991
- Gilbert, David., Rural Tourism and Marketing: Synthesis and New Ways of Working, *Tourism Management*, 10-1, 1989
- Gunn, Clare A., *Tourism Planning*, (New York: Taylor & Francis), 1988.
- Hill, Brial J., The Future of Rural Tourism, *Park & Recreation*, September 1993
- Hilgard, Ernest R., Atkinson, Rita L. and Atkinson, Richard C., *Introduction to Psychology*, Seventh Edition,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New York, 1979
- Mill, Robert Christie., *Tourism*, 손해식, 정익준, 이방식 편역(현대관광론), 범한서적주식회사, 서울. 1993

- Miller Jr., G. Tyler, *Living in the Environment: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Science*, Fourth Editi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elmont, 1985
- Murphy, Peter., *Community Driven Tourism Planning*, *Tourism management*, 9-2, 1988
- Owen, R. Elwyn; Witt, Stephen F. and Gammon, Susa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n Wales*, *Tourism management*, 14-6, 1993
- Tosi, Henry L. and Carroll, Stephen J., *Management*, 2nd Edition, John Wiley & Sons, New York, 1982
- Wight, Pamela., *Sustainable Ecotourism: Balancing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Goals within an Ethical Framework*, *Tourism Recreation Research*, 20-1, 1995

1. 사례지역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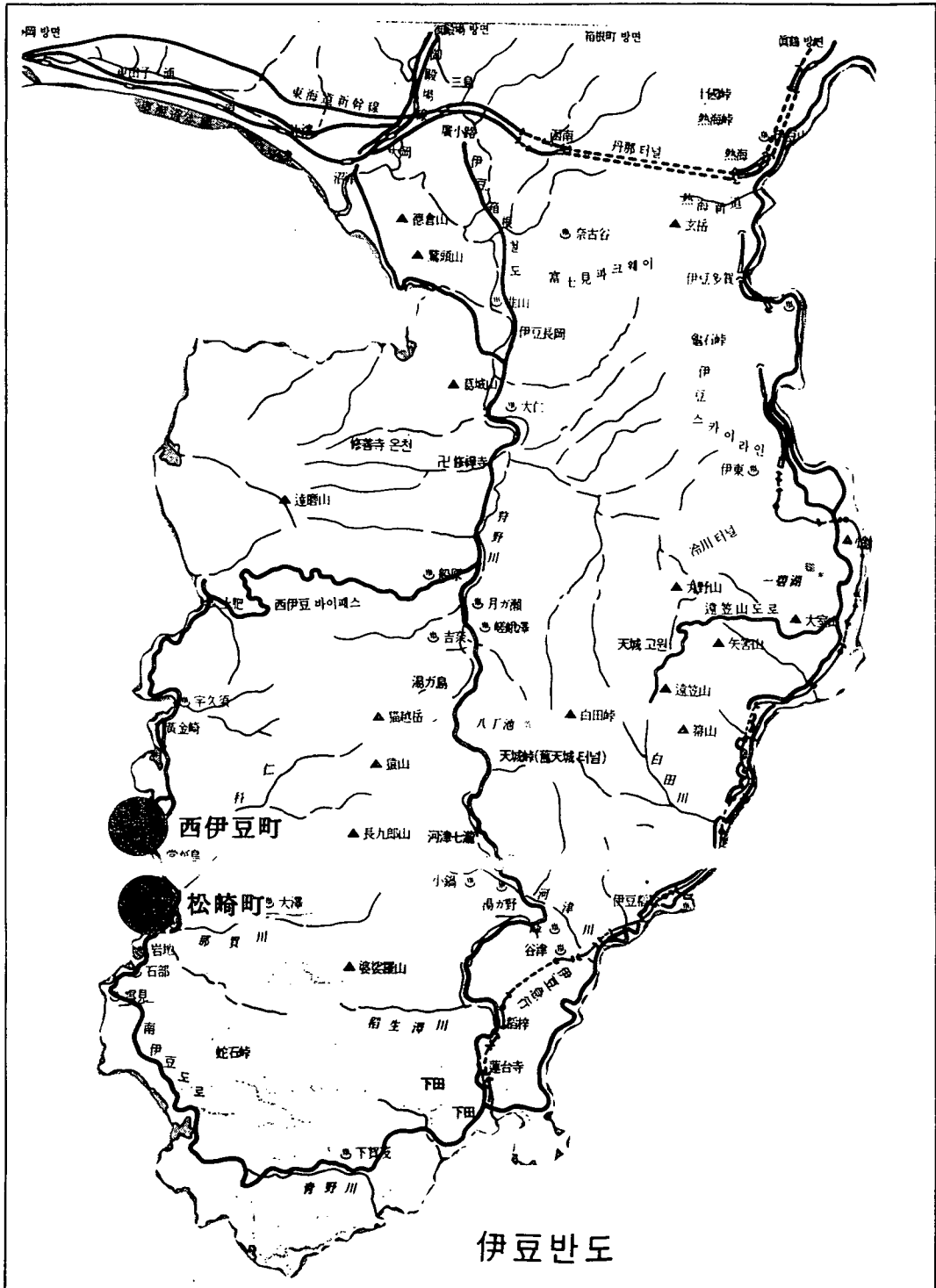
가. 입지적 여건

본 연구의 어촌관광개발 사례는 日本 靜岡縣 賀茂郡 松崎町 지역과 松崎町내의 雲見, 岩地, 石部の 3개 漁港 및 漁村集落, 그리고 靜岡縣 賀茂郡 西伊豆町 지역과 西伊豆町내의 仁科, 田子の 2개 漁港 및 漁村集落을 대상으로 했다. 이 지역은 일본 남동해안의 중앙부인 伊豆半島 서해안의 남쪽에 위치하면서 松崎町과 西伊豆町 두곳은 서로 인접해 있다.

일본의 靜岡縣 지역은 일본 동경과 인접하면서 과거부터 온천과 아름다운 바다풍광 및 연안부 자연경관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역이다. 인근에는 온천도시로 유명한 伊東市, 三島市 등이 있고 靜岡縣 서남부의 수려한 바다 자연경관이 이름난 곳이다.

교통은 동경에서 출발하면 인근 三島市나 伊東市까지 JR線으로 2시간 정도 걸려 이동후, 다시 東海버스 松崎방면이나 堂ヶ島방면을 이용하여 1시간 40분 정도 소요하여 도달할 수 있다.

부록 그림 1-1 사레지역 위치도



인근 지역의 주요 관광지 분포 및 접근로 상황

대상지 위치도

- 일본 지도에서의 위치 표시

인근의 유명한 온천도시 분포와 주요 관광루트

- 정강현 지도에서의 주요 관광지 및 대상지 위치 표시

나. 인구 및 산업기반

松崎町은 1996년 현재 총인구수가 9,254명, 가구수는 3,016호로서 호당 평균 3.1명 꼴로서 행정구역 면적은 85.22km²이다. 그리고 西伊豆町은 총인구수 및 가구수가 8,718명에 2,931호로서 호당 평균 2.97명이고, 구역 면적은 65.60km²를 차지한다.

주요 산업활동을 개괄해 보면, 松崎町의 산업별 취업자비는 1차 산업이 12.5%, 2차 산업 24.7%, 3차 산업 62.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총농가수는 846호로서 전체 가구수의 28.1%를 차지하여 농업비중이 다소 높은 지역임을 알수 있고, 어업생산량은 총 58톤을 나타내고 있다. 西伊豆町의 경우, 산업별 취업자 비율은 1차 산업 13.7%, 2차 산업 27.4%, 3차 산업 58.9%로 나타난다. 총농가수는 208호로서 西伊豆町 전체 가구수중 7.1%를 차지하고, 어업생산에 있어서는 선어류 4,936톤, 패류 20.1톤, 해초류 58.6톤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공통적인 것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관광서비스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농어업이 유지되는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이다.

생활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松崎町의 상수도 보급률은 100%, 西伊豆町의 경우는 99.3%로서 거의 완벽한 정수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1-1 松崎町, 西伊豆町の 인구 및 산업현황

구 분	松崎町	西伊豆町
인 구 면 적	▷ 총인구 및 가구: 9,254명, 3,016호 ▷ 면적: 85.22km ²	▷ 총인구 및 가구: 8,718인, 2,931호 ▷ 면적: 65.60km ²
산 업	▷ 산업별 취업자비: 1차산업 12.5%, 2차산업 24.7%, 3차산업 62.8% ▷ 농가수(호): 총농가수 846 ▷ 어업생산: 총 58톤	▷ 산업별 취업자비: 1차산업 13.7%, 2차산업 27.4%, 3차산업 58.9% ▷ 농가수(호): 총농가수 208 ▷ 어업생산: 선어류 4,936톤, 패류 20.1톤, 해초류 58.6톤
생활기반	▷ 상수도 보급율: 100%	▷ 상수도 보급율: 99.3%

다. 관광시설 및 관광객 규모

관광객을 수용하는 호텔, 여관, 민숙, 국민숙사 등 숙박시설을 기준으로 관광시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松崎町의 숙박시설 및 수용인원을 보면, 여관 19개소(983명 수용), 민숙 185개소(4,987명 수용), 국민숙사 1개소(155명 수용), 유스호스텔 1개소(80명 수용), 맨션 2개소(62명 수용), 임대별장 3개소(62명 수용), 호텔 1개소 등이다. 아울러 松崎町의 연간 관광시설 이용자수는 37만명 정도이고 이중 숙박자수 47만명, 계절적인 행사나 축제등 각종 행사 참여자는 12만명 정도이다.

西伊豆町의 경우 숙박시설 및 수용인원을 보면, 여관이 25개소(1,519명 수용), 민숙 119개소(1,733명 수용), 임대별장 1개소(100명 수용), 호텔 4개소 등이다. 西伊豆町의 연간 관광객수 32만명으로 이중 관광시설 이용자수는 100만명, 숙박자수 45만명 정도이다.

두 지역에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숙박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숙이고, 그 다음이 여관, 임대별장 등이고 호텔의 비중은 다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松崎町과 西伊豆町의 관광객 유치시설에 있어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라면, 전자의 지역이 민숙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

는 숙박시설이 다양하게 발달한 반면, 후자의 지역은 숙박시설의 종류가 전자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고 호텔이 비교적 많아 다소 고급 숙박시설이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부록 표 1-2 松崎町, 西伊豆町の 숙박시설 및 이용객 현황

구 분	松崎町	西伊豆町
숙박시설	▷ 숙박시설(수용인원): 여관 19개소(983), 민숙 185개소(4,987), 국민숙사 1개소(155), 유스호스텔 1개소(80), 맨션 2개소(62), 임대별장 3개소(62), 호텔 1개소	▷ 숙박시설(수용인원): 여관 25개소(1,519), 민숙 119개소(1,733), 임대별장 1개소(100), 호텔 4개소
관광객수	▷ 관광시설 이용자수 37만명, 숙박자수 47만명, 계절행락/행사 참여자 12만명	▷ 연관광객수 32만명, 관광시설 이용자수 100만명, 숙박자수 45만명

라. 어항취락의 어업생산 및 숙박시설

靜岡縣 松崎町과 西伊豆町에는 岩地, 石部, 雲見, 仁科, 田子 등 모두 5개 지구의 어항취락이 있는데, 이 중 앞의 3개 어항취락은 松崎町에 속하고 뒤의 나머지 2개는 西伊豆町에 속한다. 이들 어항취락은 모두 수산업에 종사하지만 한편에서는 봄이나 여름철에 외지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래서 마을 모두 여관이나 민숙을 갖추고 있다.

松崎町의 岩地和 雲見, 그리고 西伊豆町의 仁科와 田子は 어항집락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어항과 그 주변의 주민 생활기반 및 관광여건을 이미 정비한 상태이다.

부록 표 1-3 松崎町과 西伊豆町の 어항취락 현황

地區	岩 地	石 部	雲 見	仁 科	田 子
인구	인구 379인	인구 308인	인구 526인	인구 4,583	인구 3,718
어업 생산	17톤(2,500만엔) 어선 44척	15톤(2,100만엔) 어선 27척	26톤(3,900만엔) 어선 52척	선어류 4,646톤, 패류 5.9톤, 해초류 14.3톤	선어류 290톤, 패류 14.2톤, 해초류 44.3톤
숙박	民宿 45	旅館1, 民宿 36	旅館3, 民宿 81	여관 6 민숙 5	여관 12 민숙 7

2. 어촌관광을 포함한 지역관광개발의 전략 비교

가. 기본전략

관광매력 요인으로 수려한 바다경관과 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松崎町과 西伊豆町の 관광개발 전략의 차이를 현재 개발된 관광객 유치시설(관광단지, 관광마을, 관광어촌 등), 숙박시설, 주민의 참여, 행정의 의도 등을 기준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松崎町의 경우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통해 주민 주체의 관광어촌 만들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를 위해 행정과 주민이 합심하여 어촌의 경관규제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창출과 바다와 어촌경관의 이미지를 관광상품화하여 관광매력물로 부각시키고 있다.

대규모 위략적인 관광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작지만 단아하고 매력적인 농어촌의 마을관광을 네트워크(관광루트)로 구성하여 지역 전체가 관광객을 분산유치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이 운영하는 민박이나 여관으로의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여 주민에게 직접 소득이 되는

지역활성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西伊豆町の 경우는 松崎町과는 다소 다른 관광개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바다 경승지인 堂ヶ島를 중심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시설형 관광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堂ヶ島 바다경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 주변에 관광호텔이나 관광위락단지가 조성된다. 따라서 관광상품화는 堂ヶ島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주변 농어촌마을 단위의 관광루트 형성은 노천은천 마을들의 루트이외에는 松崎町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西伊豆町은 관광개발에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소규모 관광지보다는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대규모 관광숙박지로서 호텔이나 콘도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부록 표 1-4 松崎町과 西伊豆町の 관광개발의 전략 비교

松崎町의 개발전략	西伊豆町의 개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통한 주민 주체의 관광어촌 만들기 ○ 경관규제를 통한 지역정체성 창출과 지역 이미지의 관광상품화 ○ 소규모 농어촌 마을관광 네트워크 구성 ○ 개인운영 민박이나 여관체류를 유도하여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지역활성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 경승지를 중심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시설형 관광단지 조성 ○ 전국적으로 유명한 바다경관 적극적 홍보와 이것의 관광상품화 ○ 관광단지와 주변 농어촌 관광지의 연계 ○ 관광숙박지로서 호텔이나 콘도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

나. 어촌지역 관광개발의 세부 실행방안

松崎町과 西伊豆町の 관광개발의 기본전략에 따라 세부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관광개발의 목표) 松崎町의 관광개발의 목표는 첫째, 꽃과 로망스의 고향 만들기,

둘째,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셋째, 소규모 마을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및 문화경관 정비, 다섯째,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西伊豆町の 관광개발의 목표는 첫째, 志・元・活・和氣의 마을만들기, 둘째, 기업인의 元氣를 이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둘째, 바다 자연경관형 景勝관광지 창출, 셋째, 관광매력으로서 특색있는 위락관광시설의 조성이다.

(관광 목표달성 방법) 松崎町の 경우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변, 마을 입구, 관광조망점에 화원의 조성을 통해 지역전체의 통합이미지(CI)를 구상하고 바다와 문화의 낭만성을 부각하며, 지역(町)차원의 관광, 환경, 산업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촌관광, 어항정비, 어촌집락의 환경정비 이 세 가지를 상호 연계하여 총체적인 어촌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어촌 및 어항의 정비는 관광지의 심미적 인상을 제고하기 위해 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松崎町에서는 무엇보다 소규모 역사문화 관광지와 바다 거점관광지를 관광루트로 연계하고 있다.

西伊豆町の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堂が島 경승지를 focal point로 규모성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기업가의 관광개발 의욕을 적극 유인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단지화된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다. 어촌관광의 경우는 松崎町와 마찬가지로 어촌관광과 어항정비, 집락환경정비를 연계하며 동시에 인근 景勝 관광단지와 어촌관광지를 연계하여 행락객을 어촌으로 유인한다. 西伊豆町の 경우에도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개발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민참여 방법) 松崎町에서는 町の 종합관광개발 계획의 작성에 민관이 협동으로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무엇보다 松崎町의 관광활동을 진흥하고 관광시설의 운영관리를 담하는 松崎町 振興公社를 설립해 놓고 있다.

西伊豆町에서는 民(기업)·官의 협동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측에서는 堂ヶ島 관광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록 표 1-5 松崎町과 西伊豆町の 세부 관광개발 추진방안 비교(1)

항 목	松崎町	西伊豆町
관광어촌의 개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과 로망스의 고향 만들기 •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 소규모 마을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 쾌적한 생활환경 및 문화경관 정비 •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志·元·活·和氣의 마을만들기 • 기업인의 元氣를 이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 바다 자연경관형 景勝관광지 창출 • 관광매력으로서 특색있는 관광시설의 조성
목표 달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마을입구, 관광조망점에 화원의 조성을 통한 지역전체 통합이미지(CI)의 구상과 바다와 문화의 낭만성 부각 • 지역(町)차원의 관광, 환경, 산업 등에 관한 종합계획 작성 • 어촌관광과 어항정비, 집락환경정비의 연계(경관을 우선한 환경정비) • 소규모 역사문화 관광지와 바다 거점 관광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유명한 堂ヶ島 경승지를 focal point로 규모성 있는 관광단지의 조성 • 기업가의 의욕과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 어촌관광과 어항정비, 집락환경정비의 연계 • 경승관광단지와 주변 어촌관광지의 연계 • 지역차원의 종합개발계획 작성
주민참여와 지역활성화에의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町종합계획 작성에 민관협동 참여 • 振興公社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기업)·官의 협동개발 추진 • 堂ヶ島 관광운영협의회 설치

(관광루트 개발전략) 松崎町의 경우는 마을단위 소규모 문화관광을 유도하기 때문에 관광마을간 연계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광표식, 교통표지, 안내책자, 여행상품의 코스 이용, 여행자 방문센터(visitor center) 등 다양한 관광루트 정보안내를 하고 있다. 도로 네트워크와 관광코스의 결합에 의해 관광권역을 구성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관광목적지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차량접근로와 보행산책로(바다와 먼한 마을과 마을사이의 등산로나 보행로)를 이원화하여 접근방식을 여행자가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西伊豆町에서는 신규 조성된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거점지(관광단지) 체

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지와 주변 농어촌에 분산된 마을관광(통과형)이 미약하게 연계되고 있다. 주요 관광목적지(堂が島)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환경정비가 추진되고, 바다경승지와 콘도나 호텔의 연계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타관광부문과의 연계) 松崎町에서는 온천휴양(거점지 체류관광)과 마을관광 및 바다여가활동(통과형 관광)이 연계되고 있다. 그리고 西伊豆町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천휴양, 바다경관 감상, 관광시설 체험이 동시에 연계되고 있다.

(지역부존자원의 관광자원화) 松崎町에서는 최근세의 생활문화유산을 특색있게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근대초기에 지어진 건축의 양식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라든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상점, 학교, 공공청사 등을 보전하여 생활용구와 함께 전시한 것 등이다. 이에 반해 西伊豆町에서는 생활문화 유산의 관광상품화가 다소 뒤져 있는 상태이고 대신 堂ヶ島 바다경승지나 바다경관 정비를 통한 어촌경관을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지역이미지 창출 전략) 松崎町의 경우 지역이미지를 제고 전략을 위해 채택한 방법은 역사·문화적 정체성의 확보 (landscape identity program)에 초점을 두고서, 어촌마을의 경관규제로서 개인주택 및 공공시설에 대한 color control(즉 쪽빛 바다와 대비되는 오렌지색 주택지붕), 이미지 프로그램으로서 미술관(長八美術館) 행사·전통 건축양식 순례·바다축제의 연계를 들 수 있다. 한편 西伊豆町에서는 활기찬 지역 이미지 부각에 초점을 두고서, 온천의 고향이라는 이미지 부각(露天風呂 바다변 야외 온천)과 새로이 개발된 관광호텔 및 관광시설의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숙박시설 이용 행태) 松崎町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마을단위 여관이나 민숙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西伊豆町에서는 기업형 호텔이나 콘도 숙박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기존 어촌민박이나 여관의 체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록 표 1-6 松崎町과 西伊豆町の 세부 관광개발 추진방안 비교(2)

구 분	松崎町	西伊豆町
관광시설 및 관광루트 개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 소규모 문화관광의 유도 • 관광마을간 연계전략: 관광표식, 안내책자, 여행상품의 코스 이용 • 도로 네트워크와 관광코스의 결합에 의한 관광권역의 구성 • 관광목적지간에 차량접근로와 보행산책로의 이원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시설 중심의 거점지(관광단지) 체류형 관광 • 거점지와 주변 농어촌에 분산된 마을관광(통과형)과 연계 • 주요 관광목적지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의 정비 • 바다경승지와 콘도/호텔의 연결
인접관광지 및 타관광부문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휴양(거점지 체류관광)과 마을관광 및 바다(통과형 관광)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휴양, 바다경관 감상, 관광시설체협의 연계 전략
지역부존자원의 관광자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초기 건축양식의 관광상품화 • 근대초기 상점, 학교, 청사 등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堂ヶ島 바다경승지의 관광상품화 • 바다경관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
지역이미지 창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적 정체성의 확보 (landscape identity program) • 어촌마을의 경관규제로서 개인주택 및 공공시설의 color control: 쪽빛 바다와 대비되는 오렌지색 • 이미지 프로그램으로서 미술관 행사, 전통 건축양식, 바다축제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기찬 지역 이미지 부각 • 온천의 고향이라는 이미지 부각(露天風呂 바다변 야외온천)과 이것의 적극적인 홍보
숙박지 이용자 행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운영하는 마을단위 여관이나 민숙 체류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형 호텔이나 콘도 숙박으로 기존 어촌민박이나 여관 체류 감소
어촌관광지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체험과 연계된 역사문화관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경승지와 연계된 시설형 관광지

4. 어촌관광과 연계된 어항·집락환경정비사업

가. 사업추진 사례지구

- 靜岡縣 松崎町 岩地地區, 雲見地區 漁港集落環境整備事業
- 靜岡縣 西伊豆町 仁科地區, 田子地區 漁港集落環境整備事業

나. 사업의 주요 내용

- 생활환경정비 내용
 - 바닥포장색과 재질의 새로운 디자인에 의한 집락도로정비
 - 집락배수처리시설
 - 방재안전시설
 -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녹지광장(다목적 광장)시설, 아동공원 정비, 기념조형물 설치
 - 용지정비
 - 해안 전망대 및 경관조망지점 정비(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파고라, 휴식시설 설치)
 - 해안변이나 등대주변 산보로 정비: 해안전망대, 경관조망점, 등대주변의 관광코스화
 - 어항과 마을사이에 주민과 관광객이 융합되도록 보행자천국을 위한 이벤트광장 설치
- 어항 및 수산업 관련 시설 정비
 - 바다경관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파제 정비
 - 어협사무소, 어협직매소, 주차장, 휴게실 등 재정비
 - 물량장, 선박수리소의 정비와 이것의 관광코스화

- 어항인접 해안도로 정비와 이것의 관광도로화
- 바다, 임해림의 자연경관과 주변 어촌의 문화경관의 심미성을 해치지 않는 해안정비
-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다. 사업의 특성

○ 어업생산 관련 어항시설 정비와 인접 촌락의 생활관련 환경기반 정비를 일체적으로 추진하되, 이를 어촌관광활동과 연계되도록 공간정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어항을 단순히 어업종사자들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능공간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바다의 자연경관과 조화된 어항경관 자체를 관광매력물로서 상품화하고 있다.

○ 어촌마을에 대한 생활환경정비는 주민의 일상편의를 위한 시설정비인 동시에 바다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의 마련이라는 다중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마을 내부도로, 마을공원, 해안도로,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할 때는 관광지로서의 분위기를 촉발하도록 설계·시공하고 있는 것이다.

○ 방문객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어항·어촌의 정비사업 추진시에 마을경관(미관)의 정비를 추진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경관규제(color control)의 실시(松崎町)로 지역 통합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여관, 민박)의 개보수에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록 2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가구 조사파일

1. 가구별 인구 현황

가구 번호	生年 (연령)	가구 원수	가구형태	출타자수	출타자	학생수	기타
1	1940(57)	3	처+매1(영덕)	2(결혼)	자녀		
2	1942(55)	3	모친+부부	3	자녀		
3	1920(77)	1	본인	1	자		단신
4	1924(73)	3	부부+손자1	2(군대)	자	1(고등)	
5	1931(66)	1	본인	2(결혼)	자녀		단신
6	1933(64)	2	부부	3(결혼2)	자녀		
7	1929(69)	2	부부	3(결혼)	자녀		
8	1928(68)	1	본인				단신
9	1955(42)	6	부부+자녀3			3(초등)	
10	1925(72)						단신,생보자
11	1919(78)	2	본인+며느리	2	자1, 손자1		
12	1924(73)	2	본인+손자			1(고등)	손자 생보자
13	1935(62)	2	부부	3(결혼2)			
14	1921(76)	1	본인	3(결혼)	자식부자		
15	1934(63)	2	부부	2(결혼1)			
16	1941(56)	5	부부+자녀3			3 (초1,중1,고1)	
17	1937(60)	3	부부+자녀1	4	자녀		
18	1936(61)	2	부부	3	자2, 녀1		
19	1927(70)	1	본인				단신,생보자
20	1917(80)	1	본인	2(결혼)	자2		단신
21	1920(77)	2	부부	5(결혼)	자3, 녀2		
22	1934(63)	1	본인	3(결혼)	자2(1명불구), 녀1		단신 생보대상자
23	1940(57)	3	모친+부부				
24	1938(59)	1	본인	3(결혼)	자녀		단신
25	1925(72)	2	부부	2(결혼)	자녀		
26	1930(67)	2	부부	3(결혼)	자2, 녀1		상의 용사
27	1964(33)	3	부인+자2	1	본인		
28	1917(80)	1	본인	2(결혼)	자1, 녀1		단신 생보대상자

가구 번호	生年 (연령)	가구 원수	가구형태	출타자수	출타자	학생수 (학교)	기타
29	1954(43)	3	부부+자1	1	녀1	2 (고1, 대1)	
30	1950(47)	5	모친+부부+녀2	1	자1	3 (고2, 대1)	
31	1920(77)	3	부부+손자1	4(결혼)	자2, 녀2	1 (초등1)	
32	1939(58)	5	모친3+부부	3(결혼)	자2, 녀1		
33	1939(58)	3	부부+자1(제대후 머뭍)				
34	1928(69)	2	부부	3(결혼)	자3		
35	1951(46)	3	부부+자1(입대준 비)	1(결혼)	녀1		
36	1935(62)	3	모친+본인+자1(샷 시)	1(결혼)	자1		
37	1940(57)	2	부부	3(결혼2)	자2, 녀1		
38	1933(64)	2	부부	3(결혼)	자2, 녀1		
39	1920(77)	3	부부+형수	1	자식		생보자
40	1925(72)	2	본인+친척아1	2	자2, 녀1	1 (초등)	친척 생보자
41	1927(70)	1	본인	3	자2, 녀1		단신
42	1921(76)	2	부부	3(결혼1)	자2, 녀1		
43	1946(51)	4	본인+자3			3 (고2, 중1)	
44	1911(86)	2	부부	4(결혼)	자3, 녀1		
45	1933(64)	3	부부+손자1	3(결혼2)	자2, 녀1	1 (초등)	
46	1953(44)	6	부부+자4			4 (고2, 중2)	
47	1915(82)	2	부부				생보자
48	1943(54)	3	부부+자1	2(미혼)	자2	1 (고등)	
49	1943(54)	2	본인+녀1	2(미혼)	자2		
50	1947(50)	2	부부	2(학생)	자2	2 (고1, 대1)	
51	1937(60)	2	부부	3(미혼)	자2, 녀1		
52	1923(74)	1	본인	2(결혼)	자2		단신 생보자
53	1940(57)	2	본인+녀1(언어장 애)	3	자2, 녀1(생보 자)		딸, 생보 자
54	1938(59)	4	모+부부+아들1				
55	1937(60)	2	부부	3(결혼)	자2, 녀1		
56	1922(75)	2	부부	4(결혼)	자3, 녀1		

가구 번호	生年 (연령)	가구원수	가구형태	출타자수	출타자	학생수	기타
57	1943(46)	3	부부+녀1	2(학생)	자1, 녀1	3 (중1,고1,대1)	
58	1915(83)	2	부부	3(결혼)	자1, 녀2		
59	1971(26)	3	부부+녀1				
60	1924(73)	1	본인	1(결혼)	자1		단신
61	1941(56)	4	부부+녀2	1(결혼)	녀1	2 (중1, 고1)	
62	1925(72)	1	본인	1(결혼)	녀1		단신
63	1932(65)	2	본인+자1	6(결혼5)	부1, 녀5		남편출타
64	1933(64)	2	부부	3(결혼2)	자1, 녀2		생보자
65	1945(52)	1	본인	4(결혼3)	자3, 녀1		생보자
66	1914(83)	1	본인				단신 생보자
67	1927(70)	6	부부+자1+손자3	3(결혼)	자3	3 (초등)	
68	1930(67)	3	부부+손자1	3(결혼1)	자3	1 (고등)	
69	1915(82)	1	본인	3(결혼)	자2, 녀1		단신
70	1932(65)	3	모친+부부	1(결혼)	자1		
71	1932(65)	1	본인	2(결혼)	자1, 녀1		단신
72	1929(68)	1	본인	6(결혼)	자1, 녀5		단신
73	1925(72)	1	본인	4(결혼)	자2, 녀2		단신
74	1929(68)	2	부부	3(결혼)	자2, 녀1		
75	1942(55)	3	모친+부부	3(미혼)	자1, 녀2		
76	1918(79)	1	본인	3(결혼)	자2, 녀1		단신
77	1947(50)	2	부부	2(미혼)	자2		
78	1933(64)	1	본인	1(결혼)	자1		단신 원호자
79	1927(70)	2	부부	4(결혼)	자2, 녀2		
80	1917(80)	2	부부	3(결혼)	자2, 녀1		
81	1923(73)	1	본인	4(결혼)	자2, 녀2		단신
82	1943(54)	1	본인	3(결혼)	자2, 녀1		단신
83	1915(82)	1	본인	5(결혼)	자2, 녀3		단신
84	1910(87)	1	본인	3(결혼)	자1, 녀2		단신
85	1922(75)	2	부부	4(결혼)	자3, 녀1		
86	1926(71)	1	본인	3(결혼)	자2, 녀1		단신
87	1905(92)	2	큰어머니+본인	3(결혼)	자1, 녀2		

가구 번호	生年 (연령)	가구원 수	가구형태	출타자수	출타자	학생수	기타
88	1948(49)	4	모친+부부+녀1	2(결혼1, 군입대1)	자1, 녀1		
89	1939(58)	2	부부	3(결혼2)	자3		
90	1949(48)	5	모친+부부+자1 ,녀1			2(중1, 고1)	
91	1920(77)	2	본인+자1	1(결혼)	자1		생보자
92	1917(87)	1	본인	4(결혼)	자2, 녀2		단신
93	1948(49)	5	모친+부부+자1 ,녀1	1(미혼)	자1	2(고등)	
94	1953(44)	3	본인+자2	1	부1(포항)	2(고등)	
95	1928(69)	2	부부	1(결혼)	자1		
96	1947(50)	2	부부	3(미혼)	자3		
97	1939(58)	2	부부	3(결혼2)	자2, 녀1		생보자
98	1938(59)	2	부부	4(결혼3)	자2, 녀2		
99	1952(45)		부부+자2,녀1				
100	1913(84)	3	본인+자1+며느 리1	2(결혼1)	자2		생보자 아들,며느리 정신질환
101	1917(80)	1	본인				단신 생보자
102	1951(46)	6	모친+부부(처 해녀)+녀3			3(중1, 고2)	
103	1939(58)	4	부부+자1,녀1	1(결혼)	자1		
104	1958(39)	4	부부+자1,녀1			1(초등)	
105	1935(62)	2	본인+자1	2(결혼)	녀2		
106	1947(50)	6	부부+자2+손자	1(학생)	녀1	1(고등)	
107	1914(83)	1	단신	4(결혼)	자3, 녀1		단신
108	1942(55)	1	단신	4(결혼1)	자2, 녀2		단신
109	1945(52)	2	부부	3	자2, 녀1		
110	1920(77)	2	부부	5(결혼)	자3, 녀2		
111	1936(61)	4	부부+자1(고1), 녀1(영덕)	5(결혼)	자1, 녀4	1(고등)	

가구 번호	生年 (연령)	가구원 수	가구형태	출타자수	출타자	학생수	기타
112	1931(66)	2	본인+자1	3(결혼2)	자1, 녀2		생보자
113	1932(65)	4	본인+손자2	5(결혼)	자2, 녀3	2 (중1, 고1)	손자2 생보자
114	1937(60)	2	부부	4(결혼)	자2, 녀2		
115	1947(50)	4	부부+자1,녀1			1 (고등)	
116	1949(48)	5	모친+부부+고 모+자1	3(결혼2)	자2, 녀1	1 (고등)	
117	1934(73)	3	부부+자1	3	녀3		
118	1916(81)	2	부부	4(결혼)	자3, 녀1		
119	1945(52)	2	부부	5	자1(장교군 입대),녀4		생보자
120	1922(75)	2	본인+자1	1(결혼)	자1		생보자, 정신질환
121	1938(59)	1	본인	4	자2, 녀2		단신
122	1945(52)	4	모친+부부+자1			1 (고등)	
123	1936(61)	2	부부	3(결혼)	자2, 녀1		
124	1920(77)	2	부부	6(결혼)	자1, 녀5		
125	1935(62)	2	부부	6(결혼3)	자3, 녀3		
126	1930(67)	1	본인	3(결혼2)	자1, 녀2		단신
127	1913(84)	1	본인	2(결혼)	자1, 녀1		단신
128	1937(60)	2	부부	3(결혼2)	자2, 녀1		
129	1947(50)	2	부부	3	자2, 녀1		
130	1935(62)	2	시어머니+본인	4(결혼)	자2, 녀2		
131	1925(75)	1	본인	3(결혼)	자2, 녀1		단신
132	1946(51)	3	부부+자1	3(결혼2)	녀3	1 (고등)	
133	1927(70)	1	본인	2(결혼)	자2		단신
134	1940(57)	1	본인				군인출신

2. 가구별 경제활동 현황

가구 번호	농업 생산			어업 생산			상공업 종사	기타 서비스	년간 소득	농경지 분포
	논면적	밭면적	임대차	선박 보유	업 종	양 식				
1	2,000벼	1,000콩,500 깨, 300고추					강구/음식		2,500	전 홍곡500, 답 본골 500
2	800벼	2,000							2,000	전 노물451, 노물540, 답 노물264
3	800(0)	1000(100)							200	전 노물700 답 짓골 800
4	1,000(0)	200					공장		500	
5		2,500(0)	2500대						400	전노물933, 노물216, 노물282, 노물264, 답 노물108
6		2,500					공사일		1,500	전 매정720, 매정565, 매정495, 답 매정313
7		2,000	대800 밭채소				어피고		1,500	
8									구호	
9							공사판		2,000	
10										
11			논1,000 밭800				며느리 공장		1,000	전등채300, 수수밭골 700, 답 혼골800
12	300	500								전고래번득400, 동귀 600, 답고래번득밑 500
13	1,200		밭1,000				공사판		2,000	전칠성각뒤400 수수밭골600
14		800 (유휴)							0	전 혼골600 기랑박골200
15	100(벼 2동)	500					벼 2동		3,000	전온나무골200 답 못위800
16							부인어피 고,선장일		3,000	전 솔두백 200 고래번득 600
17		500					공사판		자식 수입+ 1,500	
18	2,000	800					공사판		2,000	전등채500, 혼골400, 답혼골 600, 500, 200, 400, 기랑박골6 00, 배나무재 1200

가구 번호	농업 생산			어업 생산			상공업 종사	기타 서비스	년간 소득	농경지 분포
	논	밭	임대차	선박보유	업종	양식				
19									0	
20	1,000	200							500	전 혼골700, 답 혼골900, 가작골1,
21	600	800							노동 500	전 솔두백500,가 작골 700, 답 텃
22		500							500	전 내동앞300,등 재400, 답 기장박
23	800	200					해녀		1,500	전 등재600, 혼골
24		200							200 자식보조	전 솔두백500
25		800					장사		600 자식보조	전 노물앞산400, 등재616,기장박골
26									연금+자 식보조	답 274번지 500
27								보건소 지소장	4,500	
28		500								530번지 656,
29				2t(1.29)	유자 통발		어업 해녀		3,500	
30	1,000	5,00		2t(공동 소유)	유자 통발		슈퍼		3,500	3중허가 하용철동업
31	600	1,200					장사		700	459번지 912, 답 기장박골 400
32	600	500		0.5t	유자				2,500	
33	800						해녀 공사판일		2,500	전 가자골 300 답 매정방들 508
34	1,000	500	800						1,500	전 솔도백 400 갈밭골420, 답매 정730, 돌미골950

가구 번호	농업생산			어업생산			상공업 종사	기타 취업	년간 소득	농경지 분포
	논	밭	임대차	선박보유	업종	양 식				
35	1,000	100		1t(0.43)	3종 허가		해녀			전 세장태400 답 매정700,1100 노물앞300
36	800	800								
37		500							2,500	전 본골500
38	400	500					공사장			전 가자골900 본골300, 답 그랑박골5 50, 본골300
39		500							500	전 갈밭골500, 앞산600, 답 짓골370, 그랑박골 500
40		500							자식보조	전 매정재300, 답 매정재뒤519
41		300							자식보조	전 본골700, 등재500, 골 말앞산200 답 건너골600
42	800	900							800	전 세장태600, 본골400, 답 본골350, 세골500
43	600	500					그물손 질		400	답 방밭골836, 다리백 300, 매정재밑3,000
44									자식보조	전 갈밭골, 가자골, 고 구지코등, 답그랑박골
45	800	500					어피고		2,000	전 세장태400, 갈밭골 700, 답 그랑박골458
46	800			2t					3,000	매정재, 건너골, 답취골, 세골800
47		800							500	전 터밭500, 답 갈밭골470
48				1척사고	유자 통발 채낚		공장일		500	전 솔두백400 그랑박골600
49							슈퍼 전복		3,000	전 등자골300 솔두백700, 답 솔두백400
50				1척			회집, 민박(4)		5,000	전 응굴재500

가구 번호	농업 생산			어업 생산			상공 중사	기타 취업	년간 소득	농경지 분포
	논	밭	임대차	선박 보유	업종	양식				
51									보조	전 매장재500, 집터200, 답 터논200
52	600								500	전 혼골700 답 혼골400
53		300					공장		800	전 갈밭골900 터밭500
54	700	800	1,500						3,000	전 건너골1,000, 900 답 양자골1,000
55	800	300		1척 (0.25)	유자 채낚	3ha			2,500+동 생이부자 보조	전터밭300,가자골1,000, 현작골500, 가자골600
56		400					장사		600	전 집뒤700, 매정재189, 기타 매정재1,800
57	400	200		1척 (0.82)	유자 채낚	2ha	회집 민박(3)		5,000	전 혼골300 수수밭골800
58	200	800							아들보조	전 등자골450 답 솔두백500
59										
60		600							200	전 쥐골800 건너골300
61							해녀, 어피고		1,500	
62									자식보조	
63		1,000	500						200+ 딸보조	전 혼골1,000 앞산300
64							공사판		300	전 혼골200
65							공장일		400	
66		500								전 갈밭골400
67		2,000		배2척					4,000	전 건너골1,500 가자골200, 건너골200, 매정재300
68							공장일		550	전 노고지리등400
69		200					미역		아들보조	전 앞산300
70	400	1,200	300				공장일		2,000	잔 가지걸270, 솔두백 300, 매정재1,000 세장태400, 답 소구랑550

가구 번호	농업생산			어업생산			상공업 종사	기타 취업	년간 소득	농경지 분포
	논	밭	임대차	선박 보유	업종	양식				
71							공장일		400+자식 보조	
72			700						200	전 가자골400
73	600	500					민박(2)		500+ 자식보조	전배나무재골800 제당50,담혼골300
74	800	800					처공장일		1,200	전매정재골400,700, 담 삼밭골800
75				1척 (0.62)	유자 채낚		회집 민박(3)		3,500	
76							어피고		자식보조	전 방구바골600
77	1,200	500		1척 (0.75)	유자 채낚	3ha	해녀		3,000	전 혼골450 담 갈바골1,260
78		500					미역, 품팔이		1,200	전권농골300, 부투 골700, 담 혼골640
79	1,000	1,000					어피고		2,300	방구바골100
80							무노동	경로 회장	자식보조	전 쥐골300
81		500					어피고		500	전 혼골800 매정재150
82							공장일		450+자식 보조	
83		500					어피고		400+자식 보조	전지골200, 방구바 골400, 담 세골330
84		1,000							150	전 혼골700
85	600						어피고		500	전 갈바골600 담 갈바골627
86	500	700							600+자식 부자보조	전혼골600, 쥐골600, 담 매정골600
87	1,000	700							500+ 자식보조	
88	1,000	200		잠수 (0.71)	유자 채낚		회집 민박		5,500	
89				1척 (0.64)	유자 채낚				2,500	
90							회집 민박(4)		4,500	
91	400	400								

가구 번호	농업생산			어업생산			상공 종사	기타 취업	년간 소득	기타
	논	밭	임대차	선박보유	업종	양식				
92		400								
93				1척(0.94) 어장배1	유자,채낚,3 종		회집,민박, 해녀		5,000	
94	800								3,000	
95		600		1척 (0.30)	유자,채낚		상점 민박(2)		2,500	
96	400	500		잠수선 (0.65)	유자,채낚		해녀 회 집 민박		6,000	
97	600	200							500	
98				1척 (1.23)	유자,채낚		회집 민박(3)		3,000	
99	1,000	300		2척 (0.68)1척 동업	유자,채낚, 통발,3종		잠수, 해 녀 회집, 민박		7,000	
100		300								
101										
102		500					공사일		2,500	
103		500					해녀		2,000	
104				1척 (0.48)	유자,채낚, 통발		외지고용 건축일		2,500	
105	800						어피고		3,300	
106				1척 (0.69)	유자,채낚, 통발	1ha	회집 민박(3)		6,000	
107		1,000								
108		600					공장일		300	
109		400					어피고 처공장일		2,000	
110		300					어피고		1,500	
111	400	500					해녀		1,500	
112							공사일		400	

가구 번호	농업생산			어업생산			상공 종사	기타 취업	년간 소득	기타
	논	밭	임대차	선박보유	업종	양식				
113		500							300	
114	1,000						해녀 공사일		2,000	
115							처해녀 본인방파제공		2,500	
116	1,000	1,500		1척(0.81)	유자				2,500	
117	400						해녀 공사노가다		2,500	
118	400	400							200+ 자식보 조	
119							처가공장일		500	
120		500							100+ 자식보 조	
121							공장일		300	
122				1척	유자 채낚		본인잠수		2,000	3종허가
123	50	200					처가공장일 노가다일		1,500	
124			500						딸보조 가 많음	
125	600	200					처가공장일 공사판일		1,200	
126	600	300							500	
127		500							자식보 조	
128							처공장일 공사판		2,000	
129							공사판 처공장일		6,000	
130	600	500							300	
131		500							300	
132	600	200		1척 (0.90)	유자 채낚		해녀 어장		4,500	3종허가
133							어업잡일		300	
134									월200연 금 2,400	

3. 가구별 주거환경

가구 번호	주택형태	주택연한	지붕형태	대지 (평)	건평 (평)	방수 (개)	교통수단
1	슬레트	94수리		60	40	4	경운기
2	한옥	93수리	슬레트	60	40	5	경탈
3	한옥	94수리	슬레트	40	25	3	
4	한옥	55수리	슬레트	65	24	3	
5	한옥	92수리	슬레트	40	27	3	
6	한옥	93수리		40	28	3	
7	한옥	93수리	슬레트	60	30	4	
8	남의집		박금례집	60	25	3	
9	한옥		슬레트 남의집(빈집)	65	28	3	트럭1
10	남의집에 살고 있음						
11	한옥	93수리	슬레트	50	30	3	
12							
13	한옥	90신축	슬레트	45	30	3	
14	한옥		슬레트	30	20		
15	2층양옥		기와	40	30	6	
16	한옥	95수리	슬레트	40	25	3	
17	한옥	20년전신축	슬레트	40	27	3	자가용
18	한옥		슬레트	70	35	4	
19							
20	한옥	100년경과집	슬레트	40	20		
21	한옥	50년경과집	슬레트	65	30	4	
22	한옥	95수리	슬레트	40	25	3	
23	한옥	94수리	기와	45	28	4	
24	한옥	10년전신축	슬레트	35	20	3	
25	한옥	95수리	슬레트	40	25	3	
26	한옥	93수리	슬레트	35	20	2	
27	시멘트기와 집 (보건소에 달린집)	93신축	기와	100	30	3	자동차

가구 번호	주택형태	주택연한	지붕형태	대지(평)	건평(평)	방수(개)	교통수단
28	한옥	91수리	기와	45	20	3	
29	양옥	93신축	슬라브	45	30	3	
30	양옥	91신축	슬라브	100	30	3	봉고차
31	한옥	81신축수리예상	기와	80	30	3	
32	한옥	91수리	기와	40	25	3	
33	한옥	93수리	슬레이트	60	30	4	
34	한옥	20년전	기와	50	30	3	
35	양옥	95신축	슬라브	40	35	3	
36	한옥	93수리	기와	55	30	3	
37	한옥	93수리	기와	45	28	3	
38	양옥	95수리	슬라브	40	30	3	
39	한옥		기와	70	25	3	
40	한옥	40년전	슬레이트	60	28	3	
41	양옥	95신축	시동생이집 지어줌	90		3	
42	한옥	93수리	기와	60	30	3	
43	한옥	45년전	기와	65	34	3	
44	한옥	35년전	슬레이트	68	30	3	
45	한옥	96수리	슬레이트	60	30	4	
46	양옥	94	슬라브	65	30	3	
47	한옥	96수리	슬레이트	50	25	3	
48	한옥	93수리	슬레이트	40	25	3	
49	양옥	90	슬라브	30	25	3	
50	2층조립식	91	슬라브	40	30	5 (민박4개)	
51	양옥		슬라브	40	35	3	
52	한옥	50년전	슬레이트	45	20	2	
53	한옥	81신축	슬레이트	50	25	2	
54	한옥		기와	50	30	4	경운기 탈곡기
55	한옥	10년전	슬레이트	60	30	4	

가구 번호	주택형태	주택연한	지붕형태	대지(평)	건평(평)	방수(개)	교통수단
56	한옥		슬레이트	40	25	2	
57	한옥		슬레이트		40	5 (민박3개)	트럭1 경운기
58	한옥		슬레이트	80	25	3	
59	양옥	89신축	슬라브	90	15	2	
60	한옥	50년전	슬레이트	45	30	3	
61	한옥		슬레이트	50	30	4	
62	한옥		슬레이트	35	20	2	
63	한옥		슬레이트	60	30	2	
64	한옥	50년전	슬레이트	25	15	2	
65	한옥	95수리	슬레이트	30	15	2	
66	한옥	50년전	슬레이트	30	15	2	
67	양옥	95		40	30	4	
68				40	25	2	
69	한옥	92수리	기와	60	30	3	
70	양옥		슬라브	35	30	3	
71	양옥		슬라브	70	30	3	
72	한옥		기와	40	30	4	
73	한옥	20년전	기와	45	30	3	
74	한옥		슬레이트	30	20	3	
75	조립2층		슬라브	50	45	5 (민박3개)	
76				70	30	3	
77			슬라브	60	30	3	
78		신축계획	슬레이트	20	15	2	
79		95	슬라브	100	40	5 (민박4개)	
80		93	슬라브	65	30	3	
81		50년전	슬레이트	40	30	2	
82		30년전	슬레이트	15	10	3	
83		50년전	슬레이트	60	27	3	

가구 번호	주택형태	주택연한	지붕형태	대지(평)	건평(평)	방수(개)	교통수단
84		50년전	슬레트	70	25	2	
85		30년전	슬레트	45	30	3	
86		94신축	슬레트	65	35	3	
87	한옥	40년전	기와	50	30	4	
88	조립2층양옥	88신축	슬라브	60	30	5(민박4개)	자가용
89		95수리	슬라브	40	30	3(민박2개)	
90	회집		기와+ 슬라브	100	40	6(민박4개)	
91			슬레트	25	10	2	
92			슬레트	25	10	2	
93	집2채(슬라 브, 93년)	93	슬라브	80	50	회집, 민박	오토바이
94		93수리	슬레트	20	15	3	
95		92수리	슬레트	50	35	4(민박2개)	
96				60	45	6(민박4개)	자동차
97		91신축	슬레트	30	20	2	
98			스라브	50	40	4(민박3개)	
99	2층조립		슬라브	40	30	6(민박3개)	오토바이2 경운기
100			슬레트 낡은집	70	30	2	
101			슬레트	20	8	2	
102		94수리	슬레트	55	30	3	
103		40년전	슬레트	30	15	2	
104		94수리	슬레트	65	35	2	트럭1
105	2층양옥		슬라브	35	30	3	자가용
106	2층조립		슬라브	65	40	6(민박3개)	자동차
107			슬레트	30	20	3	
108			슬레트 오래됨	60	30	3	
109			슬레트	15	10	2	
110			슬레트	30	24	3	
111		90수리	슬레트	65	3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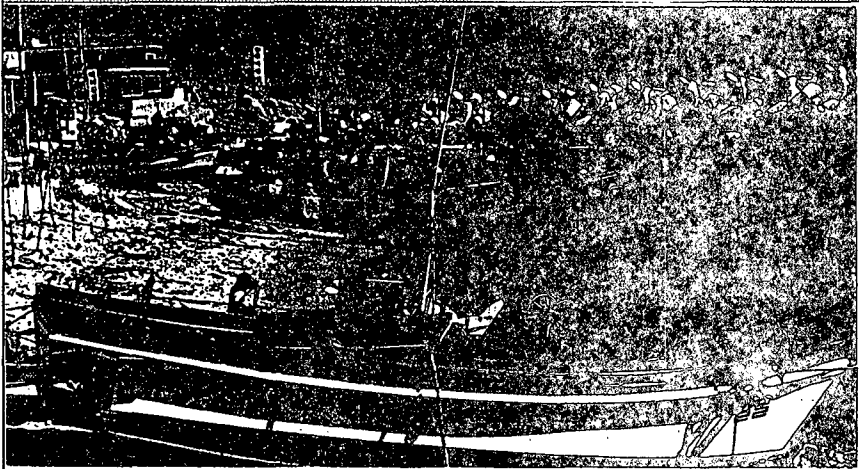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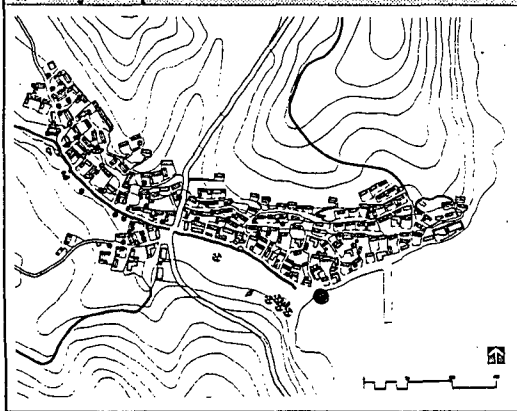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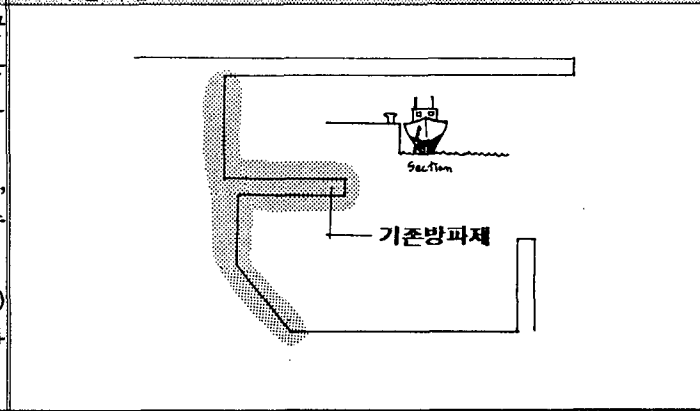
가구 번호	주택형태	주택연한	지붕형태	대지 (평)	건평 (평)	방수 (개)	교통수단
112			슬레트 낡은집	15	8	2	
113		공사중	슬라브공사중	20	18	3	
114		95신축	슬라브	30	25	4	
115			슬레트 낡은집	68	15	2	
116	한옥	94수리	기와	50	30	3	
117		95수리	슬레트를 슬라브로 일부수리	40	25	3	
118		95수리	슬레트	40	25	2	
119							
120			슬레트 낡은집	40	20	2	
121			슬레트	50	30	3	
122			슬레트	30	20	2	
123		94신축	슬라브	150	25	3	
124		94수리	슬레트	30	20	3	
125		93수리	슬레트	50	30	3	
126			슬레트 낡은집	60	15	2	
127			슬레트 낡음	40	20	2	
128			슬레트	30	20	3	
129							
130		94신축	슬레트	40	30	3	
131			슬레트 낡은집	50	25	2	
132		94신축	슬라브	50	30	3	
133			슬레트	40	25	3	
134	조립식판넬 주택	95신축		40	25	3	자가용1 봉고1

부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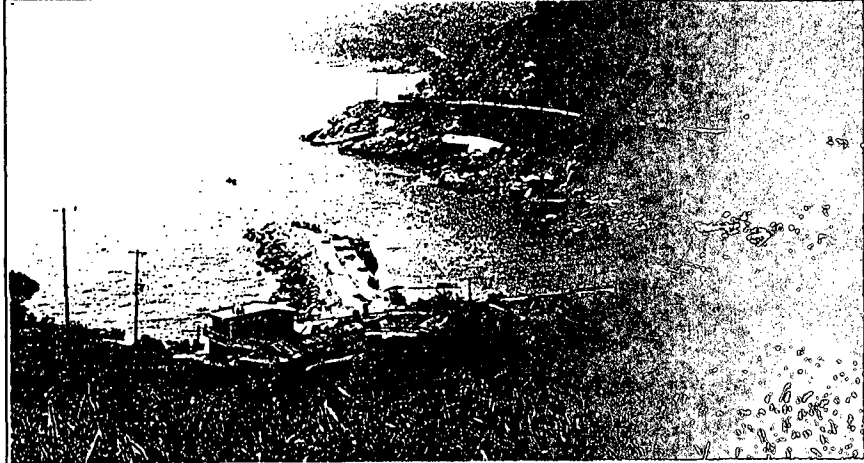
노물리 어촌관광 자원목록

■ 어촌관광 자원의 분류 목록 ■

구분		기개발 자원	기호	잠재 자원	기호
자연적 관광자원		방파제 주변의 포구경관	A-01	마을 뒤산의 경관 조망점 마을 북측 해안 기암괴석	A-10
		해안선의 기암괴석	A-02		A-11
		뒷산에서의 바다경관	A-03		
인문 사회적 관광자원	문화자원	성황당과 手形의 당목 10년 1회 열리는 풍어제		층계형 마을주거경관	B-12
			B-04	관광시설의 건물형태	B-13
			B-05	사찰(3개소)	B-14
				1년 4회의 당제	B-15
				풍물놀이	B-16
	산업자원	회집(활어회)과 민박집 물량장 겸용 주차장 가게(3개) 단체 바다낚시용 유어선	C-06	계절별 농업체험	C-17
			C-07	산지 농산물	C-18
			C-08	산지 수산물	C-19
		C-09	지역별미(따개비죽, 물회)	C-20	
위락자원			비지터센터(커뮤니티센터)	D-21	
			폐선이용 미니파크	D-22	

<p>□ 분류: A-01</p>	<p>□ 자원명: 선양장 (방파제 주변 포구경관)</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이 노부부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부족으로 폭풍시 선양에 어려움을 겪는다. ▶ 이것이 배의 톤수를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 없는 원인이다. ▶ 방파제 확장은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업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확장되어야 할 숙원사업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안을 수용한 방파제 확장과 더불어 선양장의 크기도 확장한다. ▶ 육지로 끌어올릴 필요가 없으므로 기존 방파제를 선양장으로 활용해 외지선박의 피항처의 역할도 한다. ▶ 기존 모래사장은 포장해 물량장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풍시에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장소인 선양장은 어항이 작으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 모래사장으로 되어있으며, 28척 모두가 선양하기는 좁다. ▶ 따라서 비교적 큰배(1.5톤)는 인근 강구항으로 피항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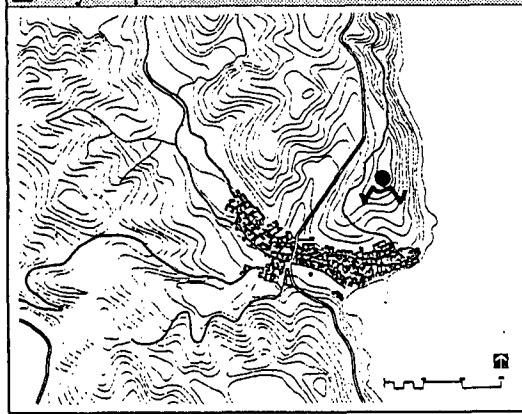
■ 분류기호: A-01	■ 자원명: 방파제(포구경관)	□ 주민인식	□ 개발 및 관리 방향
--------------	------------------	--------	--------------



> 주민들의 가장 우선적인 숙원사업대상이다.
 > 방파제가 관광자원이기 보다는 생산기반시설로서 강하게 인식하다.

> 방파제를 포함한 포구경관은 어촌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다.
 > 방파제 확장과 더불어 관광 활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방파제가 확장될 때 기존방파제는 접안시설로 사용한다.
 > 기존방파제 위는 공동위판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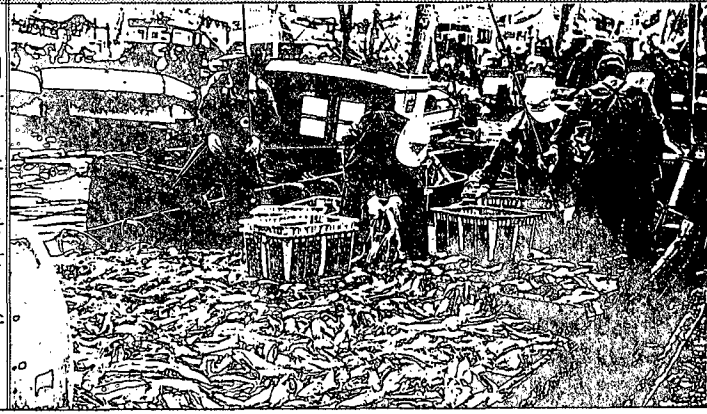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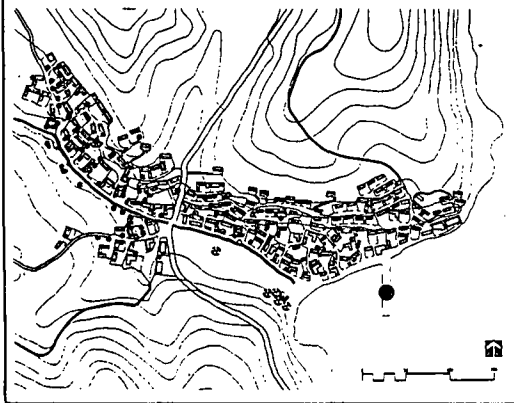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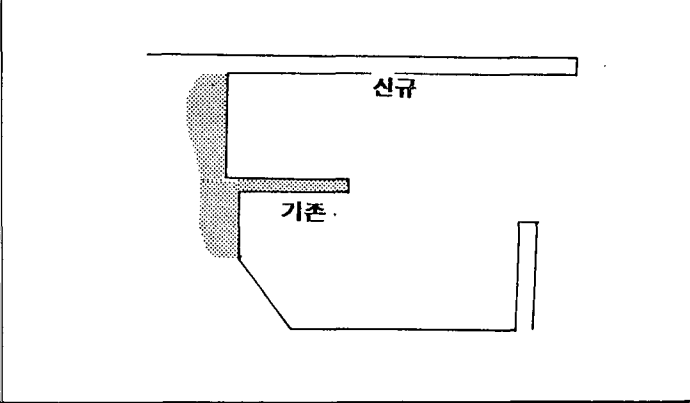


□ 현황설명

> 주민들의 생산기반시설로서 어선접안과 그물정리, 물량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 관광자원으로서는 낚시장소로서만 사용된다.
 > 관광객이 많은 하절기에는 주민생산활동과 충돌되기도 한다.
 > 방파제와 물량장이 작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 개발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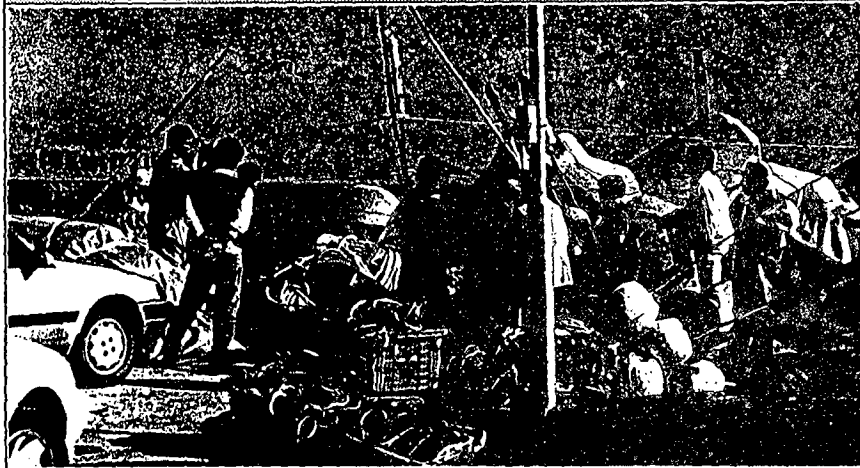
□ 분류: A-01	□ 자원명: 방파제	□ 주민인식	□ 개발 및 관리 방향
		<p>▶ 가장 시급히 확장되어야 할 숙원사업 대상이다.</p>	<p>▶ 주민안을 수용해 방파제를 확장한다. ▶ 어항은 어업 생산활동뿐 아니라 여가공간으로도 개발한다.</p>
□ Key Map	□ 현황설명	□ 개발개념도	
	<p>▶ 현 길이 110m 폭 10m ▶ 주민들은 그물정리와 물량장으로 사용해 지저분하다. ▶ 관광객은 낚시장소로 사용한다.</p>		

분류: A-01

지원명: 물량장

주민인식

개발 및 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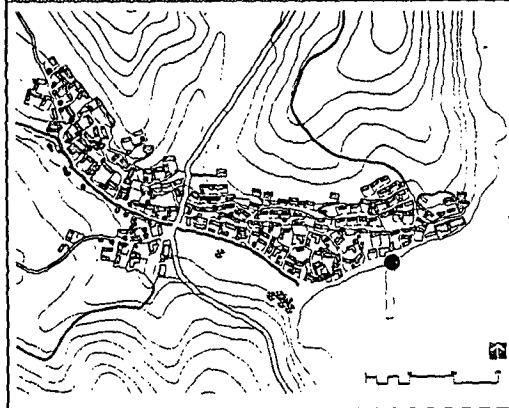
- ▶ 어획량이 증가하면 물량장의 확장은 필수적이다.
- ▶ 기존 모래시장인 선양장을 포장하면서 물량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방파제가 확장되면 기존 방파제를 수리해 물량장으로 사용한다.

- ▶ 방파제 확장과 더불어 물량장을 확장한다.
- ▶ 기존 방파제를 수리해 물량장으로 사용한다.
- ▶ 물량장은 성수기나 주말에는 관광객을 공간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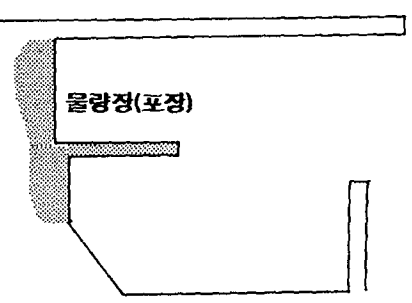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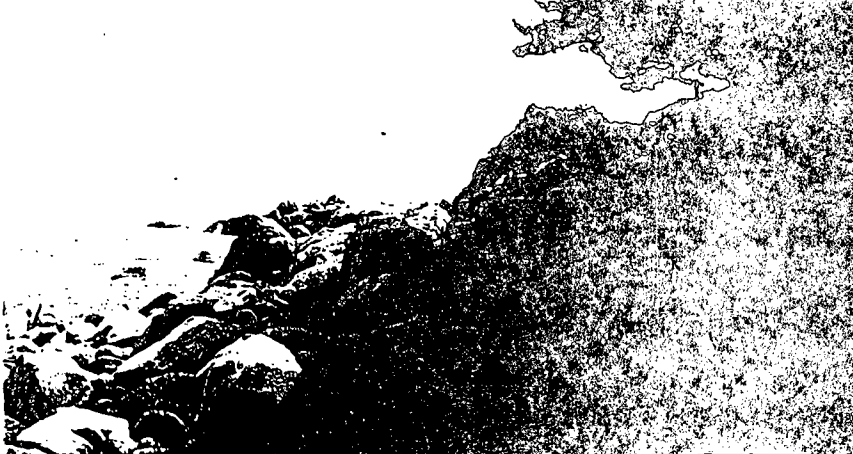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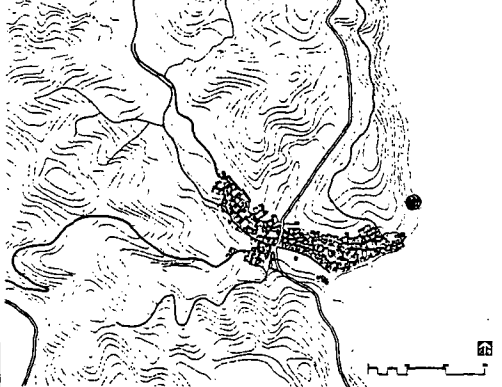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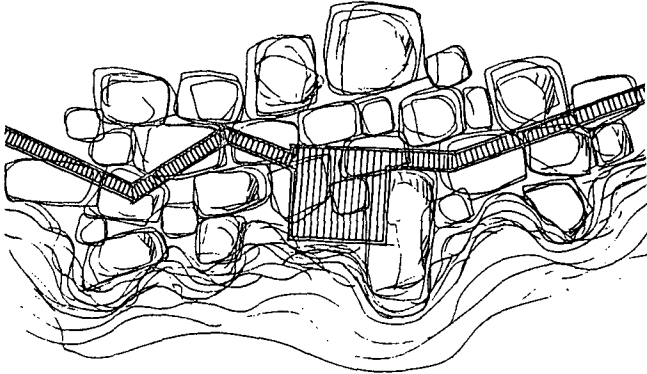
현황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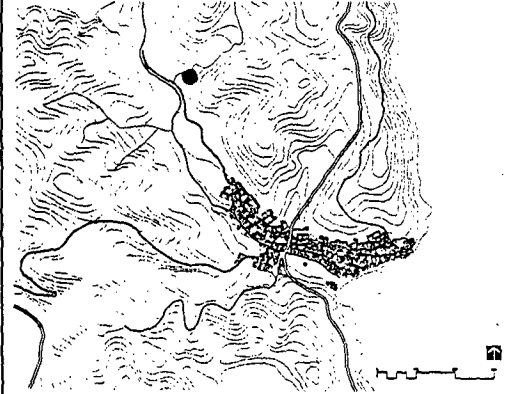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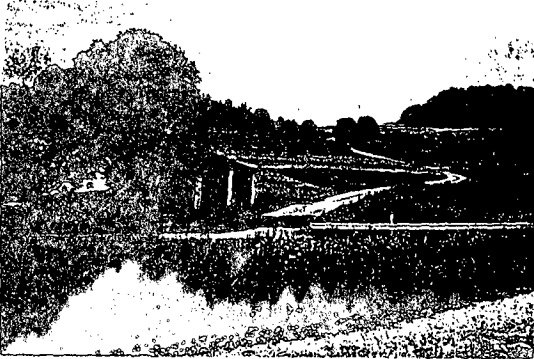
개발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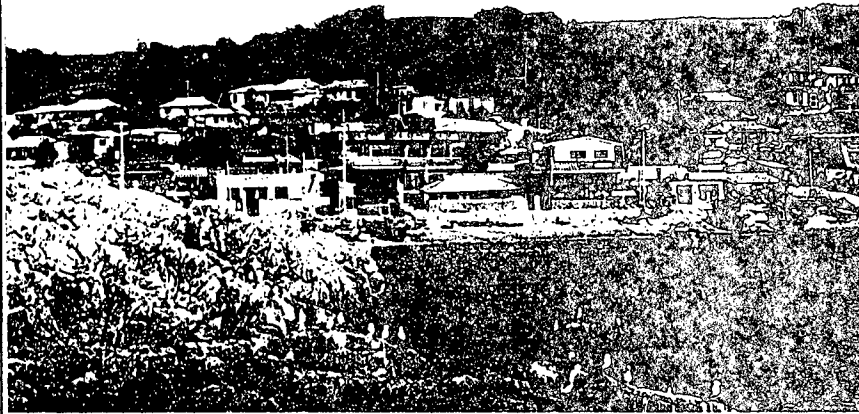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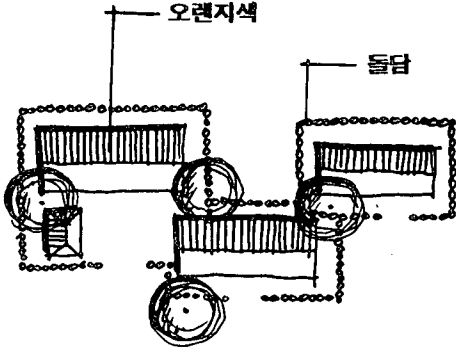
- ▶ 물량장이라고 특별히 지정된 곳은 없다.
- ▶ 방파제와 마을도로를 물량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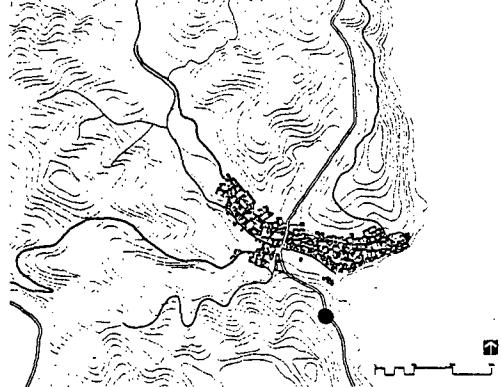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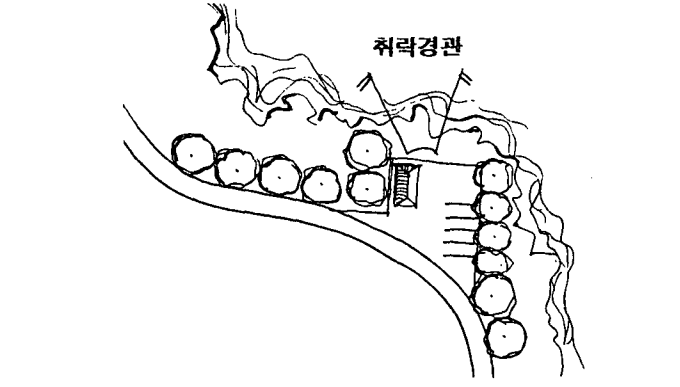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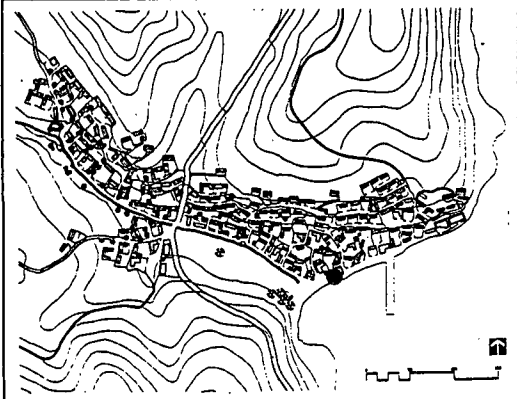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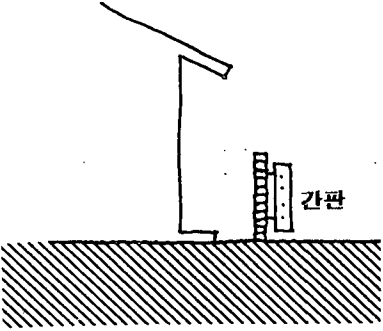
<p>□ 분류기호: A-02</p>	<p>□ 자원명: 해안 기암괴석(암초)</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은 모래사장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갖지만, 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기암괴석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다. ▶ 기암괴석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의 독특한 경관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낚시뿐 아니라 산책 또는 해양생물 채취 등을 위해서도 접근이 쉽도록 한다. ▶ 해양생물을 손쉽게 채취 또는 관찰할 수 있는 장소지만, 관광객들의 채취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을 따라 기암괴석이 울진방향으로 펼쳐져 있다. ▶ 현재는 주로 낚시꾼들에 잘 알려져 있는 좋은 낚시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 낚시를 하기 위한 바위로의 접근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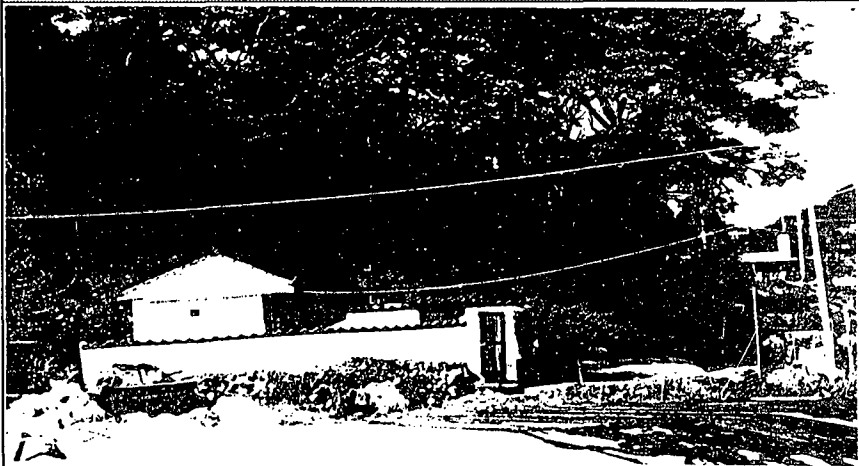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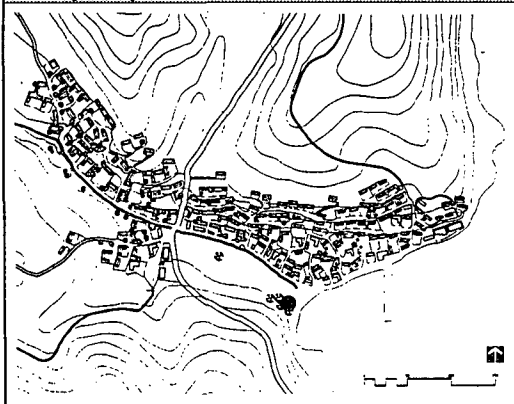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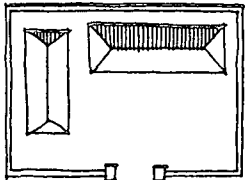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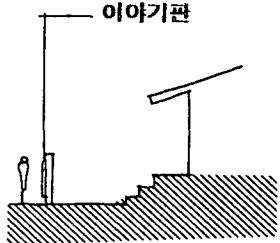
<p>■ 분류기호: A-10</p>	<p>■ 자원명: (마을 뒤산의 경관 조망)</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p>▶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p>	<p>▶ 넓지만 높지않아 간단한 산책장소로서 가능하다. ▶ 산의 정점에는 전망대와 휴게장소를 조성한다.</p>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p>▶ 마을은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골(홍골)을 형성하고 있다. ▶ 주로 산 중턱에는 밭을 일궈 수렴이 별로 없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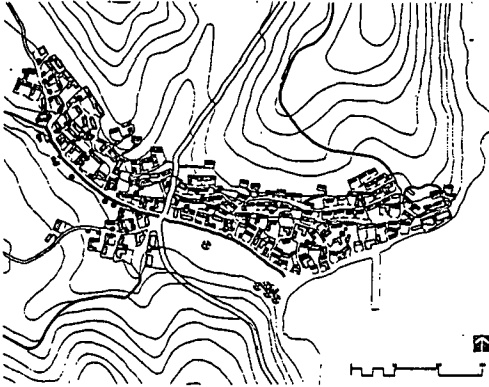
□ 분류기호: B-04	□ 자원명: 手形 당목	□ 주민인식	□ 개발 및 관리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특한 형태에 신비함을 느낀다.▶ 외지인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목 주변의 축대와 공간을 새롭게 정비해 관광객이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고, 휴식장소로서 커뮤니티 프라자와 연계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 Key Map	□ 현황설명	□ 개발개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멘트로 축대를 쌓은채 방치되어 있다.▶ 하절기 때 그들이 노인들의 휴식장소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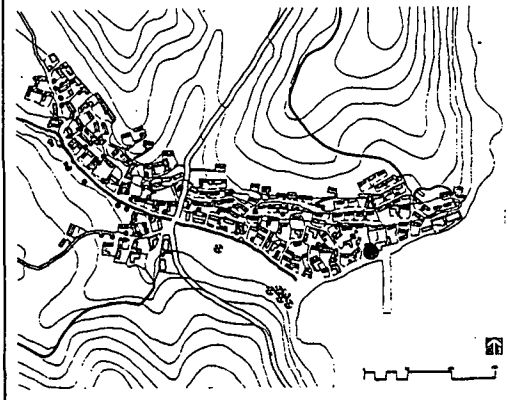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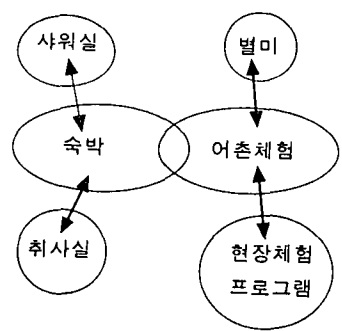
<p>■ 분류기호: B-12</p>	<p>■ 자원명: 독특한 색 형태의 건물</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과 담장의 색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 과거에는 돌담이 많았으나 새마을 사업 이후 블록 담으로 고쳤다. ▶ 돌담은 노동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 쌓기가 어렵다. ▶ 마을에 많은 재래종 고목 감나무는 감이 많이 열리지 않아 겨울의 독특한 경관을 보이지 않는다. ▶ 주민들은 감이 떨어져 골목이 더러워지는 이유로 감나무를 베어내려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과 담장의 형태와 색은 마을의 정체성을 높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시 주택과 담장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 노물리의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고 보전할 대상과 개발 대상을 분류한다. ▶ 이 분류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집과 같이 경쟁적인 사업이 도입되면서 눈에 띄기 위한 색이 도색되었다. ▶ 새마을 사업 때 초가집이 개량된 이후 노후화된 주택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 전통적 어촌마을의 경관을 나타내는 주택형태는 사라지고, 점점 기능적 편리를 위한 주택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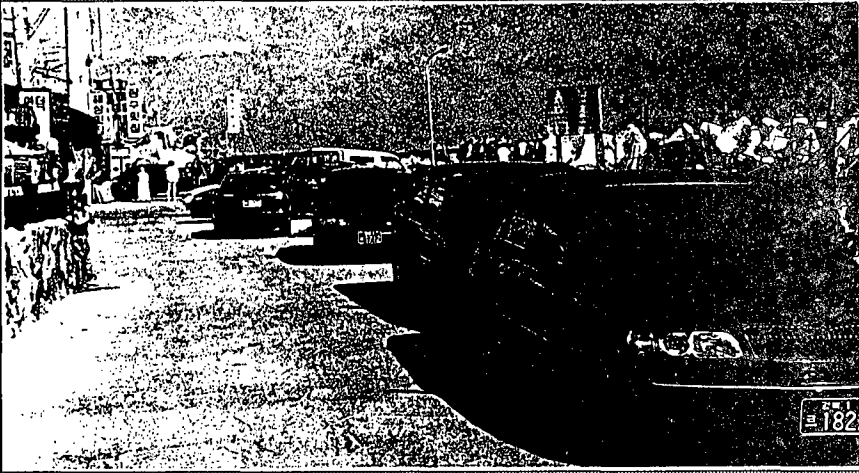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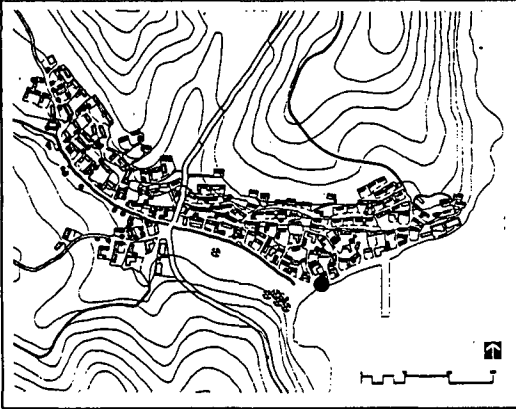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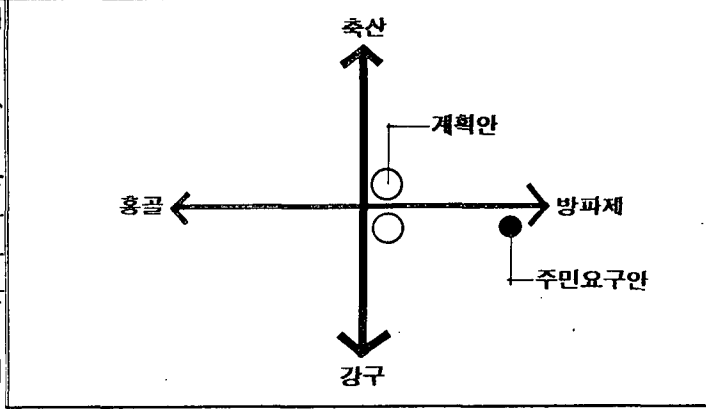
<p>■ 분류기호: B-12</p>	<p>■ 자원명: 진입로</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p>▶ 마을 주거경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식이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을 확장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식재를 한다. ▶ 마을 시설 안내판과 마을 유래를 쓴 이야기판을 설치한다. ▶ 주민들의 그물정리작업은 지양하고 관광객들에게만 제공되는 시설이 되게 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덕읍에서 좋은 경관조망점에 설치한 도로변 주차장이 있으나, 주민들의 그물 정리에 사용되고 있다. ▶ 너무 협소해 5대이상을 주차할 수 없다. ▶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변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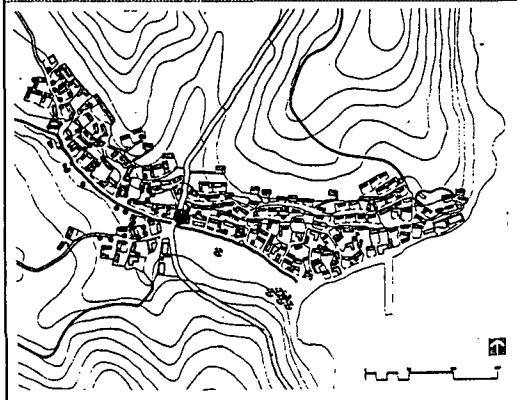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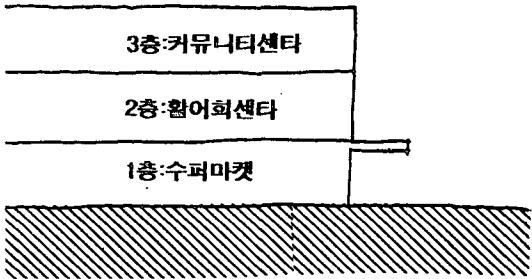
<p>■ 분류기호: B-13</p>	<p>■ 자원명: 마을간판</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p>▶ 주로 방파제 주변에 있는 집들이 제작한 간판이어서 기나 위치에 민감하다. ▶ 형태나 색상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p> <p>회크 관</p>	<p>▶ 마을 정체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서 마을이미지와 부합하고 광고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감각적인 이미지가 전달되게 해야 한다. ▶ 형태와 색상을 통제하고 간판을 세울 위치도 통제해야 한다. ▶ 공간 및 시설 안내판과 마을에 얽힌 전설을 담은 이야기판도 형태와 색상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p>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p>▶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으며 대부분이 세로입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 마을 위쪽의 민박가구들은 앞길에 간판을 세우고 벽에 글씨를 쓰는 경우도 있다.</p>		



<p>▣ 분류기호: B-15</p>	<p>▣ 자원명: 당제(년 4회)</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에서 지내는 신성한 의식이다. ▶ 따라서 상업화 시키기는 곤란하다. ▶ 그러나 당제를 지내는 장면을 관광객들이 구경할 수는 있다. ▶ 제각을 함부로 개량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각 자체를 마을 이미지와 부합하게 고치고, 담장을 낮추어 관광객이 볼 수 있게 한다. ▶ 제각주변을 정비해 휴게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제사일은 주변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사에 대한 예법을 적어 이야기판을 만든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4번 밤 12시에 제사를 지낸다. ▶ 제당기념일인 5.19(음)에는 오전 10시에 어촌계장이 제사를 지낸다. ▶ 제각의 형태에서는 전통성을 전혀 느낄 수 없다. ▶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 높은 담으로 쳐져있고, 문이 항상 잠겨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data-bbox="1164 883 1409 1061">  </div> <div data-bbox="1446 820 1726 1061"> <p style="text-align: center;">이야기판</p>  </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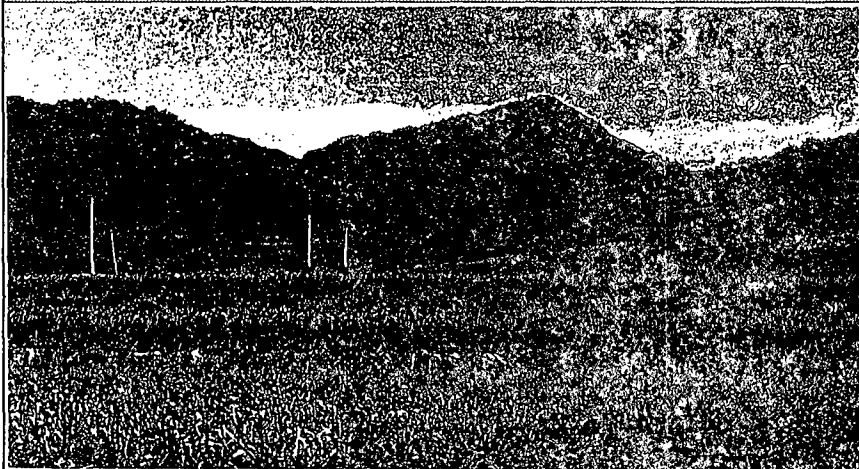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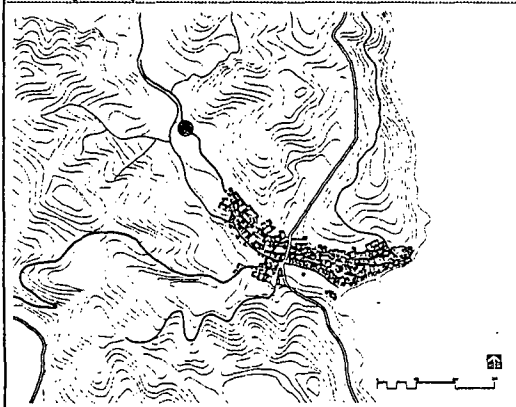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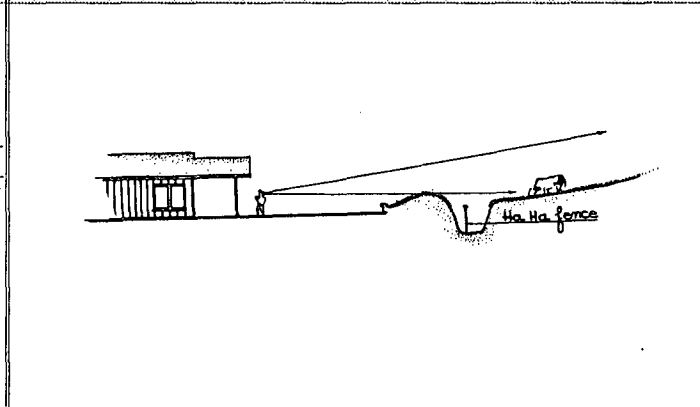
<p>■ 분류기호: B-16</p>	<p>■ 자원명: 풍물놀이</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행사에 언제나 동원된다. ▶ 비공식적으로 전승되며, 특별한 교육없이 전승되는 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놀이이며, 관광객 또한 보고 즐길 수 있는 잠재 자원이다. ▶ 따라서 노후장비의 교체는 물론 현재 40대에 전승해야 한다. ▶ 관광객들을 위한 놀이하기 보다는 평상시 주민행사를 관광객들이 관람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고령의 노인들로 썩가리, 장구, 북, 징 등 각 1명씩 구성되어져 있다. ▶ 각 장비들은 노인회에서 관리하며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 ▶ 이 후에 전승할 젊은이가 없어 곧 소멸될것으로 보인다. ▶ 특히 주민들을 모으기 힘든 어촌에서 주민들을 모으기 위한 신호로서도 사용된다. 		




<p>분류기호: C-06</p>	<p>자원명: 민카주택(민박)</p>	<p>주민인식</p>	<p>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소득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 여름 한철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의 의지가 없다. ▶ 주로 회사직원들과 같이 단채손님이 많다. ▶ 요금은 1박에 3-4인 기준으로 2-3만원 정도로 타 어촌에 비해 비교적 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 샤워실과 취사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어 4계절형 숙박시설을 지향한다. ▶ 단순히 숙박위주가 아니라 노물리의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Key Map</p>	<p>현황설명</p>	<p>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방을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한다. ▶ 따라서 시설이 열악하고 관광객들과 주민생활이 충돌되기도 하며,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전무한 상태이다. 		

<p>□ 분류 C-07</p>	<p>□ 자원명 주차장</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주민들은 주차장의 확보는 필수라고 여긴다. ▶ 그 외 어업전업가구는 공동작업공간을 마련해 주차장으로 겸용하고자 한다. ▶ 현재 방파제 주변 일부를 매립해 주차장과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매립은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 관광활동에 의해 주민생 산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업공간과 주차장의 적절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 주차장 조성은 918번 도로 주변이나 마을입구에 조성해 되도록 마을내로 차량 진입을 억제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하천일부를 복개해 공동작업장 겸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성수기나 주말에는 좁은 물량장과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과 충돌이 있기도 한다. ▶ 콘크리트 거친포장으로 되어 있다. 		

<p>■ 분류기호: C-08</p>	<p>■ 자원명: 가게(3곳)</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p>▶ 주민생활필수품은 주로 영덕읍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p> <p>▶ 소득자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p>	<p>▶ 3 곳의 영세한 가게를 통합해 한 개의 슈퍼마켓을 설치한다.</p> <p>▶ 주민들의 생필품과 관광객을 위한 상품, 낚시용품 등 판매품을 다양화 한다.</p> <p>▶ 부녀회에서 공동운영하고 수익금은 공동자금으로서 마을개발에 투자한다.</p>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p>▶ 영세한 자본으로 판매상품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p> <p>▶ 낚시객들을 상대로 하는 낚시 용품을 판매한다.</p> <p>▶ 기존 주택을 일부개조하여 판매대를 설치했다.</p>		

■ 분류기호: C-09	■ 자원명: 유어선	■ 주민인식	■ 개발 및 관리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낚시객이 많은 늦가을과 겨울철에는 어업의 소득으로써 선호하고 있다.▶ 어선의 톤수가 커지면 승선 인원이 증가하여 요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불법인 유어선을 합법화해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길 바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횃집과 더불어 어업의 소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따라서 유어선을 합법화하고 안전시설을 갖추도록해야 한다.
■ Key Map	■ 현황설명	■ 개발개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물리의 어선 27척 모두 유어선을 나간다.▶ 4-5명을 기준으로 1회(4-5시간)에 15만원 정도의 요금을 받는다.		

<p>분류기호: C-17</p>	<p>자원명: 휴경지(홍골 주변)</p>	<p>주민인식</p>	<p>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로가 확장되어 농경지에 차량접근이 쉬워지면 농사를 지으려 한다. ▶ 차량진입이 원활해진다면 골안에 축산업을 하고자 한다. ▶ 현재의 벼농사는 자급자족을 위한 것이지, 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로가 확장되어도 벼농사는 소득향상을 꾀할 수 없다. ▶ 따라서 축산업을 장려하고, 특히 관광측면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해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소득기반을 제공한다.
<p>Key Map</p>	<p>현황설명</p>	<p>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벼농사가 주를 이루고 밭농사로는 고추를 재배한다. ▶ 일부분에는 하우스를지어 버섯(느타리 버섯)을 재배한다. 		

<p>■ 분류기호: C-17 ■ 자원명: 휴경지</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p>▶ 농로확장만 되면 농사를 짓고자 한다.</p>	<p>▶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장화나 관광농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형질 변경을 한다. ▶ 수림대와 연결한 부분에는 가축을 동반한 관광객들의 야외 피크닉을 위한 피크닉장을 조성하고, 주변 산책로와 연계시킨다.</p>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p>▶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차량 진입이 어렵고, 젊은층이 없어도 동력이 빈약해 농사를 짓기 힘들다. ▶ 홍골내에는 대부분이 휴경지(논)이다.</p>	

<p>■ 분류기호: C-19</p>	<p>■ 자원명: 활어회</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큰 소득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 다양한 어종으로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의 톤수가 커지면 영덕 대게를 특산물로 판매한다. ▶ 메뉴를 다양하게 개발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다리, 청미리, 광어, 우럭, 멍게, 하꽁치 등 동해연안에 생산되는 거의 모든 어종이 어획된다. ▶ 부부가 주로 요리를 하고, 대부분의 어민들이 회를 요리할 수 있다. ▶ 선박을 소유한 어가에서는 어획량의 전량을 자가 소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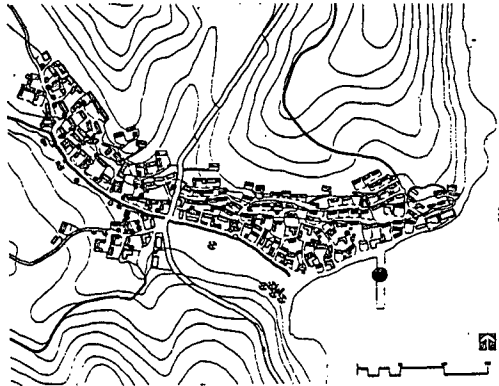
■ 분류기호: C-19	■ 자원명: 공동위판장	■ 주민인식	■ 개발 및 관리 방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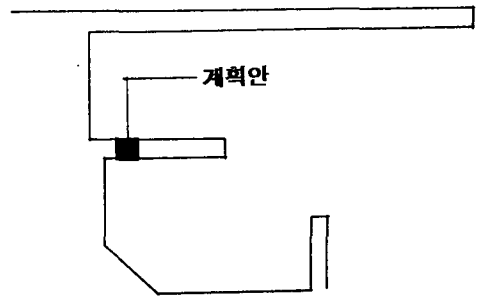
▶ 현재의 어항크기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 어항이 확장되면 어획량이 늘어나 내부에서 전량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 팔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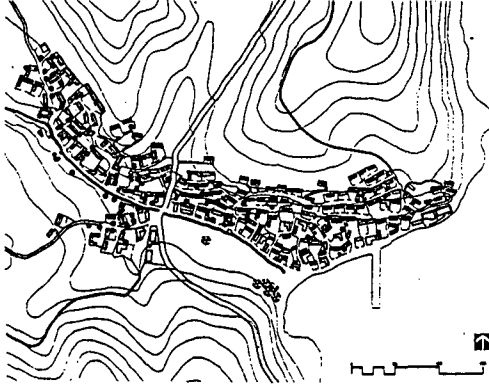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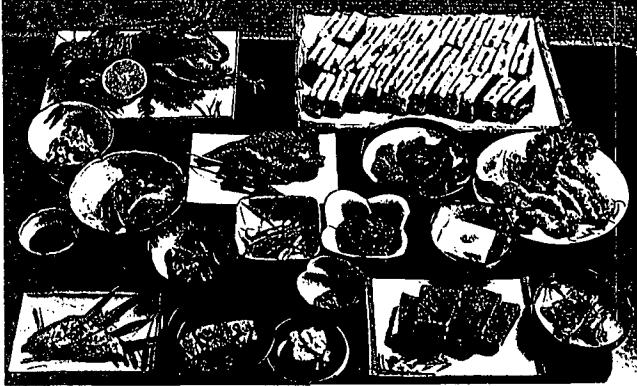
▶ 어항이 새로이 신설되고 나면 기존방파제위에 위판장을 설치한다.
 ▶ 위판장 주변에는 주차장을 설치해 물량수송을 원활히 한다.
 ▶ 100평 정도의 크기의 위판장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약 5-6천만원이 소요된다.

■ Key Map	■ 현황설명	■ 개발개념도
-----------	--------	---------



▶ 현재는 위판장이 존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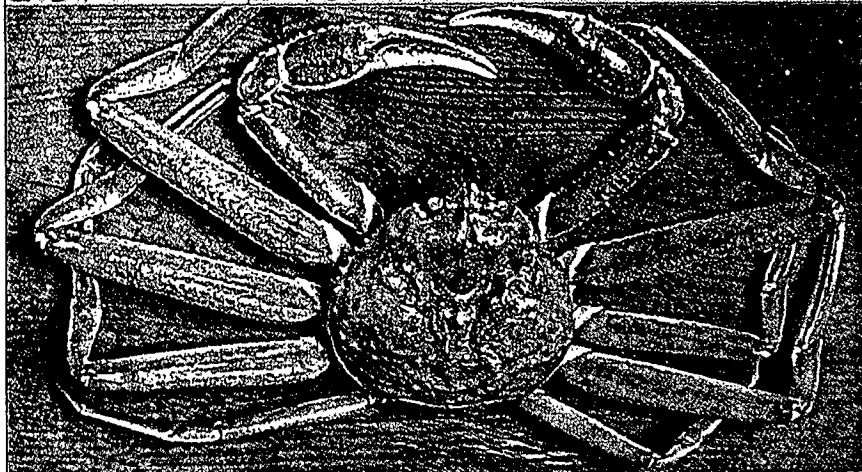
<p>■ 분류기호: C-20</p>	<p>■ 자원명: 지역별미</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외에는 특별한 지역음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식이 없다. ▶ 그러나 소득화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된다는데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인다. ▶ '따개비죽'은 주재료인 따개비생산이 어려워 다량으로 판매할 상품으로는 개발이 어렵다고 여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미는 소득의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 따라서 따개비를 채취할 수 있는 바위 주변을 한시적으로 관광객들의 채취를 금지해 따개비를 양식한다. ▶ 따개비보다 재료면에서 풍부한 '고동'을 사용한 '고동죽' 또한 지역별미로 개발할 수 있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외에 판매하고 있는 음식은 없다. ▶ 그러나 8-9월에 생산되는 따개비를 사용해 만든 요리를 한정적으로 단골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분류기호: C-20

자원명: 지역특산물

주민인식

개발 및 관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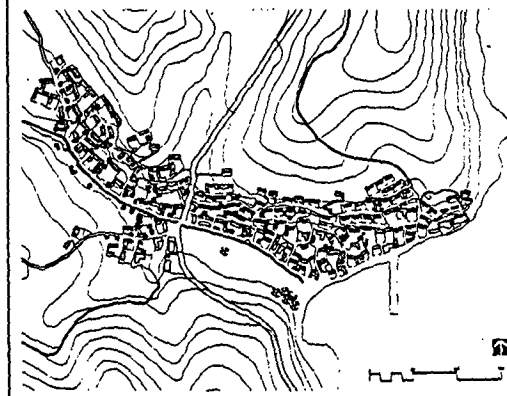
▶ 어업에서는 특산물이 없다.
▶ 그러나 어선의 톤수가 커지면 영덕지방 특산물인 영덕대게를 생산할 수 있다.
▶ 농업에서는 느타리버섯을 특산물로 재배하고 있으나, 소득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 해풍이 강해 작물이 잘 재배되지 않는다.
▶ 따라서 작물 보다는 가축을 사육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어선이 커지면 영덕대게를 특산물로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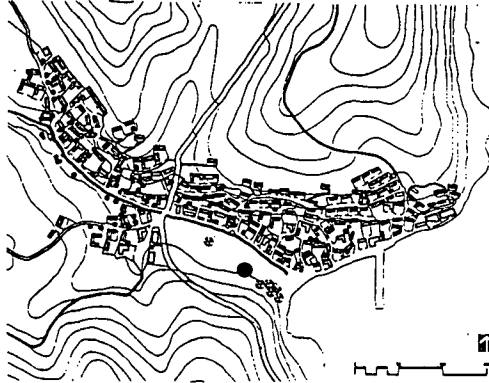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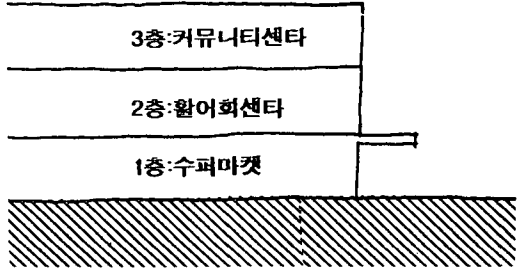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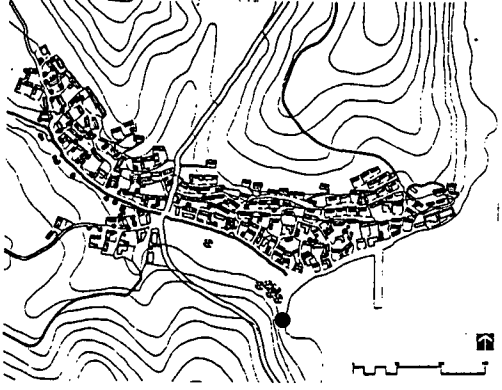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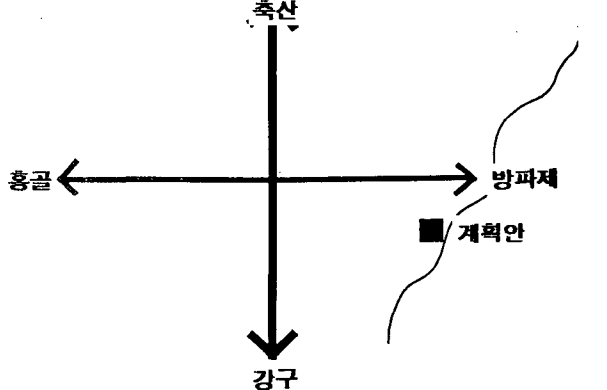
현황설명

개발개념도



▶ 느타리버섯은 전업농가가 주로 홍골 휴경지에 하우스를 설치해 재배하고 있다.

<p>■ 분류기호: D-21</p>	<p>■ 자원명: 커뮤니티 센터(Vistor centre)</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에도 어촌계사무실과 동사무소를 합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젊은층과 노인들의 마찰에 대비해 노인회관과는 분리되어야 한다. ▶ 어촌계 사무실이나, 동사무소들 중의 하나에 위치에 신축하기를 원한다. ▶ 또 신축된 건물의 1층에 활어회센타를 운영하고 2층을 사무실로 운영하고자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계사무실과 동사무소를 합쳐 주민들이 공공모임과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노물리르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비지터 센터로서의 역할도 한다. ▶ 1층에 활어회센타보다는 보다규모가작은 특산물 판매장소로 사용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어촌계사무실, 동사무소, 노인회관, 제각, 교회, 암자 등으로 문화공동공간이 나누어져 있다. ▶ 이 중 어촌계사무실과 동사무소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폐쇄되어 있다. ▶ 동사무소는 비교적 대지가 넓고 건평도 넓은 반면 어촌계사무실은 창고와 함께 사용하며 건평이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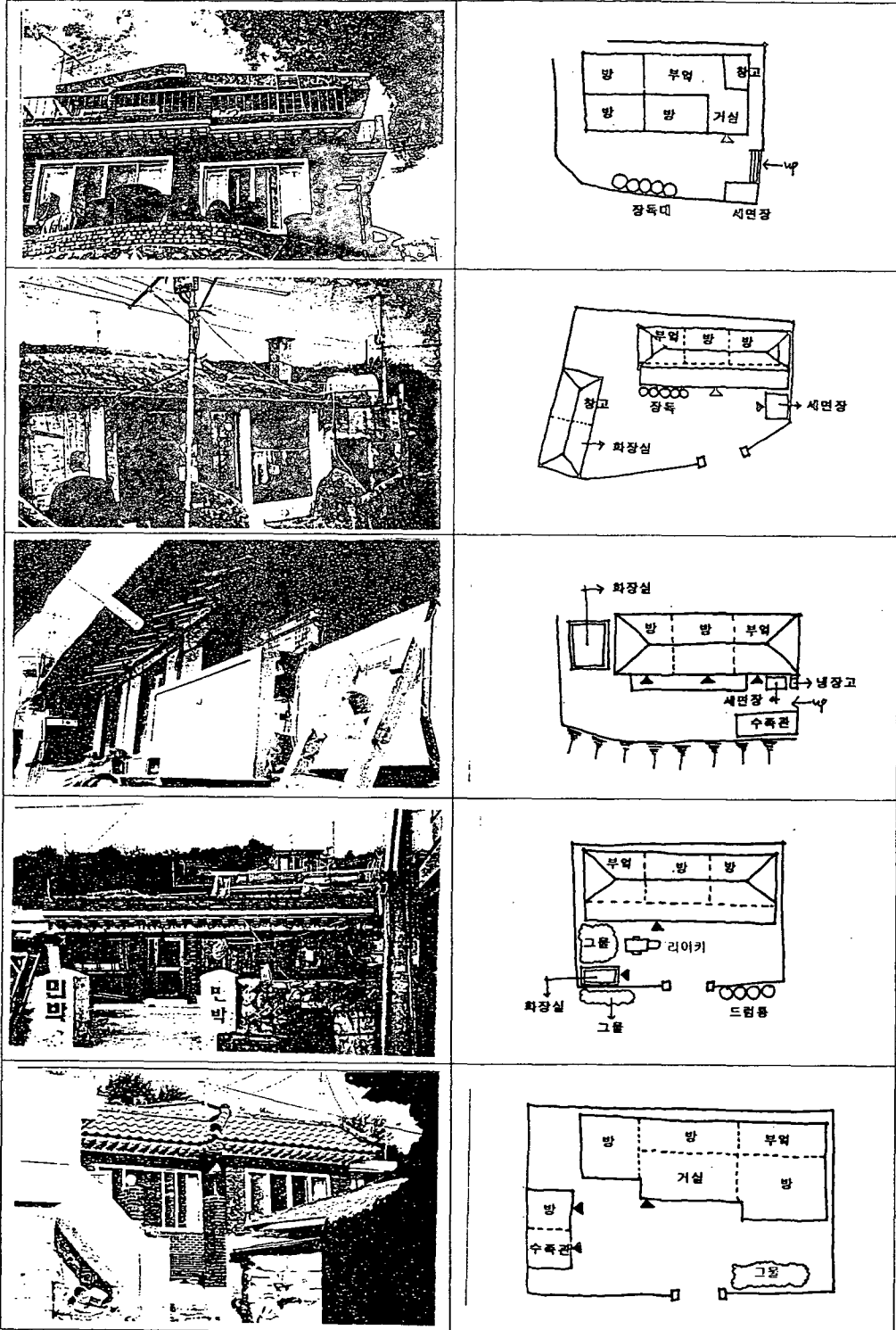
<p>■ 분류기호: D-22</p>	<p>■ 자원명: 커뮤니티 프라자(미니파크)</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p>▶ 주민행사가 개최될 공간이 필요하다.</p>	<p>▶ 주민들의 행사는 물론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장소로서 커뮤니티 프라자가 필요하다. ▶ 커뮤니티 프라자는 폐선을 이용해 호기심을 주고, 수목 식재를 통해 쾌적한 분위기로 조성한다.</p>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p>▶ 현재 존재치 않는다.</p>		

부록 4 노물리 주택 및 마을시설의 평면구성과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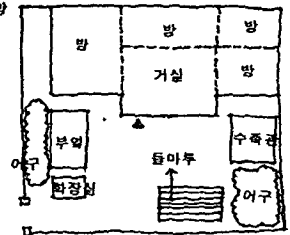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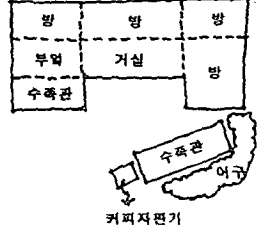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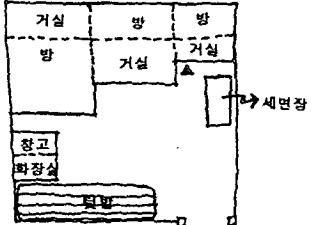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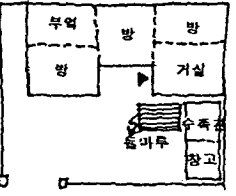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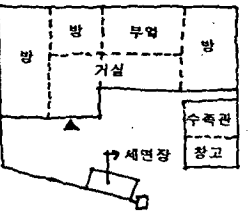
■ 주택 및 마을시설의 평면구성과 목록 ■

구 분		시설 평면구성의 특징
주택	어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칸 짜리 주택평면이 기본 ◦ 2칸은 방, 1칸은 부엌으로 이용 ◦ 마당이 좁고 몸채 위주의 주택(마당, 창고 기능 미약)
	상업 겸업 어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집, 민박을 겸한 주택 ◦ 2층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 ◦ 1층은 가족용, 2층은 손님용 방으로 구성
	농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 이용 마당, 창고 기능 발달 ◦ 구릉지의 경지에 인접 ◦ 3칸 짜리 재래식 농가 주택에 창고, 화장실 덧붙임.
마을시설	새마을회관 당집 노인회관 어촌계사무실 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중심에 위치 ◦ 里, 어촌계, 노인회 등 주민조직별 별도 공간 확보 ◦ 마을회관, 어촌계사무실은 사무실과 비품창고로 구성 ◦ 노인회관은 온돌용 방으로 노인의 좌식생활에 적합 ◦ 교회는 예배당과 목회자 숙소로 구성
공간 목록	분류기호 및 공간 명칭	H-1 마을안길, H-2 골목, H-3 폐·공가 H-4 개인 주택, H-5 공동작업장, H-6 하천 H-7 농로, H-8 하수처리, H-9 쓰레기처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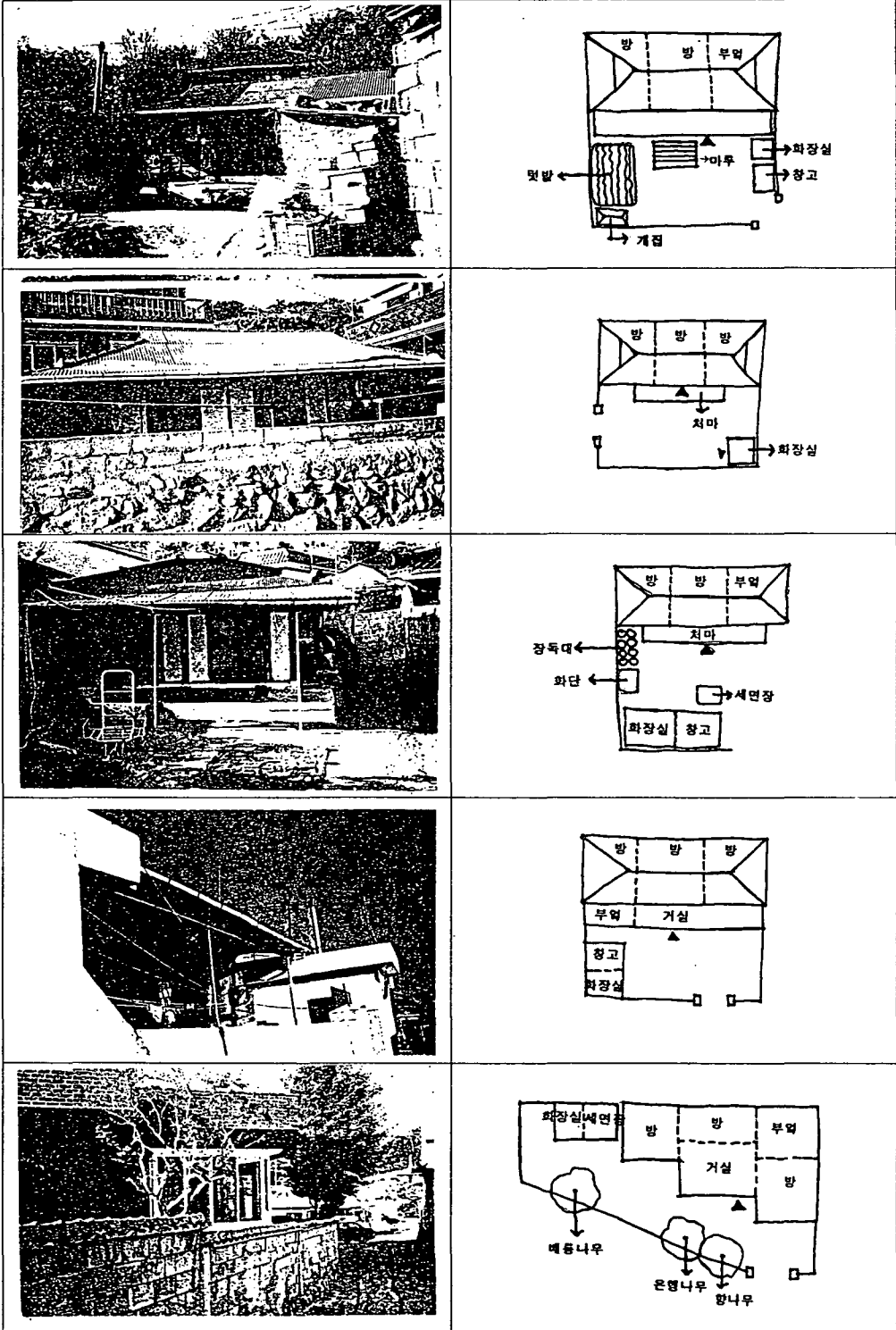
■ 어업종사가구



■ 어업+상업 종사가구

	<p>별이포집 2층조립식 방</p> 
	<p>잠수포집 2층 조립식 방</p> 
	<p>노름포집</p> 
	<p>해성포집 2층조립식 방</p> 
	<p>해너포집 2층조립식 방</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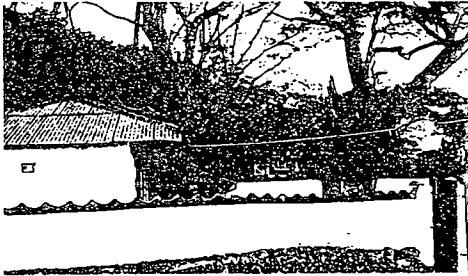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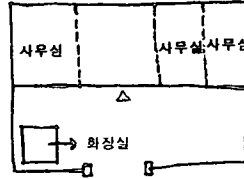
■ 농업종사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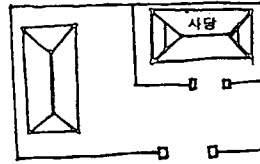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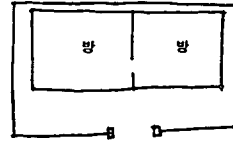
새마을 동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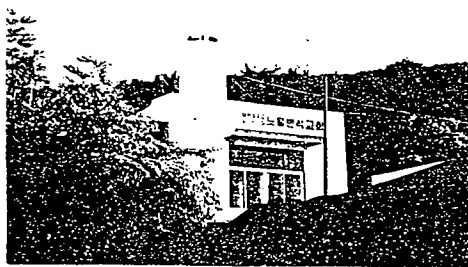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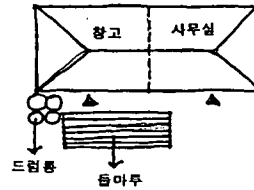
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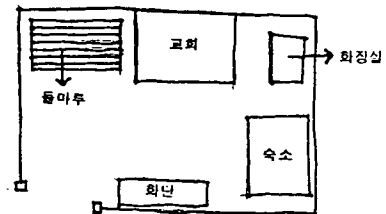
노인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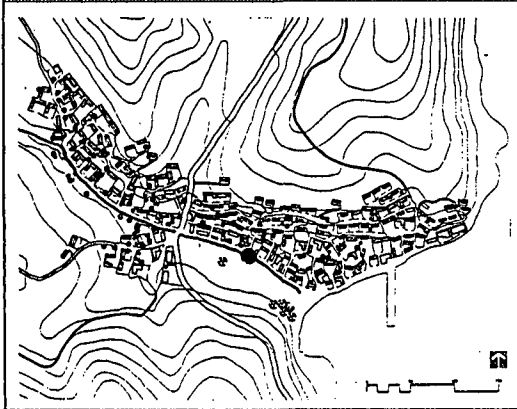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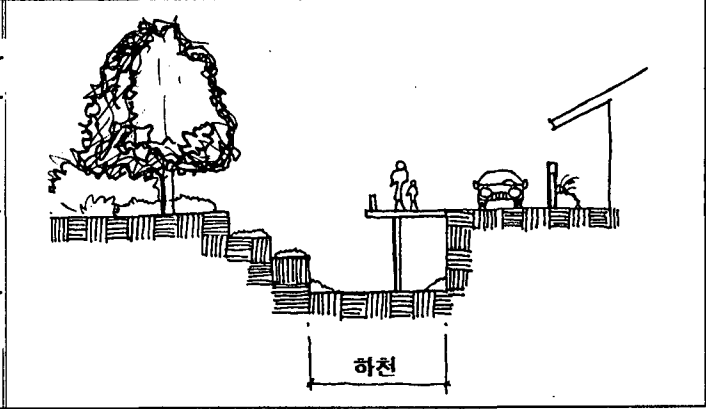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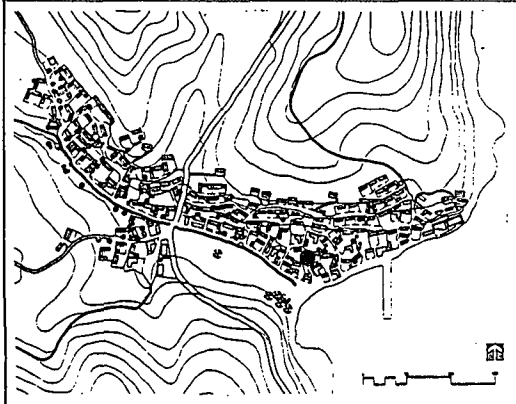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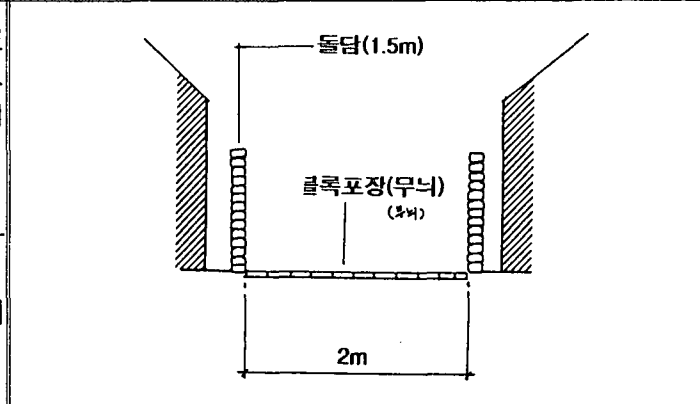
어촌계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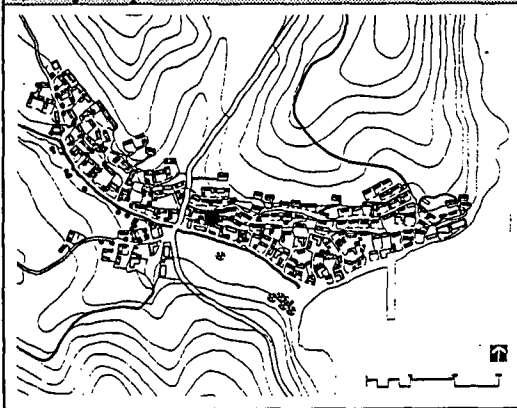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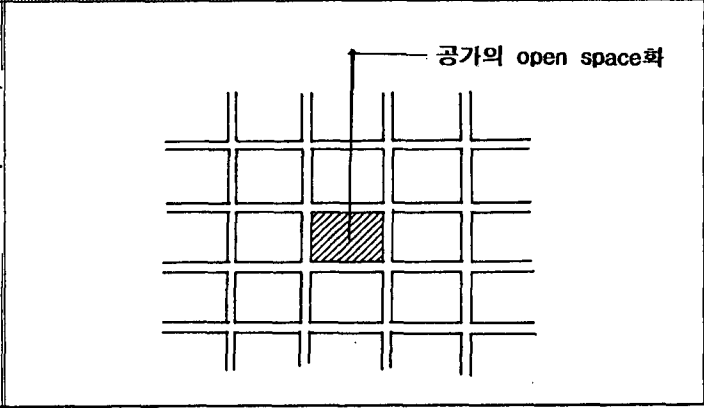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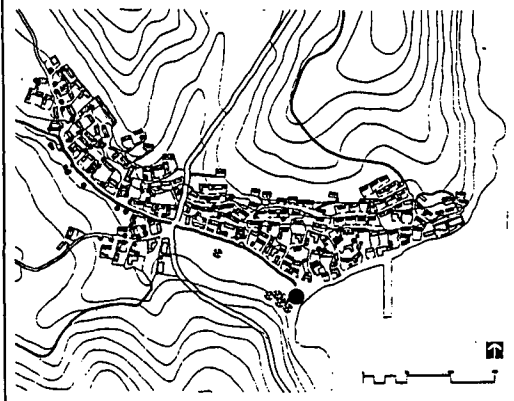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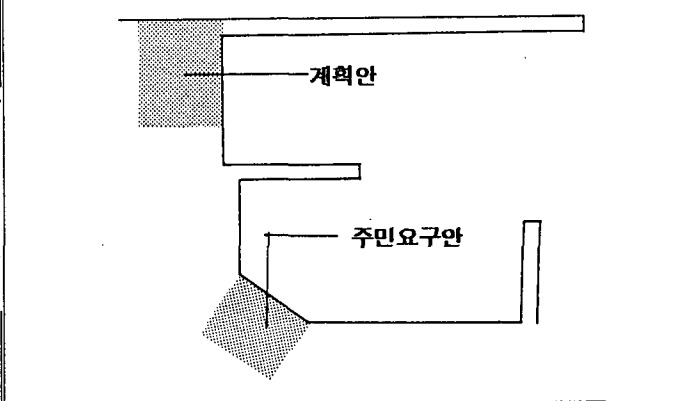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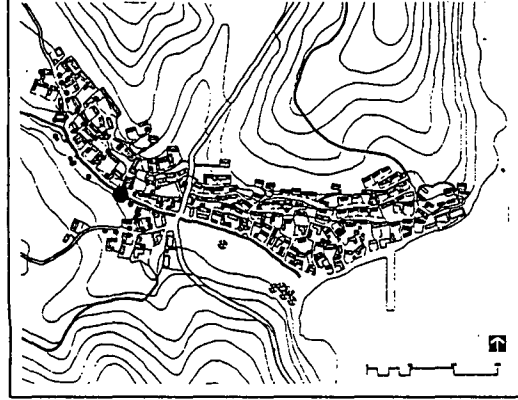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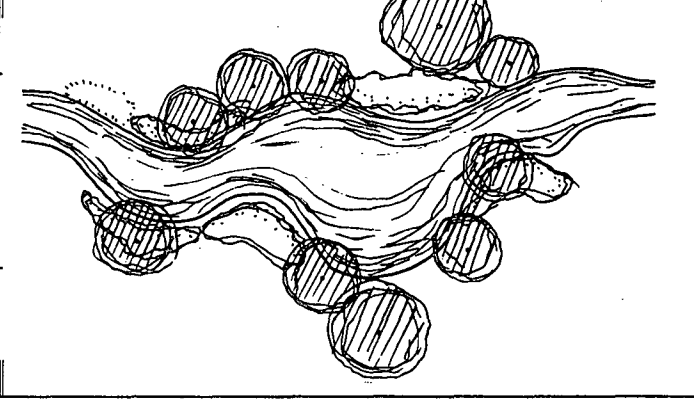
<p>□ 분류: H-1</p>	<p>□ 자원명: 마을안길</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천을 복개해 확장되어야 한다. ▶ 주민숙원사업 중의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복개는 하천생태와 어항오염의 원인이 된다. ▶ 따라서 안길확장은 단기적으로는 하천 부분복개방법을 쓰고, 장기적으로는 획지정리를 통한 골목정비방법을 사용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4m정도 폭으로 방파제와 홍골로 이를 수 있는 길 ▶ 콘크리트 거친 포장 ▶ 개별주택으로 연결되는 골목의 중심 ▶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을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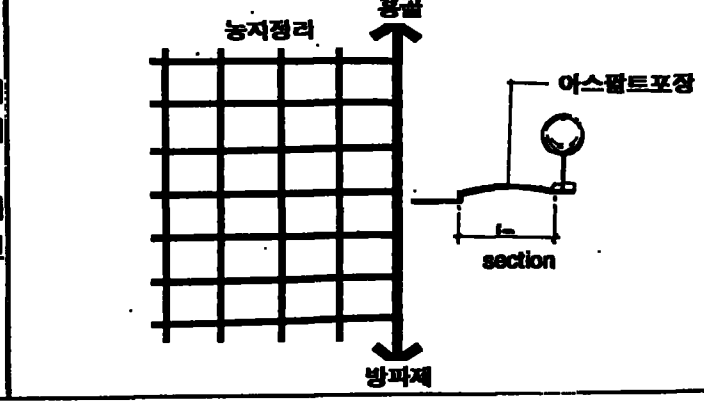
<p>□ 분류: H-2</p>	<p>□ 자원명: 골목</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에 대한 주민들의 개선의지는 거의 없다. ▶ 단지, 높은 마을뒷쪽의 거주자들은 마을앞 안길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에 반발해 뒤쪽골목을 확포장하기를 원함. ▶ 골목은 소득향상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소득향상뿐 아니라 생활환경의 질향상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일정폭(최소 2m)을 가질 수 있도록 획지 정리를 한다. ▶ 담과 벽의 재료를 달리해 골목 분위기를 변화시킨다. ▶ 포장은 소형골압블럭과 같이 무늬나 패턴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폭 1m내외)이다. ▶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으며 일정하지 않다. ▶ 고저차가 심하다. ▶ 일부분이 미포장이고 대부분이 콘크리트 포장 ▶ 낮은 담과 벽으로 이루어져 지저분한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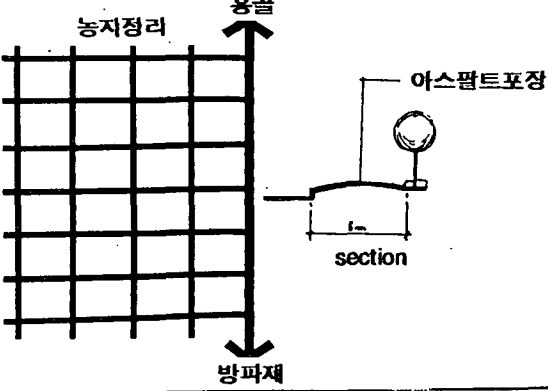
<p>□ 분류기호: H-3</p>	<p>□ 자원명: 폐·공간</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p>▶ 계속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주민들이 위생상의 문제와 주변 분위기 문제로 완전히 허물어버리기를 원한다.</p>	<p>▶ 현재 마을의 주택 상태와 공간의 상태로 보아 외지인에게 매각되어도 완전신축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폐·공간은 헐어버리고 open space화 한다. ▶ 장기적으로는 획지조정과 업종별 유도지역에 따라 주택을 신축한다.</p>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p>▶ 현재 마을내 22채의 폐·공간이 있다. ▶ 대부분이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고 벽과 담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 외지인에 의해 수리되어 사용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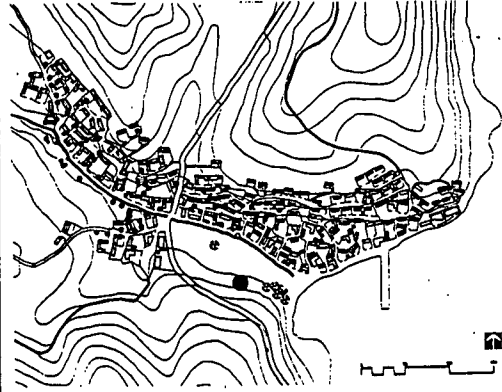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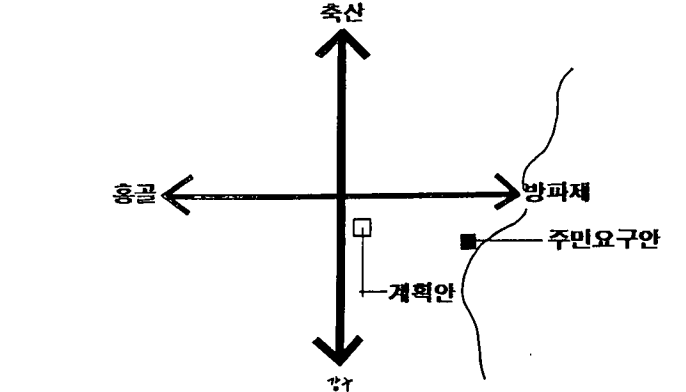
<p>□ 분류기호: H-4</p>	<p>□ 자원명: 개별주택</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은 업종별 주택의 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 ▶ 단지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로 고치기를 원한다. ▶ 대부분의 가구주들은 주택 개량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용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91~95)사이에 신축된 주택외에는 모든 주택들을 단계적으로 신축한다. ▶ 주택 신축시 부엌과 화장실,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있고 그 외에는 정부용자로 한다. ▶ 주택의 형태나 지붕색 담장재료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으로 유도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제 주변 주택들은 대부분 91~93년 사이에 신축되거나 개축되었다. ▶ 붉은 벽돌로 마감된 슬라브 형태의 단층이며 2층은 조립식 방이었다. ▶ 최근에 수리되지 않은 주택들은 70년대 새마을 사업에 개량된 상태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 		

<p>□ 분류: H-5</p>	<p>□ 자원명: 공동작업공간</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이 공동작업공간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지저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그물이나 어구손질에 사용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도 설치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활동과 적절히 분리된 곳에 공동작업공간을 조성한다. ▶ 공동작업공간은 독자적으로 조성하기 보다는 좁은 어항 주변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물량장, 주차장)로 조성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집앞 하천복개한 부분을 주차장과 공동작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 그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 건조 등에 쓰이고 풍어제나 당제가 개최되는 공간이다. 		

<p>□ 분류: H-6</p>	<p>□ 자원명: 하천</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복개를 원한다. ▶ 쓰레기 투척과 생활오수유입으로 오염된 하천이 지저분해 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스러운 하천생태모습으로 바꾸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아랫마을 하천은 데크로 부분복개를 해 보행로를 사용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골 끝에 있는 저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하천은 농번기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 우기외에는 수량이 많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다. ▶ 쓰레기 투척이 많아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 폭은 평균 3m가량이다. 		

<p>분류기호 H-7</p>	<p>차원형 농로</p>	<p>주인안식</p>	<p>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전업농가는 농로확포장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 농사를 지속적으로 짓기를 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정리와 농기계 진입이 가능하도록 농로를 확포장 한다. ▶ 농지정리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마을범위내의 경작지를 대상으로 한다. ▶ 농로확장시, 토지매입문제는 농지 소유자들이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p>Key Map</p>	<p>농경지</p>	<p>진입길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재배지까지만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며, 비포장이다. ▶ 시설재배지 이후의 농경지로는 경운기 정도만 겨우 진입할 수 있는 좁은 길이다. 		

<p>■ 분류기호 H-7</p>	<p>■ 자원명 농로</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전업농가는 농로확포장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 농사를 지속적으로 짓기를 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정리와 농기계 진입이 가능하도록 농로를 확포장 한다. ▶ 농지정리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마을범위내의 경작지를 대상으로 한다. ▶ 농로확장시 토지매입문제는 농지 소유자들이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재배지까지만 차량이 진입할 수 있으며, 비포장이 다. ▶ 시설재배지 이후의 농경지로는 경운기 정도만 겨우 진입할 수 있는 좁은 길이다. 		

<p>□ 분류기호: H-9</p>	<p>□ 자원명: 쓰레기처리장</p>	<p>□ 주민인식</p>	<p>□ 개발 및 관리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처리시설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한다. ▶ 영덕군에서 비정기적으로 쓰레기차를 운행하고 있으나 마을내 수집장소가 없어 수거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처리시설은 소각장과 수집장으로 나누어 설치한다. ▶ 소각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수집장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p>□ Key Map</p>	<p>□ 현황설명</p>	<p>□ 개발개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폐가주변이나 한적한 휴경지에 쓰레기를 모아둔다. ▶ 그러나 대체로 마을 전체에 쓰레기가 산재해 있다. ▶ 주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쓰레기들이다. 		

부록 5

현지 조사표 양식

Code NO. _____

어촌관광자원분포와 이용실태 조사표

이 조사표는 우리나라 어촌의 관광개발 가능성을 조사하여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조사표를 읽어보시고 질문에 답하신 후 동봉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표에 기재하는 사항은 어촌계장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마을(독립적으로 이장이 있는 하나의 행정리)을 대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의 집단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커서 여러개의 행정리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이 집단마을을 하나의 마을로 간주하시고 작성해 주십시오.

이 조사 결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어촌개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목적으로 만 사용될 것입니다. 어촌계장님의 협조가 향후 어촌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신데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96년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조사부락명: 도 군 읍/면 리 부락

어촌계 명 : _____어촌계

1. 이 마을에 다음과 같은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하여 주십시오.

가. 자연경관

	있습니까?	있다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습니까?			
		매우좋다	좋은편	보통	좋지않다
해수욕장 낚시터 동굴 바다갈라짐 개펄 방풍림 수목 및 화초 기암 괴석 마을부근의 산 마을 하천, 하구연 철새(뒷새)서식지					

나. 어항과 수산업

	있습니까?	있다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습니까?			
		매우좋다	좋은편	보통	좋지않다
항구 또는 포구 여객터미널 방파제 어선접안시설 활어공판장 젓갈등 가공해산물 판매장 자연 해산물 채취 어장 어선 어업 활어 양식업 굴, 조개 양식업 해조류 양식업					

다. 전통과 문화

	있습니까?	있다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습니까?			
		매우좋다	좋은편	보 통	좋지않다
전 승 놀 이 풍 어 제 동 제(당 제) 전통음악 사 칼 주요 건축물 사 적 지 전통 술 토속 음식 새로개발된 음식 기타 음식, 음료 기 타 _____ _____					

라. 공예품, 공산품, 기타 지역특산물

	있습니까?	있다면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습니까?			
		매우좋다	좋은편	보 통	좋지않다
도자기(옹기)제작 그 림(미술가)제작 어 선 제 작 조개껍질 가공 기타 특산물 _____ _____					

2. 이 마을이 지니고 있는 자연 또는 인문자원 중에서 천연기념물, 문화재(국보, 보물, 지방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사적,.. 등)로 지정된 것이 있으면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구 분	이 름	구 분	이 름
1. 천연기념물		4. 지방문화재	
2. 국보		5. 유형문화재	
3. 보물		6. 무형문화재	

3. 이 마을은 다음과 같은 공원지구 또는 관광지에 속해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 ① 국립공원() ② 도립공원() ③ 군립공원()
 ④ 국민관광지() ⑤ 지정관광지() ⑥ 관광어촌()
 ⑦ 해당없음()

4. 현재 이 마을은 관광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 ① 이미 훌륭한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다().
 ② 이제 막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
 ③ 관광지로 개발은 안되어 있지만 개발할 가치가 크다().
 ④ 관광지로 개발할 가치가 적다().

4-1 관광지로 개발할 가치가 크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4번 질문의 ③항에 답한 경우만 답해 주십시오.

- ① 도로와 교통불편 또는 오지 낙도이기 때문에 ()
 ② 군사시설 또는 점적지역이기 때문에 ()
 ③ 국공립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
 ④ 개발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⑤ 주민들의 개발의욕 부족 때문에 ()
 ⑥ 기타 개발을 제한하는 법규나 제도 때문에 ()

5. 이 마을을 관광어촌으로 개발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6. 이 마을을 관광어촌으로 개발할 경우 이 마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을과 공동으로 함께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까?

- ① 이 마을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② 인근 마을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 인근 마을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면 그 마을 이름은?

_____ 면 리 마을
_____ 면 리 마을

7. 이 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까? 중요한 순서별로 세가지만 골라 번호를 써 주십시오.

- ① 도로포장, 도로확장 등 도로개발 ()
② 노선버스, 여객선 등 교통수단 개발 ()
③ 해안정비 ()
④ 어항(포구)정비()
⑤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⑥ 민박등 숙박시설, 음식점, 주차장 등 관광객의 편의시설 정비()
⑦ 관광객에 대한 활어, 패류, 젓갈류 생산 등 수산물 공급능력 향상()

8. 이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주로 어떠한 분들입니까?

- ① 도시등 외지의 주말여행객()
② 인근도시에 살고있으면서 잠시 쉬러오는 관광객()
③ 외지로 이동하는 통과 여행객()

9.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주 목적지는?

- ① 이 마을을 주 목적지로 삼고 찾아오는 관광객이다()
② 인근 관광지를 찾았다가 들려가는 관광객이다()
(2-1) 이 경우 인근 관광지는 어디입니까()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수요 조사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업과 농어촌 발전 및 농어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은 낙후된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표는 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촌지역에 대한 관광수요를 파악하여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개발연구부
어촌지역관광개발연구팀
전화 : 02-962-7311(교환 5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귀하가 어촌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용하신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 한사람이 하루에 쓰는 경비를 계산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교통비	음식비	숙박비	기타 경비	총 계
원	원	원	원	원

6. 해안/어촌을 방문했을 때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내 용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해당없음
민 박	민박 숙소의 청결성						
	화장실의 청결성						
	샤워장 이용의 편리성						
	민박집의 음식 맛						
	음식물 가격의 적정성						
	숙박요금의 적정성						
	민박업소의 친절성						
	민박 서비스의 질						
마을주변 경관의 미관							
해변 진입의 편리성							
바다와 해안의 청정성							
주차장시설이용의 편리성							
마을내 도로의 정비 정도							
마을진입로의 정비 정도							
지역 주민의 친절성							
마을 주택의 정비성							
캠프장 이용료							
해수욕장 이용료							
낚시배 이용료							
샤워장 이용료							
식당 음식값							
어촌관광의 만족도							

7. 해안지역이나 어촌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항의 ②에 응답하신 경우에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바다가 싫어서 () ② 여행경비가 없어서 ()
- ③ 관광을 즐길 시간이 없어서 ()
- ④ 가고 싶으나 적당한 장소를 알지 못해서 ()
- ⑤ 바다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매력이 있어서 ()
- ⑥ 건강이 좋지 않아서 ()

8. 앞으로 어촌이 깨끗하고 조용한 관광지로 개발된다면 방문하시겠습니까?

- ① 하고 싶다 () ② 생각이 없다 ()

9. 위와 같은 어촌지역에서 어떠한 관광활동을 원하십니까?

- ① 해수욕 등 해양 스포츠 ()
- ② 조개나 미역 채취 등 수산물 채취나 구입 ()
- ③ 바다 낚시 ()
- ④ 해안과 섬, 어촌생활 등 자연 경관 감상 ()
- ⑤ 어가숙박, 고기잡이나 조개채취 참여 등 어촌생활체험 ()
- ⑥ 조용한 휴식 ()
- ⑦ 회 등 바다 생선 요리 즐김 ()
- ⑧ 기타 (무엇 :)

10. 이와 같은 어촌지역을 어떠한 형태의 관광여행으로 방문하시겠습니까?

- ① 정기 휴가 ② 주말 여행 ③ 당일 여행 ④ 기타 (무엇 :)

11. 위와 같은 형태의 관광여행을 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가지겠습니까?

- ① 가족 ② 친구 ③ 직장동료 ④ 혼자 ⑤ 기타 (누구 :)

12. 이러한 곳에 가신다면 찾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것이 적당합니까?

- ① 1시간 이내 () ② 2시간 이내 ()
- ③ 3시간 이내 () ④ 5시간 이내 ()
- ⑤ 장소만 좋다면 5시간 이상이라도 괜찮다 ()

13. 이와 같은 장소에 가신다면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겠습니까?

- ① 자가용 승용차 () ② 기차 ()
- ③ 버스 () ④ 비행기 () ⑤ 배 ()

14. 이와 같은 곳에 가신다면 그 시기는 어느 때로 하시겠습니까?

- ① 봄 () ② 여름 () ③ 가을 () ④ 겨울 ()
⑤ 계절과 관계없이 찾아가겠다 ()

15. 어촌지역을 방문하신다면 얼마 동안이나 머무르시겠습니까? (박 일)

16. 어촌지역을 방문하여 1박 이상 체류하신다면 숙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텐트를 갖고 가 야영을 하겠다 ()
② 민박을 하겠다 ()
③ 인근에 있는 여관을 이용하겠다 ()
④ 인근 도시에 있는 호텔이나 콘도를 이용하겠다 ()

17. 인근의 여관이나 호텔을 이용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9항의 ③과 ④에 답하신 경우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민박시설의 불편할 것 같아서 ()
② 민박집의 음식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
③ 민박 부근에 술집, 노래방 등 유흥시설이 없어 심심할 것 같아서 ()
④ 도둑 예방 등 민박집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

18.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서울 () ② 광역시 () ③ 중소도시 () ④ 농촌지역 ()

19. 귀하의 학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대학교 졸업 () ④ 대학원 졸업 이상 ()

20. 귀하의 성별과 연령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성, 여성 / _____ 세)

21. 귀 닻 가족의 연간 총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0만원 미만 () ② 1000~2000만원 () ③ 2000~3000만원 ()
④ 3000~5000만원 () ⑤ 5000만원 이상 () ⑥ 무소득 ()

22. 귀하는 어느 직종에 종사하십니까?

- ① 농림수산업 () ② 자영업 () ③ 회사의 관리직 ()
④ 회사의 노무직 () ⑤ 공공기관 종사자 ()
⑥ 대학생 () ⑦ 주부 () ⑧ 무직 ()

감사합니다.

어촌지역 관광산업 사업체 실태 조사표 (I)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 나라의 농림수산업과 농어촌 발전 및 농어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은 낙후된 어촌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표는 어촌지역의 관광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현재 관광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촌마을에 대한 관광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개발연구부
어촌지역관광개발연구팀
연락처 : (02) 962-7311(교환 565)

조사지역 : 도 군 읍(면) 리 마을
사업명 :
경영자 :
조사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이 사업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 년

2.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3. 이 사업체의 설립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법인체 : --- ① 주식회사
 --- ② 합자회사
 --- ③ 합명회사
 --- ④ 유한회사
 --- ⑤ 조합
 --- ⑥ 법인어촌계
 --- ⑦ 기타 (무엇 ;-----)

- ②비법인체: --- ① 개인사업체
 --- ② 비법인 어촌계
 --- ③ 개인간 공동합작
 --- ④ 마을 공동

(3-1) 위에서 설립형태가 비법인어촌계이거나 마을 공동인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 기술하여 주십시오.

- ① 설립목적 :
② 운영방식 :
③ 자원동원방식 및 동원내용 :
④ 이익금의 분배 및 사용처 :
⑤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

4. 이 사업체의 운영방식은?

- ① 개인직영
--- ② 어촌계 공동경영
--- ③ 개인 임대경영
--- ④ 어촌계 공동 임대경영
--- ⑤ 기타

5. 이 사업체의 주 운영시기는?

- ① 연중 상시
--- ② 봄철기
--- ③ 하절기 피서기간
--- ④ 가을철
--- ⑤ 동절기

6. 이 사업체는 영업용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6-1) 건축물이 있다면

- ① 주택과 분리된 독립된 시설물
- ② 주택의 일부

7. 이 사업체의 영업용 시설물의 설치형태 및 규모와 그 소유관계는?

(7-1) 시설물의 설치 형태

- ① 영구 건축물
- ② 임시 가건물
- ③ 조립식·이동식 건물
- ④ 좌판좌대식
- ⑤ 기타

(7-2) 사업장이외의 부대시설의 유무는?

- ① 주차장
- ② 정원
- ③ 휴게실
- ④ 옥외 좌대
- ⑤ 기타

(7-3) 시설내용과 규모는?

시설내용	규모(평,개소,척)			임대일 경우 소유자		임대조건 및 임대료
	합계	자기소유	임대	마을주민	외지인	
대지						
건물						
주영업용시설물						
주차장						
정원						
휴게실						
기타 시설물						
유어어선						
관광유람선						

* 주: 주 영업용 시설물은 숙박용 방수, 음식점 주방 및 홀의 평수, 다방, 유기장 등의 평수 등을 기입함.

8. 이 사업체의 연간 운영실태 현황은?

구분	가동 일수	이용 객수	매출 액	소득비율 (%)	종사자 유형별 종사자 수				
					계	가족원	상시고용	계절고용	일일고용
봄									
여름									
가을									
겨울									
합계									

9. 지난 1년간 고용한 고용자의 인적사항은?

구분	성명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근무시간	급여	자격증소지
상시고용								
계절고용								
일일고용								

10. 이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관광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와 그 가격은?

상품 및 서비스 종류	가 격					가격결정기준
	연중	성수기	비수기	주말	평일	

주: 관광상품의 종류를 상세히 기입할 것(예: 음식점의 경우, 설렁탕, 회덮밥, 떡볶이, 장어구이 ...)

11. 이 사업체에서는 관광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 ① 조합이나 관제기관에서 책정한 협정가격
- ② 동종업자들이 정한 협정가격
- ③ 사업자 개개인이 임의로 결정한 가격
- ④ 마을에서 책정한 가격
- ⑤ 인근 관광지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격
- ⑥ 기타 (어떻게:-----)

12. 이 사업체가 제공하는 관광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은 편이다.
- ② 좋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낮은 편이다
- ⑤ 매우 낮은 편이다

13. 이 사업체의 가격은 인근 관광지의 가격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저렴한 편이다.
- ② 저렴한 편이다
- ③ 비슷하다
- ④ 비싼 편이다
- ⑤ 매우 비싼 편이다

14. 이 사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특성은?

1) 연령별 :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이상

2) 동반자 : ---①가족원 ---②친구들 ---③ 직장동료 ---④학생단체
---⑤단체관광객 ---⑥ 기타

3) 단골고객의 비율 : ---① 10%미만
---② 10- 20%
---③ 20- 30%
---④ 30-40%
---⑤ 40- 50%
---⑥ 50% 이상

4)고객의 거주지역 :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15. 이 사업체의 투자규모와 자금조달 방법은?

(단위 : 만원)

구분	사업개시 당시	현재의 투자액
자기자본		
국가보조		
은행융자		
사채		
합계		

16.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직업과 현재의 직업은?

- 1) 시작하기 전의 직업:
- 2) 현재의 직업이나 겸업:

17.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도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1)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
- 2) 운영자금과 관련된 사항:
- 3) 사업운영방법 및 정보와 관련된 사항:
- 4) 상품개발과 관련된 사항:
- 5) 토지이용과 관련된 사항:

18. 귀하의 성별과 연령 및 학력은 ?

- 1) 성별 :
- 2) 연령:
- 3) 학력 :
- 4) 이 마을출신 여부: ---① 이 마을에서 계속 거주한 주민
---② 외지에 출타했다가 귀향한 주민
---③ 이 사업을 위해 이웃 마을에서 이주한 주민
---④ 도시에서 살다가 이 사업을 위해 이주

19. 다음은 이 마을이 관광지로의 개발로 인해 일어난 마을의 발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발전사항에 대해 동의여부는?

- | | |
|----------------|-------------------|
| ---① 마을진입로의 확장 | --- ⑧ 주민들의 단합심 향상 |
| ---② 마을진입로의 포장 | --- ⑨ 주민들의 단합심 약화 |
| ---③ 주택의 개량 | --- ⑩ 마을 인심이 좋아짐 |
| ---④ 상수도개선 | --- ⑪ 마을 인심이 나빠짐 |
| ---⑤ 하수도 개선 | --- ⑫ 마을이 잘살게 됨 |
| ---⑥ 해안정비 | --- ⑬ 환경이 오염됨 |
| ---⑦ 마을 조경의 개선 | --- ⑭ 어장이 오염됨 |

20. 다음 사항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① 자금 유치방법 :

② 시설현대화 방법 :

③ 비수기 극복방법 :

④ 손님유치를 위한 홍보방법

⑤서비스 개선방법 :

⑥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방법 :

C 96-24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찍은날 1997. 5 펴낸날 1997. 5
발행인 박 상 우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문원사(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